“따라오지 마세요!”

비명인 듯 날카롭고 선명한 한마디와 함께, ‘빠아아앙─’하는 경적소리가 사방에 울려 퍼진다. 보통 차량들보다도 묵직하고 시끄러운 그 경적소리는 덤프트럭이 내는 소리였다.

나는 도로로 뛰쳐나왔다. 으슥한 골목에서부터 뒤를 쫓아오는 수상쩍은 사람으로 인해 날듯이 달리며 도망치다가, 그 속도를 제어하지 못하고 큰길의 도로로 뛰어나와버린 것이다.

쾅!

죽음은 찰나였다. 내 얼굴과 가슴, 배, 허벅지 등에 차가운 감촉이 와 닿았다. 겨울이 가까워오는 가을날의 아스팔트가 지닌 온도였다. 널브러져있노라니 내 온몸에서 피가 새어나가는 느낌이 들어왔고, 곧 내 몸이 빠르게 식어가는 것도 느껴졌다.

주마등처럼 평범했던 나날들이 스쳐지나간다. 마지막을 장식하는 건 내 가족들의 얼굴이었다. 다정하신 부모님, 얄밉지만 나를 잘 챙겨주던 언니, 군대에 들어갔지만 휴가 나올 때마다 맛있는 거 하나씩은 사들고 집에 돌아오던 오빠.

그들의 얼굴이 밤하늘에 떠오른 보름달처럼 내 머릿속에 두둥실 떠올랐다. 곧 맞이하게 될 죽음을 한탄할 겨를조차 없었다. 서서히 눈이 감기고, 의식은 흐려져만 갔다.

그때 그 순간, 내 몸은 아스팔트보다도 차가웠다.

“으음..”

“얘, 일어나! 언제까지 퍼질러 자고 있을 생각인 거야? 오늘은 바쁜 날인 거 몰라?”

“.어?”

나를 흔들어 깨운 건 엄마도, 아빠도, 언니나 오빠도 아니었다. 물론 병원의 간호사인 건 더더욱 아니고.

간만에 전생에서의 꿈을 꿨다. 내가 죽었을 때의 꿈. 이 꿈을 꾼 날이면 하나같이 운수가 좋지 않았었는데. 갑자기 설렁탕이 떠올라, 머릿속의 김 첨지를 훌훌 떨쳐내고 책상 위에 엎어져있던 몸을 일으켰다.

“..”

그리고 옆을 돌아보았다. 거울이 눈에 들어오고, 이내 그 안에는 내 얼굴이 비춰진다. 먼 옛날 멸망해버린 어느 나라 서양인들의 피를 물려받은 검은 머리카락과 동양인들의 초록 눈동자, 오밀조밀 깜찍하게 붙어있는 이목구비. 뭔가 이상하다고? 그래, 초록 눈동자다. 호그와트에 다니는 어느 마법사나 지닐 법한 그런 선명한 초록색.

검은 머리카락에 갈색 눈동자를 지닌 평범한 대한민국의 여고생은 어디론가 가버리고 없다. 거울 속에는 동양의 매력과 서양이 매력이 후라이드와 양념처럼 반반 정도 섞인 반반하게 생긴 조그만 열여덟 살 여자애만이 존재할 뿐.

그렇다. 전생에서의 나는 교통사고로 인해 병원에 실려가는 행운조차 누려보지 못한 채 즉사하고야 말았고, 마침내는 ‘환생’씩이나 해버리고야 말았다. 그것도, 지구가 아닌 어느 터무니없는 행성의 신분제가 존재하는 나라에서 말이다.

그리고 이곳에서의 나는 얼굴은 괜찮게 타고났을지언정 천민이었다. 그것도 이미 돌아가시고 없는 내 부모님은 마구간의 말똥을 치우거나 소나 돼지를 잡는, 조선식으로 비유하자면 백정이었던 분들. 그리고 그분들의 신분은 자식인 내가 고스란히 물려받았다. 부모님 탓을 하는 걸 좋아하는 성격은 결코 아니지만, 이런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다.

이런 빌어먹을 흙수저 인생 같으니라고! 왜 인생이 업그레이드는 못 될 망정, 다운그레이드가 되어버린 거지? 내가 전생에서 죄를 그리 많이 지었던가?

“죄송해요. 준비할게요.”

“이러라고 너 여기에 꽂아준 거 아니야. 나 아니면 누가 너 같은 천민을 데려다 쓰겠니? 주제 파악 잘 하렴. 눈에 거슬리는 행동 하지 말고.”

백날 내 신세를 한탄해봤자, 돌아오는 건 역시 쓰디쓴 현실.

슬슬 가게 문을 열 시간이다. 지금 나를 갈구고 있는, 흡사 돼지가 자신의 동족인 게 분명하다고 여겨 꿀꿀거리며 다가와 인사를 건넬 수도 있을 법하게 생긴 저 여성은 내가 일하고 있는 마법 재료 상점의 주인이다. 아, 마법 상점이 뭐냐고?

황당한 소리로 들릴지 모르겠지만, 이 세계에는 ‘마법’이라는 게 존재하고, 또 마법사들이 다루는 마법 재료나 몬스터들도 다양하게 존재하는 환경이다. 뭐, 이를 테면 고블린의 이빨이라던가 나가족의 지느러미 등등. 그런 갖은 재료들로 마법사들은 약을 만들거나 마법의 재료로 쓰는데, 문제는 그런 재료들은 종류가 무수히 많고, 취급 방법도 몹시 까다롭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런 분야인 만큼 그 분야의 전문가들은 대접을 받는 법. 나는 일찌감치 이 세계에서의 노다지가 바로 이 마법 재료 사업임을 깨달았다. 이곳에서의 내 나이 8살에 한 분 남아계시던 부모님마저 잃고, 이후 나는 곧바로 마법 재료 상점에 취직했다.

전생에서의 자아와 정신연령을 잃지 않고 이 세계에서 환생한 것이 그에 큰 보탬이 되었다. 아주 갓난아기일 적부터 마법 재료 공부를 틈틈이 해놓은 덕분에, 8살이라는 나이에도 어지간한 성인들보다 이 분야에 대한 지식이 뛰어났던 것이다.

그런 나를 이곳의 사람들은 ‘천재’라고 불렀다. 뭐, 환생의 천재도 천재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인가?

“예약 손님이었죠? 오늘은 어디서 오는 거래요?”

“에스테 도시 관할의 마법 수비 부대. 지난번에 사갔던 재료가 다 떨어져서 이번에도 대량으로 사갈 건가봐.”

“아아, 네.”

“나한테 귀찮은 일 생기지 않게 똑바로 해, 너. 알겠어?”

“예, 예.”

보다시피 나는 저 돼지…를 닮은 우리 사장 아줌마께 매일 같이 구박당하는 일상을 보내고 있다. 딱히 사고를 친다거나 귀찮은 일거리를 만든 적은 없음에도, 아무래도 사장 아줌마 머릿속에는 천민은 그런 일을 벌이고도 남을 거라는 인식이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듯.

아니, 내가 얼마나 귀한 일손인데! 아무리 신분이 천하기로는 갑 오브 갑인 천민이라지만, 나는 마법 재료 분야를 거의 통달 직전까지 익힌 인물로서 어지간한 마법 상점들이라면 모두 탐을 낼만한 인재 되는 몸이신데! 이렇게 막 다뤄도 되는 거야? 엉!

…물론 그 어떤 마법 상점에서도 나를 감히 스카웃하려 들진 않았다. 너무 천재 같아서 두려움을 느꼈다던가 하는 게 아니라, 천민을 고용하면 마법 상점에 드나드는 높은 신분의 마법사들이 거부감을 느낄 수도 있다는 게 주로 그들의 논리이자 입장이었다.

이래서 신분제는 안 돼. 고작 그런 이유로 나처럼 똑 부러지는 인재를 놓치다니 말이야.

“크큭.”

사악한 미소를 흘려보았다. 하지만 천민이라 그런 건지는 몰라도, 있어 보이는 이들처럼 뒤통수에서 검은 오오라가 뿜어져 나온다거나 하는 느낌은 들지 않았다. 중2병 컨셉도 신분이 높아야 가능한 거냐? 더러운 인생.

“얘, 거기 용 비늘은 얼마나 있는지 좀 찾아봐줘. 비싼 품목이라 이번 기회에 꼭 팔아야 하는데.”

“네에.”

천민에게 ‘아니오’란 존재할 수 없다. 아르바이트 되는 입장인 나는 사장 아줌마의 말을 고분고분 따라, 용 비늘이 있는 서랍장을 슬그머니 열어보았다. 진공 마법 포장이 단단히 되어 있는 이 용 비늘로 말할 것 같으면, 자그마치 비늘 한 개가 내 몸값보다도 비싸다. 내 몸값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지만, 여하튼 무진장 비싸다.

8살 때부터 피땀 흘려 벌어온 내 자산은 작은 집 한 채를 살 정도가 되었다. 그런데 이 비늘 하나가 그런 내 전 재산보다도 비싸다. 그러니까 조심해서 다뤄야 한다는 뜻이다. 어느 부루마블 게임처럼 홀라당 파산하기 싫다면.

조심조심… 이 용 비늘 하나를 내 몸보다도 소중히.

“25개요!”

개수를 모두 헤아린 후, 사장 아줌마께 소리치듯 말씀드렸다. 귀가 잘 안 들리셔서 소리를 지르다시피 하지 않으면 알아듣질 못하시니까. 곧 알았다는 사장 아줌마의 대답이 들려왔고, 나는 다시 서랍을 닫았다.

이때까지만 해도 나는 차마 예상치 못했다. 방금 전 두 눈으로 확인했던 그 놈의 용 비늘이 내 밥줄을 송두리째 끊어놓게 될 것이라고는.

…시간이 흘러 저녁이 되었고, 예약 손님인 에스테 도시의 마법 수비 부대에 소속된 마법사들이 떼거지로 상점에 들이닥쳤다.

마법 재료 상점은 이럴 때 이익을 많이 챙겨야 한다. 전생에서의 상황으로 예를 들어보자면, 이 순간의 마법 재료 상점은 명절날의 방앗간, 졸업식 시즌의 중화반점, 월드컵이나 올림픽 결승이 열리는 날의 치킨 집과도 같은 것이다.

사장 아줌마나 나나 가릴 것 없이 바빠졌다. 족히 오십 명은 될 듯한 사람들이 우르르 상점 내에 들이닥치니, 종업원이 달랑 두 명인 상점이 미어터지는 것은 당연지사.

나는 오늘 팔아야 할 품목을 서랍장에서 꺼내어 탁자에 진열하기 시작했다. 이 세계에는 수많은 마법이 존재하는 만큼, 수많은 재료들도 존재하기 때문에 하나하나 서랍장에서 꺼내어 손님에게 보여주기란 한계가 있다. 그래서 탁자 위에 하나 둘씩 올려두기 시작하면 마법 재료들에 손님들이 관심을 보이며 다가온다.

사실 이런 효과를 노린 것도 있긴 하다. 참새가 방앗간을 그냥 지나치지 못하듯, 마법사들이라면 응당 좋은 재료에 눈이 가기 마련. 이 정도면 나, 사업의 달인 아닌가? 흐흥, 콧노래가 절로 나오는구만. 매출이 높으면 사장 아줌마가 종종 보너스를 주기도 하니까, 어쩌면 내 집 마련의 꿈이 좀 더 빨리 이루어질지도?

“이야, 이건 뭐지?”

“가루다족 눈알 아닌가? 그 천리안 시약에 쓰이는. 여기 이름이 적혀 있군. 아, 나가족 눈알이구나. 어쩐지 비린내가 좀 나는 것 같기도 하고.”

대체 뭘 어떻게 공부하면 가루다족 눈알과 나가족 눈알을 헷갈릴 수 있는 거지? 색깔부터가 다른데. 살짝 어리버리해보이는 두 명의 마법사들이 재료들을 이리저리 만지며 구경하는 동안, 나는 묵묵히 내 할 일을 했다. 그건 바로 재료들을 꺼내어 제각기 맞는 분야별로 정리해두는 것. 원래대로라면 재료를 저리 함부로 쪼물딱거려서는 안 되지만, 이들은 괜찮다. 어차피 돈이 많은 인간들이라, 어지간한 재료는 몽땅 다 사갈 테니까.

나는 그리 안일하게 생각하고 모든 재료를 꺼내두었다. 비싼 것들도 가리지 않았다. 꺼내두어야 이들의 눈에 들어, 이들이 한아름 품에 안아 사들고 갈 게 아니겠는가? 라고 생각한 나는 정말 바보였다.

“꺄악! 이 요, 용 비늘! 대체 어떻게 된 거야!”

손님을 응대하다 말고 내가 재료를 펼쳐둔 테이블로 다가와 재료를 훑어보던 사장 아줌마가, 무언가 이상함을 발견한 듯 새된 목소리로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서랍장을 뒤적이며 재료들을 꺼내던 나도, 그 소리에 뒤를 돌아보지 않을 수 없었는데.

“너 미쳤니? 미친 게 아니고서야, 감히 이 귀한 걸!”

“…네?”

응? 뭔가 이상하다. 나는 분명 일처리에 한 치의 실수도 없었다고 확신하는데, 내 일처리를 확인한 사장 아줌마의 얼굴은 시뻘겠다. 책에서 본 붉은 오크들의 얼굴보다도. 정열맨도 울고 갈 사장 아줌마의 얼굴 상태를 멍하니 응시하다, 나는 그녀가 손에 무언가를 들고 있음을 알아차렸다.

어라? 저건.

“어!”

파, 파랗게 변한 용 비늘이잖아! 아까 전까지만 해도 선명한 붉은 색을 자랑하던 용 비늘이, 꺼낼 때만 해도 멀쩡하던 그 놈의 용 비늘이 어느 틈엔가 파랗게 변색되어 있는 모습이라니!

입이 절로 딱 벌어졌다. 분명 나는 용 비늘의 포장을 뜯은 기억 따위는 없다. 하지만 사장 아줌마가 들고 있는 용 비늘이 담긴 포장 용기는 아주 제대로 뜯어져있었다. 내가 뭘 잘못 먹고 훼까닥 돌아버린 게 아니고서야, 비싸기로 유명한 용 비늘을 저리 함부로 취급했을 리가 없잖은가. 내가 저지른 짓은 분명 아니었다.

하지만 현실은 비참했다. 용 비늘은 참혹하리만치 파랗게 멍이 들어―내 눈엔 그렇게 보였다― 쓸모가 없어짐으로 인해 머지않아 폐기될 자신의 최후를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었다. 그리고 나는 본능적으로 상상한다. 저 용 비늘이 소각장에서 소각될 때, 사장 아줌마에 의해 나도 그 안에 던져지지 않을까하는.

아, 안 돼! 전생에서처럼 이른 나이에 비명횡사하고 싶진 않다고!

“제가 안 했어요! 제가 바보도 아니고, 용 비늘 취급 주의사항을 모를 리가 없잖아요. 마법 포장을 뜯으면 안 된다는 그런 기본적인 상식 정도는…”

“그럼 누가 이랬다는 거지? 대답해! 용 비늘이 25개라고. 너, 이게 자그마치 얼마인지는 알아!”

사장 아줌마는 얼굴이 붉어지는 것을 초월해, 기어 세컨드라도 쓴 게 아닐까 싶은 얼굴이 되어있었다. 망했다. 더 이상 내가 그 어떤 말을 떠들어보아도 눈앞의 사장 아줌마에겐 변명과 핑계로만 들릴 게 뻔하다. 고무고무 바주카포를 맞고 싶은 게 아니라면, 여기서 더 따지고들어서는 안 된다.

눈앞이 차츰 노랗게 물들어 가는데, 그런 내 시야에 문득 잡히는 두 명의 마법사들이 있었다. 마법사 전용 로브를 걸친 모습의 그들은, 구석진 곳에서 나와 사장 아줌마의 실랑이를 짐짓 불안해하는 표정으로 응시해오고 있었다. 아까 내가 전시해놓은 재료들을 관심 있게 뒤적여보던 그 두 명의 마법사들이다!

나와 눈이 마주친 그들이 황급히 시선을 피한다. 그제야 나는 직감했다. 아, 저 못돼 처먹은 두 놈들이 용 비늘 포장을 함부로 뜯은 것이로구나. 마법 재료 공부를 조금만이라도 했다면 용 비늘은 반드시 진공과 전용 마법으로 포장된 상태여야만 변질되지 않는다는 걸 알 텐데, 그런 기본적인 상식조차도 없는 무식하고 무능력한 마법사들인 모양이었다. 저런 빠가가 백기청기 다 들고 항복할 만큼 멍청한 마법사들이라니. 도대체 마법 아카데미의 입학 커트라인은 얼마나 낮은 거지?

그 무능력한 이들은 지금의 상황에서조차 무능력했다. 죄 없는 천민 아르바이트생이 모가지가 날아갈 상황에 처했는데, 오히려 그들은 책임을 회피하듯 자리를 떠버리기까지. 아예 로브 자락조차 눈 씻고 찾아봐도 보이지 않았다. 그들은 도망쳐버린 것이다.

“…?”

아니, 이런 미친! 저 정도면 마법 지식과 함께 인성과 개념까지 되찾을 수 없는 어딘가에 버리고 온 수준 아니야? 카무이에 빨려들어가기라도 했나?

그들의 괘씸함에 속으로 경악하고 있자니, 그 두 마법사를 제외한 나머지 마법사들이 주위에 몰려들기 시작했다. 이미 새파랗게 변질돼버린 용 비늘을 그들도 보아서였을 것이다. 몰려든 마법사들은 사장 아줌마가 들고 있는 용 비늘을 확인하더니, 하나 같이 아깝다는 듯 탄식을 내뱉으며 이내 나를 탓했다. 칠칠치 못한 천민 소녀가 결국 사고를 쳐버리고야 말았다는 것이다.

아니, 칠칠치 못한 건 내가 아니라 그쪽들 동료인데 왜 나더러? 누가 이 귀하신 용 비늘 님을 이런 꼬라지로 만들어버렸는지 진실을 알게 되어도 무식하니 어쩌니 하는 소리가 나올까?

“진짜 제가 안 뜯었어요. 아시잖아요? 제가 이쪽 분야로는 얼마나 빠삭한지. 저는 정말 꺼내서 진열만 해놨을 뿐, 뜯지는 않았…”

“그럼 네가 아니면 누가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야, 엉!”

“제가 아니니까, 당연히 다른 누군가가”

“다른 누군가? 누구? 마법 아카데미를 졸업한, 너보다 많이 배우고 많이 아는 이 마법사분들 말이냐?”

…아. 할 말을 잃었습니다. 나를 향해 다다다 쏘아붙여오는 사장 아줌마의 말은 내게는 매우 부조리하고 황당한 발언이었지만, 주변의 마법사들에게는 매우 타당성 있게 들렸을 것이다.

그것도 그럴 게, 내가 이렇게 만든 게 아니라면 자신의 동료들 중 누군가가 이런 짓을 벌였다는 건데… 자신의 동료들 중에 이런 말도 안 되는 짓을 벌일 만한 멍청한 인물이 있을 거라고, 콧대 높은 위인들이 어디 상상이나 하시겠어?

그저 내 눈앞만 캄캄. 으아아아.

“이거 어떡할 거야? 네가 어떻게 책임질 건데!”

대체 내가 왜 책임져야 하지? 진실은 저 너머에.

나는 눈을 질끈 감았다. 여기서 백날 아니라고 부정해봐야, 나는 귀하신 마법사님들의 명예를 훼손한 죄로 감옥에 들어가 발목에 족쇄라는 커다랗고 예쁜 발찌를 차게 되거나, 모가지가 뎅겅 잘려 ‘이번엔 어떤 개떡 같은 환생이 기다릴까?’ 하는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새로운 삶을 맞이해야 하는 상황이 오게 될 것이다.

뒤집어쓰거나 오해받는 건 정말 싫다. 하지만 내 신분이 이렇듯 미천하니 어쩌랴. 높으신 분들이 사쿠라라면 사쿠라인 거고, 단풍이라면 단풍인 거지. 사쿠라네? 사쿠라여.

“몰라요.”

에라, 모르겠다.

내가 저지른 일도 아닌데 뒤집어쓰게 생겼구만, 어떻게 책임져야하는지에 대한 해답까지 내가 내야 하나? 꼭 그래야만 해? 그렇게 다 가져야만 속이 후련하겠냐?

이런 더러운 신분제 세상. 있는 놈, 가진 놈인 마법사들의 시선에서 나는 한낱 천덕꾸러기, 또는 실수투성이 천민 계집에 불과했다. 사장 아줌마의 시선에서도 늘 그랬으니까. 어차피 뿌리 깊게 틀어박힌 차별과 무시 사상은 내가 그 어떤 해명과 노력을 한들 변화시킬 수 있는 게 아니다. 이 세상은 그렇게 굴러가는 곳이었으니까.

“감옥에 보내려면 보내세요. 저는 정말 실수하지 않았어요. 그러니 저는 내다버리시고, 저보다 일 잘하는 ‘평민’ 데려다가 쓰세요.”

저 멀리 구석탱이에서 지금의 상황을 몰래 지켜보고 있는 두 쌍의 눈동자들을 부리부리한 눈빛으로 한 번 째려봐주고는, 도로 사장 아줌마를 올려다보며 싸가지 없게 말했다. 이젠 고무고무 바주카를 맞든, 도깨비 참수로 썰리든 상관없어! 나도 막 나가기로 작정했다.

아줌마의 콧김이 숨을 쉴 때마다 내 얼굴에 확 닿아오는데, 어우야. 무슨 코뿔소인 줄.

실은 눈앞의 사장 아줌마도 내심 알고는 있었을 거다. 내가 실수 한 번 하지 않았으며, 일처리 하나는 기가 막히고 빠르게 처리하는 인재 중의 인재였다는 걸.

비록 저 사장 아줌마의 손끝에 엄지와 검지로 붙들려 있는 포장지 안의 내용물이 내 실수를 증명해주는 증거품이라지만, 사장 아줌마가 모를 리 없다. 내가 용 비늘의 포장을 함부로 뜯을 만큼 어마어마한 멍청이는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하지만 아줌마는 굽히지 않았다. 단골 손님이자 매번 큰 수익을 책임지는 지금의 손님들에게 물어내라며 따지고 들 순 없으니, 만만한 내게 책임을 묻기로 작정한 듯. 더욱 목청 높여 내게 소리질러오는데.

“이 용 비늘을 구한 돈은 네가 평생 일해도 갚을 수 없는 금액이라고! 네까짓 천민 계집애를 팔아도 돌려받을 수 없는 돈이란 말이야!”

“그럼 저더러 뭘 어쩌란 말씀이세요?”

평소엔 ‘네, 네’하며 모 치킨 브랜드 이름만큼이나 고분고분한 대답만 잘하던 내가 지금만큼은 앙칼지게 대들자, 사장 아줌마는 두툼한 자신의 뒷목을 턱- 하고 짚었다. 돼지 목살 참 맛있는데. 먹어본지 18년은 된 것 같.다는 생각을 하면, 아무래도 아줌마에게 실례이려나?

하지만 내가 저지른 짓이 아니리란 걸 뻔히 알 만한 사람이 모든 상황을 내게 덮어씌우려 들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 정도 생각은 해도 되겠지. 아, 정말 돼지고기 먹고 싶다.

“무슨 짓을 해서라도 물어내! 내 이백만 베른, 물어내라고!”

“뭐, 뭐요?”

이백만 베른이라니. 참고로 천민 신분인 내가 10년 동안 피똥 싸가며 일해 번 돈이 만 베른이었다. 거기다 곱하기 이백? 미, 미친 거 아냐?

전생에서의 환율로 치자면 천 원정도가 1베른이었다. 이백만 베른이면 얼마? 그래. 20억이다. 억!

나한테 그런 큰돈이 어디 있단 말인가. 내 사정을 뻔히 알 만한 인간의 입에서 ‘이백만 베른 물어내!’라는 소리를 듣고 나니, 어이가 없어 마치 목구멍에 찹쌀떡이라도 걸린 듯 말도 나오지 않았다. 사람이 아무리 양심이 없고 인정머리도 없다지만, 이렇게까지 사람답지 않을 수가 있나? 지나가던 짐승도 눈앞의 아줌마보단 마음씨가 넓을 것 같다.

짐승보다 사람이 못하다니, 이건 좀 아니잖아. 사실 알고 보면 사장 아줌마는 진짜 돼지인 게 아닐까? 그렇지 않고서야 답이 안 나오는데. 꿀꿀.

“물어내, 당장!”

고래 고함치는 아줌마의 앞에서 우두커니 서있는데, 그런 퉁퉁한 아줌마 뒤로 키가 큰 사내 하나가 어느 틈엔가 등장했다. 마법사들 사이를 비집고 들어온 모양이었는데, 신기하게도 언제부터인지 주변에 옹기종기 모여 구경하던 마법사 무리들이 모세의 기적이라도 일어난 것마냥 양옆으로 쫙 갈라져있었다.

그 사이로 등장한 키 큰 마법사는 생겨먹은 얼굴이 마법사보다는 기사에 가까웠다. 한쪽 눈에는 어느 닌자 만화 속에 등장하는 인물처럼 기다란 흉터까지 세로로 나있는 외양이었기에, 더더욱 그런 분위기를 풍겼는데.

그는 무슨 할 말이 있는 모양이었다. 너무 커다란 인물이 뒤에 서있어서 그런가, 자신의 앞에 그림자가 졌음을 깨닫고 사장 아줌마도 ‘뭐야?’하는 눈빛으로 뒤를 홱 돌아보았다. 이내 손님임을 깨달은 듯 '무슨 볼 일이라도 있으셔요-? 홍홍' 하는 끔찍한 멘트를 날렸다. 저런 걸 듣게 만들다니… 내 귀야, 미안해.

“실례합니다.”

기사처럼 생긴 마법사 아저씨의 목소리는 묵직했다. 생긴 것만큼이나 무거운 느낌의 중저음이랄까. 주변 마법사들이 살짝 쫄아있는 걸로 봤을 때, 이 아저씨는 필시 다른 마법사들보다 높은 직위를 지닌 인물임이 분명했다. 사장 아줌마가 너무 소란스럽게 군 탓에 따끔한 한마디를 건네러 온 건가 싶었는데, 그건 아니었다.

“상황을 보아하니, 여기 있는 꼬마 아가씨가 무언가 실수를 한 것 같군요. 맞습니까?”

“아, 네. 그렇습니다만.”

어째 돌아가는 상황이 아줌마와 저 마법사 아저씨의 역할이 서로 뒤바뀐 것처럼 느껴지는 건 기분 탓인가?

아니, 그나저나 진짜 내가 한 짓 아니라고요! 이거 진짜 열 받네? 그냥 이 상점에 있는 재료들 몽땅 다 확 그냥 막 그냥! 엎어버리고 도망칠까라고 생각했지만 금세 포기했다. 그랬다간 재료만 엎어지는 게 아니라 내 인생까지도 엎어지는 수가 있다는 걸, 도합 36년을 살아온 나의 빠삭한 눈치가 일러주었다. 자중하자, 자중. 여기서 더 나대봤자 좋을 게 없어.

“어떤 실수를 한 것인지요?”

얼굴에 선명한 흉터를 지닌 마법사 아저씨는 저리 물었다. ‘갑자기 천민 계집애가 저지른 실수에 대해서는 왜 묻는 거지?’ 하는 눈빛으로 사장 아줌마가 나를 흘끔 쳐다보았다. 그렇게 제 얼굴을 쳐다보면, 답이 나오십니까?

“이 귀한 용 비늘을 잘못 취급하여 그만 다 못쓰게 만들었지 뭡니까. 이게 자그마치 이백만 베른이나 주고 구한 건데.”

내가 문제집 맨 뒷장의 답지도 아니고, 나올 리가 없지. 사장 아줌마는 결국 순순히 대답하는데, 들어보니 나만 완전 나쁜 년이다. 듣다 못한 어이가 출타를 하다못해 내게 작별인사를 고하고 저 멀리 지구까지 훌쩍 떠나버렸다.

따지고 보면, 눈앞의 기사 같은 마법사 아저씨 아래의 부하들이 저지른 짓인데! 하지만 이걸 확 사실대로 꼬바른들, 이곳에 있는 마법사들이 믿어줄 것 같진 않으니… 이럴 땐 그냥 입을 다물고 있는 게 상책이다. 천민 여자애 말을 누가 들어주겠어? 아주 잘나고 귀하신 분들이 말이야.

그런 이들이 만들어가는 지금의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건지 아직은 잘 모르겠어서, 나는 험상궂게 생긴 마법사 아저씨가 그 다음에 과연 어떤 말을 내뱉을지를 기다려본다.

“그럼, 이 소녀를 어찌하실 요량이신지요?”

마법사 아저씨의 물음은 정중했다. 일개 상점 주인인 상인 따위에게 귀족인 마법사가 건네는 말치고는 상당히. 애초에 마법사들은 대부분이 귀족이라, 상인에게 존대를 할 필요 따윈 없는데. 우리 사장 아줌마와 용 비늘을 폐기물로 만들어버린 두 놈들의 내다버린 인성과 개념을 이 아저씨가 모두 주워서 챙긴 게 틀림없다.

“예? 뭐…감옥에 보내던지, 어디 확 팔아버리던지 해야지요. 그래봤자 손해 본 금액을 도로 돌려받기란 어림도 없겠지만.”

그러니까, 그 돈 돌려받을 주소부터가 잘못됐으니 이런 어림도 없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단골은 잃기 싫고, 돈도 잃기 싫고. 이건 뭐, 먹을 것 욕심만 많은 게 아니라 돈 욕심까지 많은 인물이셨네. 사람의 얼굴을 보면 성격이 대충 파악이 된다더니, 딱 사장 아줌마를 두고 하는 얘기였구나?

어, 근데 잠깐만. 날 팔아버린다고? 어라? 그렇게 되면, 나는 더 이상 자유로운 천민이 아니라 일종의 ‘노예’가 되어버리게 되는 건데… 그, 그건 싫은데? 진짜로 싫은데?

지금이라도 아줌마께 싹싹 빌며 ‘팔아버리지만 말아주세요!’라고 빌어야 하나, 정말 진지하게 머릿속으로 한참을 고민했다. 사장 아줌마와 마법사 아저씨 사이에 모종의 거래가 오가는 동안, 그 대화에 신경 쓸 겨를조차 없이 말이다.

팔려가게 되면 어떤 주인을 만나게 될 줄 알고? 이 세상엔 이상한 귀족, 괴팍한 ‘갑’이 많아도 너무나도 많다. 사장 아줌마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나를 학대하는 주인을 만나게 될지도 모른다는 얘기다. 게다가, 나는 그 희귀하다는 멸망한 서양 나라의 핏줄이 섞인 천민인 걸. 사창가에서도 내 외모를 탐낸 마담들이 종종 러브콜을 보내왔었다. 내 나라 출신들이 어리게 생겨서 좋다나, 뭐라나.

그랬던 기억들을 새록새록 떠올려 보니, 당연스럽게 늙은 귀족의 노리개로 살아가는 내 미래가 머릿속에 생생히 그려졌다. 으악, 안 돼! 나는 잘생기고 몸매 좋은 ‘젊은’ 남자가 좋단 말이다! 천민으로 태어나서 고생만 하고 살 팔자라면, 남편이라도 멀쩡한 남자로 만나야 할 거 아냐!

노예만큼은 절대로 안 된다. 그것만큼은 진짜로 안 돼. 차라리 지금처럼 알바나 하며 먹고 사는 천민으로 사는 게 나아! 신분 상승 따윈 꿈도 꾸지 않으니까, 제발 팔려가는 것만큼은…!

“좋습니다. 그럼, 며칠 내로 하인을 보내 이백만 베른을 지불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머- 저야 좋지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부대장 님.”

…응?

먼 곳으로 잠시 요양을 떠나있던 내 정신머리는 부대장이라고 불리운 마법사 아저씨와, 사장 아줌마가 마지막으로 주고받은 대화를 들음으로써 도로 귀가했다.

내가 지금 잘못 들은 건가? 마법사 아저씨가 이백만 베른을 사장 아줌마에게 왜 줘? 혹시 내가 누명을 뒤집어 썼다는 걸, 이 부대장이라는 아저씨가 눈치를 채고 도와주러 온 거였나?

아, 그런 건가 봐. 하긴, 같은 부대에 있는 부대장 정도 되는 아저씨라면 자기 수하들 중에 용 비늘 포장을 뜯어버리는 멍청한 실수를 할 만한 녀석이 존재한다는 걸 충분히 알고 있겠지.

휴, 정말 다행이다! 험상궂게 생겼다고 생각해서 미안해요, 아저씨! 당신은 정말 핸섬 가이, 아주 멋진 남자!

…라고 생각하던 그 때였다. 그 핸섬 가이 아저씨가 내게 숙녀를 에스코트하듯 손을 내밀어왔다.

“나와 함께 가자꾸나, 소녀여.”

“…예?”

뭐, 뭐라고요?

핸섬 가이니 뭐니 했던 말, 모두 취소야! 그건 어디까지나 립 서비스 개념의 표현이었을 뿐이지, 귀족 마법사라 해도 수염자국이 선명한 중년 아저씨의 첩이 되고 싶다는 마음 따위를 품고 쓴 단어는 절대 아니었다. 총각도 아니고, 중년의 아저씨라니! 천민으로 태어나 갖은 고생을 하며 사는 만큼, 적어도 남편만큼은 같은 천민일지라도 내 또래로! 썩 괜찮은 훈남으로 갖게 해달란 말이다!

나는 속으로 울분을 토했다. 주먹으로는 가슴도 팡팡 쳐보았다. 신이 존재한다면 내게 이럴 순 없다.

하지만 현실은 냉정했으니. 나는 언제부터인가 에스테로 돌아가는 이들 마법사 무리에 합류해있었다. 그것도, 이제는 엄연한 ‘노예’로서. 노예 계약서는 만들지 않았지만, 이건 뭐 거의 팔려가는 수준이니 노예라고 보아도 무방했다.

노예와 천민의 차이가 뭔지 아는가? 그건 바로, 천민은 주인이 없고 자유로운 몸으로 온갖 개무시와 박해를 받으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고, 노예는 주인이 있고 속박된 처지로서 주인이 제공해주는 숙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어라? 노예가 더 좋은 거 아니야? 잘 된 건가.

아니지, 아니지! 이렇게 팔려가서 어떤 일을 하고 살게 될지 어떻게 알아? 게다가 자그마치 한화로 20억이나 되는 거금을 주고 나를 산 인물인데! 사실 알고 보면 엄청난 변태라서, 희귀한 서양인의 피가 섞인 내 외모가 마음에 들었다던가, 그래서 막 나를 데려가서 ‘너는 이제부터 내 첩이다!’라고 한다거나, 그렇게 나를 침실에 들여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는 등의 행동을… 아, 너무 갔나.

하지만 얼마든지 가능성은 있었다. 자그마치 이백만 베른이라는 거금으로 나를 산 인물이니까, 앞으로 겪게 될 상황들 중 가장 현실성 있는 경우란 그런 것밖에 없다. 실제로 나이 어린 천민들은 귀족들의 노리개로 살아가는 일이 허다한데, 난들 예외이랴? 귀족들에게 천민이란 부려먹거나 갖고 놀기 딱 좋은 존재로 취급받는 게 일상인데, 나라고 무슨 특별 대우를 받겠어.

“…싫다, 싫어.”

끄응. 머릿속이 터져버릴 것만 같다. 내가 본디 이렇게 진지한 생각을 오래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데, 지금은 마치 무궁화호가 철로를 벗어나 하늘로 날아간 후 우주의 안드로메다로 향하는 은하철도999가 되어버린 것과도 같은 상황인지라,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장차 나는 어떤 삶을 살게 될 것인가. 20억이나 되는 큰돈을 주고 나를 사가는 저 마법사 아저씨는 대체 무슨 의도인가. 처음 환생했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보다도 더 진지한 표정으로, 진지한 생각을 하고 있던 내게 누군가 말을 건네어왔다.

고개를 돌려보니… 응? 아니, 이 녀석들은!

“저, 아까는 미안했어.”

“!”

‘그 놈’들이다! 착한 건지 어리버리한 건지 모르겠다만, 부대장 아저씨에게 인성과 개념을 아낌없이 나누어줘버리고 나를 이 몹쓸 상황에 처하게 만든 그 용 비늘 뺑소니범들 말이다!

에스테로 돌아가는 비행선 안. 난생 처음으로 비행기도 아닌 비행선을 탔지만, 앞으로 얼마나 내 인생이 엉망진창으로 꼬여버릴지 감이 잡히지 않아 허우적거리며 홍시만을 잡고 있던 지금의 내게, 놈들은 뻔뻔하게도 두 발로 당당히 걸으며 다가왔다. 네 발로 기어서 와도 모자랄 판국에 말이다.

“우리도 언젠가는 진급을 해야 하고, 그러려면 사고를 치면 안 되는데… 이백만 베른이나 되는 큰 금액의 용 비늘을 망가뜨렸다는 사실을 윗선이 알게 되면 우리도 좀 막막해지거든. 이해해줄 수 있지?”

“.”

나는 잠시 눈앞의 두 명을 노려보았다. 지금 진심으로 하는 소리들인가? 농담이지? 지금이라도 ‘사실 농담이었어, 데헷!’하며 최대한 깜찍하게 고백한다면 나는 그냥 넘어가줄 의향이 있었다. 그 귀한 용 비늘을 망가뜨려놓고 남한테 뒤집어씌운 불한당들이라 해도, 나는 넓은 마음씨로 넘어가주려고 했단 말이다. 왜냐고? 그야, 나는 힘없고 빽없는 천민이니까.

하지만 방금의 깜찍하기는커녕 뻔뻔하기만 한 말을 듣고 나니, 이젠 나의 내면에 존재하는 참을성이란 녀석이 내게 더는 참지 말고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일러주는군. 큭…그래, 좋다. 봉인 해제!

“두 분, 마법 아카데미 다니실 때 공부 별로 안 했죠?”

“응? 공부? 갑자기 웬.”

“가루다족 눈알이랑 나가족 눈알도 헷갈리시더니. 용 비늘에 대해서는 아주 기본적인 상식이라 교육 과정 중에 당연히 포함돼있을 텐데, 뻔히 배웠을 사람들이 그걸 왜 그리 망가뜨려놓으셨대?”

빈정빈정. 대놓고 비웃으면 천민 주제에 건방지다는 소리를 듣기 십상이니, 나는 최대한 비웃음을 비웃음처럼 보이지 않게 애쓰며 그들에게 말했다. 한쪽 입꼬리만 슬그머니 올라가려는 걸, 두 쪽 다 끌어올려주기란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었다. 그것도 내 인생의 원수 같은 놈들인지라 더더욱.

“그리고 뭐요? ‘아까는 미안했어’라고요? ‘아까는’이 아니라 ‘평생’ 미안해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지금 제가 왜 이 비행선에 타고 있는데요. 18년 살아온 고향을 버리고 에스테로 떠나게 된 게 무슨 이유에서인데요. 이게 다 당신들 때문이잖아.”

천민이 감히 귀족들에게, 그것도 마법 아카데미를 나온 수비 부대 소속의 마법사에게 덤비다니. 그런 건 있을 수도 있어서도 안 되는 하극상인 데다가, 국법으로 엄벌에 처하는 중죄이기도 했다. 그러나 이미 이런 답도 안 나오는 상황에 처해버린 내가, 그 어떤 벌이 두려우랴? 중년 아저씨의 첩으로 사는 거나 감방에서 평생 썩는 거나. 그 놈이 그 놈 아닌가?

“그러게 진즉에 공부 좀 하지 그랬어요? 길바닥에 굴러다니는 나뭇잎만큼 흔한 천민 계집애보다 무식한 게 그리도 당당하세요? 무슨 자신감이래? 저한테 그런 짓을 해놓고도 말 걸 용기가 나세요?”

나는 빈정거리며 눈앞의 마법사들을 향해 있는 대로 비꼬아 말했다. 지금 이렇게 해두지 않으면, 나는 앞으로 두고두고 ‘난 왜 그 때 그 시건방진 녀석들에게 파워풀하게 쏘아붙여주지 못한 거지!’하며, 독방에서 홀로 시들어가는 첩으로서 죽을 때까지 후회할 것 같았다.

어차피 그 마법사 아저씨가 나를 사가는 이유가 첩으로 만들기 위함인 거라면, 내가 아저씨의 수하들에게 이렇게 건방지게 대든 것쯤이야 은근슬쩍 넘어가줄 수도 있다. 중년 아저씨의 비밀 와이프로 살아가는 인생은 죽어도 싫지만, 어쩔 수없이 불가항력으로 이루어지게 될 미래라면 이 더러운 세상을 향해 반항심이라도 실컷 펼쳐 보이려 했다. 그게 내게 허락된 유일한 마…이 아니지, 유일한 저항이었으므로.

그런데, 웬 걸?

“조, 좀 티 났나? 미안해. 사실 우린 마법에 별로 재능이 없어서 이쪽 진로랑은 안 맞는데, 가문이 마법사 가문인지라 선택지가 없었거든. 사실 그게 용 비늘인지도 몰랐어. 아난타족 비늘인 줄 알고 그만.”

“….”

나는 도리어 벙쪘다. 눈앞의 마법사들은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오냐오냐 떠받들어주는 사람들 주변에서 자랐을 게 분명했다. 앞서 서술했듯이, 마법사들은 대부분이 귀족으로 태어나 귀족으로 자라난 족 같은. 아니, 여하튼 그런 이들이기 때문이다. 그런 재수 없는 부류들은 보통 이런 상황이 닥쳤을 때, ‘이 천한 계집이 어디서 감히!’라는 흔하고도 진부한 대사를 외친다. 이 세계에서 환생한지 어느덧 18년, 어지간한 귀족들은 다들 그랬었단 말이다. 내 경험이 그걸 기억하고 있다.

하지만 눈앞의 두 멍청해 보이는 마법사들의 반응은 달랐다. 귀족이나 마법사 같은 있는 놈들의 입에서 진심어린 사과를 듣다니. 이번엔 아까와는 다른 의미로 어이가 없어 말이 나오지 않는다. 이걸 용서해야해, 말아야해? 왜 나를 이런 고민에 빠지게 만드는 거지? 내 인생의 원수들이.

“저기요. 이제 와서 사과한들… 저는 이미 팔려가게 생겼는데요? 제가 저지르지도 않은 실수 때문에 제 인생이 앞으로 어떻게 꼬일지 모른다고요. 책임져줄 거 아니면 괜히 사과하지 말아요. 짜증나니까.”

그렇게 정말 미안해하는 표정으로 사과해오면, 내가 너희들을 미워할 수가 없잖아? 앞으로 개고생할 미래가 훤하다면, 적어도 나를 그런 상황에 처하게 만든 누군가를 진심으로 증오하기라도 해야 버텨나갈 수 있을 게 아닌가. ‘내게 죄를 덮어씌운 그 인간들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됐어!’하면서. 너희들 마음만 편하자고 그런 것조차 못하게 하려는 거냐? 비겁하긴!

그런 생각으로 시건방지고 싸가지 없게 툭 내뱉었는데, 눈앞의 두 마법사들은 순진무구한 표정으로 ‘응?’하는 눈빛을 지어왔다. 둘 다 눈동자가 동그랗게 커진 모습. 동그랑땡인 줄.

“인생이 꼬이다니? 그럴 일은 없을 거야. 오히려 우리들, 부대장님이 너한테 관심을 보이는 걸 보고 일부러 사실대로 말하지 않았는 걸?”

엥? 이건 또 뭔 헛소리람. 설마 지금 이것들, 자신들이 저지른 죄와 책임을 회피하려고 즉석에서 시나리오라도 쓰는 건가? 부대장님이 나한테 관심을 보이는 걸 보고 사실대로 안 말했다고? 그 부대장 아저씨가 나한테 관심을 보이는 거랑, 너네가 저지른 일을 내가 뒤집어 쓴 거랑 무슨 관계가 있다고. 이거이거, 마법사 진로랑은 맞지 않는다더니… 혹시 얘네랑 잘 맞는 진로가 알고 보면 작가 쪽? 그런 건가.

게슴츠레 뜬 눈으로 ‘이건 또 무슨 개소리?’하는 표정으로 노려보자니, 두 멍청… 아니지. 이젠 좀 더 순화해서 ‘순진하다’라고 표현해줘야겠다 싶은 두 녀석들이 내게 양손을 허우적거리며 손사래까지 치더니 이내 말해왔다.

“지금 네가 무슨 오해를 하고 있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부대장님은 정말 좋은 분이셔!”

그렇게 말하면, 내 오해가 점점 더 커지는데? 이 자식들, 지금 내가 무슨 ‘오해’란 걸 하고 있는지 감을 잡고 있기나 한 건가? 감은커녕 곶감을 잡고 있는 것 같은데. 내 인상이 더 격하게 찌푸려지는 것을 확인한 두 명의 마법사들 중 한 명이 황급히 내게 이어서 말해왔다. 아, 이런 둘 다 똑같이 멍청하고 순진해 보이는 것들 같으니라고. 당황한 표정조차 똑같네.

“그리고, 이상한 이유로 널 데려가는 게 아니야!”

“그럼?”

이젠 내 입에서 당연하게 나오는 반말. 눈앞의 마법사들은 끽해봐야 내 또래들일 것 같았다. 혹시 그런 어린 나이라서 아난타족과 용 비늘을 헷갈린 건가? 라고 잠깐 생각했지만, 이내 그 생각은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얼마나 멍청하면 그 두 개를 헷갈리는 거야!’라고 머릿속을 울리는 나의 내면의 외침으로 인해 마치 인어공주처럼 물거품이 되어 사라졌다.

“이, 이상한 짓을 하려고 데려가시는 게 아니야.”

“맞아, 맞아!”

내가 반말한 건 신경도 안 쓰는군. 그래서 이 두 바보들아, 무슨 용건으로 나를 20억이나 주고 사서 데려가는 거냐고! 그거나 빨리 말하란 말이다! 아니라고만 자꾸 지껄이면 뭘 하나. 아까까지만 해도 눈앞의 녀석들이 작가 쪽에 관심이 있나 생각했었는데, 이제는 바뀌었다. 문과 쪽이라면 이렇게까지 상황의 흐름을 못 읽을 리가 없다. 이과생의 뇌인 게 틀림없어.

“그럼 왜 이백만 베른이나 주고 나를 사가는 거냐고.”

어쩔 수 없지. 내 입으로 직접 물어야겠다. 내 물음에, 두 마법사들은 잠시 어버버거렸다. 그 부대장이라는 마법사 아저씨의 의도가 이상한 방향의 무언가인 게 아니라면, 저렇게 말 못할 이유가 없지 않나? 인상을 풀지 않은 채로 눈앞의 두 명을 번갈아 노려보는데, 그런 나의 뒤통수를 이전에 들어본 적 있던 누군가의 목소리가 때리는 듯했다.

그 사람이다!

“내가 직접 설명해주지.”

빠르게 뒤를 돌아보자, 아니나 다를까 그 부대장 아저씨였다. 어쩐지 내 뒤통수를 갈기던 목소리가 상당히 묵직하더라니. 다시금 생김새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슥 훑어보았는데, 역시 이건 아니다 싶었다. 아무리 훤칠한 키에 듬직한 덩치라지만, 얼굴에 길게 흉터가 나있는 험상궂게 생긴 ‘중년 아저씨’였다. 귀족 마법사라지만 내 취향과는 거리가 멀다. 재력이 없어도 좋으니까, 일단은 평범한 또래 남자가 좋다고, 난! 2살 연하 5살 연상까지가 좋단 말이다!

나의 그런 마음 속 깊은 곳의 외침을 마법사 아저씨가 엿들은 걸까? 내게 난데없이 아저씨가 말해왔다.

“따라오거라.”

뭐! 이, 이건 설마, 이대로 데려가서 내게 몹쓸 짓을 하려는 건가! ‘분수를 모르는 못된 천민 계집에겐 이게 약이지!’하면서, 비행선 안 어느 으슥한 곳에서 이렇고 저렇고 하는 그런 나쁜 짓을…

상상했던 그런 끔찍하고 나쁜 경우 같은 건 일어나지 않았다.

“앉으렴.”

마법사 아저씨를 따라왔더니, 나는 비행선 내부의 어느 커다란 방 안으로 안내받았다. 주위를 둘러봤더니 넓은 창문으로 구름이 가득한 허공을 내려다볼 수 있는 전망 하나는 끝내주는 응접실이었다. 이렇고 저런 어떤 짓을 할 만한 장소처럼은 느껴지지 않는다. 후, 내 안의 음란마귀여 그만 물렀거라.

그런데 무슨 일로 나를 따로 부른 걸까? 나를 왜 자그마치 20억이나 주고 샀는지에 대한 답을 알려주려는 건가. 이내 그 생각이 정답임을 깨달았다.

“이백만 베른은 적은 돈이 아니지. 일개 천민인 너를 그 큰돈을 지불하면서까지 데려가는 건, 내가 모시는 어느 분을 위함이다.”

“네? 뭐라고요!”

부대의 대장씩이나 되는 아저씨가 모시는 사람이 따로 있다는 것도 놀라웠지만, 더 놀랍고 황당한 것은 ‘그분을 위해’ 나를 샀다는 대목에서였다. 아니, 그분을 위해서 왜 나를 데려가는 건데. 어디다 써먹으려고? 머리카락이 까만 서양인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던가, 뭐 그런 건가. 혹시 그래서 부대장 아저씨더러 까만 머리의 타겟이 보이면 20억을 지불하고서라도 냉큼 데려오라고 시킨 거? 진짜 그런 거야?

어떡하지? 이 생각이 사실이라면, 앞서 예상했던 대로 내 미래는 앞으로 엄청나게 우중충해질 전망이다. 종갓집 맡며느리가 담근 간장보다도 시커먼 색의, 그런 암울하고 짜디짠 미래. 컴컴한 저택의 구석진 곳에 위치한 방 안에서 시름시름 시들어가는 어느 귀족 아저씨의 첩인 나라니, 바깥의 하늘은 푸르디푸른데, 어째서 내 미래만!

차라리 젊은 나이에 비명횡사하는 게 낫지, 그런 식으로 살다 늙어죽는 건 진짜 극혐인데. 그러니까 나, 지금이라도 그 용비늘은 내가 저지른 일이 아니라고 까발려야 하는 거 아닐까? 응? 그런 거 아니야?

그래, 어쩌면 그게 좋을지도. 눈앞의 아저씨가 부리는 수하들이 저지른 거니까, 나는 아무 잘못이 없다고 털어놓으면은 개뿔!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아하, 그랬던 거였니? 착오가 있었나보구나. 원래 네가 지내던 곳으로 돌려보내주마.’ 라는 친절한 대답이 돌아올리가 없지 않겠는가. 이미 돈까지 주고받아 팔려버린 지금인데. 상점 주인 아줌마가 환불을 해줄리도 없고, 나로서는 이 아저씨가 노예 계약서를 쓰자고 내게 강요하지 않는 게 오히려 다행이라고 여겨야 할 판이었다. 아, 이런 청심환보다도 쓰디쓴 현실이 다있나.

엉엉! 자유로운 천민이었던 내가, 어쩌다 이런 신세로! 중년 아저씨의 첩이라니! 첩이라니이-!

“표정을 보아하니 무슨 이상한 예상이라도 하는 것 같다만. 그런 건 아니니 안심하거라.”

“앗. 네.”

응? 그런 게 아니야? 아, 아니면 말고.

“그분께는 아드님이 한 분 계시다. 올해로 열아홉 살이 되시지. 마법과 관련해서는 너도 아는 게 많을 것 같은데, 혹시 ‘마법 대학’이라고 들어는 봤나?”

“네? 아, 당연하죠.”

뜬금없이 저 단어가 왜 나오지? 들어는 봤다. 들어만 봤지, 나 같은 일개 천민과는 거리가 멀어도 너무 멀어, 이 행성과 우리은하에 속한 지구까지의 거리 정도는 될 것이다.

어떤 곳이냐면, 전생에서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순으로 나누어져 있지 않은가. 이곳에서는 마법 아카데미가 기본기를 갖춘 마법사와 마법 기사를 양성하는 곳이라면, 그 위에는 마법 대학이란 게 존재했다. 문제는 이게, 마법 아카데미가 지구에서의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정도 수준인 곳이라면, 마법 대학은 서울대 대학원쯤은 되는 곳이라는 점이랄까? 한마디로 마법의 초초초 천재들만 모아놓은 곳.

가뜩이나 마법 아카데미도 어지간한 마법 실력으로는 들어갈 수 없는 곳인데, 그보다 수준이 높아도 훨씬 높은 곳이라면 그런 곳에 다니는 녀석들은 사람이 아닌 게 분명하다. 아카데미만을 졸업한 뛰어난 마법사도 많은데, 그런 이들보다 더 뛰어난 마법 실력을 지닌 괴물들이라니. 직접 본 적이 없어서 그런가, 마치 상상 속의 동물처럼만 느껴지는 걸. 뭐랄까, 한강 괴물? 아, 이건 아닌가.

여하튼 현재의 나와는 단 0.001%의 접점도 없는 이들이 다니는 곳이라고 보면 될 듯한데.

“네가 모시게 될 분이, 바로 그 마법 대학에 입학하실 도련님이란다.”

바, 방금 내가 잘못 들은 거지? 그치? 귀를 판지 오래됐던가, 나? 이 세계엔 면봉이 없긴 하지만, 손수 제작한 면봉으로 나름 자주 파줬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었나? 알고 보면 내 귓속에 바퀴벌레만한 귓밥이 정상적인 의사소통을 방해하고 있다던가.

“말 그대로다. 마법 대학에 입학하는 마법사들에게는 조수가 한 명씩 필요하다는 걸, 너도 알고는 있겠지?”

“그걸 너로 정했다.”

그걸 왜 아저씨가 정하는데! 아저씨 본인이 입학하는 것도 아니고, 어느 열아홉 살짜리 남자애가 입학하는 거라면서! 게다가 왜 하필 나? 길바닥에 굴러다니는 나뭇잎보다, 아니지. 바람결에 날아다니는 먼지들보다도 이 세상에 널리고 깔린 게 나 같은 천민인데?

게다가 이상해도 너무 이상하잖아! 마법 대학에 입학하는 수준의 마법사라면, 위에서 말했듯 정말 어마무시한 마법사라는 건데. 그런 마법사의 조수로 왜 나 같은 천민 애송이를?

나도 마법 쪽으로 많이 듣고 조사한 바가 있기에 알고 있다. 마법 대학의 조수들은 대부분이 귀족이다. 자그마치 뛰어난 귀족 마법사의 조수인데, 평민이나 천민을 쓸 순 없는 거다. 그건 정말 너무나도 당연한 이치인 거.

“농담이죠? 사실은 그냥 마당이나 쓰는 평범한 노예로 데려가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답은 하나뿐이다. 지금 눈앞의 아저씨가 알고 보면 썰렁하고 재미없는 개그를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라, 그래서 내게 농담 삼아 던진 말인 거다. 그렇죠? 그렇다고 해주세요, 제발!

“아니, 진심이다. 나는 모시는 분께 임무를 하달 받았다. 그 조건에 부합하는 게 바로 너였기 때문에 데려가는 거다.”

맙소사! 이건 좀 아니잖아!

“저는 평민도 아닌, 천민인데요?”

마지막 카드였다. 설마 지금까지 들은 이 말들이 모두 진실이겠어? 진짜일 수가 없다. 마법 대학에서 기거하고 공부하는 학생은 대학을 졸업한 후, 최정예 마법기사단에 입단하거나 또는 따로 마법활동을 펼친다. 그런 이들 중에는 유명한 이들이 굉장히 많았으니, 아무 도서관이나 들어가서 아무 마법 관련 서적을 펼쳐보아도 그 저자의 이력에는 반드시 ‘마법 대학 졸업’이라는 문구가 붙어 있을 정도였다.

그런 미래의 최정예 마법기사, 혹은 대마법사가 될 인물에게 천민 조수를 붙인다고? 그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야. ‘귀족 마법사의 조수’란 천민 따위가 맡을 수 없는 직책이다. 나중에 나라를 쥐고 흔들 수 있을 만큼 대단한 마법사들을 보필하는 그런 자리인데, 천민이 맡을 수 있는 일은 당연히 아니라고. 이 세계는 보통 그런 곳이라고!

그렇게 생각했다.

“신분은 상관없다. 네가 제일 적절해보이니 데려가는 것이지. 에스테에 도착하면 너는 내 저택에서 일주일 정도 머물며 조수로서 해야 할 일을 익힌 후, 수도로 떠나게 될 거다.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해두거라.”

마법사 아저씨는 말했다. 준비나 해두라는 건 둘째 치고, 내가 제일 적절해 보인다는 건 과연 무슨 뜻에서였을까? 나는 그 마법사 아저씨의 말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묻지 않았다. 더 물어봤자 이 아저씨도 별로 아는 게 없어 보여 영양가 있는 정보를 얻어내긴 무리일 것 같았기에. 게다가 마법사 아저씨도 더는 대답해줄 것 같은 표정이 아니었다. 마치 '다음 이 시간에-' 같은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으니까.

어쨌거나 내가 앞으로 알아보아야 할 정보들은, ‘이 아저씨의 말이 사실인가’와, ‘그 열아홉 살짜리 천재 마법사는 대체 어떤 녀석이길래 천민 조수를 붙여주려는 건가’등을 포함한 사실 확인이었다.

“우와아아-!”

난생 처음으로 나고 자란 고향을 떠나, 연고지와의 관계성이라곤 1도 없는 생뚱맞은 지역인 에스테로 왔다. 그런데 그 도시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훨-씬 아름다웠으니, 내 입에서는 탄성이 절로 터져 나오지 않을 수 없었다. 이런 세상에 아름다운 도시가 있었다니, 왜 진작 여기로 이사하지 않았던 거냐, 과거의 나!

대도시라고는 들었지만, 이렇게까지 크면서도 아름다운 곳인지는 미처 몰랐는데. 그도 그럴 게, 이곳은 인터넷이나 사진 같은 게 없어서 책을 뒤져봐도 다른 지역의 실물 같은 건 알 수가 없다. 기껏해야 삽화가 전부인데, 삽화로 이런 매력을 일일이 다 담을 수야 없지 않겠는가. 그리고 사실 에스테에 대한 정보는 찾아본 적도 없다.

마을 한복판에는 커다란 강이 흐르는데, 그 강에는 나룻배들이 떠다닌다. 뱃사공들이 노래도 불러주는 것 같은데 어? 베네치아?

“예쁘지? 이 나라에서 예쁜 도시를 손꼽아보라면 반드시 이곳 에스테가 포함되곤 해. 어릴 땐 몰랐는데, 마법 기사단에 입단한 후로 여기저기를 다녀보고 나니 알겠더라. 에스테가 엄청 아름다운 곳이라는 걸.”

누구 물어본 사람? 에스테로 도착해 비행선에서 내린 후 기사단은 단체로 이동 중이었는데, 그 무리에 끼어있는 내게 두 명이 다가와 집적거린다. 집적거린다는 게 이성적으로 그렇다는 건 아니고, 멍청하게 생긴 ‘그 녀석’들이 심심한지 내게 자꾸만 쓸데없이 말을 걸어온다는 거다. 아니, 나한테 그런 발칙한 짓을 해놓고도 용케 말을 붙이네? 내 인생을 송두리째 뒤바꿔버린 자식들이 말야.

괘씸하다고 생각하다가, 문득 생각했다. 알고 보면 이 녀석들은 양심이나 개념이 없는 게 아니라, 아예 생각이 없는 건 아닐까? 솔직히 그 가능성이 제일 유력한 것 같다. 이 정도면 양심 없는 철면피인 게 아니라, 그냥 생각이 없는 걸 거야. 바보 중의 바보들.

“어, 그래. 예쁘네.”

“그런데 너 왜 아까부터 반말이야?”

“왜? 하면 안 돼?”

“아니, 뭐 마음대로 해.”

나한테 미안해서 그런 건지 뭔지는 몰라도, 흘끔 째려보며 쏘아붙이는 내 대답에 두 명은 동시에 깨갱하듯 입을 다문다. 니들이 그러고도 귀족 가문의 콧대 높은 마법사가 맞냐. 마법사는 마법 속성을 타고난 사람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마법사들 대부분이 콧대가 높은 편인데. 가만 보면 이 녀석들의 콧대는 그 반대인 것 같다. 마법사 캐릭터를 생성할 때, 스크롤바를 오른쪽으로 쭉 당겨야 하는데 왼쪽으로 당긴 게 아닌가 싶을 정도.

하지만 뭐, 나야 편하지. 내 인생을 꼬아버린 녀석들에게 굳이 꼬박꼬박 존댓말을 하지 않아도 되니까.

“내 이름은 찰리야. 얘 이름은 콜리. 넌 곧 있으면 수도로 떠나야겠지만, 우리도 미안한 일을 저질렀다보니 이름이라도 알아두고 싶어. 너는 이름이 뭐야?”

찰리와 초콜릿 공장이냐? 어이없는 이 덤앤더머들의 이름에 잠시 피식하듯 웃었는데, 그 웃음을 녀석들은 긍정적인 미소라고 받아들인 모양. 본인들도 헤벌쭉 미소지으며 내게 이름을 물어오는 게 아닌가.

이젠 포기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내 앞날을 마냥 이것저것 상상해보며 눈앞의 이 두 바보들을 무시하고 짜증내느니, 차라리 마음을 편히 갖자. 그리 마음먹는 편이 이 녀석들에게도, 또 나에게도 좋을 것 같으니까. 그러고 보니, 아까 그 마법사 아저씨도 내 이름을 묻지 않았었구나.

아무도 천민 계집아이의 이름은 궁금해 하지 않는다. 어쩌면 눈앞의 이 바보들처럼 순진해야만 천민인 내가 지금처럼 이름을 답해주는 상황이 일어날 수 있는 건지도 모른다. 조금은 씁쓸한 그런 생각을 하다가, 이내 대답했다.

“아샤.”

이번 생에서의 내 이름은 아샤였다.

천민과 평민을 나누는 기준은 ‘성’이 있느냐 없느냐로 갈리게 된다. 아무리 찢어지게 가난한 평민 집안일지라도, 성씨가 있다면 사람 취급은 받는다. 어딘가에 취직을 해도 평민인 이들은 천민보다는 나은 대우를 받는다는 거다. 그래서 내가 사람대우도 못 받고 일해 왔던 건가? 역시 그런 거겠지. 나 역시 ‘아샤’라는 이름 한자만 달랑 물려받았을 뿐, 족보도 성씨도 없는 천민이니까.

그런 천한 신분인 내가 어느 초 엘리트 마법사의 조수로 일하게 된다니. 마치 지구의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던 18살의 여고생이 죽은 후 이 행성에서 환생하게 된 것만큼이나 믿어지지 않는, 루피가 나선환을 쓰는 것만큼이나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하지만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을 실행하기 위해 나는 에스테에서 일주일동안 마법 대학생의 조수로서 일하는 법을 배웠다. 이 나라 최초의 ‘천민 조수’가 되기 위해.

일하는 법이라 해봤자, 그 마법사의 마법 연구에 필요한 재료들을 조달해주기 위한 재료들의 쓰임새를 익히는 거라던가, 마법사 전용 로브의 세탁 방법, 마법 도구들의 취급 방법 등. 죄다 내가 이미 알고 있는 내용들뿐이었기에 그리 흥미롭지 않은 수업들이었다. 일주일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나를 가르치던 어느 조수 출신 아줌마는 깜짝 놀라기까지 했다. ‘얘, 진짜 천민 맞아!’하는 반응으로. 그럼 성도 없는 내가 천민이지, 귀족이겠습니까?

그러고 보면, 이 세계의 사람들은 뭘 좀 모르고 있는 것 같다. 행복은 신분순이지만, 성적은 신분순이 아닌데. 아무리 신분이 높아도 찰리와 콜리처럼 어리버리하고 멍청한 녀석들도 존재할 수 있다는 거다. 그걸 이 세계의 귀족들은 잘 몰라요. 아니, 생각하려 들지 않는 건가? 귀족이 천민보다 멍청할 수도 있다는 걸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건지도. 하여튼 쓸데없이 콧대만 높다니까, 어차피 다 똑같은 인간인 것을.

참고로 나는 이미 수도에 와있었다. 그것도 수도의 정중앙, 황성 바로 옆에 위치한 마법 대학 정문 앞에 말이다. 에스테의 수비 부대 대장인 마법사 아저씨가 이곳까지 마차로 실어 보내주었다. 마부는 마치 나를 짐짝처럼 취급하며 이 앞에 내려주었는데, 그 이후로는 휑하니 사라져버리고 없었다. 이제부터는 나더러 알아서 하라는 건가 보다.

이대로 도망쳐버릴까? 잠시 고민했다. 지금의 나는 노예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므로, 천민일 뿐 노예는 아니다. 고로 여기서 도망쳐버린들 노예를 다루는 법에 따라 처벌받을 일은 없다는 뜻. 그러나 일전에 마법사 아저씨한테 넌지시 ‘만약 도망치면 어떻게 돼요?’라고 물었을 때, 마법사 아저씨가 ‘내가 에스테의 수비 부대를 총괄하는 대장임을 잊지 마라’라고 대답해주었던 기억이 두둥실 떠올랐다…포기하자.

도망치지 못할 거라면, 이곳에 들어가는 수밖에는 없다. 그런데, 뭐랄까… 마법 대학의 생김새는 이번이 첫 방문인 나의 간을 콩알만 하게 쪼그라뜨리기엔 아주 충분한 규모였으니. 황금 창살로 된 마법 대학의 정문은 하늘을 찌를 듯 높게 솟아 있었고, 옆으로의 폭도 엄청나게 길었다. 옆으로 스무 보는 걸어야 끄트머리에 닿을 듯. 이 커다랗고 높은 정문, 대체 어떻게 열리는 거냐…? 열리는 모습이 상상조차 가지 않는다. 대체 문 하나가 뭐가 이리 크단 말인가? 이만큼 커야 할 필요가 있는 건가? 마법 대학을 지은 사람, 혹시 낭비벽이 있는 건 아닌지.

게다가 정문 저 너머로는 웅장한 성처럼 생긴 마법 대학이 눈에 들어온다. 실물로 보기는 처음… 아니지, 사실 삽화로도 본 적이 없다. 저렇게 커다란 건물은 난생 처음 보는데, 고개를 옆으로 살짝만 더 돌려보면 저 멀리에 황성이 높다랗게 솟아있는 걸 볼 수 있었다. 입이 딱 벌어지고도 턱이 제자리를 못 되찾을 만큼 웅장하고 웅대한 규모의 황성. 흠, 역발상으로 마법 대학은 황성만큼은 크진 않으니 다행이라고 생각해야 하는 부분인 건가? 그래, 차라리 그렇게 생각하자. 그러는 편이 내 간 건강에 좋아.

마법 대학은 기숙 학원이라, 조수인 나도 이제부터 이곳에서 지내야 한다고 들었다. 그래서 바리바리 짐까지 싸들고 왔다. 짐이라 해봤자, 에스테에서 마법사 아저씨가 몇 벌 사준 옷이 전부다. 애초에 나는 챙겨올 짐이란 게 없었으므로, 비행선을 타고 에스테로 향할 때부터 가진 거라곤 없는 텅텅 빈손이었던 것이다. 나란 거지, 이런 거지.

그나마 지난 10년 간 피땀과 눈물까지 흘려가며 악착같이 벌어왔던 돈은 마법사 아저씨가 마법 대학 앞으로 보내두었다. 조수들은 대학에 돈을 맡겨두고서 필요할 때마다 갖다 쓰면 된다고. 대부분의 조수들이 귀족가의 영애나 영랑이기 때문에 편의를 봐주기 위해 생긴 기능이라 한다. 은행 같은 개념인 듯. 뭐, 나야 나쁠 건 없다. 괜히 큰돈을 기숙사에 두고 다니다가 잃어버리기라도 하면, 나 같은 천민이 잃어버린 돈 따위엔 아무도 신경써주지 않을 게 뻔하니까. 다시 한 번 언급하겠지만, 여긴 정말 더러운 세상이다. 신분이면 다 되는 아주 썩어빠진 세상!

“후우 -.”

하여튼 이곳은 이제 내가 뼈를 묻게 될곳까진 아니지만, 당분간은 자유롭게 밖으로 나올 수 없는 몸으로 만들어버릴 장소다. 바깥 공기를 맡을 수 있는 것도 지금이 어쩌면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니, 많이 맡아두자.

도망칠 수 있는 게 아니라면 이제는 들어가야 한다. 그런데 이번에는 다른 난관에 봉착했다. 들어가야 하는데-. 이 정문은 어떻게 여는 걸까? 어떻게 해야 열리는 것? 다가가서 손으로 정문을 슬쩍 밀어보지만, 미동도 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문지기가 있느냐? 그것도 아니었다.

뭔데, 이러면 대체 어떻게 들어가라는 건데. 여기가 마법 대학이 아닌가? 슬쩍 옆을 둘러보았더니, 정문 옆 담벼락에 붙어있는 네모난 검은색 돌 위에 고급스러운 황금색 글씨로 문패가 써져 있었다.

맞잖아? 혹시 지금이 들어갈 수 없는 시간대인 건 아닌지 곰곰이 생각해보았다. 하지만 지금은 평일 낮이다. 지금이 들어갈 수 없는 시간대인 거라면, 차라리 마법 대학이 야간 대학이라는 설이 더 그럴싸하겠다.

“저기요- 누구 없어요?”

소리 내어 불러보지만, 역시 주변엔 경비병은커녕 사람의 기척조차 느껴지지 않는데. 셀프로 열고 들어가는 건가 싶어, 옷가지가 든 가방을 내려놓고 정문을 양손으로 당겼다 밀었다를 반복해보고있자니 난데없이 어디선가 목소리가 들려왔다. 어? 인터폰?

“누구십니까?”

인터폰은 아니다. 이 세계엔 그런 과학적인 문명 따위 아직 발달하지 않았으니까. 주위를 휘휘 둘러보니, 그제야 나는 담장 위에 앉은 어느 솜털 같은 생명체를 찾을 수 있었다. 응? 새잖아?

그것도 엄청 조그맣고 하얀 뱁새!

“안녕, 깜찍한 뱁새야. 마법 대학엔 어쩐 일로?”

“제가 할 말입니다.”

뭐야, 왜 새가 말을 해! 아니지. 그건 둘째 치고, 혹시 네가 문지기인 거니? 그런 줄은 미처 몰랐네.

뱁새가 바로 대답해오는 그 말에, 나는 뒤늦게 알아차리고 ‘아-’ 하는 소리를 내며 고개를 끄덕였다. 설마하니 새가 문지기였을 줄이야. 새를 문지기로 쓸 거면, 이왕이면 좀 눈에 잘 띄는 커다란 새로 하면 안 됐던 건가? 하도 쪼끄매서 처음 방문하는 사람들은 찾기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물론 내가 그랬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들도 그럴지 아닐지 어떻게 아냐고? 모르지. 내가 어떻게 알아.

그나저나 진짜 신기하네. 동물에게 마법을 걸면 말을 할 수 있게 된다더니, 진짜였잖아? 살면서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서 그런가, 이 세계에서는 가능한 일이란 걸 알고는 있었지만 새삼 신기하다. 이거이거, 진짜 호그와트로 들어가는 기분인데.

“난 이번에 새로 오게 된 조수야. 저기, 네가 문지기 맞지?”

“그렇습니다만. 오늘 조수 한 명이 올 거라는 연락은 미리 통보받았습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시는지?”

“아샤.”

“성을 붙여 말씀해주십시오.”

“성? 성이라면 저 옆에 있잖아.”

뱁새의 물음에, 나는 옆쪽을 검지로 가리켜보였다. 그래, 바로 황성이 우뚝 솟아있는 그곳! 내 대답의 의미를 알아차리기가 무섭게 뱁새가 나를 향해 혐오스럽다는 시선을 보내왔다. 이 녀석, 사회생활에 취약한 타입이로구나.

“제대로 답하십시오.”

“성 같은 거 없어. 그런 거 안 키워.”

“‘제대로’의 뜻을 모르십니까? 유치한 농담을 해달라는 뜻이 아닙니다.”

“아니, 누가 그걸 몰라? 아샤라는 이름이 전부야. 성이 없다고. ‘없다’의 뜻을 모르십니까? 예?”

“아.”

이번에는 꽤 진지하게 대답해준 거였는데, 뱁새는 이번에도 농담인 줄 알았나 보다. 내 농담은 별로 유치하지 않았는데, 흥칫뿡. 아재 개그를 지적당한 아저씨처럼 속 좁게 삐진 내가 입을 삐쭉 내밀며 퉁명스럽게 대답하자, 뱁새는 짐짓 심각한 표정을 지었다. 왜 그런가 했더니,

“시, 실례했습니다.”

까맣고 동그란 눈동자를 슬그머니 내리깔면서, 저리 사과해오는 게 아니겠는가! 그제야 알아차렸다. 뱁새가 자신이 말실수를 했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뭐야, 생각보다 엄청 귀여운 친구잖아? 생긴 거랑 하는 짓이 똑같이 놀고 있어, 아주. 그런 귀여움, 칭찬해.

“괜찮아. 그런데, 여긴 어떻게 지나가는 거야? 나 들어가 봐야 하는데.”

“일단 신분 증명이 되어야 합니다. 혹시 추천장 같은 걸 가져오진 않으셨습니까?”

」

“아, 맞다. 추천장.”

뱁새가 묻는 말에 나는 바닥에 쪼그려 앉아 트렁크가방 안의 추천장을 꺼냈다. 그리고 뱁새를 향해 활짝 펼쳐들어 보이니, 이내 추천장에 떡하니 새겨져있는 에스테의 마법사 아저씨가 찍은 도장을 본 듯, 내게 ‘확인했습니다’라고 말해왔다. 담장이 높다 보니 거리가 꽤 멀었는데, 시력 하난 끝내주네. 쟤 혹시 가루다족 아냐? 아니면 가루다족 혼혈인 뱁새라던가. 그런 것치고는 너무 오리지널 뱁새처럼 깜찍하게만 생겼긴 하다만.

그런 쓸데없는 의심을 해보고 있으려니까, 뱁새가 내게 물어왔다.

”앞으로 어느 마법사분의 조수로 일하셔야 하는지는 아십니까?”

뱁새가 물어왔다. 응? 그러고 보니, 여태껏 내가 앞으로 누굴 보필하게 될지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다. 아니지, 있긴 있구나. 19살짜리 남자애라는 거. 그거 외에는 마법사 아저씨한테서 들은 바가 없다. 아니, 사실 물어보질 않았다. 왜 안 물어봤던 거지? 별로 안 궁금했던 건가. 사실 알고 보면 누굴 모시게 되든 별로 상관없었던 거 아냐, 나? 딩동댕, 정답입니다.

“모르는데.”

”괜찮습니다. 제가 알고 있습니다. 대학에 들어가게 되면, ‘레플리카’가문의 조수로서 왔다고 말씀드리십시오. 그럼 알아서 안내해줄 겁니다.”

“레플리카? 아, 알겠어.”

그러고 보니, 저 가문 이름 에스테에서 언뜻 들어본 적 있는 것 같기도. 아니지. 에스테가 아닌가? 그곳에서 들은 게 아니라면, 꽤 유명한 귀족가문의 이름인 게 틀림없다. 후작이나 공작 정도 되는 귀족가문의 이름은 나도 살면서 언뜻 듣게 되는 상황이 종종 있었으니까, 응? 잠깐. 뭐라고?

“문을 열어드리겠습니다.”

뱁새가 짤막하게 쪼로롱대는 듯한 목소리로 말하더니, 이내 황금 창살의 정문이 양옆으로 스르릉-거리는 소리와 함께 담벼락 안으로 들어가기 시작한다. 저렇게 열리는 거였구나, 라고 눈이 보고 느끼는 동안 머릿속에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다. 내가 엄청난 귀족가문의 영랑을 모시게 된다고?

미쳤군. 이건 현실이 아닐 거야. 틀림없어.

하지만 아무리 현실부정을 해봤자, 돌아오는 건 쓰디쓴 현실이다. 그 사실을 나는 이미 이 세계에서 환생했을 적부터 뼈저리게 느껴왔기 때문에, 곧바로 의미 없는 현실부정은 그만두기로 했다.

그래, 현실을 직시하자. 나는 ‘레플리카’라는 가문의 영랑을 앞으로 모시게 된다. 그것도 엄청나게 높은 신분의 귀족가문일지도 모르는데다가,

“으아아아.”

이런 걸 쉽게 받아들일 수 있다면, 내가 사람이냐? 컴퓨터지! ‘삐빅- 지금부터 레플리카 가문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입력 완료.’ 같은 게 가능할리가 없잖아. 이런 젠장!

어쨌거나 뱁새가 열어준 정문을 지나 마법 대학 내부로 들어오긴 들어왔다. 막상 들어와 보니, 내부의 풍경은 정말 상상했던 대로의 ‘대학교’ 같았다. 전생에서는 대학교를 가본 적이 없어서 잘은 모르겠다만, 적어도 이곳은 이번 인생에서 내가 상상해보았던 대학교의 이미지를 아주 충실하게 반영하고 있는 풍경이었다.

거기에 품에다 책을 한아름 끌어안고 지나다니는 학생들이 가장 어울리는 엑스트라였으니. 아, 그들이 엑스트라면 주인공은 나냐고? 어리석은 말씀. 당연하게도 주인공이 나인 건 아니다. 천민 노예가 주인공일 순 없지. 누구냐? 누가 주인공이냐! 셋 센다, 나와라!

하나, 둘, 셋! 은 무슨.

“어, 음… 저기.”

나오지 않는 주인공을 찾아 여기저기를 헤매어본다. 농담이고, 마법 대학의 구조를 잘 모르는지라 지나가는 학생들 중 누군가를 붙잡아 물어보려 했다. 마법 대학은 아무래도 교복을 입는 모양이로구만. 다들 같은 디자인의 로브를 걸친 마법사 복장을 하고 지나다니는데, 문제는 이것들이 같은 옷을 입어서 그런 건지는 몰라도 싸가지마저 같이 공유하는 모양이었다. 공유? 도깨비도 아닌 것들이 왜 이리 비싸게들 구는 거지.

길을 물으려 아무리 이 사람 저 사람한테 집적대보아도, 내 또래들인 녀석들 중 누구도 멈춰서주는 이가 없다. 인심 너무 야박한 거 아니야? 혹시, 나한테 투명인간 마법이라도 걸렸나? 투명망토라도 쓰고 있는 거?

뭐, 물론 다들 바빠 보이긴 했다. 전공 서적을 실물로 본 적은 없지만, 전생에서와 비교해본다면 눈앞의 또래 친구들이 끌어안고 다니는 책들이 그에 해당되는 서적인 모양. 두께가 무슨 기본이 반 뼘을 넘는다. 저 정도면 무기 아닌가? 저걸로 맞으면 뚝배기는 기본으로 깨지겠는 걸. 아, 혹시 저런 책들의 내용을 다 머릿속에 집어넣어야하기 때문에 나 같은 건 신경 쓸 겨를도 없는 거? 그래, 그런 거라면 어쩔 수 없지. 지난 생에 공부를 지극히 싫어했던 나로서 넓은 아량으로 너희를 이해해주도록 하마.

그런데 이젠 어쩐담. 대학 내부에 들어오긴 했다만, 이곳이 딱히 기숙사 같지는 않다. 오히려 공부하는 곳인 것 같다. 책을 끌어안은 엘리트님들이 복도를 지나다니고 있는데, 기숙사일 리가 없잖아. 이 건물이 아닌가보다, 라고 생각하고 몸을 돌렸다. 그리고 건물을 빠져나가 다른 곳을 찾아보려 했다.

그런데, 그 때.

쾅─!

“꺄악-!”

건물을 나가려 딱 한걸음 내딛은 순간이었다. 뒤의 2층에서 무언가 폭발음이 들려오고, 동시에 주변인들의 비명소리가 사방에 울려퍼졌다. 나는 황급히 몸을 반쯤, 고개는 뒤로 완전히 돌렸다. 1층 중앙에 위치한 커다란 계단으로 누군가가 뛰어내려오는 모습이 눈에 들어온다. 나뿐만이 아니라, 1층을 지나가던 모든 이들의 시선이 그곳으로 향한다. 뛰어내려오는 사람은 한두 명이 아니었는데, 의아한 건 한 명은 도망치고 있고, 나머지들이 그 한 명을 뒤쫓고 있는 듯한 풍경이었다는 거다.

다들 엄청나게 빠른 움직임으로 뛰어내려오고 있는데… 나는 이 건물의 정문에 우두커니 서있었기에, 다행인지 불행인지 그들의 생김새를 유심히 관찰할 수 있었다. 일단, 제일 선두로 내달려오며 쫓기고 있는 녀석은 민트빛이 감도는 은발에 안경잡이였다. 그것도, 알이 얼마나 굵은 건지 눈이 흐릿한 게 제대로 보이지도 않는 수준의 안경. 코랑 입은 예쁘게 생긴 것 같은데, 눈이 안 보여서 문제인 생김새였다.

그리고 그 뒤의 녀석들은 안경을 안 썼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평범하게 생겼다. 더 솔직하게 말하자면 못생긴 녀석도 있었다. 지극히 평범해 보이는 학생들. 문득 이곳이 ‘마법 대학’임을 떠올리고 나니, 평범하다는 단어에 뭔가 의구심이 든다. 평범하다는 단어랑 마법 대학의 초 엘리트들이 어울리기는 한가? 안 어울린다고 생각하긴 하는데, 이상하게도 눈앞의 풍경은 그런 단어가 몹시도 잘 어울리는 상황이었다. 그래, 이때까지만 해도 그랬다.

“거기 서!”

촤르륵─!

안경잡이를 쫓던 뒤의 네다섯 명쯤 되는 무리들 중 제일 중앙에 있던 놈이 무언가 마법을 쓴 듯, 손에서 마법으로 된 사슬이 튀어나온다. 우와! 저런 마법은 실제로 처음 보는지라, 나는 입을 쩍 벌리며 지금의 광경을 지켜본다. 평범한 학생들은 저런 마법 같은 거 못쓴다. 역시 난 놈들이 다르긴 다르군. 쌈박질부터 평범한 사람들이랑은 아주 급이 달라. 이를 테면 자판기 커피와 수제 핸드드립커피의 차이 정도라고 할 수 있을까.

멀뚱히 선 채 날아가는 그 쇠사슬의 끝을 응시해보니, 도망치는 한 명의 발목으로 쏜살같이 날아가 휘감아들고 있었다. 도망치던 안경잡이는 결국 그 쇠사슬 마법에 붙잡혀, 정문 방향으로 도망쳐오다 말고 그대로 엎어지고야 마는데. 그게 하필이면 내 앞으로 약 다섯 보 전진한 위치에서였다. 이렇게나 가까이?

“이 빌어먹을 자식이, 또 함부로 입을 놀려?”

“아, 아니…내가 이번엔 뭐, 뭘 잘못했다고.”

안경잡이가 엎어진 채 흘러내리는 안경을 손으로 치켜 올린다. 쫓아온 네다섯 명의 남학생들이 그 안경잡이를 사방으로 포위한다. 나는 그 모든 광경을 가까이서 지켜보고 있었다.

“너 같이 멍청한 새끼가 마법 대학에 들어온 것부터가 잘못이야. 알아들어?”

“내, 내가 들어오고 싶어서 들어온 건”

“또 말대꾸냐? 지긋지긋하다, 진짜!”

퍽! 어이쿠. 결국 넘어져있던 안경잡이는 배에 발길질을 당했다. 네다섯 명 남학생 무리들 중 리더로 추정되는 아이와 말다툼을 주고받다가, 결국 폭력 사태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현장이었으니.

굉장히 이상한 애네, 쟤도. 기럭지도 기다랗고 어깨도 적당히 있고. 딱히 비실비실한 비실이 같은 이미지도 아닌데, 하는 행동은 딱 비실이였다. 오히려 쫓아온 녀석들 중에 퉁퉁이와 비실이가 섞여 있는데, 도리어 멀쩡한 체격의 멀쩡해 보이는 안경잡이가 비실거리는 흉내를 내고 있다. 내 눈에만 그렇게 보이는 건가? 도합 36년을 살아온 내 눈은 속일 수 없는데. 저 녀석, 지금 뭔가 연기를 하고 있어.

지금 눈앞의 상황이 일본말로는 ‘이지메’, 한국말로는 ‘왕따’라고 하는 상황인 거라면, 내가 보기에 저 엎어져있는 왕따는 일부러 저러고 있는 거다. 세상에 어느 소심한 왕따가 저렇게 꼬박꼬박 말대꾸를 할 수 있겠어? 맞는 걸 두려워하는 왕따는 일진들에게 감히 덤빌 생각을 하지 못한다. 그리고 사람이라면 누구나 맞는 걸 두려워한다. 고로, 왕따는 일진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 인간이라면, 또 동물이라면 너무나도 당연한 본능이자 섭리인 거다.

그런데 지금 저 풍경은, 뭐랄까… 사자가 넘어져있고, 토끼들이 열심히 앞발로 펀치를 날리고있는 듯한 모습? 딱 그건데. 아프긴커녕 시원해하고 있는 거 아닐까, 쟤?

“그냥 나가 뒤져, 새끼야!”

“으윽.”

퍽! 퍽!

주변이 소란스러워졌다. 학생과 조수로 추정되는 유니폼을 입은 사람들까지 웅성거리며 모여들기 시작하고, 다들 엎어져 구타당하고 있는 누군가를 향해 ‘어떡해…’ 라던가, ‘아프겠다’등의 중얼거림을 보내고 있었다. 별로 안 아파 보이는데, 난. 그리고 그렇게 안타까우면 도움의 손길이라도 좀 보내주지 그래? 왜 다들 말뿐인 거지.

“저기요.”

아무도 손을 내밀어주지 않는다. 그러니 내가 한다. 뭐, 사실 저 안경잡이는 별로 도움이 필요해보이지도 않지만.

“뭐야, 넌?”

나는 안경잡이를 구타하던 무리들에게로 다가갔다. 그리고 그 리더로 추정되는 녀석의 어깨를 툭툭 치며 불렀으니.

트렁크가방을 오른손으로 든 채, 정문 앞에서 덩그러니 서있었던 내 존재를 비로소 모든 이들이 알아차리고 쳐다본다. 아까까지만 해도 복도에서 나를 쌩하니 지나치고 가버렸던 어느 마법사도 되돌아와, 나를 바라봐오고 있는 모습이라니. 크으, 보이는가? 이것이 바로 고오급 어그로다.

“적당히 해요. 대학생이라는 사람들이.”

안경잡이를 때리다말고 고개를 내게 돌려온 불량 학생들―사실 겉모습은 별로 불량해보이지 않았지만―을 향해 나는 쫄지 않고 씩씩하게 말했다. 쫄 거 뭐있어? 귀족이나 천민이나 다 똑같은 사람인데.

딱히 눈에 띄고 싶었던 건 절-대로 아니다. 하지만 사람이 사람을 때리는 건 썩 보기 좋은 광경이 아닌 걸. 설령 지금의 상황이 안경잡이가 일부러 유도한 상황이라고 해도, 나는 내가 보는 눈앞에서 누군가가 얻어맞고 있는 모습을 지켜보고만 있고 싶진 않았다. 이런 걸 오지랖이라고 하나? 태평양이 졌다며 두 손 두 발 다 들겠군.

지금 이런 짓을 벌였다간 앞으로 두고두고 후회하게 될 내 미래가 궁예의 관심법을 쓴 것마냥 훤히 보이는 것 같지만, 어쨌거나 이미 상황은 엎어진 물. 내 말에 리더인 녀석이 나와 눈동자를 제대로 마주했다. 붉은 머리카락에 붉은 눈동자를 지닌 아주 불같아 보이는 양아치―처럼 딱히 생겨먹은 건 아니지만―는 나를 향해 물어왔다.

“네가 뭔데 적당히 하라 마라야?”

그러게. 내가 뭐라고. 갑자기 급 쫄리는데, 이거? 수많은 눈동자들이 나를 지켜봐오고 있는 지금 같은 상황에서, 눈앞의 짱 세보이는 일진 무리―제일 어울리는 표현―를 건드리는 게 과연 옳은 선택인가? 이성이 아니라고 외쳐오고 있다. 하지만 망할 놈의 감성이라는 자식이 ‘안 돼! 사람을 때리는 건 나쁜 짓이야! 정의의 사도, 아샤 파이팅!’이라며 떠들고 있는 순간이었다.

“지나가던 행인이요.”

나오는대로 지껄였다. 붉은 머리에 붉은 눈동자, 사실 딱히 닮진 않았지만 전체적인 색감이 책 속에서 삽화로나 보았던 붉은 오크를 닮은 눈앞의 리더는 분노게이지가 빠르게 상승하고 있는 모양. 거칠고 높아진 억양으로 내게 소리를 질러온다.

“그럼 꺼지고 가던 길이나 마저 가!”

아, 지금 후딱 꺼질까? 고민했다. 사실 그게 제일 현명한 선택인 것 같다. 36년간 함께해온 나의 노련한 이성이 말해온다. ‘지금이야, 지금이 하늘이 주신 기회!’라고. 나는 알았다며 끄덕이고 지나가던 길을 마저 가야겠다고 생각했다.

정말 그렇게 생각했는데.

눈이 마주쳤다. 아니, 정확히는 흐릿한 안경이. 바닥에 엎어져있던 안경잡이가 나를 마치 애처로운 눈빛. 아니지. 애처롭게 느껴지는 포즈로 자빠진 채 내게 온몸으로 SOS를 보내오고 있었다. 뭐야, 미쳤어? 너 SOS따위 필요 없는 놈이잖아. 그렇잖아? 이 몸이 관심법으로 읽었거늘! 누가 감히 SOS소리를 내었는가?

“그, 그렇게는 못하겠는데요.”

이런 썩을! 내 주둥이, 완전 제멋대로잖아? 뇌의 조종을 받고 있기는 한 거냐!

“너 누구야. 이름이 뭐야? 본 적 없는 얼굴인데.”

“어, 그게.”

큰일났다. 이제는 타겟이 완전히 나로 바뀌어버렸다. 왜 그랬지? 왜 그런 거야, 1초 전의 나! 여행객의 복장을 하고서 트렁크가방을 들고 막 들어온 참이라, 눈앞의 일진 무리들은 내가 이곳에 처음 온 인물임을 짐작한 모양. 아직까지는 대학의 학생으로 들어온 건지, 다른 이유로 온 것인지 잘 모르기에 섣불리 건들지 않고 있는 모양이었다.

만약 내 정체를 알게 된다면, 이대로 나는 이 일진 녀석들에게 호되게 구타를 당하고도 남을 것 같다. 분명하다. 현재의 분위기가 그랬다. 전생에 많이 보던 웹툰에서 악역들이 종종 내뱉던 대사가 문득 떠오른다.

이 안경잡이 자식, 처맞을 거면 혼자 처맞을 것이지 왜 나를 끌어들이고 그러냔 말이다! 물론 내가 제 발로 함정에 걸어 들어온 것도 있긴 있지만!

“알아서 뭐하시게요?”

에라이, 모르겠다. 내 인생, 제대로 꼬일 대로 꼬여보자. 어차피 천민으로 태어났을 때부터 꽈배기보다 꼬인 인생이었다. 여기서 더 꼬인들 밧줄밖에 더 되겠냐. 이왕이면 내 인생을 아주 제대로 꼬아 튼튼한 밧줄 한 번 만들어보자. 지금부터 내가 마법 대학의 미친년이 되어주지!

“이게 미쳤나?”

내 속마음을 읽기라도 한 건지, 일진 무리의 리더가 내게 분노한 목소리로 내뱉어오며 손을 치켜들었다. 헉, 이건 뺨을 때리려는 동작? 빠르게 뒤로 허리를 젖혀야 하는 건가! 빨리빨리, 내 허리야 구부러져라!

“잠깐, 아처!”

앗, 허리도 뒤로 안 젖혔는데 안 맞았다. 누군가가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가 들려왔기 때문. 그 목소리가 울려퍼짐과 동시에, 나의 뺨을 후려갈기려던 이의 손도 멈칫했다. 혹시 눈앞의 이 녀석 이름이 아처인가? 양아치? 잘 어울리는데!

“뭐야, 로사.”

“이곳 학생일지도 모르잖아. 함부로 손찌검했다간 일이 복잡해져.”

아, 관중들 사이에 양아치 군의 친구가 있었던 모양. 어느 여학생이 팔짱을 낀 짐짓 거만해 보이는 포즈를 한 채 아처라는 이름의 리더에게 말해주고 있었다. 함부로 손찌검하면 안 된다고? 그럼 조심스럽게 하는 손찌검은 괜찮다는 거냐? 뭔가 쟤도 구린내가 나는 것 같은데.

“너, 이곳 학생으로 들어온 거냐?”

“아뇨.”

“그럼, 조수?”

앗, 유도심문이었나. 당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잠시 고민하다가, 나는 마지못해 ‘맞는데요’ 라고 답했다. 그리고, 이어진 양아치의 대답은 말이 아니라 행동이었다.

빠악─!

“악!”

나는 날았다. 외마디 비명을 내지르며, 허공을 날았다. 붕- 하고 떠오른 내 몸은, 멀리까지 날아가 이내 떨어져 내렸다. 그리고 마법 대학 정문 바깥의 대리석 바닥 위로 대여섯 바퀴는 나뒹굴었다.

방금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마, 맞은 것 같다. 그것도 엄청 세게. 배에 발길질을 제대로 당한 것 같은데, 어떻게 걷어찬 것인지는 몰라도 퍽! 이 아니라 빠악! 하는 소리가 났다. 저 정도 체구의 남자는 아무리 세게 찬다 해도 이렇게까지 큰 데미지를 입힐 수는 없을 텐데, 아무래도 마법을 사용해 순간적으로 다리의 힘을 강화했던 모양.

뱃속에서 무언가가 잘못됐다는 신호를 뇌에 보내오고 있다. 갈비뼈가 나갔다는 확신이 일순 들었다. 뱃속에서 뼈가 비명을 지르고 있었으니까. 몹시 당황했던지라 맞았던 순간엔 아프지 않았지만, 정문 앞에 쓰러진 순간부터 고통이 찾아왔다.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내가 즉사하지 않았더라면 아마 이런 고통을 느꼈겠지? 얼마나 아팠을까. 그 때의 내 몸, 대체 얼마나 아팠었을까.

이제는 너무 오래된 일이라, 점점 흐려지고 있는 그 때 그 순간의 기억이 떠오른다. 더불어 전생의 가족들 얼굴도 주마등인 양 떠올랐다. 사람이 힘들고 서러울 때가 되면 가족 생각이 난다더니, 나는 아직도 전생의 가족부터 떠올리는구나. 이생에서는 딱히 가족이라 이름 붙일 만한 인물이 없어서인 건지도 모른다. 이곳에서의 내 부모는 나를 거의 방치하다시피 버려두었었으니까. 문득 서러워져서, 눈물이 왈칵 차올랐다. 바닥에 옆으로 드러누워 배를 왼팔로 감싸 안은 채, 오른팔로는 얼굴을 덮었다. 우는 모습을 들키는 건 역시 최악이니까.

아프고 서럽다. 내가 왜 이런 꼴을 당하고 있는 거지? 오지랖 넓게 나선 건 맞지만, 문제가 있는 건 내가 아니라 사람을 아무렇지도 않게 구타하는 얘네들이지 않나. 나는 그걸 말리려던 것뿐인데. 내가 뭘 잘못해서, 도대체 내가 뭘 잘못해서 무시당하고 얻어맞아야 하는 거야. 너네만 귀하고 너네만 생명인 거 아닌데, 왜 나만?

“아처. 너무 세게 때린 거 아니야? 갈비뼈는 나갔겠는 걸.”

“자업자득이지. 조수 나부랭이가 누구 앞을 가로막아?”

아처와 로사라는 이름의 두 연놈들이 떠드는 소리가 들려온다. 고통과 더불어 차오르는 눈물까지도 막기 위해 입술을 꾹 앙다물었다. 짭쪼름한 피맛이 느껴지지만, 괜찮아. 나 자신에게 헌혈하는 셈 치면 된다. 그나저나 더럽게 아프네, 정말.

“그런데, 누구 조수래? 오늘 처음 들어온 것 같은데. 첫 날부터 너덜너덜해진 조수를 데리고 마법 활동을 하게 될 불쌍한 친구는 과연 누구일까.”

로사라는 여자애의 즐거워하는 목소리. 이내, 자신은 모른다는 아처의 대답도 들려온다. 그 틈에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보려 했지만, 갈비뼈가 한두 개만 나간 게 아닌 모양. 살짝만 움직여도 뱃속이 찢어질 듯 아파와, 섣불리 일어날 생각을 하지 못하고 가만히 누워있을 수밖에 없었는데.

참 웃기게도, 안경잡이가 얻어맞을 때와 마찬가지로 아무도 나를 부축해주러 뛰어오지 않는다. 하다못해 내가 도와주었던 그 안경잡이조차 멀리서 가만히 선 채 나를 지켜봐오고 있었다. 왠지 이용당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기분이 더러워지고 있어. 이 마법 대학에 다니는 연놈들은 죄다 마법 실력과 인성을 등가교환하기라도 한 건가?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쓰러진 사람을 도와주러 오는 사람이 없느냔 말이…

“교내에서의 소란을 야기하는 행위, 감점 10점.”

“교내에서의 구타 행위, 감점 20점.”

“교내에서 허락되지 않은 마법 사용, 감점 50점.”

“자, 잠깐. 80점이라니? 그건 너무하잖아! 그렇게 많이 까였다간, 다음 번 시험은 분명 F.”

“네 성적 따위, 내 알 바 아니지.”

낯선 목소리가 들려와, 나는 갈비뼈가 나간 충격으로 인해 실신 직전에 다다른 몸뚱이를 어렵사리 가누어 고개를 들었다. 2층에서 어느 무리들이 내려오며, 아처라는 일진 무리들을 향해 감점이니 어쩌니 하는 말들을 하고 있다.

마법 대학 내에서의 벌점 같은 건가 라고 생각하며, 나는 다시 고개를 툭 떨구고 눈을 감았다. 더는 한계다. 찬 대리석의 감촉이 두피에 와 닿는다. 내 눈도 점점 감겨들기 시작하는데, 뭔가 이상하다. 바닥에 닿은 내 두피로 전해져오는 그 무리들의 발소리가 내게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 온몸의 감각으로 그것을 느끼며, 나는 이어지는 그들의 대화를 가만히 들어보았다.

“다른 학생의 조수를 함부로 학대한 죄. 감점 100점. 도합 180점이다.”

“뭐! 야! 자, 잠깐! 그런 조항 따위 교칙에는 없다고! 아무리 네가 학생회장이라지만, 없는 규칙을 만들어내다니. 이런 권력 남용은 말도 안 되는 거 아니야?”

“권력 남용인지 아닌지는 상층부에서 판단해줄 거다. 그리고 내 판단이 옳다고들 하시겠지. 이미 다 정해져있는 결과에 토 달지 마라, 아처.”

“야, 농담이지? 가, 갑자기 왜 이러는 건데? 너희 가문이랑 우리 가문, 얼마나 끈끈한 사이인지 몰라? 공작 각하께서 이 일을 아시면 얼마나 슬퍼하겠냐, 응?”

“전혀. 내 아버지는 내가 잘 알아. 그리고, 너희 헌터 가문과 내 가문이 끈끈한 사이였다는 말은 살면서 처음 들어보는군.”

“루이스, 제발!”

“빨리 짐 싸고 나갈 준비나 해. 감점 150점 이상은 두 달 정학이라는 거, 너도 바보가 아니라면 알겠지.”

“야! 갑자기 왜 이러는 건데? 평소에는 주지도 않던 감점을, 갑자기 왜…!”

“내 조수니까.”

“…뭐?”

웅성거리던 주변이 순식간에 물벼락이라도 맞은 듯 고요해졌다. 동시에, 나 또한 다 죽어가던 몸뚱아리였음에도 눈꺼풀이 번쩍! 하듯 뜨였다. 그것은 기절 직전에 궁금증이란 놈이 이루어낸 기적이었다.

누군가 나를 들어올린다. 그것도 매우 조심스럽게. 다부진 팔의 감촉이 등과 허벅지 아래에 닿는 것이 느껴진다. 남자인 것 같은데… 뭐지? 누구냐, 너! 까무러치기 일보직전의 상태인지라 흐릿할 대로 흐려져버린 시야의 초점을 가운데로 끌어 모으려 애쓰며, 나는 나를 들어 올리고 있는 누군가를 확인해보기 위해 집중했다. 그러나 그 집중은 오래 가지 못했으니.

“정학 처리는 내가 알아서 해두지. 두 달 뒤에 보자, 아처.”

“헉!”

웬 뜬금없이 대머리가 등장했다. 그것도, 삶은 계란마냥 반질반질하고 빛이 나는 대머리. 그런데 그 대머리가 난데없이 내가 괴롭힌 적도 없는 누군가를 괴롭혔다며 나의 복부에 강력해도 너무 강력한 펀치 한 방을 꽂아오는 것이다. 나는 그 펀치를 배에 명중 당해 달까지 날아감과 동시에 정신이 들었다.

눈을 떠보니, 황금 테로 된 우아한 무늬가 아름답게 그려져 있는 천장이 눈에 들어왔다. 어느 방의 천장인 듯. 아, 꿈이었구나. 역시 꿈인 것이다. 그럼 그렇지. 이 세계에서 나보다 더한 약자가 어딨어? 내가 괴롭힐 수 있는 사람 따위 이번 인생에서는 존재할 수가 없다. 진심 펀치는 내가 맞을 게 아니라, 그 아처라는 놈이 맞아야 마땅하다고.

그나저나 이런 꿈까지 꾼 걸 보면, 그 날라리 자식에게 맞았던 충격이 어지간히도 크긴 컸나 보다. 그런데, 저 천장 뭔가 이상하네? 뭐가 저렇게 요란하지? 평범한 방 같지가 않은데.

“으윽.”

상체를 일으키려는데, 몸이 무진장 찌뿌둥하다. 그제야 내가 복부를 거세게 걷어차여, 갈비뼈가 한 개 이상은 족히 나갔을법한 상태였음을 떠올려냈다. 앗, 그럼 함부로 움직이면 안 되잖아? 도로 눕자.

다시 눕긴 누웠지만, 어째 내 갈비뼈가 막 맞았던 그 당시만큼 아프지는 않다. 뭔가 그 때와 비교하자면 아주 많이 아프지 않은데, 이것도 뭔가 이상하네. 혹시 누워있던 채로 오랜 시간이 지난 건가? 마치 어딘가 네모난 대화상자 안에 ‘한 달 뒤…’ 같은 게 적혀있을 것만 같다. 지, 지금 날짜가 어떻게 되지? 달력은 어디에!

고개를 양옆으로 돌리며 주변을 둘러보았다. 달력은 못 찾았고, 천장보다 더 이상한 방 내부의 풍경만이 눈에 들어온다. 동시에 괴리감도 느껴지는데. 그건 이 방이 이상해서가 아니라, ‘이런’ 방에 ‘내’가 누워있는 지금의 상황이 말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이었다. 이 방, 뭐가 이렇게 크지? 게다가 고급스러운 가구들은 왜 이렇게 많은 거고.

흠… 병실처럼 꾸며져 있긴 한데, 이 정도면 마치 식물인간이 되어 몸져누운 부잣집 마나님의 1인용 병실 같은 느낌이다. 그런데 내가 이런 곳에 왜 누워있는 거? 안 어울리게. 아, 나 스스로 이런 곳이랑 어울리지 않다고 생각해버리니 뭔가 스스로가 비참하게 느껴지는군. 하지만 사실이니 더 비참하다.

“읏샤.”

행여나 부러졌을지도 모르는 갈비뼈가 장기를 찌르기라도 할까 봐 도로 눕긴 했다만, 별로 아픈 느낌도 없는데 엄살 부리며 계속 자빠져있을 순 없으니 조심스럽게 몸을 일으켜보았다. 어찌된 영문인지는 모르겠다만, 내 몸은 날아갈 듯 가벼웠다. 꽤 오래 누워있었던 건지는 몰라도 살짝 찌뿌드드한 것만 빼자면, 아처라는 이름의 날라리에게 갓 맞았을 때에 느꼈던 온몸이 묵직하고 물에 잠긴 듯한 느낌 따위는 온데간데없었으니. 어리둥절. 뭐지, 이게 바로 자연치유능력? 나한테 없던 회복 능력이라도 생긴 건가? 아니면 애초에 갈비뼈는 부러지지 않았던 건가.

…뭐, 일단 중요한 건 이게 아니지. 마법 대학에 조수로서 오게 된지 첫날 만에 병실 신세를 지게 된 마당에, 갈비뼈가 부러졌었느냐 부러지지 않았었느냐하는 생각에나 잠겨 있는 건 사치였다. 마치 내가 이 나라 황태자와 결혼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고민하고 자빠져있는 것과 같은 이치. 에스테에서 마법사 아저씨가 마법 대학에 도착하면 바로 그 레플리카 가문의 영랑을 찾으라고 했었는데, 나는 대체 지금 여기서 뭘 하고 있단 말인가?

그러고 보니, 나를 병실에 데려다주었던 게 그 인간 같다.

일단 확실한 건, 기절하기 직전에 들었던 그 대화의 내용들이 내 머릿속에서 왜곡이 된 게 아닌 이상, 나를 안아서 이곳까지 데려다준 사람은 그 ‘루이스’라는 인물이며, 또 그 사람이 내 주인일 거란 사실이다. 정황상 틀림없어. 그럼 풀 네임이 루이스 레플리카인가? 뭐랄까, 짝퉁 같은 아니지. 고급스러운 이름이로군.

그나저나, 그와의 첫 만남에서부터 발길질에 차여 나가떨어진 채 흐물거리는 등의 쪽팔리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다니. 이런 건 정말 소설 소재로도 안 쓰일 법한 흑역사스러운 스토리가 아닌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도망쳐버릴까? 도망쳐서 확 바다에 뛰어들어버려? 설마 에스테의 마법사 아저씨가 바다까지 쫓아오진 않을 거 아냐. 그래, 이번 생은 틀렸으니 다음 생을 노려보자. 미안, 루이스! 부디 다음번엔 좀 더 멀쩡하고 괜찮은 신분의 조수를 구하시길.

“무슨 생각을 그리 골똘히 해?”

다음 생을 설계하는 중, 어? 뭐야, 방금 그건 내가 말한 거 아닌데?

“누구세요?”

미처 눈치 채지 못했는데, 나뿐인 줄 알았던 이 방에 다른 한 명이 더 있었다. 나는 황급히 소리가 난 방향으로 고개를 홱 하고 돌렸다. 이윽고 내 눈동자에 새겨진 병실 문 쪽에 서있는 인물의 모습은 엥? 저 놈, 저거!

“뭐야요! 너, 아니 당신!”

“그렇게 반말이랑 존대를 섞어서 쓸 필요는 없는데. 편하게 반말해도 돼, 친구.”

“친구는 얼어 죽을. 전 그쪽 같은 친구 둔 적 없는데요?”

그 때 그 놈이다! 2층에서부터 일진 무리들에게 쫓기듯 내려와, 그 날라리들 앞에서는 말도 더듬거리더니, 나한테는 아주 잘만 하네? 사람 가려가며 더듬는 거냐, 혹시?

부들부들. 이 자식만 아니었어도, 나는 평범하고 무난하게 마법 대학에 입성할 수 있었을 텐데!

도대체 내 내면에 숨겨진 영웅 심리가 존재한다는 걸 어떻게 안 걸까? 그런 식으로 애처롭게 올려다보면, 나의 푸른 바다 수평선보다 드넓은 오지랖이 차마 가만히 있지 못하고 나서고야 말 거라는 걸 대체 어떻게 꿰뚫어본 거야? 이런 무서운 궁예 같으니라고. 나보다도 관심법의 달인인 모양이다.

“언제 봤다고 친구래. 그리고, 누가 친구를 사지에 밀어 넣고 도와주지도 않는답니까? 그런 사람은 ‘친구’라고 안 해요.”

“음. 그럼, 뭐라고 하는데?”

“‘쓰레기’요.”

웃어? 난 매우 진심으로 한 말이었는데. 내 앞으로 천천히 걸어 다가오는 저 일생일대의 원수는 농담인 줄 알기라도 한 모양이다. 아주 재밌다며 배를 잡고 웃어제끼는데, 세상 그 어떤 엄친딸이나 엄친아보다도 내게는 아마 저 녀석이 더 얄밉지 싶다. 지금 누구 때문에 마법 대학에 들어온 첫날부터 병실 신세를 지게 됐는데. 웃음이 나와?

“환자는 절대 안정, 몰라요? 빨리 나가요. 꼴도 보기 싫으니까.”

“너 조수라면서, 여기 학생한테 말하는 게 상당히 건방지다?”

“그러는 그쪽이야말로, 양아치 무리한테는 꼼짝도 못하더니 저한테는 왜 이러시는데요? 강자한테는 약하고 약자한테는 강하십니까? 제가 약해 보여요, 예?”

물론 진짜 약하긴 하다만. 나는 눈앞의 상대방에게 단 한 수도 밀리고 싶지 않아 하는 자존심 때문에 바락바락 쏘아붙였다. 사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 천민으로 살아온 지난 18년의 세월 덕분에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 마법 대학에 다니는 인간들이라면 다들 귀족가의 자제들인 데다, 나보다 똑똑하고 잘난 녀석들일 게 뻔하잖아. 그런 인간들은 건드려서도, 또 설령 건드려도 좋을 게 없다. 그런 사실을 잘 알고 있기야 하다만 일단 지금은 예외.

“아이고, 나 죽네.”

일어나려고 했는데 맘이 바뀌었다. 적어도 이 인간이 병실을 나갈 때까지만이라도 엄살을 피우기 위해 다시 침대에 슬그머니 드러눕는데, 이 안경잡이 자식이 은근스럽게 말해온다.

“거짓말 마. 너 안 아프잖아.”

내가 아픈지 안 아픈지를 네가 어떻게 아니? 관심법으로 내 머릿속까지 꿰뚫어봤냐, 아차. 진짜 궁예라면 그럴 수도 있겠구나. 혹시 저 희뿌연 안경은, 일부러 자신의 눈을 보여주지 않기 위함인 건가? 진짜 그런 건지도. 벗겨 보면 저 안에 사륜안이 들어있을지도 모르지. 하지만 그런 게 아니라면, 내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 알 게 뭐란 말인가?

“거짓말이 아니라, 진짜 죽을 것 같은데요. 아이구야, 내 배. 그렇게 세게 걷어차였는데 멀쩡할 리가 없지.”

“내가 다 치료해줬는데.”

“아이고, 뭐라고요? 뭘 치료해? 지나가던 공기 입자를 치료하셨다고요?”

“아니, 너를. 마법으로.”

끙끙거리며 아픈 사람 흉내를 내고 있자니, 들려오는 황당한 말. 아니, 저게 무슨 멍멍이가 야옹거리는 소리야? 자기가 내게 치료를 해줬단다. 귀신이 씨나락을 까먹다못해 방앗간에서 벼 도정하는 소리가 따로 없다. 자기가 무슨 수로 치료를 해줘?

나는 거짓말이라고 믿었다. 눈앞의 남학생은 딱히 ‘치료 마법’을 잘 구사할 인간처럼 보이지는 않았기에. 그도 그럴 게, 치료 마법은 정말 난이도가 높아도 너무 높은 최상위마법 중 하나이니까. 대학 건물 정문에서 내가 보았던 이 인간의 모습은 그런 마법을 다루는 모습과는 전-혀 거리가 멀었기 때문이다.

나는 잠시 망각하고 있었다. 내가 지금 발 디디고 있는 이곳이, 바로 마법의 천재들만 끌어 모아놓은 ‘마법 대학’이라는 것을. 뒤늦게 그 사실을 떠올린 내 입이 저절로 스르르 벌어졌다. 이렇게 얼빵하게 생긴 자식도 치료 마법을 구사할 줄 안다니. 꼴에 마법 대학생이다 이건가!

“거짓말쟁이. 아까 네가 멀쩡하게 몸 일으키는 것도 다 본 사이인데, 터무니없네.”

“저기요, 저한텐 그쪽이 더 터무니없거든요? 그리고 그런 ‘사이’라는 단어를 아무데나 막 갖다 붙이지 말아줘요. 난 당신이랑 무슨 사이가 되고 싶은 마음 따위, 그쪽의 보이지 않는 눈만큼이나 없는 입장이니까.”

“까칠하게 구는 건 적당히 하고. 있잖아, 나랑 내기 하나 할래?”

안경잡이가 되도 않는 소리를 한다. 나는 귓구멍을 파는 시늉을 해보이며, 이불을 걷고 침대에서 일어났다. 나는 여전히 눈에 띄는 여행복 차림이었다. 빨리 옷부터 갈아입어야겠는데, 이거. 이런 이상한 녀석이랑 떠들고 있을 게 아니라.

“내기 같은 소리하시네. 저 바쁘니까 이제 서로 가야할 길 갑시다. 네? 이제는 우리가 서로 떠나가야 할 시간. 다음에 또 보지 말아요, 오케이?”

“네가 루이스의 조수라지.”

밖으로 지체 없이 나가려던 내 발길이 우뚝 멈췄다. 이제는 내가 안경잡이보다 문에 더 가까운 위치였다. 나가다 말고 몸을 돌리고 안경잡이를 바라보았다. 얘, 지금 나랑 뭐하자는 거? 난 이곳에 온지 끽해봐야 하루도 지나지 않았다. 아마도. 눈앞의 이 남자를 알게 된지 채 12시간도 지나지 않았단 말이다. 그런 내게 내기니 어쩌니 하고 자빠져있는 이 녀석, 대체 무슨 의도지?

“그래서 뭐요? 내기 같은 도박 따윈 안 한다니까요.”

“흐음, 그럼 다른 얘기부터 해줄게. 너에겐 미안하지만, 네가 누워있을 동안 네 뒷조사를 살짝 해봤어. 의외로 천민이더라고. 마법 대학에 천민 신분의 조수는 단 한 번도 존재하지 않았던 거, 알고는 있어?”

“아. 그거야 뭐, 알고는 있죠.”

몰랐다. 그것도 전혀. 천민 조수란 있을 수 없다고만 생각해서 마냥 최초 타령을 한 것일 뿐, 실제로도 내가 유일무이한 줄은 알지 못했는데.

그런데 그런 내 신분이 뭐가 어쨌단 말인가? 여기까지 무사히 들어올 수 있었던 걸 보면, 마법 대학 측에서도 허락을 해준 것임이 분명한데. 설마 내 신분을 빌미로 삼아 나를 협박하려는 건가? ‘네 신분이 천민이라는 걸 온 마법 대학 학생들에게 퍼뜨려버리겠어!’ 같은. 그래, 그런 저질스러운 협박일 수도 있겠다.

나는 속으로 그리 생각했다. 그리고 안경잡이가 꺼내오고 있는 ‘천민’이라는 주제보다는 사실 내가 뒷조사를 당했다는 불쾌감에 대한 생각이 지금까지는 더 컸다.

“‘왜?’라고는 생각해본 적 없어?”

“무슨 뜻이에요?”

“왜 너인지. 그렇잖아? 레플리카 공작 가문의 무매독자인 루이스에게 왜 천민 신분의 조수를 붙여줬을지.”

안경잡이의 말에 놀랐다. 눈동자가 서서히 커지고, 턱이 아래로 내려가며 입을 딱 벌리는 내 표정을 본 그는, 자신의 말이 먹혀들고 있다고 생각한 듯 입꼬리를 슬그머니 끌어올린다. 은근히 예쁜 입매였는데, 일단 지금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었다.

뭐? 내 주인이 공작가의 무매독자? 그럼 미래의 공작 각하라는 거잖아. 이게 웬 횡재냐! 그럼 내 주인한테 잘 보이기만 하면, 어쩌면 신분 대 상승! 가, 가능할 수도 있지 않을까? 천민에서 많이 바라지도 않으니까, 딱 평민까지만 면천시켜달라고 졸라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이곳에 들어오기 전에는 내 주인의 신분이 마냥 높으면 어쩌나 하는 고민밖에 들지 않았는데, 막상 내 주인 되는 이가 무진장 높은 위치의 인물이라는 얘길 듣고 나니 생각이 달라져버렸어.

이건 다 하늘이 내게 내려주신 기회일 거야. 딱히 죄를 짓지도 않았는데, 이런 천민으로 태어나 개고생하는 내가 불쌍해서 떡 하나 던져주신 걸 거다. 그래, 그런 거다!

어쩌면 이건 내 일생일대에 다신 오지 않을 기회! 바로 그런 것!

“저기, 내 말에 그렇게까지 충격 받긴 아직 이른데.”

으잉? 누가 내 달콤한 망상을 방해하는가. 내 주인이 공작가의 후계자라는 것보다 더 놀랍고 충격 받을 만한 사실이 또 있단 말인가? 나는 생각하다 말고, 고개를 들어 올려 안경잡이의 눈을 마주 바라보았다. 난 충분히 받을 충격을 다 받은 것 같은데, 또 있다고? 말도 안 돼.

“그럼 언제 충격 받아야 하는데요?”

“바로 지금. 너, 머지않아 죽을 거야.”

“주, 죽긴 누가 죽어요? 제가 왜!”

나는 제자리에서 펄쩍 뛰다시피 놀랐다. 아니, 죽긴 누가 죽어? 내가? 내가 왜 죽어! 설마 갈비뼈가 나갔었던 게 실화인 건가? 알고 보니 치료했다는 건 농담이고, 갈비뼈가 내 내장을 파고들어서 앞으로 오래 살지 못할 예정이라던가, 그런 거일 리가 없잖아! 마법 재료 공부를 하면서 의학에 대해서도 조금씩 공부를 해본 바 있다. 만약 아처에게 차였던 충격으로 크게 다친 거라면, 지금 내가 이렇듯 멀쩡하게 대화를 나누고 있을 수조차 없어야 한다.

그럼 저 죽는다는 말은 대체 무슨 뜻이야? 나는 거의 경악하다시피 한 얼굴로 안경잡이를 올려다보았다. 이 놈 자식, 쓸데없이 키만 커가지고.

“그런 헛소리나 하려고 제가 있는 병실에 찾아온 거예요? 혹시 그 아처라는 무리들한테도 지금처럼 말하는 버릇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럼 충분히 맞을 만하다고 보거든요, 전.”

“음, 있잖아. 너, 뭔가 오해를 하고 있나본데.”

안경잡이는 검지로 안경의 중앙을 밀어 올린다. 별로 흘러내리지도 않았구만, 올리는 시늉은.

“네가 조수로서 필요한 지식을 얼마나 갖추고 있느냐는 마법 대학에 있어서 그리 중요하지 않아.”

이건 또 무슨 계란 노른자 터지듯 뜬금포 터지는 소리야?

“그럼 뭐가 중요한데요?”

“넌 안 중요해.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부 다.”

안경잡이는 웃었다. 눈은 보이지 않았지만, 입꼬리가 스르르 올라가는 것을 나는 보고야 말았다. 기분 나쁘다. 정말 기분 나쁜 웃음. 이렇게 께름칙하고 헛소리나 하는 녀석인 줄 알았으면, 그 때 정문에서 처맞고 있을 때 도와주지 않는 건데. 역시 이런 자식들이 맞고 다니는 데엔 이유가 있다니까. 내가 미쳤지. 오지랖아, 이제는 정신 좀 차리렴. 이 세상은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단다.

“저도 알아요. 제까짓 천민이 마법 대학에 조수로 들어온 것부터가 말이 안 된다는 거. 그런데, 딱히 그쪽이 날 고용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첫날부터 기분 초치지 맙시다.”

“내 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군.”

안경잡이의 안경알이 반짝거렸다. 단지 안경알뿐인데도, 나는 마치 그 안경잡이의 눈동자가 그 안에서 빛나고 있을 것만 같았다. 그런 느낌이었다.

“너는 이곳에선 필요 없고 무가치한 존재야. 내가 지금 네게 왜 이런 말을 하고 있는지 알아?”

“몰라요. 이 능구렁이 같은 인간아!”

버럭, 외치고 다시 몸을 돌렸다. 그 때 정문 앞에서만 해도 이 안경잡이가 이런 스타일일 줄은 몰랐는데. 일부러 왕따 코스프레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긴 했다만, 뭔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위험한 놈처럼 느껴지고 있다. 뭔가 숨기는 게 있을 것만 같은 그런 냄새가 나. 이런 녀석과는 한 공간에서 조금이라도 더 머물고 싶지 않다. 한시 빨리 지금의 상황을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아, 슬그머니 병실의 문손잡이를 잡았을 때였다.

내 옆으로 놈이 팔을 뻗어왔다. 그리고 탁! 소리 나게 병실 문을 짚어왔다. 아니, 짚은 게 아니라 내가 열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거다. 돌아보며 황당하단 눈초리로 쏘아보는 내게, 놈은 차가운 목소리로 말해왔다.

“너는 죽어도 상관없다는 뜻이야.”

“…뭐요?”

“부모님은 둘 다 돌아가시고, 천민 신분인데다, 나이까지 어린 계집애. 죽여 버리기 딱 좋지?”

“그게 무슨!”

내 입에서 큰 소리가 튀어나오는 것을, 안경잡이가 문을 짚지 않은 다른 쪽 팔을 들어 올려 손으로 틀어막아버린다. 아니! 이런 미묘한 분위기 만들어버리지 말라고, 이 썩을 안경잡이야! 나의 이런 므흣한 장면은 몸매 좋고 잘생긴 남자와 연출하고 싶단 말이다라고 울부짖고 있는 내 속마음은 아는지 모르는지, 안경잡이는 여전히 입가의 미소를 지우지 않고서 내게 말해왔다.

“이제 좀 이해가 되지?”

얼굴이 이렇게나 가까운데도 눈이 보이지 않는다. 역시 평범한 안경은 아닌 모양이군. 그나저나 이해고 나발이고 간에 이 손이나 빨리 치워, 망할 자식! 숨차잖아!

“푸하!”

앗, 치웠다.

“그래서, 제가 죽임당할 거란 얘기예요, 지금? 약하고 만만해서?”

“정답.”

“무슨 근거로요? 마법 대학이 발 디디는 천민이라곤 모조리 죽여 버리는 데라곤 들어본 적 없는데.”

“그건 네가 모르니까 하는 소리지. 지금은 네가 나와 내기를 할 생각이 없는 것 같으니, 그런 생각이 들게끔 해줄게. 목숨을 부지하고 싶다면 그래. 세탁실의 메이드 줄리아를 찾아가 봐. 그럼, 난 이만.”

“으응?”

안경잡이는 제 할 말만 쏙 해버리더니, 이내 빠르게 문을 열고 바깥으로 나가버린다. 잠시 멍한 표정으로 자리에 우두커니 서서 ‘목숨을 부지하고 싶으면.이라고?’하는 생각에 잠겨있던 나는, 곧 그 안경잡이가 나에게서 도망쳐버렸음을 깨닫고 황급히 병실 바깥으로 뛰쳐나갔다. 나한테 이런 헛소리나 늘어놓다니, 가만 두지 않겠어! 망할 안경잡이!

어라. 없다.

분명 곧바로 뛰어나갔었는데, 왜 없었지? 텔레포트라도 쓴 건가? 하지만 텔레포트는 최상위마법인 치료 마법보다도 어려운 마법인데. 그토록 어렵고 패널티마저 무시무시한 마법을 그런 놈이 쓴다고? 인정할 수도, 이해할 수도 없다. 필시 빠르게 뛰어서 도망쳐버린 게 분명해.

그 자식, 대체 왜 나한테 그런 이상한 소릴 늘어놓은 걸까? 남에게 그런 저질스러운 협박이나 늘어놓는 취미라도 있는 건가. 설령 그런 취미가 있다 해도, 많고 많은 조수들 중 왜 하필 나야? 혹시 유일한 천민이니까, 제일 만만해서 그런 거? 아무리 그렇다지만 나는 대학 건물 정문에서 자신을 도와주려 두 발 벗고 나선 사람이기도 한데. 은혜를 원수로 갚는 것도 유분수지, 아니지, 아니야. 그런 안경잡이의 뒷담이나 하고 있을 여유 따윈 없다.

나는 오늘이 아처에게 걷어차여 나가떨어졌던 그 당일인 줄 알았다. 그런데 세상에나. 날짜를 보니 내가 마법 대학에 당도했던 그 날짜가 아니라, 하루가 지난 다음 날인 것이 아닌가. 내가 조수 일을 맡게 된 첫날부터 자그마치 하루 동안이나 드러누워 있었다니. 더는 게으름피울 때가 아니었다. 나는 오후 2시가 막 지난 시각, 부랴부랴 내게 조수 유니폼으로 지급된 교복 비슷하게 생긴 복장을 갖춰 입고서 배정된 기숙사를 나섰다. 유니폼은 나름 교복스러운 게 예뻤다. 조수들의 사치스러운 복장 행태를 바로잡기 위해 생겨난 유니폼이라는 소문이 있던데, 사실인지는 잘 모르겠다.

아, 참고로 기숙사 내부는 무진장 휘황찬란했다. 조수가 아니라 이곳 대학생들의 방이 아닌가 싶었을 정도. 20평은 족히 될 것 같은 규모의 방 안에는 화장실과 샤워실까지도 있었다. 거기다 대단하게도 그런 방 하나가 조수들이 쓰는 1인실이라고. 벌써부터 천민인 내가 아주 분에 넘치는 호강을 하게 될 거 같은 예감이 드는데, 이거.

“여기야.”

“아, 고마워.”

마법 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들의 숫자는 채 100명이 안 된다. ‘소수정예’를 추구하는 마법 대학이니만큼, 최고의 마법 실력을 지닌 학생들만 딱 100명 이내로 뽑겠다는 뜻. 학생의 숫자가 적어서인지는 몰라도, 대학교 내에는 학생들의 개인 서재가 하나씩 존재했다.

그리고 지금 나는 ‘루이스의 서재’앞에 와있었다. 어느 조수 여자애의 도움을 받아서 말이다. 같은 조수 유니폼을 입고 있는 것을 알아보고서 말을 건넸는데, 조수들도 귀족 가문 자제들이라 까칠할 게 분명할 거라 짐작했던 내 예상보다는 생각보다 친절했다. 나는 루이스의 서재에 노크를 하기 전에, 나를 이곳까지 바래다준 여자아이에게 슬그머니 물어본다.

“넌 이름이 뭐야?”

“응? 난 마리 블러셔야.”

“누구 조수인데?”

“으응? 아아, 나는 조지아 가문의 이디아 님 조수야. 누군지 알아?”

“그럴 줄 알았어. 내가 모시는 분은 그리 유명한 가문의 영애가 아니시거든. 그래도 정말 다정하셔서, 나한테 잘 대해주셔.”

“그렇구나.”

‘정말 화장품과 커피 같은 이름들이구나!’라고 말할 뻔했다. 그랬다간 눈앞의 여자아이에게 뺨을 맞아도 할 말이 없다. 마리 블러셔와 이디아 조지아? 기억해두자. 좋은 사람이라고 하니까, 아처나 로사인지 로이인지 하는 이름의 연놈들보다는 나은 인물임이 분명할 거다. 내 편을 많이 만들어둬서 나쁠 건 없으니까. 허나 문제는 이들이 내 편이 되어주느냐다.

이어서 마리가 물어왔다.

“넌 이름이 뭐야?”

“아샤.”

“어느 가문인데?”

“성은 없어. 나 사실 천민이거든. 빚보증을 잘못 섰다가 노예가 되어버려서, 여기로 오게 됐어.”

“아니? 모두 사실이야. 그러니 날 따돌리려면 지금부터 미리미리 준비해두는 게 좋을 거야. 지금 한 말, 다른 조수들에게도 전해줘. 그럼, 난 이만 들어가 볼게.”

미리 말해두지 않았다가, 나중에 ‘네가 천민이었다고? 감히 날 속였어?’같은 상황이 일어나는 건 딱 질색이다. 그러니 미리 말했다.

천민에다가 노예로서 이곳에 들어오게 됐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나서도, 과연 나와 평범한 친구 사이로 지내줄 인물이 과연 이 마법 대학 내에 존재할까? 흠, 있을 리가. 이런 귀한 신분인 이들만 모인 곳에서 천한 신분인 내가 친구를 만들기란, 아마 100평짜리 방에서 날아다니는 조그만 초파리 하나를 잡는 것보다도 무리인 일일지도 모른다. 그러니 노력은 해볼지언정, 애초부터 희망은 가지지 않는 편이 좋아. 그래야 실망할 일도 없는 법.

“길 안내해줘서 고마워, 마리. 나중에 또 봐.”

마리가 얼빠진 표정으로 살포시 손을 들어 올려 흔들어왔다. 나는 그런 그녀의 인사를 뒤로하고, 몸을 돌려 루이스의 서재 문을 주먹으로 두드린다. 똑똑!

“들어오십시오.”

엇, 마치 기계인 양 뻣뻣한 목소리가 안쪽에서 들려와. 이 목소리가 바로 어제 건물 정문에서 나를 들어 올렸던 이의 것임을 깨닫자, 내 가슴이 조금씩 쿵쾅거리며 빠른 리듬으로 뛰기 시작한다. 하트 비트! 내 주인님은 과연 어떻게 생겼을까? 목소리는 굉장히 훈훈한데.

“있잖아, 마리!”

다시금 뒤를 돌아보며 내가 묻자, 가던 길을 마저 가려던 듯 반쯤 몸을 돌렸던 마리가 소스라치듯 놀라며 고개를 돌려온다. 저러다 눈알이 튀어나오진 않을까 걱정되는데. 저런 표정으로 대답은 용케 잘도 하네.

“내 주인이라는 사람, 평판이 어때? 어떤 사람이야?”

“…몰라? 루이스 레플리카를 몰라!”

마리가 살짝 흥분하며, 내게로 빠르게 다가왔다. 그리고 복도를 지나다니는 다른 이들의 귀에 들리지 않게끔 소곤소곤 말해오는데.

왜 서재에 바로 안 들어가냐고? 그야, 그냥 들어가려 했더니, 도무지 심장이 쿵쾅거려서 지금은 못 들어가겠어서. 지금이 바로 앞으로 내가 모시게 될 내 주인을 처음으로 대면하게 되는 자리라서 그런 건데. 문득 생각해보니 나는 그 루이스 레플리카라는 인물에 대해 공작가의 외동아들이라는 점 말고는 아는 게 없지 뭔가.

그래서 빠르게 물어본 나의 질문에, 마리는 허둥거리며 내게 답해왔다.

“엄청 유명한 분이셔. 레플리카 공작가는 우리 프란치아 제국의 개국공신으로도 유명하잖아. 더군다나, 루이스 님의 아버지이자 대마법사이신 현 레플리카 가주님께서는 16년 전 아디티와의 대규모 전쟁 때 아디티 제국 황제의 목을 가져오기도 하셨고.”

유명한 사람이라고? 나만 몰랐던 건가. 게다가 저게 다 무슨 소리들이람. 이 세계의 역사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다보니, 마리의 말에 고개만 마냥 갸우뚱거렸다. 역사 공부 좀 해둘 걸 그랬나? 하지만, 역사책을 읽으면 마치 판타지 소설이라도 읽는 기분이 들어서 영 집중이 안 됐는 걸.

16년 전에 전쟁이 일어났었던가? 아, 그러고 보니까 내가 아주 어렸을 무렵 아버지께서 군대가 어쩌니 하며 어머니와 대화를 나누셨던 기억이 떠오른다. 아마 그 때, 내 아버지께서는 어느 작은 남작가문 소속의 노예였던지라 징집 대상이 아니었었다지. 그래서 전쟁이란 마치 남들 얘기인 것만 같았다. 내가 살던 지역에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고 그저 고요했으니까.

뭐, 하여튼 그런 대단한 인물이시라고? 아니, 그런 대단한 가문의 아드님 되신다고.

“게다가 얼굴도 무척이나 잘생기셔서, 수많은 영애들의 관심을 듬뿍 받고 계셔.”

거기다 잘생기기까지! 너무 다 가진 자식이잖아, 치사하게. 이보시오, 신님! 듣고 계십니까? 돌아가는 세상 꼬라지 잘 보고 계시느냐고요. 예? 누구는 다이아 수저에 누구는 흙수저라니, 밸런스 패치가 아주 똥망이구만.

“음, 그렇군. 대답해줘서 고마워, 마리.”

“으, 응. 그런데, 아무래도 그 때 일 때문인지.”

마리는 무슨 말을 더 이어서 하려 했다. 그 때 일이란 뭘 말하는 거지? 다시금 고개를 갸웃거리며 그녀의 말을 경청하는데, 안타깝게도 그녀의 말은 끝을 맺을 수 없었다.

그 이유는, ‘누군가’에 의해 열려버린 서재의 문 때문이었다.

그러고 보니, 루이스의 서재 문에 노크했던 걸 잊고 있었다!

문을 열고 루이스가 두어 발짝 걸어 나오는데, 나는 마치 내 눈앞에 올림포스의 제우스는 너무 아저씨 같은 이미지니까, 그래. 아폴론이라고 하자. 태양의 신인 아폴론이 걸어 나오기라도 하는 줄 알았다. 사람이 뭐가 이렇게 얼굴에서 빛이 나지? 발광물질로 이루어진 피부라도 되는 건가? 나는 오늘에서야 처음 보는 그의 생김새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빠르게 훑어본다.

루이스는 곱슬기가 있는 금발이었다. 돈 많은 귀족가의 자제들이 주기적으로 꼼꼼한 관리를 받아야만 지닐 수 있는 결 좋고 선명한 빛깔의 아름다운 황금색 머리카락. 서민들은 결코 저런 흐르는 물결 같은 머리칼을 지닐 수 없다. 저게 다 돈빨이야, 돈빨.

그러나 이목구비부터는 돈빨이라고도 할 수가 없었다. 이 세계에서는 아직 성형 문화가 발달하지 않았으니까, 성형미남이라고 우길 수조차 없다는 소리다. 짙은 눈썹과, 살짝 찢어지고 무신경해보이지만 금빛 속눈썹이 짙게 깔린 눈, 오똑한 콧날, 앵두 같은 입술…흔한 소설에 밥 먹듯이 쓰이는 뻔한 미사여구지만, 이런 표현을 제외하고선 달리 루이스의 외모를 표현할 방법이 없었다. 마치 남자 바비 인형 같은 저런 외모라니, 꽤 큰 도시에서 살아왔던 나조차도 난생 처음 보는 잘생김. 유전자 하나는 아주 끝장나게 타고났구나. 그런 그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자니 나의 심장 박동도 점점 빨라지기 시작했다…

거기다 나와 마주친 저 눈동자는 마치 선명한 바다 같은 푸른색이기까지. 세상에, 말로만 듣던 금발벽안을 이렇게나 훌륭하게 소화해내는 놈은 처음 본다. 무슨 소설 속에서 튀어나오신 분 아니세요? 진짜 그런 거 같은데.

아, 여기서 한 가지 문제. 완벽하리만치 잘생긴 귀공자의 모습을 타고난 그, 루이스 레플리카. 만약 여기서 신이 밸런스를 맞춰주려는 의도를 1이라도 비췄더라면, 루이스는 키나 어깨 중 무언가를 잃어야만 했을 것이다. 혹은 둘 다 잃거나. 그는 과연 무엇을 잃었을까?

정답. 아무것도 잃지 않았다. 역시 신은 일을 하지 않는다. 틀림없어.

루이스의 키는 누구보다도 위로 훤칠하게 뻗어 있었고, 어깨는 남자로서 여인네들의 심장을 방앗간 떡 찧는 기계마냥 뛰게 만들 만큼 듬직할 정도로 벌어져있는 모습이었다. 세상에 있을 거 없을 거 다 가진 그를 바라보고 있자니 새삼 내 인생이 허망해지려 한다.

없는 게 뭘까, 얘는? 세상 너 혼자 사니? 뭔가 재수 없어지려 하는데. 그런 생각을 하는 찰나, 루이스의 앵두 같은―이런 표현이 여자에게만 어울린다는 편견은 버려라. 그의 분홍빛 입술은 정말 앵두 내지 체리를 연상케 했다― 입술이 스르르 열렸다.

“무슨 일이지? 문 앞에서 시끄럽게.”

저기요, 지금 님은 님의 조수 되는 이와 첫 대면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물론 어제의 그 불미스러운 사건 때를 제외하자면 말입니다. 그런데 뭐요? ‘문 앞에서 시끄럽게’? 그게 아니라, ‘아아, 들어와’같은 말을 해야 정상 아니야? 아니라고? 아님 말고.

“저, 이번에 새로 도련님의 조수직을 맡게 된 아샤입니다. 에스테에서 수비 부대장 아저씨가 여기에 도착하면 가장 먼저 도련님부터 찾아뵈라고 하셨.”

“네가 가장 먼저 한 일은 병실에 드러눕는 일이었던 것 같은데. 돌아가.”

방금 내가 무슨 대답을 들은 거지? 게다가 내 말은 몹시 잔인하게도 허리가 뚝 잘려버렸는데. 루이스의 그 아름다운 입술에서 튀어나온 시건방진 대답에, 나는 누군가가 연못에 뿌려준 떡밥을 놓쳐버린 붕어마냥 입을 헤벌렸다.

세상에, 세상에! 어쩜 세상에 이런 싸가지가! 오죽하면 옆에서 지금의 상황을 지켜보던 마리조차 나와 비슷한 표정을 하고 있다. 마치 붕어와 잉어 두 마리가 지느러미 대신 다리가 달려, 이 자리에 멀뚱히 서있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

루이스는 곧바로 서재 안쪽으로 들어서며 문손잡이를 잡는다. 들어가려는 건가? 들어가려는 거야? 방금 같은 대답을 해놓고, 이대로 문을 닫고 들어가려는 속셈! 아니, 그러면 내가 너무 억울하잖아!

“저기요!”

나는 탁! 하고 닫히던 서재의 문틈에 발을 끼워 넣었다. 앗, 끼어서 살짝 아팠다.

“…뭐야?”

문틈으로 보이는 루이스의 얼굴이 신경질적인 표정으로 돌변한다. 방금 전까지는 냉담한 무표정이었다면, 지금은 확실히 짜증나는 상대를 바라보는 적대적인 눈빛으로 바뀌어있는데.

뭐, 물론 인정하는 부분은 있다. 어제의 내가 괜한 오지랖을 부려대느라 제시간에 내 주인 되는 이를 만나러 오지 않은 거. 아니, 못한 거. 그건 확실히 내 잘못이 맞으니까, 꾸지람을 들어도 할 말이 없다. 하지만, 돌아가라니? 돌아가라니!

야! 나도 그러고 싶다고!

“돌아가긴 어디로 돌아가란 말씀이세요? 난 이제 꼼짝없이 죽거나, 그쪽 노예로 평생 일하거나 둘 중 하나밖엔 길이 없는데!”

도망치거나 조수직을 못버티고 그만두면 에스테 수비 부대 아저씨가 가만히 안 둔다 그랬단 말야!

빼액! 나는 눈을 질끈 감고서 앙칼지게 소리쳤다. 에라이, 이판사판이다! 불경죄로 목이 날아간대도, 할 말은 하고 죽어야겠다는 마음가짐으로 외쳐버린 그 말 때문일까.

조금은 시끄럽던 복도가 삽시간에 조용해져버렸다.

어라? 하는 생각과 동시에 눈을 뜨고 가장 먼저 눈앞의 남자를 올려다보았다. 그래, 루이스.

“…뭐?”

그는 황당하다는 눈초리로 나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나는 이내, 좌우로 주변도 한 번 둘러봐주었다. 어, 언제 이렇게 사람이 많이 모여들었지?

“노예라고? 마법 대학에 웬 노예?”

“쟤, 루이스의 조수라지 않았어? 와, 세상에.”

그 많은 사람들이 다들 소곤소곤, 수군수군, 이수근.

내 머릿속에서 이성이라는 놈도 내 뇌에다 속닥속닥.

“네가 노예라는 걸 동네방네 소문이라도 내고 싶은 거야, 뭐야?”

소란스러워진 주변 덕분에 잠시 당황한 채로 어리바리하고 있으려니까, 루이스는 내 대답에 날카롭게 반문해왔다. 앗, 뭐라 할 말이 없다. 그런데 소문을 내고 싶었던 거냐니? 세상에 자기가 노예 신분인 걸 온 사방에 떠벌리고 싶어 하는 사람이 어디 있단 말인가. 나는 천민이란 사실을 숨길 수만 있다면 죽은 후 무덤 속에 묻혀 두 눈에 흙이 꽉꽉 들어찰 때까지 숨기고 싶은 사람이라고.

물론 이런 마음인 나이니만큼, 결코 노예라는 키워드로 시선을 끌려던 의도는 절대로 아니었다. 이렇게 온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려던 것도 아니었고, 따지고 보자면 내 목청이 그리 크지만도 않았다.

다만 문제는, 내가 어제 정문 앞에서 아처라는 빨강 머리와 대판 싸움이 붙었던 인물임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나를 연신 흘끔거리며 쳐다보고 있었던 데다가, '노예'라는 마법 대학과 어울리지 않는 단어가 대화 내에 등장했기에 나를 유심히 지켜보던 그들의 관심을 단숨에 사로잡아버린 것 같다는 거다. 아니, 다들 남의 사생활에 관심이 왜 이리 많은 거야? 사생팬이 이래서 무섭다니까. 아, 이것도 아니라고? 아니면 말고.

“그런 이상한 의도는 없고요, 하여튼 저도 분에 넘치게 조수로 일하고 싶다고 여기서 이러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 부분만 좀 이해해주시면 안 될까요? 이대로 돌아가면 저 진짜 죽을지도 몰라요.”

물론 그 험상궂게 생긴 마법사 아저씨한테 말입니다.

“네 사정 따위, 내가 알 게 뭐지?”

아니아니, 싸가지도 좀 적당히 없어야지! 이쯤 되면 이 자식이 내게 화가 나서 이러는 것인지, 애초부터 말본새에 싸가지를 첨부하여 말을 내뱉지 않는 녀석인 건지 긴가민가할 지경이다. 나는 옆에 우두커니 서있던 마리의 옷깃을 붙잡아 내 옆으로 끌어당겼다. 그리고 루이스가 보는 앞에서 속닥이며 물었다. 물론 내 발 한 짝은 여전히 루이스의 서재 문틈에 끼어 있었으니.

“마리. 이 사람, 평소에도 이러니?”

“그렇긴 한데, 너한테는 조금 더 심한 것 같기도 해.”

마리가 루이스의 눈치를 쭈뼛쭈뼛 살피며 아주 작게 속삭여오는 그 대답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어제 일로 나한테 화가 나있기도 하고, 거기에 더불어 원래도 싸가지가 좀 없던 녀석이다 이거지? 좋다, 접수 완료!

“그래서, 저더러 돌아가란 말씀이세요? 에스테로, 아니면 제가 살던 고향으로?”

“아무데로나 가버려. 조수 따위 필요 없으니까.”

허어! 나는 눈앞의 루이스가 완벽하디 완벽한 입술로 저런 대답을 내뱉는 것을 지켜보며 속으로 개탄을 금치 못한다. 아름다운 얼굴로, 또 앙증맞은 입술로 어쩜 이리 얄미운 대답만 쏙쏙 골라 할 수 있단 말인가. 하지만 괜찮다. 나는 평범한 18살짜리가 아니니! 나의 너른 마음으로 너의 그 소심한 앙탈 정도야 얼마든지 받아줄 수 있는 것을, 엣헴.

“저 일 잘해요. 한 번만 믿고 맡겨주세요, 도련님아. 아니, 도련님!”

어이쿠, 잘못 말할 뻔. 평소에 말하던 말본새가 이런 때에도 마구 튀어나오는 구나. 조심해야겠다.

“마지막으로 말하지. 필요 없어.”

루이스가 내 발을 자신의 발로 슬쩍 밀어내버린다. 예상치 못한 그의 행동에 미처 대비하지 못했던 내 발은 홀랑 밀려나버렸고, 내가 균형을 잃고 잠시 비틀거리는 그 틈에 루이스는 문을 닫아버렸다. 아앗, 이러면 안 되는데!

철컥철컥. 앗, 이런 영리한 자식 같으니라고.

“으, 안에서 잠갔네.”

문손잡이를 두어 번 돌려보다가, 나는 그가 안에서 문을 잠가버렸음을 깨닫고 탄식을 내뱉었다. 내가 너무 저돌적이었나? 루이스만큼은 아닌 것 같지만, 나 또한 싸가지가 좀 없었던 것 같기도 하고. 하지만 난 원래 이런 성격이란 말이지. 자존심이 세다 보니 강하거나 높은 사람들에게는 잘 숙이지 못하고, 나보다 약한 사람들에게는 비교적 약해진다.

착한 척을 하려는 건 아닌데, 문제는 난 진짜 그렇게 되먹은 인간이었다. 전형적인 배짱 좋고 간 크면서, 불쌍한 사람을 보면 지나치지 못하는 오지랖 넓은 스타일.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높은 신분인 이들의 비위를 맞추는 데에는 취약해도 너무 취약했으니.

그래, 상사의 눈치를 보는 데엔 쥐약, 그래서 난 취약! 예아, 스웩.

그나저나 이제 어쩌면 좋을까? 일 났군. 내 주인에게 제대로 버림받았으니, 이제 내가 향해야 할 곳은 분리수거함인가? 답은 그것뿐인가? 하, 내 인생. 어쩌다 이젠 버림받은 신세마저 되어 버린 것인지.

‘ 대한민국에서 썩 괜찮은 가정에서 자라던 18세 소녀, 비명횡사하여 환생했더니 하필 천민 신분으로 태어나, 주인에게 버림받기까지…!‘ 음, 괜찮은데. 아침 뉴스 대문에 걸어도 되겠다. 상당히 파란만장한 스토리라, 이런 내용으로 소설이나 한 편 써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야.

“저기, 아샤.”

“응?”

마리는 아직도 안 갔다. 그녀에 의해 내 잡생각은 마법 대학 문지기인 뱁새가 저 멀리 날아 가버리듯 훌훌 날아 사라져버렸으니. 내 역동적인 스펙트럼의 인생만큼이나 지금의 흥미진진한 상황을―나만의 착각일지도 모르는― 하나도 빠짐없이 지켜보고 있었을 그녀는, 대뜸 내게 다가와 이름을 불러왔다. 앞서 내 신분이 천민이라고 분명 말해줬던 것 같은데, 어째서 날 피하지 않는 거지? 대부분은 그랬었는데.

“있잖아, 루이스 님이 저러시는 거, 어제 있었던 일이 전부만은 아닐 거야.”

“응? 어제 있었던 일이라면. 설마, 너도 알아!”

“응. 마법 대학 내에서 일어난 일은 금방 소문으로 퍼지는 걸? 게다가 아처 님이 두 달 정학 처분까지 받으셨으니까, 모두가 알고 있는 게 당연해.”

뭐! 나의 부끄럽고 민망한 어제의 흑역사를 이미 모두가 알고 있다고? 이런 미친. 언젠가 소문이 나리라곤 짐작했지만, 벌써 마법 학교의 모든 학생과 조수들이 알고 있는 사실이 되어버렸을 줄은 예상 못했다. 뭔 놈의 소문이 이렇게나 빨리 퍼지는 거야? 발 없는 말이 천 리 간다더니, 알고 보니 그 말이 페가수스인 거 아니야? 그런 거지!

이성이란 놈이 다시금 등장했다. 그리고는 내 뇌에 소곤소곤 말해오길, ‘그러게 적당해 좀 나대!’라는 조언을. 이제는 이 녀석 말을 좀 들을 필요가 있을 것 같기도 하단 생각이 문득 든다. 제길, 내가 졌다. 인정하지. 그런데, 마리는 무슨 말을 하려던 거야?

“그럼, 무슨 이유로 저러시는데?”

나는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다. 그런 나에게 맞춰, 마리도 천천히 걸음을 옮기기 시작했다. 루이스의 서재 앞에 멀뚱히 서있어 봤자, 다른 이들의 시선만 등이 따갑도록 받게 될 뿐이다. 그런 비 오는 날의 질척거리는 진흙 같은 부담감은 영 질색인지라, 일단 한적한 곳으로 자리를 옮기기 위함이었다.

마리는 나의 옆에서 천천히 걸으며 말해온다. 문득 옆을 돌아보니, 마리는 나보다 한참 아래에 있었다. 갈색 파마머리를 허리께까지 늘어뜨린 마리는 키가 몹시 작았다. 내가 큰 거 아니냐고? 응, 절대 아니야. 세상이 무너져 내 정수리에 부딪히는 한이 있다 해도 아니다. 나는 보통에서도 좀 더 작은 축에 속하는 160cm이었으니까. 그런 나보다도 작다니, 다른 의미로 굉장한 걸?

“이건 사실 공공연한 비밀 같은 건데, 너는 꼭 알아둬야 할 것 같아서 말해주는 거야.”

“공공연한 비밀?”

뭔가 모순스러운 단어로구만. ‘마치 깨끗한 쓰레기통’이나, ‘귀족 같은 천민’ 이랑 비슷한 느낌? 이곳 마법 대학과 내 존재가 어울리지 않는 것처럼, 어울리지 않는 저 두 단어를 붙여 말한 데에는 뭔가 이유가 있겠지. 나는 마리의 말에 토를 달지 않고 잠자코 들어보았다.

“응. 아는 사람은 다 아는 건데, 모르는 사람은 잘 몰라. 사실, 루이스 님의 주변 사람들이 몇 년 전부터 돌연 변사체로 발견되는 일이 몇 번 있었어.”

“뭐? 죽었다고! 왜?”

“누가 그랬는지는 잘 몰라. 마법에 의한 타살인 건 분명한데, 신출귀몰 같은 솜씨인지라 아직까지도 범인에 대한 실마리조차 잡지 못했어. 죽은 사람은 다양해. 루이스 님의 조수가 지금까지 총 세 명 죽었고, 부리던 시종 한 명, 호위 기사 두 명. 모두 5년 내에 일어난 일들이야. 동일범으로 추정되는데, 아직까지도 범인을 잡을 기미가 안 보인대.”

대체 누가 이 나라에서 큰 위세와 명성을 떨치는 공작가의 아들내미에게 해코지를 한단 말인가? 마리의 말대로라면 직접적으로 루이스의 생명에 위협을 가한 건 아닌 모양이다만, 그 주변인만 야금야금 죽이며 위협해왔다는 소리인 듯했다. 게다가 루이스의 조수가 총 세 명이 죽었다고. 그럼, 지금 루이스의 조수가 된 내가 이 말을 듣고 있다는 건.

“나도 죽을지도 모른다는 거네? 문제는 그거지?”

“그렇게 말하면 뭔가 무서운데, 솔직히 말하자면 그럴지도 몰라. 지금까지 죽은 조수들 중엔 여자가 한 명, 남자가 두 명이었어. 남자 여자를 가리지 않고 죽인 것 같아, 범인은.”

“완전 사지에 내몰린 거잖아?”

이제야 그 안경잡이가 하던 말이 무엇인지 알 것 같다. 목숨을 부지하고 싶다면 줄리인지 줄리안지 하는 메이드를 찾아가보라고 했었지. 아마 이런 얘기를 전해 듣도록 하려는 의도였을 거다. 하지만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어진 것 같은 게, 나는 뜻밖의 상대에게 이러한 중요 정보를 전해 듣고 있는 참이었으니까.

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아무리 내가 천애고아에 하잘 것 없는 천민이라지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죽게 될 미래가 빤히 보이는 자리에 어찌 살아있는 사람을 앉혀놓을 수 있단 말인가. 아, 물론 다 죽어가는 사람이라면 앉혀놔도 된다는 소리는 아니다. 내가 그 정도로 비도덕적인 생각머리를 지닌 인간은 아니라고.

여하튼, 마리의 말을 정리해보자면 나는 죽어도 뒤탈이 없기 때문에 조수직에 앉혀진 천민이라는 뜻이 된다. 한마디로 나는 미끼라는 거다. 이유는 아마 범인을 잡기 위해, 혹은 죽더라도 귀찮은 일로 번지지 않는 결과를 위해서겠지. 그 안경잡이의 말마따나 내가 몹시 보잘 것 없는 천민이기 때문에, 죽음의 그림자가 뒤통수에 드리운 루이스의 조수 자리에는 최적합이라 이곳에 캐스팅됐다는 소리다. 이런 젠장. 그 썩을 양반이, 골라도 하필 나를 골라!

지금 이 순간 내 머릿속에는 에스테에서 일주일 동안 한 집에서 같이 지냈던 마법사 아저씨의 상판대기가 떠오른다. 만일 내 눈앞에 아저씨가 서있다면, 아마 나는 혼신의 힘을 다해 소울까지 끌어올려 모은 가래침을 뱉어 버리지는 못하고, 원망스런 속마음과 함께 꿀꺽 삼켜버렸을 것 같다.

이건 진짜 해도 해도 너무하잖아, 증말! 아무리 가진 놈들이라지만, 이렇게 없는 사람한테 막 갑질해도 되는 거야? 예? 되냐고요.

20평짜리 드넓은 기숙사나 배정받으면 뭐해. 조만간 죽을지도 모른다는데. 치사하고 더러워서 내가 진짜, 어후.

“그럼, 안 죽으려면 어떻게 해야 해?”

“그건 나도 잘 몰라. 하지만 만약 그런 방법이 존재한다면, 지금까지 루이스 님 주변의 사람들이 죽을 일은 없었겠지?”

“아.”

듣고 보니 마리의 말에 일리가 있었다. 아주 명확한 일리가. 나는 고개를 위아래로 크게 한 번 끄덕였다. 안 죽을 수 있는 방법을 알면서도 죽는 인물이 세상에 어디 있겠는가? 다들 모르니까 죽은 거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나도 그 ‘살 수 있는 방법’을 모른다는 게 크나큰 함정이었다. 마리의 말마따나, 그 방법이라는 게 존재하기는 할까? 그것조차도 알 수 없다.

빰빰빠바빠라라빰바밤. 어디에선가 함정카드가 발동했을 때의 배경음악이 들려오는 듯한데, 기분 탓인가.

솔직히 이쯤 되면 의심해보지 않을 수 없다. 뭘까, 나? 대체 왜 전생이나 이생이나 인생이 이 모양 이 꼬라지인 것일까. 마의 18세 같은 징크스라도 있는 게 아닐까? 18살을 넘기지 못하고 죽는 저주라도 걸린 게 틀림없다. 그래, 분명 그런 거다. 그런 게 아니고서야, 지금 같은 상황을 차마 내 뇌로는 받아들일 방법이 없다.

“그 비밀, 나한테 말해줘서 고마워, 마리.”

“루이스 님이 어떤 분인지도 잘 모르는 걸 보니까, 이런 사실도 모르고 있을 것 같아서…얘기해주지 않을 수 없었어. 적어도 얼마나 위험한 자리인지는 너도 알고 있어야 하니까.”

“으응, 정말 고마워.”

그나마 다행인 건, 마리가 안 말해줬더라면 이런 사실을 내가 죽을 때까지 모르다가, 그 범인에게 죽은 후 환생하고 난 뒤쯤에나 ‘뭐지? 저번 생에서는 나 대체 왜 죽은 거지? 의문사인가?’하는 바보 같은 고민에 빠졌을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마리가 안 말해줬더라면 정말 그렇게 될 뻔했어. 배려심이 깊어 보이는 마리에게는 마음 속 깊이 감사했다.

그러나 그것과는 별개로 내 머릿속은 점점 터질 듯 복잡해져가고 있었으니.

일단 지금 상황에서 중요한 주제는, 내 목숨이 달린 ‘조수직’에 관한 문제였다. 마리의 말을 총 정리해보자면, 에스테의 마법사 아저씨는 나더러 도망칠 생각일랑 하지 말라 한 이 자리가, 정작 평범한 조수직이 아닌 죽음을 목전에 둔 ‘사망 플래그 석’이라는 건데.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거지? 마법사 아저씨 손에 죽임 당할지도 모르는 패널티를 감수하고서라도 이대로 탈출? 아니면, 죽지 않도록 어떻게든 발악해 봐?

하지만, 신출귀몰하다는 마법사를 상대로 내가 무슨 수로. 이건 뭐, 축구의 ‘ㅊ’자도 모르는 나더러 박지성을 상대로 축구공을 드리블해서 뺏어보라는 거랑 뭐가 다르단 말인가?

미쳐버리겠다. 옆에서 마리가 ‘괜찮아, 아샤?’하고 물어오는 말소리가 들려오지만, 나는 이미 머릿속이 터질 듯 복잡해서 ‘응.’하는 김 다 빠진 맥주 같은 대답 외에는 그 어떤 말도 목 위로 끌어올릴 수가 없었다. 그렇게 침체된 분위기로 우리 둘은 잠시 복도를 천천히 걷고 있었을까.

“거기, 너. 잠시 멈춰줄래?”

어떤 보랏빛이 도는 머리카락을 지닌 남자가, 양 옆에 썩 괜찮게 생긴 친구인지 꼬붕인지 모를 대학생 남자 두세 명을 대동한 채 우리들 앞을 가로막았다.

“헉, 레오니드!”

마리의 입에서 마치 비명을 닮은 한마디가 툭 튀어나왔다. 그건 아무래도 우릴 붙잡은 남자의 이름인 모양.

중앙에서 우리를 불러 세운 그 남자의 외모는 상당히, 아니, 몹시 준수했다. ‘몹시’라는 표현도 몹시 스스로가 ‘제가 감히 레오니드 님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어요!’라며 극구 사양해야 할 그런 수준이었다. 관심 있게 보지 않고 금방 고개를 다시 바닥으로 내렸기에 루이스 때처럼 이목구비 하나하나를 일일이 관찰할 틈 따위는 없었지만, 평범한 외모가 아니라는 것만큼은 머릿속으로 족히 인식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나는 눈앞의 수려한 외모의 남자가 필시 마리를 붙잡은 것일 거라 믿었다. 그도 그럴 게, 적대적인 눈빛이 아니라 뭔가 호감이 가득한 눈동자로 우리 둘의 앞을 가로막아온 것이었기에. 어제 아처와 있었던 일이라던가, 또는 천한 내 신분을 이 학교 내의 모두가 알고 있다면, 그 어떤 이도 저런 눈빛으로 나를 잡아 세울 일이 절대 없을 거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나는 마리에게,

“먼저 가볼게, 마리. 나중에 봐.”

라고 말하고 그 보라색 머리카락 남자의 옆을 슥 지나쳤다. 아니, 지나치려 했다.

그래. 이런 요란한 특징을 지닌 인간이 내게 호감을 보이는 일 따위, 절대 없는 게 정상이잖아? 그래야 정상이고, 또 그래야만 내 인생이 편한데.

“아니, 너 말야. 너 부른 건데.”

지나치다 말고 어깨를 잡혔다. 몸에 힘을 뺀 채 멍하니 앞으로 걸어가던 나는, 그 레오니드라는 이름의 남자가 어깨를 붙잡아버림으로써 몸이 뒤로 휙 기울었다.

레오니드도 고작 그렇게 잡은 충격으로 인해 내가 뒤로 휘청거릴 줄은 몰랐던 모양인지, 내가 뒤로 넘어가는 그 순간에 보라색 눈동자가 휘둥그레진다. 뒤로 넘어지면서 순간적으로 그의 표정을 봐버렸기에 알 수 있었다.

으아악! 이러다 내 뚝배기가 바닥에 부딪혀 와장창 깨져버리겠어! 머릿속에서 수박이 바닥에 떨어지며 파사삭-하며 깨지는 장면이 그려진다. 그리고 그 안에서 붉디붉은 과육이. 아, 아니다. 여기까지.

질끈. 눈을 감아버렸다. 어제는 배때지를 걷어차이더니, 오늘은 머리냐?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비뢰신마냥 스쳐지나간다. 양팔을 허공에 허우적거리며 머리는 바닥에 찧어버리기 일 보 직전이던 그 순간, 무언가 눈앞에 살랑-하는 듯한 바람이 불어왔으니.

“놀랐잖아.”

그가 나를 붙잡았다.

지금 같은 상황 속에, 핑크빛 무언가를 기대한 이가 있다면 한마디 묻고 싶다. ‘대체 뭘 기대한 거죠?’라고. 그렇다. 정말이지 살과 살이 맞닿는 스킨십 따위란 눈 씻고도 찾아볼 수 없었으니까.

“감사합니다.”

“아냐. 나 때문에 넘어질 뻔 했는걸.”

나는 공중에 거의 드러눕다시피 한 포즈로 둥둥 떠 있었다. 뚝배기가 깨지는 느낌은 없고, 바람만 살랑거리며 부는 듯한 느낌이 들어오기에 눈을 번쩍 떴었다. 그리고 이내 이게 대체 뭐지? 하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좌우를 번갈아 둘러보니, 아무것도 없었다. 그제야 바람 마법이었음을 깨닫고, 나는 작은 한숨을 내쉬었다. 딱히 잘생긴 남자와의 드라마틱한 썸씽을 바라는 건 아니다만, 내심 아쉽긴 하군.

그는 이내 나를 향해 손을 뻗어왔다. 그것이 잡고 일어나라는 뜻임을 깨달은 나는, 곧바로 그의 손을 붙잡고 둥둥 떠 있던 자세를 탈피해 두 다리로 멀쩡히 바닥을 딛고 섰다. 솔직히 방금 느낀 건데, ‘바람 마법 침대’ 같은 걸 개발해도 괜찮지 않을까. 정말 기발한 생각 아니야? 내가 마법을 쓸 줄만 알았더라면 이미 특허가 100개는 넘게 있었을 듯.

“무슨 일이세요?”

나는 눈앞의 남자와 시선을 마주하며 최대한 겸손한 목소리를 내어 용건을 물었다. 마리가 ‘레오니드’라고 불렀던가? 일단 이 눈앞의 레오니드라는 남자의 복장은 마법 대학생의 유니폼이었다. 그렇다는 말인즉슨, 눈앞의 상대는 내가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되는 저-멀리 하늘만큼 높은 존재라는 뜻.

뭐? 루이스는 왜 막 대했냐고? 딱히 막 대할만한 시간도 없었다고 생각한다만. 만약 그렇게 느낀 사람이 있다면, 한마디 해주겠다. 내 주인이랑 남의 주인은 다른 거다. 내 물건은 막 다뤄도 되지만 남의 물건은 아니듯이. 뭔가 주종관계가 바뀐 것 같다고? 아니다. 그런 거 아니야. 아니라면 아닌 거다.

“네가 루이스의 조수 맞지?”

“아, 네. 일단은 맞아요.”

머지않아 이승을 탈출함으로써 그만두게 될지도 모르지만.

“‘일단은’? 듣던 대로 특이한 여자애네.”

특이하다니, 칭찬이야 욕이야? 알 수 없는 말을 꺼내온 레오니드는 방긋- 하듯 미소 지었다. 키도 루이스만큼 크고, 얼굴도 뭐라 덧붙일 표현조차 없을 만큼 잘생겼지만 그는 뭔가 분위기가 루이스와는 달랐다. 같은 숫자의 눈, 코, 입이 달린 잘생긴 얼굴이란 점은 똑같았지만, 이목구비 하나하나의 개성이 다를뿐더러, 루이스는 신경질적인 표정을 자주 짓는다는 점과 눈앞의 레오니드는 웃는 표정을 자주 짓는다는 점부터가 그 다른 점 중 하나인 것 같았다.

루이스가 어른스럽다면, 눈앞의 남자는 좀 더 소년스럽다. 저 웃는 낯부터가 그런 느낌을 주기에 충분했다. 실실. 뭐가 그리 즐겁니?

“어제 네가 아처를 크게 혼쭐내줬다는 소식을 들었어. 대단하더라. 그 녀석이 다른 학생들의 조수를 자주 때리고 다닌다는 거, 너도 알고 있었던 거야?”

“네? 그럴 리가.”

알았다면 안 덤볐을 겁니다. 나는 맞고 싶어 환장한 사람이 절대로 아니거든요. 뻔뻔한 눈빛으로 그런 속마음을 드러내 보이고 있는데, 레오니드는 저 좋을 대로 내 대답을 해석해버린 것 같았다.

“그럼, 몰랐는데도 그 자리에서 알아보고 아처에게 훈계해준 거야? 듣자하니 신분이 굉장히 낮다던데. 그럼에도 넌 무척 씩씩하구나.”

으응? 아니, 그렇게 말한 적 없는데? 네 눈엔 내가 그렇게 정의롭고 오지랖 넓은 사람으로 보이니? 아, 물론 오지랖이 태평양처럼 넓은 사람인 건 맞아. 하지만 그 태평양의 양극에 나와 정의가 존재하고 있단다. 그야말로 극과 극인 위치에 존재한다는 뜻이지.

“어, 음. 칭찬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런 내 썩어빠진 속마음까지 눈앞의 잘생긴 남정네에게 바바리맨마냥 까발려줄 필요는 없었다. 아니, 필요고 자시고 간에 그냥 말하지 않는 편이 낫다. 어쨌거나 이 레오니드라는 소년은 말하는 본새도 썩 괜찮아 보이는데다가, 얼굴만 해도 보는 이들로 하여금 눈이 절로 즐겁게 만들어주는 그런 존재였기 때문이다. 인성에도 문제가 없는 듯하니, 평판도 괜찮을 것 같고 말이지. 이런 경우엔, 괜히 밉보이거나 이상한 애로 낙인찍혀서 좋을 게 없다.

얼렁뚱땅 대답한 나를 바라봐오던 레오니드는 눈을 반달로 접으며 생긋 웃었다. 남자에게 저런 미소가 잘 어울리다니, 세상에. 진짜로 소년미 넘치네, 얘? 몸도 마음도 다 큰 청년이 외양적으로 소년 같은 분위기와 그런 매력을 뿜어내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텐데. 성인과 소년의 매력을 두루 갖추고 있는 그였으니.

문득 내 머릿속에서 호르몬이 ‘이 남자야! 네가 번식을 한다면 이런 남자와 해야만 해!’하며 날뛰고 있는 것이 느껴져, 속으로 그 한심한 호르몬들에게 ‘내가 그러고 싶다고 그 일이 실현 가능하다면, 이미 난 전생에 원빈과 결혼에 골인했을 거란다’라는 한마디를 던져주고서 옆을 돌아보았다.

마리의 동공은 이미 하트모양이었다. 이제야 좀 알겠군. 눈앞의 이 남자애가 이 학교 내에서 어떤 이미지로 군림하고 있을지를.

‘아이돌’이야. 아주 제대로 된 교내의 아이돌이라고.

“너, 이름이 뭐야?”

그리고 지금, 그 아이돌이 내게 이름을 물어오고 있었다. 호, 혹시. 이거 그린라이트냐!

“이름은 왜요?”

하지만 이럴 때 여자가 쉽게 대답해주면 매력 없다. 딱히 귀한 이름도 아니지만, 나는 한 번 튕겨주듯이 레오니드에게 새침하게 되물어보았다. 그는 눈을 동그랗게 뜨더니, 이내 고개를 한번 갸웃한다. 옆의 마리에게서 코피가 터지는 듯한 소리가 났는데, 기분 탓이겠지?

“그냥 궁금해서. 아, 그러고 보니 내 소개를 안했구나. 난 레오니드 오스칼이야. 이제 네 이름을 물어봐도 될까?”

레오니드가 자기소개를 하며, 내게 물어왔다.

오스칼? 오스카 상이 떠오르는 성이네.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오스카 상을 받는 걸 미처 보지 못하고 죽었는데, 과연 디카프리오는 오스카 상을 받았을까? 18년이나 지났으니 어쩌면 지금쯤은 받았을지도 모르겠군. 하는 뻘생각을 하며, 나는 그에게 대답했다. 그러고 보니, 레오니드라. 왠지 이름도 비슷한 것 같은데.

“아 네, 뭐. 저는 아샤예요. 신분이 신분인지라 성은 없고요.”

“응, 그건 알고 있어. 아샤라니, 예쁜 이름이구나.”

레오니드는 활짝 웃었다. 그리고 나는 생각했다.

‘아, 내가 뼈를 묻어야 할 곳은 바로 레오니드의 마음 속이구나.’라고.

“그런데, 무슨 용건이시죠?”

응, 물론 농담이야. 내 수준으로라면 레오니드의 마음속에 뼈를 묻는 것보다, 지금 당장 마법 대학 앞 정원 안에 뼈를 묻는 것이 더 빠르고 실현 가능한 일일 거다.

게다가, 이렇게 소년적인 매력의 남자는 딱히 내 취향도 아니고. 뭐, 레오니드라고 내가 본인 취향이겠는가? 나도 주제파악이라는 걸 할 줄 안다. 그런 일 따위 막장 소설 속에서도 일어날 일 없다는 거,

“너한테 관심이 생겨서.”

“어?”

이젠 모르게 되어버렸네?

나한테 관심이 생겼다고? 그럴 리가. 아니지, 무리도 아니다. ‘천민이 마법 대학에 발을 들인 걸로도 모자라, 어떻게 귀족한테 덤빌 수 있지? 신기해!’하는, 그런 관심일 수도 있다. 마치 모 만화에서 ‘내 뺨을 때린 건 네가 처음이야!’같은 대사를 하던 남자주인공처럼. 상식적으로 따져봤을 때, 레오니드가 말한 관심이 호기심 이상일 확률은 거의 제로에 가까웠다. 딱히 내가 못생긴 편인 건 아니었지만, 잘나가는 귀족이자 뛰어난 마법사인 그가 천한 신분인 내게 이성적으로 관심을 보일 일이 뭐가 있겠는가? 얼굴 예쁘고 몸매 좋은 귀족 영애들이 빗자루로 쓸어담을 만큼 많은데.

즉 그의 입장에서는 ‘네가 처음이야!’까지인 거지, ‘네가 처음이야, 우리 사귀자!’까지로 이어지지는 않을 거라는 얘기다. 한마디로, 이성적인 관심이라는 게 아니라 신기한 존재에 대한 호기심일 거라는 거. 그래, 이게 정답일 거다. 아마도.

레오니드에 대한 생각은 이정도로 마무리되었다. 애초에 그리 안면이 있는 사이도 아닌데다가―오히려 오늘 처음 본 사이― 그가 ‘관심이 생겨서’라는 말 다음에 딱히 그린라이트라고 착각할 만한 여지는 주지 않았기 때문에, 더 생각할 거리조차 없었다.

그는 곧 수업이 시작될 시간이라며 언젠가 다시 만나게 될 때가 오면 그 때 보자고 말한 뒤, 마저 갈 길을 갔다. 이게 그린라이트는 확실히 아니지 않은가. 신호등으로 치자면 노랑 불 정도지. 그래서 현재 나의 머릿속을 지분을 차지하고 있는 생각은 딱 두 가지였다.

‘바람 마법 침대를 개발할 수 있는가?’와 ‘나는 루이스의 조수가 된 이상, 어떻게든 죽을 팔자인 건가?’.뭔가 이상한 게 껴있는 것 같다고 느껴진다고? 아니야. 이건 이상한 게 아니라 획기적인 거다. 혹시 알아? 바람 마법 침대를 개발해서 내가 벼락부자가 될지. 아, 물론 그것도 내가 살아있어야 실현 가능한 미래인 거니까 일단은 조수직에 대한 고민부터 해보자.

이제 어쩌지?

“루이스의 조수가 세 명이라. 끄응.”

루이스에게 거절당한 나는 대학 정원의 벤치에 덩그러니 앉아있었다. 마치 ‘생각하는 사람’ 동상 같은 포즈로. 마리는 모시고 있는 주인이 수업 시간인지라 조수로서 본분을 다하기 위해 가버렸고, 고요한 정원 안에는 나뿐이었다. 기숙사로 돌아가기엔 왠지 하루가 너무 따분하게 느껴질 것 같아 이곳으로 온 거였는데, 중앙의 분수대에서 물이 튀는 소리만을 제외하자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조용해서 그런지 별별 잡생각이 다 들어온다. 바람 마법 침. 아니지. 이건 이제 그만 생각하자.

앞으로 난 어떻게 해야 할까? 안경잡이의 행동이라던가, 마리가 했던 말을 서로 섞어보았을 때 거기에 거짓말처럼 느껴지는 점은 없었다. 잘 맞아떨어진다는 얘기다. 안경잡이는 내게 살고 싶으면 자신과 내기를 하자고 했고, 마리는 내가 죽을지도 모른다고 했다. 뭐, 루이스의 측근들이 죽어나간다는 얘기는 확실히 사실인 듯. 루이스가 ‘조수는 필요 없다’며 나를 내친 것도, 어쩌면 더 이상 자신의 주변 인물이 죽는 걸 바라지 않아서일지도 모르겠다.

어라, 다시 생각해보니 좀 기특한데? 어쨌거나 내가 죽지 않길 바라서 내쫓았다는 뜻이 되기도 한 거니까.

하지만 그럼 뭐해. 에스테의 마법사 아저씨는 누군가의 명령을 받고 나를 이곳에 집어넣은 것이었고, 그 명령을 내린 사람은 아무래도 루이스의 아버지 되는 인물일 것이다. 내 추측대로라면, 그 높으신 분들은 루이스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미끼로써 나를 이곳에 조수로 보낸 거란 얘기가 되는데. 그렇게 작정하고 나를 보낸 마당에, 이제 와서 내가 진실을 알았다고 돌아가게 해 달라 호소한들 들어주겠는가? 더군다나 나는 이백만 베른의 빚까지 있는 몸인데. 노예 계약서만 없을 뿐, 노예나 다름없는 입지란 말이다.

여기서 도망친들 저 캄캄한 노예인생의 구렁텅이로 곤두박질치거나, 저승으로 향하는 톨게이트 표를 끊는 결과 말고는 없을 것 같다. 운이 좋았기에 천민인 내가 지금 같은 호사스런 마법 대학에 들어와, 호화스러운 기숙사를 쓰게 된 것이지. 원래로 치자면 5평 남짓한 방에서 웅크린 채로 잠드는 게 내 일상이었다고.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벗어났다간, 그 일상마저 못 되찾게되는 수가 있다. 그런 최악은 역시 사절이야.

하지만 나를 미끼로 쓰려고 이곳에 데려다놨다고 생각하자니 또 이상한 게, 차라리 나 같은 평범한 여자애 말고 엄청 강한 마법사나 듬직한 호위대를 붙여줘도 되지 않나? 왜 하필 나지? 루이스의 신변에 문제가 생겨도, 아무짝에도 도움 될 수 없는 나처럼 연약한―내 기준―여자애를?

“끙.”

내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몇 가지들이 있지만, 안타깝게도 이런 정보들은 딱히 물어볼 곳이 없었다. 루이스에게 직접 가서 물어보자니 당사자인지라 좀 그렇고, 마리에게 물어보자니 마리인들 높으신 양반들의 머릿속을 어찌 알겠어? 나와 비슷한 생각을 했으면 했지, 답을 알 리는 없다고 본다.

그럼 대체 누구한테 물어보지? 잠시 고민했다. 그러다 문득 머릿속에 뭉게뭉게 피어오르는 어느 웬수 같은 얼굴이. 앗! 이런 썩을 안경잡이! 어서 내 머릿속에서 썩 꺼지지 못해! 불쾌하게시리!

그 동그란 안경만 떠올려도 치가 떨린다. 아니, 다시 떠올리자니 열 받네. 누구에게는 목숨이 달린 문제인데 내기니 어쩌니 하고 자빠져있는 건 무슨 태도야? 내 목숨이 무슨 스포츠 토토 같은 내기거리야? ‘죽는다에 한 표, 안 죽는다에 한 표!’이럴 수 있는 거냐고. 괘씸한 자식!

속으로 조용히 분노를 삭이며 꽉 쥔 주먹만 부들거리고 있으려니까, 내 앞에 웬 그림자가 드리웠다. 어, 벌써 해가 지나? 아직 네 시밖에 안 됐는데.

“응?”

고개를 들어올렸다. 그리고, 이내 내 눈앞에 있는 그것은 저물어가는 노을의 풍경이 아닌!

“끼약!”

“왜 그렇게 놀라?”

검지로 안경을 치켜 올리는 안경잡이의 면상이었다! 으아아악!

왜 그렇게 놀라냐고? 아니, 이건 놀라는 게 아니다. 경악스러워서 나오는 반응이지.

“꺼지, 아니, 그냥 가주실래요? 그쪽이랑은 더 이상 할 말 없거든요, 나.”

“.불과 네다섯 시간 만에 왜 이렇게 까칠해졌지?”

안경잡이가 내가 앉은 벤치에 앉았다. 으악! 기겁하듯 벌떡 일어섰는데, 갑자기 내 몸이 다시 벤치로 털썩! 하고 주저앉는 게 아닌가. 뇌야, 미쳤니? 일어나라니까 왜 몸이 말을 안 듣...

“그냥 앉아있어. 내가 잡아먹기라도 해?”

아, 마법이구나. 뒤늦게 알아차렸다. 아무리 마법 대학이라지만, 학교 내에서 이렇듯 마법을 마구잡이로 쓰게 내버려둬도 되는 건가? 이러니까 내가 어제 봤던 풍경처럼 폭발음이나 들리고, 추격전에서 마법 사슬이나 날리고 막 그러는 거지. 어우, 진짜 호그와트인 것도 아니고.

마법사란 존재가 이 세계에서 딱히 흔한 것도 아닌데, 이곳에 온 후로 여기저기서 마법을 써제끼는 꼴을 보게 되어 심장이 영 건강하지가 못하다. 이러다 어느 마법 때문에 놀라서 개복치마냥 돌연사하는 경우가 생기진 않을까 싶은데.

그나저나 이 말포이 같은 자식은 왜 또 나한테 접근해온 거야?

“또 왜요?”

“‘또’라니. 이제 겨우 세 번 보는 사이에.”

“그쪽은 이틀 만에 세 번이나 보고 싶은 얼굴은 아니라서요.”

“그래? 흠. 반대여야 하는 거 아닌가. 내 어머니께서는 세상에서 내가 제일 잘생겼다던데. 아니야?”

얘가 돌았나? 눈도 안 보이게 꽁꽁 숨기고 다니면서, 저런 해괴한 소릴.

눈앞의 안경잡이는 설령 안경으로 눈을 가리지 않았다 해도, 민트빛깔이 도는 은발이 사방으로 뻗쳐있는 더벅머리였으므로, 겉모습만 봤을 때 마이너스 요소는 이미 충분했다. 충분하다 못해 넘칠 지경인 것 같다만. 뺑글이 안경잡이에다 손질하지 않은 더벅머리, 거기다 남들보다 큰 사이즈의 헐렁한 교복 바지. 이 세 가지만 종합해 봐도 그가 얼마나 패션테러범인지를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라 여겨지는데.

저런 몰골로 다니면서 잘생겼다는 말이 어떻게 나올 수 있지? 양심을 고향에 두고 온 건가?

“.혹시 오늘은 머리를 맞기라도 하셨나요? 그런 거죠? 제정신이 아닌 것 같은데.”

“유감스럽게도 제정신이야. 아, 메이드 줄리아에게는 가봤니?”

“아뇨.”

안경잡이가 물어왔다. 내가 가란다고 순순히 가는 쉬운 여자로 보였다면, 그건 네 오산이란다. 팔짱을 낀 채 안경잡이가 앉은 반대편으로 고개를 돌려버렸다. 그런 내 반응에도 아랑곳 않고, 그는 제 할 말만 하는데.

“그래도 이런 데서 고민이나 하고 있는 걸 보니, 뭔가 알게 된 것 같아 보이는데. 아니야?”

“아, 아뇨.”

“맞지? 그럴 줄 알았어.”

안경잡이가 씨익 웃었다. 아니, 웃고 있을 것 같다. 사실 고개를 돌리고 있어서 나는 그의 표정을 몰랐다. 그런데 왠지 그런 께름칙한 표정을 짓고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고개를 옆으로 돌려보았더니, 그는.

“그래서, 생각은 해봤어?”

“.아-니요.”

웬일이지? 진지해 보이는 무표정이었다. 뭐야, 아까처럼 농담스럽게 실실거리는 낯짝으로 사람 약올리는 듯한 태도로 나올 줄 알았더니. 그 반대라서 더 적응이 안 되는데?

“네가 죽을지도 모른다니까? 너도 어디서 들은 게 있다면, 이젠 내 말이 맞다는 걸 알 거 아냐.”

“..”

안경잡이가 짐짓 진지한 표정으로 내게 말해오기에, 나는 눈을 가늘게 뜨고서 그를 노려보았다. 사실 노려보는 정도까지는 아니었고, 관찰이라도 하듯 유심히 바라보았는데. 그의 표정에서 일어나는 미세한 변화를 관찰하면, 무언가 내가 해야 할 대답에 대한 단서를 얻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해본 것이었다.

그러나 어림도 없었다. 안경잡이의 표정도, 머릿속도 읽히지 않으니 답은 하나였다. 결국 내가 대답해야 할 말은 내가 알아서 떠올려내야 한다는 거다.

뭐라고 해야 할까? 마리에게서 루이스의 조수들이 5년 동안 세 명이나 죽어나갔다는 얘기는 이미 들었고. 머지않아 나도 죽게 될 거라는 안경잡이의 말도 틀린 게 없고.

.그렇다면?

“무슨 내기인데요? 그쪽이랑 그 ‘내기’라는 걸 하면, 난 안 죽을 수 있는 건가요?”

그 내기라는 게 뭔지, 어디 한 번 들어나 보자.

루이스의 조수가 된 지금의 상황을 빼도 박도 못한다면, 죽지 않게 발버둥이라도 쳐봐야 할 게 아닌가. 멍청하게 ‘나 죽여주쇼’하고 목을 길게 뺀 채 그 정체모를 살인 마법사만 기다리고 있을 순 없었다. 게다가 안경잡이가 지금처럼 내게 접근해오는 걸 보면, 이 인간도 무슨 생각이 있어서 이러는 거겠지.

그게 내게 도움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다만, 일단 나는 눈앞에 보이는 낡아 보이는 줄을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붙잡아보기로 했다.

내 물음에, 안경잡이의 입꼬리가 스르르 올라간다. 또또, 저런 얄미운 미소.

“물론이지. 내 가문의 명예를 걸고 약속해. 어때, 해볼래?”

안경잡이가 도로 물어왔다. 귀족이라는 녀석이 가문의 명예까지 걸고 말할 정도라면, 확실히 무언가 확실한 방법이 있는 게 틀림없다.

나는 그렇게 믿었다. 아니, 믿어야만 했다. 지금으로써는 이 외다리 나무 외엔 별다른 길이 없었으므로.

“좋아요. 해보죠, 그 내기라는 거.”

고개를 끄덕이며 답하자, 흡족한 대답이라는 듯 안경잡이가 미소를 지우지 않은 채로 고개를 살짝 내린다. 그리고 이내 오른손 약지에 낀 반지를 왼손가락으로 슬며시 돌리듯 만지는 것이 아닌가. 안경잡이가 손에 반지를 끼고 있다는 사실을 지금에서야 안 나는, 슬쩍 그의 손을 쳐다보았다.

은근히 하얗고 손가락이 기다란 게, 손은 예쁘네. 얼굴이 가져야 할 아름다움을 손이 다 가져간 건가? 라고 생각하던 순간.

“이 내기에서 네가 이기게 되면.”

그는 입을 열어왔다. 어, 내기의 조건을 말해주려는 건가? 안 그래도 궁금했었다. 대체 어떤 조건을 걸고 싶어서 내게 이런 제안을 해왔단 말인가. 궁금하다는 표정으로 자세를 고쳐 앉았다. 그걸 본 안경잡이가 피식하고 웃었다.

“넌 네 목숨을 보상으로 가져가게 될 거야.”

아, 그건 당연한 거지. 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반대로.

“지면요?”

뺑글이 안경에 태양빛이 반사되어 반짝거린다. 마치, 안경잡이의 눈동자가 반짝이기라도 하는 듯이.

“넌 죽어.”

그의 대답은 간단명료했다.

18살은 너무 어린 나이다. 거기에 보태어, 전생에서나 이생에서나 나는 남자친구 한 번 사귀어보지 못한 모쏠이었기에, 이대로 순순히 정체불명의 마법사에게 목숨을 빼앗겨주기엔 이생에 남은 미련이 너무나도 많았다. 이 세계에서의 나는 아직까지 천민이 아닌 제대로 된 사람으로조차 살아본 적이 없지 않은가? 그랬다. 나는 살고 싶었다.

그래서 오케이하게 된 ‘내기’. 안경잡이가 나 자신과 목숨을 걸고 하는 내기라고도 칭했던 그것은 결국 스타트를 끊었다. 나는 나 스스로와 내기를 하게 된 것이다. 내가 해내면 살 것이오, 실패하면 죽게 될 것이라는 그 내기. 안경잡이가 내민 그 썩어빠진 동아줄 외에는 내 목숨을 구명할 길이 마땅히 없었으므로, 나는 그것을 잡아야만 했다.

그러나, 지금의 나는 돌이켜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다.

“다시.”

“..”

나는 정녕 살고 싶은가?

“다시.”

“..”

꼭 살아야만 하는가?

“다시.”

“!”

그냥 다시 환생하는 것도, 어쩌면 나쁘지 않은 선택인 게 아닐까? 하늘에서 내게 내려준 썩어빠진 동아줄에다 그냥 확 불이나 질러버리고 다음 생을 기약하는 게, 지금보다 나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 여기서 이러고 있는 것보다는 어쩌면.

"다,"

“다시라고요! 안 해! 나 안 해요!”

아오! 열 받아서 더는 못해! 앞치마를 풀어헤치고 바닥에 집어던졌다. 이번으로 자그마치 스물 세 번 째 ‘다시’다. 얼마나 뺑뺑이를 돌려야 만족하니?

지금 나는 뭘 하고 있냐고? 앞치마를 입고 있었다, 앞치마. 앞치마는 보통 뭘 할 때 입는 복장인가? 그래, 요리다.

나는 지금 요리를 하고 있었다. 그것도, 조수들의 기숙사 주방에서 말이다.

안경잡이와 내기를 시작한 날로부터 3일이 지났다. 3일 중의 첫날에는 조수로서 주인의 마법 준비물을 챙기는 법을 배웠고, 다음 날에는 이곳 마법 대학의 건물 곳곳을 살펴보고, 조수로서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교양지식을 습득했다. 예상했던 것보다는 꽤 영양가 있는 수업들이었기에 상당히 만족스러웠었다지.

그런데, 문제는 바로 3일째인 오늘에야 터졌다. 바로 이런 쓸데없는 요리 수업을 듣게 된 것이다. 아니, 대체 마법사의 조수가 요리는 왜 배워야 하는 거지? 마법 재료에 대한 것만 잘 알아도 충분한 거 아니야? 무슨 메이드나 가정부도 아니고, 이런 걸 조수가 왜 배워야 하는 건데?

“대체 이런 걸 왜 해야 하는 거예요? 게다가, 뭔 음식 가짓수가 이렇게나 많아! 이걸 다 배워야할 필요가 있긴 해요?”

“있지, 물론.”

내가 집어던진 앞치마를 아도라 양이 주워주었다. 앗, 이러려고 던진 건 아니었는데. 나는 작은 목소리로 그녀에게 ‘미안해요’라고 속삭여 사과하고는 다시 주섬주섬 앞치마를 건네 받아 입었다.

참고로 아도라는 저 빌어먹을 안경잡이의 조수였다. 저런 놈을 보필하는 조수 치고는 너무 얌전하고 예쁘고 지적이게 생긴 미인이라, 나는 그녀를 처음 봤을 때 ‘혹시 자원봉사 나오셨어요?’라고 물을 뻔했다. 정말 이 둘은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아도라가 훨-씬 아까운 관계로 보였으니. 지금의 나는 그런 아도라에게 요리를 배우고 있는 상황이었다. 대체 요리는 왜?

“뭔데요? 이런 거추장스러운 요리를 배워야 하는 이유가.”

“조수들은 학생들의 도시락을 챙겨줘야 하니까.”

뭐? 도시락? 윤봉길 의사도 아니고. 웬 도시락?

“그거, 진심으로 하는 소리예요?”

“진짜야. 아도라에게 물어봐.”

“진짜예요?”

“네.”

도시락을 싸간다는 게 농담이 아니라 진짜라고? 맙소사. 어쩐지 너무나도 당연스럽게 요리를 가르치려 든다 싶더라니. 처음에는 내가 내 음식도 제대로 해먹을 줄 모르는 칠푼이로 보여서 기본적인 걸 가르쳐주려는 건가 싶었는데, 어째 가면 갈수록 난이도가 어려워지기에 물어본 말에 뜻밖의 대답을 들어버렸다.

그러고 보면 마법 대학에 들어온 요 며칠 동안, 나는 마법 대학 캠퍼스 내에 존재하는 음식점 몇 군데에서만 끼니를 때웠었다. 어디서 식사를 해결해야하는지도 모르는 나를 안경잡이와 아도라가 데리고 가서 사줬었는데. 그래서 나는 학식을 먹는 전생에서의 대학교 캠퍼스들처럼 이곳도 그런 곳인 줄 알았다만, 아니란다. 도시락을 싸간다고? 그 많은 음식점들 놔두고 왜?

“식사할 곳 많잖아요? 보니까 카페도 있고, 양고기 스튜 가게도 있고, 햄 샌드위치 가게도 있던데. 먹을 곳 많기만 하구만, 왜요?”

“너는 1년 365일 양고기 스튜, 햄 샌드위치 등을 번갈아 먹으라면 그럴 수 있어?”

생각해보니 그건 또 그렇군. 가게는 많이 세 봤자 열 개 남짓 되는 듯했는데, 하루 한두 끼만 해결하는 것도 아니고 1년 내내 이곳에서 머물며 식사를 해결해야한다면 그것만 먹는 것도 불가능하겠구나. 너무 단순하게 생각했잖아, 나? 이번 건 인정.

그런데, 그럼 차라리 급식을 해도 되지 않은가. 명색이 제국에서 세운 마법 대학인데, 돈이 부족해서 안 하는 것일 리도 없고. 이 나라엔 급식충이라는 단어도 없는데, 왜 때문에 없는 거지? 이번 의문은 정말로 이해가 안 가는데.

“급식은 왜 안하는데요? 마법 아카데미는 하지 않나?”

“몇 년 전까지는 이곳도 급식 제도였었습니다.”

이번엔 아도라가 답해왔다. 음? 그럼 있었다가 사라졌다는 거잖아.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갸웃거리자, 드넓은 주방 한가운데에 대지 마법으로 돌 의자를 만들어 그곳에 앉아있었던 안경잡이가 그런 내 반응이 웃기다는 듯 푸훗! 하고 웃으며 내게 말해왔다. 가만 보면 저 자식, 은근히 마법을 자유자재로 잘 다루는 것 같기도? 아, 아니다 취소. 이런 거 인정해주기 싫단 말이지.

“사라졌어. 어떤 이상한 녀석이 수프에 독을 탔거든.”

“독이요? 그럼, 그 때 식사를 한 학생들은요?”

“아, 걱정 마. 아무도 잘못되지 않았으니까. 하필 대학 식당의 수저가 은수저였거든. 독을 탄 놈도 어지간히 실력이 없었던 모양이야. 은수저에 걸릴 만한 허접한 독을 쓰다니 말야.”

“아.”

아무도 안 다쳤으니 잘 된 거지.

어쨌거나 당시에 아무도 다치지 않았었다니 다행이다. 이런 뛰어난 마법 학교에서 창창한 인재들이 독을 먹고 잘못되기라도 한다면, 그 인생이 얼마나 안타깝겠는가? 나처럼 별 쓸모없는 인간들이야 죽어나가도 이 세계엔 별로 손실이 없다지만, 마법 인재들은 아닌 입장이니까. 이렇게 말하니까 뭔가 되게 자기 비하 같은데, 슬프지만 또 사실이라 뭐라 반박할 거리가 없다. 흑흑.

하여튼, 은수저에 걸리지 않으면서도 치명적인 독 종류는 엄청 많은데. 그 땐 운이 좋았구나. 만약 더 뛰어난 마법사가 악의를 품고 그런 짓을 벌인다면. 으윽, 끔찍한 일이 벌어지겠군. 듣고 보니 급식은 안 하는 게 나은 것 같기도.

“그 사건 이후로 급식 제도는 폐지되었습니다. 그 대신, 학생 개인들의 조수가 도시락을 준비하게 되었지요.”

“음. 저희로서는 더 귀찮아진 셈이네요.”

“영광이라 생각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때가 아니면, 언제 또 나 같은 뛰어난 마법사들의 도시락을 챙겨보겠어.”

“그쪽은 입 좀 다물어주실래요? 요리에 방해가 돼서.”

“너무해.”

다시 요리 준비를 하는 아도라를 거들며, 입으로는 안경잡이를 타박했다. 안경잡이가 입술을 삐쭉 내밀며 토라진 체를 해보이고 있는데, 일부러 녀석이 있는 쪽을 외면해버리듯 고개를 아래로 내려버렸다. 이쯤 되면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혹시 저 자식, 구박당하는 걸 즐기는 건 아닐까?’하는. 저런 게 설마 말로만 듣던 마조히스트인가? 나한테 내기니 어쩌니 제안하는 걸 보면 새디스트 같다가도, 저렇게 순순히 구박당하는 걸 볼 때면 그 반대인 것 같기도. 하여튼 도무지 종잡을 수 없는 인간이라니까.

“어쩔 수 없지요. 마법사들이 학문을 정진하는 데에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보필하는 것이, 바로 조수들이 해야 할 일이니까요.”

“물론 그 말에는 적극 동감합니다만, 역시 도시락까지 싸줘야한다는 건 좀 그래요. 무슨 자식 소풍 보내는 엄마가 된 기분이야, 벌써부터.”

“엄마!”

“아, 그쪽은 제발 입 좀 다물고 있어달라니까요!”

버럭! 자꾸만 앞에서 나를 뺀질거리는 시선으로 바라봐오며 쓸데없는 소리를 나불대는 저 안경잡이의 입을 아주 커다란 코르크 마개로 틀어막아 버리고 싶다는 충동이 쓰나미처럼 밀려온다. 후우, 참자. 참아. 오지랖만큼이나 마음씨 넓은 내가 참는 거다, 그래. 하지만 저 뻔뻔한 낯짝을 흘끔 쳐다보니, 배알이 더욱 뒤틀리는 듯한 기분이 들어온다.

안경잡이는 어느새 부터인가 토라진 것 같던 표정은 온데간데없이, 빙글거리는 낯짝으로 흥미롭다는 듯 돌 의자 등받이에 기댄 채 나를 응시해오고 있었으니까. 어째 그리 표정이 손바닥 뒤집듯 홀랑홀랑 바뀔 수 있는 거니? 그것도 그렇게 얄미운 표정들로만 골라서. 너 지금 내 손에 칼 들려 있는 거 보이긴 하냐? 엉?.이라고 쏘아붙여주고 싶지만, 차마 그럴 순 없는 입장이니 내가 참는다, 참아. 후우.

“그럼, 이번엔 보다 쉬운 스테이크로 해보겠습니다.”

아도라가 새로운 소고기를 꺼내어 내 도마 위에 올려주었다. 그래, 이 요리 수업에나 집중하자. 저런 안경잡이 따위에겐 아예 신경을 꺼버리자고.

“알겠어요, 아도라.”

학생들이 학문을 정진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보필하는 것이라. 생각해보면 그녀의 말도 틀린 건 없다. 내가 비록 조수라는 직업을 살아생전 꿈꿔본 적도 없고, 되고 싶다 마음먹은 적도 없었던 인물이기는 하나, 어쨌거나 지금은 루이스의 조수된 입장. 이는 루이스를 책임지고 불편함 없이 모셔야 할 의무가 생겼다는 뜻이 아니겠는가. 물론 죽기 전까지는 말이다.

자유로운 천민이었던 내가 어쩌다 이런 속박당한 노예의 삶이 되어버린 건지는 참. 아이러니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지만, 백날 그런 생각만 하고 있어봐야 뭐해. 현실은 빨리 인정해버리는 것이 정신건강에 이로운 거다. 게다가 저런 안경잡이의 조수가 아닌 것만으로도 어디인가? 아도라가 절로 안쓰러워지게 만드는 저런 인간을. 쯧.

그러니 일단 이 요리 수업이나 제대로 들어보자. 나, 요리 별로 못하는 편 아니잖아? 아도라가 가르쳐주는 메뉴들이 어째 다들 까다로워서 좀 실패했던 거지, 이번엔 비교적 쉬운 스테이크라고 하니까 아마 문제없을 거야. 아마.

“이 스테이크는 고기를 아주 곱게 다져야 합니다. 그래야 뭉쳤을 때 갈라지지 않거든요.”

“음, 알겠어요.”

다지는 거라면 내가 또 잘하지. 나는 눈앞의 도마 위에 놓인 소고기를 안경잡이를 향한 나의 감정처럼 아주 갈아버리듯 곱게 다져버렸다. 그 광경을 지켜보던 안경잡이가 섬뜩하다는 듯 몸을 부르르 떠는데, 그런 반응이야말로 바로 내가 원하던 바였다. 크큭, 내 증오를 느껴보아라! 녀석의 공포에 질린 표정 덕에 다크시니마냥 힘을 얻은 나는 더욱 증오 서린 칼날로 스테이크용 고기를 난도질해버렸고, 이내 아주 아작이 나버린 다진 고기를 아도라가 살펴보더니 그녀는 감탄을 내뱉으며 박수를 쳤다.

다진 고기를 양념하고 양파와 빵가루를 섞은 후, 완벽한 타원형 모양으로 만들어 납작하게 눌러 팬에서 굽는 것까지 완벽히 마치자, 아도라는 그 완성된 스테이크를 맛본 후 내게 말해왔다.

“스테이크에는 굉장한 소질이 있으시군요. 이 정도면 장사를 해도 되겠어요.”

“정말요? 다행이다, 뭐라도 제대로 만들 수 있는 게 있어서.”

처음으로 받은 제대로 된 칭찬인지라 활짝 웃으며 기뻐하기도 잠시, 이내 안경잡이가 속이 좋지 않다는 듯 자리에서 일어났다. 돌로 된 의자가 흔적도 없이 이 공간에서 사라져버리고, 그는 살짝 비틀거리며 조수 기숙사 내의 드넓은 조리실을 빠져나가버렸다. 나는 벙찐 채 들고 있던 칼을 스르르 도마 위에 내려놓았다.

내가 제대로 요리한 걸 보기가 무섭게 나가버리잖아? 앞서 만들었던 요리들은 실패작인 느낌이 다분했던지라 영 맛도 없고 별로였었는데. 그런 걸 먹고서 나를 타박할 땐 멀쩡하더니만, 지금처럼 성공했을 땐 왜 저러고 나가는 거지? 역시 진짜 새디스트인 건가? 응? 괴롭히는 일이 아니라면 흥미가 없는 거야? 그런 거야?

“뭐예요? 저 인간, 임신했어요? 입덧이라도 하는 거예요, 지금?”

어우, 짜증. 옆에서 나더러 하도 요리 못한다고 구박하길래, 속으로 이를 갈면서 가까스로 만들어낸 완벽한 완성작은 정작 제대로 구경조차 않고 나가버리다니. 내게 칭찬은 해주기 싫고, 얄미운 소리만 골라 하고 싶어서 저리 도망쳐버린 게 아닌가 싶어, 아도라에게 투덜거리며 그에 대한 얄궂은 험담을 하려니까.

“도련님은 고기를 못 드세요.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조금이라도 피 냄새가 나는 음식은 못 드신다고나 할까요?”

“에, 뭐라고요? 고기를요?”

“네. 사실 스테이크를 만든다고 할 때, 알아서 나가 계실 줄 알았어요. 보통은 그러시거든요. 피 냄새를 잘 못 맡으시니까.”

“그럼, 지금은 왜..”

“저도 잘 모르겠군요.”

아도라는 깔끔하게 대답했다. 나는 잠시 입을 다물었다.

아도라의 말이 사실인가? 아니, 그녀가 내게 거짓말을 할 이유 따위는 없으니 아마도 진짜겠지. 안경잡이가 피 냄새를 못 맡는단다. 희한하네, 누구보다도 피 냄새엔 아무렇지도 않게 반응할 것만 같이 생겼는데. 왜, 무슨 만화 같은 걸 보아도 그렇지 않은가. 대게는 실눈 캐릭터나, 눈을 가리고 다니는 캐릭터들이 무자비한 습성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내 기억 속에는 훨씬 많았다. 뭐, 현실이 만화 속이랑 같으란 법은 없지만. 왠지 안경잡이의 이미지는 피의 냄새조차 못 맡는 캐릭터보단 피 보는 걸 좋아하는 캐릭터에 가까울 것 같았다만.

뭐랄까, 되게 안 어울리는 설정 같다. 특히나 저 안경잡이에겐 더더욱. 나는 마치 저 안경잡이가 사실은 안경을 벗고 나면 ‘내가 이 구역의 미친 자다, 크하핫!’하고 날뛰는 타입일 거라 믿어 의심치 않았는데. 피를 무서워한다면 그런 타입일 리도 없는 거잖아? 이런 뜻밖이.

“피 냄새도 못 맡으면서, 왜 꾸역꾸역 앉아있었던 걸까요?”

“글쎄요.”

아도라도 모른다고 한다. 나는 연신 고개를 갸웃거리며 생각해보다, 이내 한 가지 결론을 냈다.

그는 내가 스테이크를 실패한 후, 잔소리를 하기 위해 피 냄새를 견디며 자리를 지키고 있었으나, 마침내 내가 완벽하게 성공해버림으로 인해 실망감을 느껴 결국 견디지 못하고 조리실을 빠져나가버린 것이다!

좀 이상하다고? 하지만 뭐, 달리 생각할만한 게 없지 않나? 아마 이게 정답일 거야. 뭐, 다른 답이 따로 있겠어?

설령 있다고 해도, 안경잡이에 대해 아는 게 거의 없는 나로서는 백날 생각해봐야 무의미했다. 나는 그가 나간 원인에 대해 생각해보는 것을 이내 포기해버렸다.

그리고 딱히 내가 알아두어야 할 이유라도 있는 건 아니잖아? 라고 생각했다.

그래, 지금까지는.

“그래서 말야, 연금학은 마법 재료학이랑 다르다고, 내가 ‘시약을 그렇게 넣으면 안 돼요!’라고 말했더니, 세상에 교수가 나더러.”

“어머, 진짜? 엄청 막 나가시네. 가문도 변변찮은 교수님이잖아, 그 분. 뭘 믿고 틀린 제조법을 그렇게.”

“너 이거 먹어봤어?”

“뭔데?”

“만드라고라 소스를 넣은 특제 햄 샌드위치. 맛은 그냥저냥인데, 몸에 엄청 좋다더라. 특히 정력에..”

“만드라고라에 그런 효능이 있다는 얘기는 처음 들어보는데. 속은 거 아니야?”

조잘조잘. 시끌벅적.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다가오는 시기. 그래서인지는 몰라도 적당히 시원한 날씨를 만끽하기 위해 건물 바깥의 대학 정원으로 나온 학생들이 많이 보인다. 아도라에게 얼핏 듣자니, 정원은 엄연한 이곳 대학생들‘만’의 공간이라 보아도 무방하기 때문에, 조수들은 비교적 분수대가 위치한 정원에 얼씬도 하지 않고 그 주변만 맴도는 풍경이 보기 흔한 편이라고.

나는 그간 미처 몰랐는데, 오늘에서야 정원 안과 주변을 둘러보자니 그녀의 말에 틀린 게 없었다. 누군가의 조수가 어쩌다 볼 일이 있어 정원으로 들어가기라도 하면, 그런 이를 바라보는 학생들의 눈치는 꽤나 살벌했다. 마치 ‘우리가 낸 학비로 만들어진 이 정원에 감히 조수 나부랭이가 발을 디뎌!’하는―나부랭이는 아처의 표현을 빌렸다―, 며느리를 못 잡아먹어 안달인 시어머니 같은 눈빛들로 쏘아본다고나 할까?

나도 삼일 전에 정원 중앙의 분수대 옆 벤치에 앉았었는데. 그 땐 수업시간이었던지라 아무도 눈치 줄 만한 인물이 없어서 쉽게 들어갈 수 있었던 모양이다. 지금 들어가 보려니까, 도저히 발을 디딜 용기가 안 나. 높디높은 귀족 가문의 대단한 마법사님들께서, ‘네까짓 천민이 감히 이곳에 발을 디뎌? 네가 아주 미쳤구나!’하는 눈초리로 쳐다볼까봐 무섭다. 무서워하기 싫은데도 막 무서워지고 그러네, 이거. 이 정도면 직업병.이 아니라, 신분병이야. 응, 신분병.

“야, 너 그 소식 들었냐?”

“뭐?”

“아처, 두 달 정학 먹었다잖아. 소문에 따르자면 뭐. 누구 조수를 건드렸다던데. 학생회의 누구.”

“그거 설마. 루이스는 아니겠지?”

“아아, 그래! 루이스 맞을 걸?”

“와, 왜 그랬대? 루이스 성격을 모를 녀석도 아닌데.”

.앗. 마침 꽃이 만발한 정원 내부로 막 들어가던 학생들의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오고야 말았다. 네, 제가 바로 그 소문의 주인공입니다! 하며 당당히 저들의 뒤에서 소리치며 정원 안으로 발을 디뎌볼까? 정원으로 들어가는 데에는 아주 효과적인 방법일지도 모르나, 장기적으로 봤을 때 내 인생에 있어서는 쌀 한 톨만큼의 도움도 안 될 듯한 방법이다.

나는 잠시 궁리한다. 어떻게 해야 이 정원 안에 들어갈 수 있을까? 흐음..

아, 정원 안에는 왜 들어가려 하냐고? 이유는 간단했다. 분수대 옆에 아름답게 피어있는 꽃들 사이에 벤치가 하나씩 마련되어 있었는데, 그 벤치들 중 하나에 루이스가 앉아있었기 때문.

그는 짐짓 거만하고 오글거려 보일 수 있는 ‘다리 꼬기 자세’를 한 채로 책을 읽고 있었다. 다만 문제는, 그런 자세일지라도 루이스가 취하고 있으니 그저 우아한 모델처럼만 느껴지더라는 것이다. 패션의 완성은 얼굴이라더니, 이제는 자세의 완성까지도 그의 얼굴과 비율이 다 해먹고 있음을 뼈저리게 느끼는 지금 이 순간.

그런 그를 멍하니 바라보며, 정원 입구에 우두커니 서있는 나는 도시락을 들고 있었다. 그렇다. 바로 지금을 위해 아도라와 안경잡이는 내게 피눈물 나는 요리 연습을 시켜왔던 것이다. 내가 싼 2단 도시락의 내용물은 간단한 리조또와 샐러드, 그리고 대망의 스테이크였다. 음, 바람직한 조합이야.

지금은 점심시간. 듣기론 루이스는 점심시간 내내 분수대 옆 벤치에 앉아 책을 읽는다고! 그의 굉장한 학구열에 감탄을 보내기도 잠시, 그런 루이스의 주변에 꼬여드는 날파리.라고 함부로 표현 못할 아름다운 귀족 영애들이 눈으로 얼핏 보기에도 차고 넘칠 듯 바글거렸다. 루이스의 무신경한 철벽정신이 그 날파, 아니지. 날파리를 닮은 나비 같은 영애들을 얼씬 조차 못하게 가로막고 있긴 하다만, 그런 덕분에 내 주인이 얼마나 까마득히 높은 위치에서 나를 의식하고 있을지를 감히 알 것도 같다.

그래, 뭐. 나는 내 발밑에 지나가고 있는 이 콩벌레만도 못한 존재겠지. 그런 존재로 느껴지는 게 당연해. 콩벌레는 작고 귀엽기라도 하지, 난 그마저도 아닌데. 크흑.

나는 눈앞의 한 폭의 그림 같은―나를 자괴감에 빠지게 만드는―풍경을 지그시 응시해본다. 분수대 옆의 주위에 꽃이 만개한 자리에 마련된 벤치에 앉아 책을 읽고 있는 루이스의 모습을. 그리고, 그 주변에 ‘저기, 루이스-’하며 말을 붙여보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비싼 보석이나 장신구 등으로 화려하게 꾸민 영애들의 모습을.

눈이 달린 이라면 깨닫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래. 이 정원 내의 ‘아름다운 꽃’은 널리고 깔린 마법으로 피워낸 장미나 튤립 따위가 아니라, 바로 저 ‘루이스 레플리카’라는 것을!

사내자식이 대단하군. 꽃보다 남자라는 건 바로 이런 때에나 쓰는 표현인 건가.

“뭐야, 아직도 못 들어갔어?”

“그쪽이 내 입장이라면, 이런 곳에 쉽게 발 디딜 수 있겠어요?”

안경잡이가 뒤에서 슬그머니 나타나, 내 어깨너머로 고개를 살짝 들이밀더니 말해왔다. 아니, 이런 미묘한 자세를! 쓸데없이 큰 키를 이런 데다 써먹지 말라고, 망할 자식.

나는 고개를 옆으로 슬며시 치우며 안경잡이와 거리를 벌린 후 대답했다. 여전히 내 손에는 2단 도시락이 굳건히 들린 채였는데, 점심시간은 이제 불과 한 시간도 남지 않았다. 지금이라도 빨리 갖다 줘야 루이스도 식사를 할 수 있을 텐데, 문제는 발이 쉽사리 떨어지지가 않아. 차라리 주변에 아무도 없다면 성큼 들어가겠는데, 지금으로써는 영..

“죽고 싶어?”

“.저기요. 그렇게 자꾸 ‘죽는다’는 표현을 남발하면, 제 심장에 좋지가 않거든요?”

안경잡이의 되도 않는 물음에 까칠하게 답했다. 이내 녀석이 ‘그럼 들어가’라고 덧붙여왔지만, 역시 못 들어가겠는 걸. 여기서 정원 내로 조수 유니폼을 입은 누군가가 들어간다면, 이곳의 학생들은 분명 좋지 않은 눈초리로 바라봐올 테고. 무대 체질이 아닌 나는, 당연하게도 그런 거에 익숙하지 않은 입장인데.

“너 자신과 한 내기는 홀라당 잊은 거야?”

“.그것도 안 잊었거든요!”

안경잡이가 안타깝다는 듯한 목소리로 말해왔다. 이 자식의 목소리만 듣자면 나는 이미 죽어, 화장까지 마친 뒤 어느 땅 속에 묻히기라도 한 후인 것 같다. 진짜로 머지않아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걸 잘 알고 있긴 한데, 정말로 이 방법이 효과가 있기는 할까?

“진짜 이래도 돼요? 아니지. 이런 걸 한다고, 내가 진짜 살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어차피 나 말고 다른 누군가들은 네 목숨에 딱히 신경써주지도 않잖아? 속는 셈치고 도전해보라고.”

“그건 그렇지만..”

“시도라도 해봐. 정말 살고 싶다면.”

안경잡이가 실쭉 웃었다. 그리고는 내 어깨를 부드럽지만, 내치는 느낌이 들게끔 앞으로 밀쳐왔다. 정원 안으로 내 발 한 짝이 들어가 버렸지만, 뒤에는 안경잡이가 버티고 서있어 뒷걸음질을 칠 수 없었다. 어쩔 수 없이, 나는 고개만 뒤로 슬쩍 돌리며 그에게 말했다.

“역시 못 믿겠는데요, 당신이 한 말.”

“음. 이곳에서 도로 나갈 수 없다면, 발악이라도 해본다 생각해. 지금으로써는 너한테도 이 방법밖에는 없잖아.”

“..”

“그러니, 어디 한 번 뺏어봐.”

‘루이스의 마음을.’

안경잡이는 그 뒷말을 입모양으로 대신했다.

저기요, ‘주님, 오늘도 정의로운 도둑이 되는 걸 허락해주세요!’하는 대사라도 읊어야 하는 부분입니까?

“아, 진짜. 뺏긴 뭘 어떻게 뺏어. 내가 도둑도 아니고.”

사실 내 목숨만 구할 수 있다면야 도둑이 되든 강도가 되든 별로 상관은 없는 입장이다만, 문제는 ‘루이스의 마음을 뺏는다’는 게 어디 가당키나 한 작전이어야지 말이야.

안경잡이의 터무니없는 계획에 대한 불평을 꿍얼거리면서도, 나는 맥없이 정원의 입구에 슬며시 발을 디뎌 진입한다. 어쨌거나 지금은 안경잡이가 제시한 이 방법밖에는 시도해볼만한 발악이 또 없으니까.

사뿐. 정원의 돌길로 된 입구에 들어선 나는, 속으로 저 미친 안경잡이의 말에 홀랑 넘어가버렸던 걸 다시금 후회했다. 주변에서 따가운 눈초리들이 하나씩 날아오고 있었기 때문. 저 안경잡이 자식이 성공할 가능성이 개미 눈곱보다도 낮은 계획을 계획이랍시고 내게 들이밀었던 걸 떠올려보면, 분명 나와 다를 거 없이 별다른 생각이 없는 게 틀림없어. 아무리 죽기는 싫었다지만, 대체 내가 왜 저 믿을 구석도 없는 놈과 내기라는 걸 하자 한 건지, 어휴.

이쯤 되면 눈치 챌 사람은 챘겠지만, 그렇다. 내게 주어진 미션은 ‘루이스를 꼬셔라!’.였다. 장난으로 하는 소리가 아니라, 진짜로. 그것도 흥미로운 생물체라던가 이상한 조수 나부랭이 같은 이미지로는 안 되고, 철저히 ‘이성적’으로, 여자 대 남자로 유혹해야 한단다. 이게 어디 말이나 되는 작전이야?

성공률만 따져 봐도 얼마나 얼토당토않은 계획인가. 지금 내 발밑에 지나가고 있는 눈곱 낀 개미가 들어도 비웃을만한 내용이다. 루이스 레플리카―자그마치 공작가의 외동아들―을 꼬셔서, 그에게 기사의 맹세를 받는 상황을 만들어보라니.

저렇게 꽃 같은 루이스와, 주변에 꼬여드는 화려한 꿀벌들 사이에 끼어들어봤자, 한낱 날파리보다 못한 초파리 급의 나 따위가 그런 일이 가능하기나 하겠냐고. 잡아먹히지나 않으면 다행이지, 절대로 불가능이다. 그냥 꼬시는 것도 불가능하지만, ‘기사의 맹세’를 받아내는 것은 더더욱 불가능해. 그게 감히 어떤 마법인데, 나 따위 천민에게 걸어주겠느냔 말이야. 정말이지 택도 없다.

아, 참고로 그 ‘기사의 맹세’가 뭐냐면, 마법사가 자신과 어느 계약 대상의 신체 일부를 소모해서 서로 계약을 맺는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편하다. 특히 피로 계약을 맺었을 때가 효력이 제일 강력한데, 그 ‘효력’이란 바로 ‘죽음’이다. 만약 루이스가 나와 기사의 맹세를 맺었다고 치자. 계약이 성립되는 그 순간부터 루이스는 나를 지켜야 하는 것이다. 만약 그러지 못해, 내가 죽는다면? 그래, 루이스도 같이 죽는다는 거.

연인들 사이에서도 유행하는 계약이긴 한데, 둘의 동의가 있다면 자유롭게 파기도 가능하다. 하지만 벌써부터 이런 얘기를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겠군. 난 기사의 맹세를 받을 일 따윈 없으니, 파기할 일도 없는 게 당연하지 않은가.

아니, 내가 이런 무시무시한 계약을 무슨 수로 받아내는데? 응!

“이건 미친 짓이야. 미친 짓이라고.”

루이스를 내게 홀딱 빠지게 만들어, 기사의 맹세까지 받아낸다면 확실히 내 목숨은 든든하게 보장될 것이다. 루이스도 나를 지켜줄 것이고, 루이스의 가문이나 그 주변인들도 나를 지키려 들 것이다. 왜냐? 내가 죽으면 루이스도 죽게 될 테니까.

하지만 나는 이 자리에 피어있는 꽃들의 꽃잎들을 모두 합친 숫자보다도 흔한, 가장 낮은 신분의 천민. 그렇다고 외모가 특출하게 예쁘냐? 조금 반반하게 생겼단 말은 들어봤어도 ‘예쁘다’는 말에 어울리는 얼굴은 결코 아니었다. 객관적으로 봐도 그렇고, 내가 거울을 보고 주관적으로 생각해봐도 그런 외모였다.

특별한 구석이라고는 눈 씻고 찾아봐도 없는, 이런 한낱 나 따위 천민에게 그런 중대한 ‘기사의 맹세’를 해줄 대인배 마법사가 세상 그 어디에 있으려고. 루이스의 주변인들도 게거품을 물고 반대할 게 뻔한 데다, 루이스 본인도 그런 마음이 들 일 따윈 없을 게 분명하다. 그런 사실을 뻔히 알고 있으니, 들어오지 않을 수 없는 회의감.

지금의 내 노력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 9등급짜리 내신 성적으로 서울대 수시를 써넣는 것과 뭐가 다르지? 왜 저를 말려주지 않는 건가요, 담임 선생님! ‘너는 루이스 레플리카를 꼬실 수 없어, 절대로 불가능해!’라고 왜 돌직구로 조언해주시지 않는 겁니까!

아참, 지금 내게는 담임이 없구나. 정답을 물어볼 아버지조차 안 계신 이런 기구한 팔자라니. 하늘에 계신 아버지, 날 보고 있다면 정답을 알려줘요! 비록 꿈속에서라도! 는 될 리가 없지. 그 정도로 애틋한 부녀사이도 아니었으니.

“.역시 이번 인생도 틀려먹었어.”

태어날 때부터 아주 제대로 틀려먹었던 거라고, 이건! 속으로 끝없이 한탄하며 느릿한 걸음을 앞으로 조금씩 옮겨나갔다. 조수 유니폼을 입은 내가 정원에 들어왔음을 눈치 챈 어느 벤치에 앉은 두 명의 여학생들이, 나를 흘끔 쳐다보더니 이내 귀에 뭐라 속닥거리며 귓속말들을 나누는데. 그게 이 정원에 ‘조수 나부랭이’가 들어왔다는 걸 까는 내용인 것인지, 아니면 다른 내용일지는 모르겠다. 아니, 딱히 생각해보고 싶지도 않다. 남 신경 의식해서 뭐해, 지금 나는 내 목숨 하나 건사하기도 힘든데.

일단 나는 조금씩 루이스에게로 접근하고 있었다. 뒤에서 내 등을 따갑게 하는 안경잡이의 끈질긴 시선을 계속해서 느끼면서.

바로 코앞까지.

루이스의 곁에는 총 세 명의 여학생들이 붙어있었다. 최근의 5년 동안 루이스 주변의 인물들이 다섯 명이나 죽었는데, 이들은 루이스와 가까워지는 게 무섭지 않은 걸까?.라고 잠깐 생각했는데, 이내 답이 나왔다. 안경잡이가 말해주길, 이곳 마법 대학의 마법사들은 본인에게 보호 마법과 추적 마법을 걸어둔다고. 그 말인즉슨, 누군가 그 마법사를 죽이면 죽인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하긴, 내가 그 살인 마법사의 입장이었어도 어지간하면 마법사들은 건드리기 싫을 듯. 마법을 잘 다루는 마법사를 죽이려면 꽤 까다로운 싸움이 될 테니까. 마법을 못 다루는 난 쫄 수밖에 없지만, 이들은 아니라니. 부럽구나. 너희들의 그 자유로운 인생, 나랑 바꿀 생각 없니? 없다고? 그래, 알았어.

루이스의 바로 앞에 그림자가 드리웠다. 어두워져서인지, 루이스가 책을 읽다말고 슬그머니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나와 눈이 마주쳐버리는데. 후우. 그래, 자신감을 가지자! 지금 이 순간, 루이스 네 녀석의 마음을 훔쳐가기 위해 왔다. 아, 곁에 계신 숙녀분들께는 관심이 없습니다만. 이런 내 마음을 1퍼센트도 몰라줄 그녀들은, 나를 향해 달갑지 않은 시선들을 보내왔다. 한 명은 매우 곱슬진 파마머리에, 다른 한 명은 반듯한 단발, 다른 한 명은 긴 금발 생머리. 외모는 제각기 다르지만, 눈빛은 어째 하나같이 똑같았으니. 이건 마치 내게 갈비찜덮밥을 뺏긴 근육맨 2세 같은 눈빛들이 아닌가. 소인은 그대들의 갈비찜덮밥에는 관심이 없소만..

“너, 조수 아냐? 조수는 정원에 들어오면 안 되는 거 몰라? 도로 나가.”

루이스의 옆에 앉아, 신체적 접촉을 꺼린다는 그―안경잡이에게 들은 정보―에게 파리 잡는 끈끈이마냥 착 들러붙어있는 금발 생머리. 그러나 아무리 붙잡고 매달려도 루이스는 미동조차 하는 눈치가 없었으니, 귀찮은 존재들로 인해 살짝 찡그린 표정인 그의 시선은 오로지 책에만 향해있었다.가 이제는 나를 향해 와있었다. 그래서일까? 자신에게 일말의 관심조차 보이지 않는 루이스로 인해, 내게 괜히 화풀이를 해오는 그녀였으니.

저기요, 그대들의 갈비찜덮밥은 제가 훔치지 않았습니다. 이건 진심입니다, 예.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 학교 규정이 있나요?”

“아니, 규정이 있는 건 아닌데. 뭐야, 너 지금 내 말에 토 달아?”

내 물음에 다섯 배는 더 까칠해진 목소리와 표정으로 금발머리가 답해왔다. 규정이 있는 것도 아니면, 그쪽이 뭔데 나가라 마라 난리신지?

나는 대답 대신 어깨를 으쓱했다. 저번에 아처한테 한 번 세게 맞아봐서 그런가, 이정도로는 내 간이 쉽게 쪼그라들지 않는 모양. 천민으로 살아온 것치고는 내 간땡이가 심각하게 부어있는 것 같다고 안경잡이가 말하던데. 흠, 지금 보니 상당히 맞는 말 같기도? 하지만 이런 험한 세상을 살아가려면, 간이 어느 정도 탱탱하게 부어있을 필요가 있다고 나는 생각한다. 음.

일단 차분히 여학생들의 얼굴을 휘- 둘러보았다. 우선 내 목적은 루이스에게 도시락을 전해주고 점수를 따는 것이었지만, 지금 상황을 봤을 때 이 세 명의 중간 보스들을 물리치지 않으면 루이스에게 도달할 수 없을 듯. 자, 어떻게 돌파한담?

“하아, 정말. 대체 조수 교육을 어떻게 시켜놓은 건지. 너, 네 주인 마법사가 누구야?”

금발이 자신의 찰랑거리는 생머리를 뒤로 한번 흩날리듯 손으로 튕기더니, 루이스에게 끼고 있던 팔짱을 풀고서 자리에서 일어나 내게 물어온다.

응? 지금 그거, 진심으로 하는 질문?

“주인이요? 어..”

“..”

나는 시선을 슬그머니 벤치에 앉아있는 루이스에게로 향했다. 하필이면 그 순간 정확하게 나와 두 눈이 마주친 루이스의 눈동자가 살짝 흔들렸는데, 다 큰 남정네에게서 보기 힘든 순진한 반응이었기에 순간적으로 그런 반응을 목격한 나는 ‘귀엽다!’라는 생각을 해버린다. 그러자 내 마음 속 깊은 곳에서 어리석은 나 자신의 뇌를 혼내주는 한마디가 울려 퍼졌다. ‘그림 속의 떡이라고, 아샤!’.그래, 자중하자.

그나저나, 이거 완전 껌이잖아? 귀족에다가 능력 있는 마법사씩이나 되는 여자애들이라 돌파하기 어려운 구간일 것 같았다만, 오히려 중간보스가 스스로 무덤을 파는데? 이건 마치 필살기를 자기 발밑에다 쓴 수준. 그러고 보니,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세 명의 여학생들은 내가 아처에게 크게 봉변이 당했을 당시에 그 자리에 없었던 얼굴들이었다. ‘아처가 루이스의 조수를 때렸다’는 소문이 돌긴 했으나, 그 자리에 없었던 이들은 내 얼굴을 모르는 게 당연. 그래서인가? 이런 바보 같은 질문을 하는 게.

“멍청하게 서있는 것 좀 봐. 얘, 너는 어느 가문이니? 빈츠 후작가, 들어는 본 적 있어?”

그건 무슨 듣보 가문인가요? 과자 이름이라면 아는데.

“아뇨.”

“흥, 버르장머리 없이 이런 정원에 들어오는 네 수준을 보면 알만하지. 요즘 지방 남작 가문들에는 마법사 가문에 돈 몇 푼 쥐여 주고 대학 조수로 들여보내는 게 유행이라며? 너도 그런 거겠지? 주인이 누구인지는 안 봐도 훤하다. 돈 밝히는 가문 출신 마법사가 누가 있지? 헨델? 발리시아? 조지아?”

“나는 조지아에 한 표.”

“맞아맞아. 동감하는 바야.”

맞긴 뭐가 맞아? 다 틀렸는데.

흠, 일단 섣불리 대꾸하지는 않는 걸로. 가만히 살펴보니, 여기 루이스에게 붙어있는 세 명의 여자애들 모두 한 패거리인 모양. 그것도 말하자면 ‘일진’같은 부류의 학생들인 것 같은데. 아, 아니다. 이 학교의 어지간한 학생들은 다들 이렇게 콧대가 높고, 자존심이 센 것 같았으니까 ‘일진’이라는 표현은 안 어울리는 것 같다.

이들 정도라면 마법 대학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콧대가 하늘을 찌르다 못해 하느님 똥구멍까지 찌를 수준인 ‘평범한 학생들’이라 보면 되겠는데. 언제부터 ‘평범’이란 단어가 이렇게나 변질된 거지? 하여튼.

차려입은 행색도 부티가 아주 좔좔 흐르다 못해 허영심까지 훤히 꿰뚫어 보일 정도이니, 가문도 보통 아닌 영애들이시겠고. 뭐, 내가 건드려봤자 썩 좋은 결과가 탄생할 것 같지는 않다. 게다가, 나는 이미 ‘아처 패거리’들에게도 단단히 찍혀있는 상태가 아니던가. 아처는 두 달 정학을 먹었고, 그 패거리들은 지난 며칠 동안 한 번도 마주친 적이 없기에 아직까지는 아무 탈 없는 부분이지만. 뭐, 앞으로 생길 일은 모르는 거 아니겠어? 일단은 나도 몸을 좀 사려야 할 것 같은데.

탁-

“응? 루이스, 일어나게?”

“..”

루이스가 읽던 책을 덮었다. 안경잡이에게 듣자니, 루이스는 서재에 틀어박힐 때나 수업시간을 제외하면 늘 곁에 이런 영애들이 끈덕지게 들러붙는다던데. 그런데 문제는, 루이스가 혼자 있길 좋아하고, 공부를 좋아하는 범생이 타입에 가깝다는 거다. 그것도 보통 범생이보다 훨씬 까다로운, ‘성깔 있는 범생이’파! 얼굴에서부터 짜증난다는 기색이 넘치다 못해 줄줄 흐르고 있는데, 슬그머니 루이스에게 팔짱을 끼는 저 금발 생머리를 비롯한 여자애들은 눈치를 못 채고, 아니지. 그냥 무시하는 채로 계속 저러는 듯.

안경잡이가 그랬다. 루이스는 자신에게 추파를 던져오는 영애들을 뿌리치고 또 뿌리쳐왔지만, 마법 아카데미 때부터 집요하게 이어져온 그녀들의 집착에 더는 뿌리칠 힘조차 잃어버려 지금처럼 그녀들을 대하는 것이라고. 여기서 ‘지금처럼’이라 함은, 영애들이 옆에 앉아 팔짱을 끼고 들러붙어도 그저 투명인간 취급하며 자기 할 일만 하는 태도를 말한다. 아마 루이스 나름대로 그녀들에게서 도피할 방법을 찾은 거겠지, 저런 게. 어릴 때부터 신사로 교육받은 입장으로서, 영애들의 뺨 싸다구라도 시원하게 갈겨버릴 수는 없는 노릇이 아니겠는가.

저 영애들은 얼굴도 예쁘면서, 왜 이렇게까지 루이스에게 매달리는 걸까? 잠시 생각해보았다. 가문, 지위, 명예, 돈. 모든 걸 다 갖췄다던 레플리카 가문의 후계자라. 어라? 확실히 영애들 입장에선 더할 나위 없는 신랑감이긴 한 듯. 대체 루이스의 어디가 좋은 걸까 곰곰이 생각해보았는데, 그런 굉장한 신분에 얼굴까지 굉장하게 생겨먹었으니 아무래도 그의 매력은 충분한 모양이었다. 영애들이 이렇게까지 달려들어 구애하는 것도 이상한 게 아닌 듯.

하지만 내가 봤을 때, 저이들은 전혀 가망이 없어 보이는데. 딱히 루이스의 취향일 것 같지도 않고 말이야. 딱 보기에도, 루이스가 주인공이라면 이 세 명의 영애들은 엑스트라 같은 느낌? 그런데, 왜 다들 얼굴에 자신감이 충만해 보이는 걸까?

아, 혹시 말이다. 어쩌면 저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닐까? ‘루이스는 까칠하고 도도하지만, 계속 관심을 보이다 보면 언젠가 내 매력에 빠져들 거야! 루이스의 철벽은 내가 부숴버리겠어!’.하고. 왠지 그런 거일수도 있을 듯.

머릿속으로 영애들에 대해 생각해보고 있으려니까, 갑자기 루이스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어디론가 향하려 하는데, 그런 루이스의 곁에 냉큼 달라붙어 다시금 팔짱을 끼는 그녀들! 루이스는 의도치 않게 양옆에 미녀들을 끼고 있는 행색이 되어버리는데.

이거이거. 완전 날바람둥이 같은 이미지로 보이잖아? 모르는 사람들이 루이스의 저런 모습을 본다면 카사노바라고 오해하고도 남을 듯. 물론 뒷모습만 봤을 땐 그렇고, 앞모습을 보자면 달랐다. 루이스의 표정은 흙바닥에 지나가던 개가 싸놓은 똥을 밟았을 때보다도 불편하고 불쾌한 듯 일그러져 있었으니. 이곳이 대한민국이었다면 아마 루이스는 영애 세 명을 모조리 스토킹이라는 죄목으로 고소를 하고도 남았을 것 같다. 정당한 고소 인정합니다. 인정하고 말고요.

“저기 말야, 루이스- 혹시 이번 주말에 시간 돼? 이번에 우리 저택에 괜찮은 요리사 하나를 새로 구해서, 식사를 대접할까 하는데.”

“..”

음? 어라, 의도치 않게 관심법이 발동돼버렸다.

전생에서 18년, 이생에서 18년, 도합 36년. 특히 이번 생에서 지난 18년 동안 눈칫밥을 오질라게 많이 먹어와서인지, 나도 모르는 새에 저절로 열심히 구애중인 세 명의 여학생들의 눈동자가 읽혀버렸으니. 나는 비로소 알아차린다. 얘네는 하나같이 예쁘고 좋은 몸매를 타고난 입장으로서, 자신감이 높아도 너무 높았다. 그래서 그만 루이스를 만만하게 여기고 있는 것이다. ‘나 정도면 언젠간 넘어올 거야. 그게 당연해!’.하고.

하지만 안타깝다. 내가 파악한 바로는, 루이스의 50m짜리 견고한 철벽은 고작 외모나 몸매 따위로 무너뜨릴 수 있는 게 결코 아니었으니. 삐빅- 루이스 레플리카, 분석 시작합니다.

[루이스 공략법]을 습득했습니다!

이보세요 영애 님들. 이 고고하신 왕자님은 그런 방식으로 공략하는 게 아니라고요. 자, 지금부터 잘 보세요.

나는 또박또박 끊어 한마디를 내뱉었다. 세 여자애들의 눈이 제각기 휘둥그레진다. 누구는 튀어나올 듯 부릅뜨는가 하면, 누구는 입만 슬그머니 벌리며 조금 놀란 표정을 짓는데. 뭐지? 강약중강약인가?

루이스가 말없이 돌아본다. 도련님, 도련님 하다가 갑자기 호칭이 바뀌어서인 건지, 아니면 그냥 자신을 불렀기 때문에 돌아본 건지는 잘 모르겠다만, 여튼 나는 그에게 다가갔다. 바로 코앞까지.

영애들은 입만 붕어나 붕어 친구 잉어처럼 헤벌린 채, 지금의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뭐? 주인님이라고? 그럼 얘가 설마. 루이스의 조수!’하는 표정들이로군. 예, 그렇습니다. 제가 바로 그 소문으로만 듣던 루이스의 조수입니다!

“여기요.”

나는 루이스에게 도시락을 불쑥 내밀었다. 얘, 느그 집엔 이런 거 없지? 가을 도시락이 맛있단다.

지금은 가을이었다. 바람이 살랑살랑 부는 그런 계절. 문득 어느 얘기가 떠오른다. 여자를 꼬시려면 봄에 나가고, 남자를 꼬시려면 가을에 나가랬던가?

그래, 바로 지금이 그 ‘가을’이다. 그렇게 만들기로 내가 정했다!

“점심 식사 안 하셨죠? 이거 제가 만든 거니까, 식사 하고 수업 들으세요.”

나는 츤츤거리며 도시락을 한손으로 건넸다. 원래대로라면 천민이나 노예가 주인에게 이런 태도로 물건을 건네면 절-대로 안 되지만, 지금은 다르다. 내가 알아본 바, 루이스는 아랫사람이 이런 태도를 취한다 해서 채찍질을 할 만한 인물도 아니니까 더더욱 괜찮아. 오히려 이런 수법이 더 잘 먹힐 때가 있는 거다.

루이스는 도시락을 흘끔 쳐다보더니, 이내 시선을 거두고 나와 시선을 맞춰왔다. 그리고 냉담한 목소리로 말해오길,

“필요 없어. 그리고 내가 분명 너더러 돌아가라고 하지 않았던가?”

.라는데. 역시, 생각대로. 루이스의 입에서 예상했던 거부 의사가 튀어나오기가 무섭게, 나는 살며시 인상을 찡그려준다. 마치 루이스의 말에 불쾌한 듯, 그의 말에 살짝은 상처를 입었다는 듯이!

“돌아가라 하실 거면, 차라리 지금 이 자리에서 절 죽여주시던가요. 돌아가도 죽고 이곳에서도 죽을 거라면, 난 이왕이면 조금이라도 보람찬 일을 하고 죽을래요.”

크, 이것이 나의 필살기다. 비록 지난 36년 간 모쏠이었다지만, 연애나 이성을 꼬시는 방법 같은 건 인터넷이나 책으로 많이 공부해왔다고, 이거! 아, 잠시 눈가에 습기가.

하여튼, 나는 루이스에게 도시락을 떠넘기듯 건넸다. 루이스가 얼결에 그것을 받아들고, 잠시 황당하다는 눈빛으로 나를 바라본다. 왜, 뭐?

“돌아가면 죽는다니. 왜?”

그가 되물어왔다. 역시 내가 왜 이곳에 조수로 팔려오게 됐는지는 모르고 있는 눈치로군. 사실대로 말해줘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하다가, 나는 이내 숨기기로 마음먹었다. 만약 사실을 알게 된다면, 루이스의 성격상 어떻게든 나를 다시 돌려보내려 들 것 같았기 때문이다. 무난하게 돌아갈 수 있다면 나야 좋겠지만, 돌아갔다가 내가 어찌될 줄 알고? 나라를 지키는 공무원급 마법사들의 손에 끔살 당하긴 싫단 말이지.

“굶어 죽는다고요. 여기서 죽으나 돌아가서 죽으나 매한가지니까, 저 신경 쓸 시간에 밥이나 챙겨 드시고 공부나 열심히 하세요.”

아시겠어요! 대충 얼버무리며 루이스에게 강력한 눈빛을 쏘아붙이자, 그가 아주 살짝 움찔했다. 노예치곤 너무 강경한 나의 자세에 은근히 놀란 것도 있는 듯. 사실 지금의 나는 굉장한 무례를 범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루이스가 도시락을 바닥에 패대기치지 않는 것만으로도 다행이라고 봐야 했다.

이어질 루이스의 반응은 뭘까? 설마 진짜 도시락을 바닥에 던져버리려나? 내 스테이크가 정원 바닥을 나뒹굴며 빵가루 대신 흙먼지를 뒤집어쓰는 걸 보고야 말게 될 것인가. 아니면, 내게 화난 목소리로 고함이라도 지를 것인가. 고함을 지를 것처럼 보이는 인상은 결코 아니었기에, 나는 그가 낮고 무거운 목소리로 내게 분노 섞인 말을 건네 오진 않을까 생각했다. 또는 내 수제 스테이크에게 흙침대를 선물해주시거나.

그러나 그는 도시락을 던지지도, 분노 섞인 목소리로 말을 꺼내지도 않았다. 그는 오히려,

“.대체 왜 내 조수를 맡으려는 거야? 너도 들은 게 있을 거 아냐.”

아주 살짝 눈썹을 찡그린 채,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내게 물어왔다. 방금 전 내가 한 말들로 인해, 자신의 조수가 죽어나갔단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걸 짐작한 듯.

나는 나보다 머리통 하나는 위에 있는 루이스의 눈동자를 올려다보며 대답했다. 짜식, 아무리 봐도 키도 훤칠한 게 비율이 끝장난단 말이지. 대한민국에서 태어났다면 모델 해야 돼, 얘는.

“그냥, 하고 싶어서요.”

나는 깔쌈하게 대답했다. 루이스가 이해되지 않는 대답이라는 듯 눈을 조금 크게 뜨지만, 나는 이만 퇴장할 각이 바로 지금이라고 생각했다. 나, 치고 빠져야 할 때를 잘 아는 여자. 이 정도면 됐다. 루이스의 뇌리에 ‘아샤’라는 존재를 단단히 심어주는 것만으로도, 오늘 이 순간의 수확은 아주 풍년이 따로 없는 거다.

나는 짐짓 불만스러운 듯 찡그렸던 표정을 풀고, 루이스에게 ‘뭐, 앞으로 잘 해보죠.’ 하는 듯한 표정으로 살짜콩 미소를 지어주었다.

그리고,

“점심 맛있게 드세요.”

마지막 한마디를 덧붙이는 것도 잊지 않았다.

나는 돌아섰다. 그리고 앞으로 당당히 걸어, 정원을 퇴장한다. 여기서 돌아보면 안 되고, 무조건 앞만 보고 퇴장해야 한다! 뒤를 돌아 루이스가 나를 계속 지켜보고 있는지 아닌지를 확인해보고 싶지만, 꾹 참고 앞으로만 걸었다.

이거, 먹혔을까? 먹혔다면 좋겠는데. 설마 도시락은 대충 내팽개치고 자리를 뜨는 건 아니겠지?. 하는 오만가지 생각을 하며 정원에서 빠져나와 복도로 진입해 심장을 부여잡고 깊은 한숨을 토해내던 순간. 이내 바로 앞에 영 달갑지 않은 누군가의 그림자가 드리운다. 고개를 들어 올려다보니,

“아주 훌륭해!”

그래, 빌어먹을 너라지만 칭찬은 고맙다.

그리고 다음날.

“머릿결이 좋으시네요.”

“워낙 신경을 안 쓰고 살아서 좋은 건지도 잘 몰랐어요. 칭찬 고마워요.”

나는 이른 아침부터 머리를 손질 받고 있었다. 누구에게? 그래, 안경잡이의 조수인 아도라에게.

어제의 작전은 잘 먹혀들었냐고? 잘 먹혀들었다고 해야 할지 아닐지 잘 모르겠는데, 일단 나는 점심이 지난 오후 무렵에 세 명의 영애들에게서 사과를 받았었다. 사과라고 하자니 그 사과라는 단어에게 몹시 미안해지는 내용의 말들이었긴 한데, 어쨌거나 그녀들은 말했었다. ‘험한 말했던 건 잊어. 우리도 진심이 아니었어, 알지? 루이스에게는 이상한 말 하지 말고.’라는 등의 내용.

눈치 없는 눈새가 아닌 다음에야, 알아차리지 못할 수가 없다. 그녀들은 나한테 사과를 하는 것보다는, 루이스와 그의 조수인 나에게 저지른 크나큰 실수를 바로잡기 위한 발버둥을 위해 나를 찾아온 것이라는 사실을. 그녀들이 한 말마디 중에는 ‘미안’이라는 단어가 단 한 번도 들어가있지 않았다. 딱히 미안해하는 표정도 아니었으면서, 대체 뭐 하러 날 찾아온 건가 싶었을 정도.

그런 사과 같은 거, 받아봤자 전혀 사과 받은 기분이 아니라는 걸 모르는 걸까? 너무 눈 높고 콧대 높은 위인들인지라 정말 모르는 걸 수도. 살면서 사과를 해본 적이 거의 없을 테니까.

어쨌거나 그 영애들은 내게 그런 말들을 전하고서 돌아갔다. 그런 사과 같지도 않은 사과를 받은 덕분에 난 도리어 무시당한 기분이 들어, 기분만 더 나빠졌다. 그래도 지난 18년 동안 그런 부조리함을 한두 번 겪어본 것도 아니었기에, 기분을 원상복구 시키는 일은 그리 어렵지 않았다.

그녀들과의 일이 있고 나서, 저녁 즈음에는 루이스가 깨끗이 씻어 정리한 도시락 통을 들고 조수들이 머무는 기숙사까지 찾아왔었다. 그런 상황은 정말 예상조차 못했었는데, 너무 뜻밖이라 황당하면서도 당황스러웠다. 그는 내게 짤막한 한마디만을 건네고 돌아갔다. ‘잘 먹었어’라고.

신분도 높고 나라의 인구 중 0.1%퍼센트도 안 되는 숫자의 마법사에 해당하는 인물인 그에게 그런 감사 인사를 들어보다니. 놀라워서 입이 절로 벌어졌다. 다만 문제는 그런 반응을 보인 인물이 나만이 아니었다는 것 정도?

기숙사는 ‘혼비백산’이라는 말이 딱 걸맞을 정도로 소란스러워졌고, 이제 기숙사에 머무르는 조수들 중 내가 루이스의 조수라는 걸 모르는 인물이나, 또 루이스가 내게 도시락 통을 전달해주기 위해 손수 기숙사까지 찾아왔다는 사실을 모르는 이는 단 한 명도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그 정도로 그의 방문은 파장이 컸다.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공작가의 후계자 ‘루이스 레플리카’라는 존재는 이곳 마법 대학 내에서 꽤 영향력 있는 존재였던 모양.

왜 이곳에 찾아왔을까? 꼭 직접 왔어야만 했나? 혹시 무슨 감정이 있어서인 건 아닐까? 그러고 보니 아처 때도 그랬다. 귀족 신분의 조수도 아닌데, 굳이 그렇게 구해줄 필요가 있었을까?

.라고, 열애설을 만들기 좋아하는 수다스러운 여자 조수들은 떠들기 바빴지만, 조금만 생각해봐도 답은 곧 나온다.

루이스가 직접 전해주지 않으면 누굴 시켜서 내게 갖다 주는데?

루이스는 지난 5년간의 일로 인해 주변에 가까운 인물을 두려 하지 않는다. 자꾸만 내게 돌아가라 했던 것처럼. 그래서 남에게 심부름을 시키거나 하는 일도 없고, 오로지 혼자 힘으로만 처리한다는 것이다. 게다가 아처 때 일? 그거라면 내 주인 된 입장의 루이스로서 그저 외면하기엔 힘든 광경이었을 것이다. 어쨌거나 자존심 세고 높은 지위를 지닌 양반인데, 더

낮은 신분의 인물에게 자기 사람이 얻어 처맞고 있는 꼴을 그냥 순순히 지켜볼 수 있었겠어?

나를 구해준 이유는 단지 그게 전부였을 게 이거 리얼 빼박캔트인 부분. 어제도 내가 봤을 때 그는 단지 그런 인물이라서 직접 이곳에 찾아온 것뿐인데, 오히려 주변인들이 난리였다. 아니, 왜? 니들이?

마법대학에 들어온 지 불과 일주일 다 되어 갈랑 말랑 하는 시간이었지만, 위의 사건들로 인해 개중에 어떤 여자애들은 ‘천민 소녀, 공작가의 후계자와 사랑에 빠지다!’라는 주제로 소설이라도 한 편 써볼까 구상중인 것 같았다. 그 여자애가 누군지 이름만이라도 알 수 있다면, 그 즉시 나는 찾아가서 멱살이라도 틀어잡으며 제발 그런 걸 쓰지 말아달라고 부탁할 것 같았다. 아, 그건 부탁이 아니라고? 하지만 어쩔 수 없잖아. 종이가 아깝고 나무가 불쌍해지는 내용인 걸.

하여튼,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소란스러웠던 어제의 하루였다. 생각했던 것보다도 파장도 크고, 얻은 수확도 많았다. 그래서 ‘그’는 기뻐했다.

“예쁘네.”

바로 내 눈앞의 이 녀석.

“거, 칭찬 고맙군요.”

“나한테는 왜 그런 반응이야? 재수 없게.”

“그쪽도 저한테 늘 재수 없게 굴잖아요? 다른 학생들한테는 찍소리도 못하면서, 나한테는 할 말 못할 말 다 하고.”

“그냥 혼잣말이에요.”

예쁘다니, 저런 것도 다 빈말이면서. 옳다구나 ‘정말요? 고마워요.’라고 대답했다간 ‘멍청하게 그걸 믿어?’라는 대답이 돌아올 게 뻔하다. 지금까지 몇 번 정도 그랬던 전력이 있기에, 나는 이제 더 이상 속지 않기 위해 싸가지 없고 방어적인 대답을 건네게 됐다.

입을 비죽 내밀며 안경잡이에게 더는 말 섞기 싫다는 표정을 지어보이자, 안경잡이가 이해할 수 없다는 듯 고개를 갸웃거린다. 저러는 것마저도 멍청해 보인다. 정말이지, 어느 일정 사람에게 편견을 갖고 바라보는 건 질색하는 성격이지만. 왠지 안경잡이에겐 그러고 싶어진달까. 이유를 묻는다면, 그야 저 빌어먹을 안경잡이도 내게 늘 짓궂으니까, 라고 대답할 수 있다.

그는 내게 한결같이 ‘재수 없는 인간’ 이미지였다. 지난 6일 정도의 시간 동안 쭉 그래왔었고, 또 앞으로도 그럴 예정인 듯해서 더더욱 재수 없어. 왜 날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 거야? 이상한 내기 같은 거나 들이밀지를 않나, 루이스를 유혹해보라며 부추기지를 않나.

“너, 너무 말랐어.”

내가 속으로 본인에 대해 잘근잘근 씹고 있는지는 미처 모를 그, 안경잡이가 대뜸 저런 말을 건네 온다. 지금의 나는 머리 세팅을 끝마치고, 아도라가 건네주는 조수 유니폼의 멜빵끈을 치마에 끼우고 있는 상황이었다. 그 모습을 의자에 반대로 앉아 등받이에 팔을 올린 자세로 가만히 지켜봐오던 그가 꺼낸 이해할 수 없는 한마디. 뭐? 내가 말랐다고?

“제가 어딜 봐서 말랐어요?”

그런 소리 난생 처음 듣는데. 전생에서도 나는 통통과였기에, 날씬하다는 말은 살면서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다. 연예인들 몸매만 보면 어찌나 부러웠는지, 그들의 잘 빠진 화보 사진이나 가요무대 영상을 본 날이면 다이어트를 하겠답시고 야심차게 마음 먹고는 했는데.

문제는 그런 날 저녁은 꼭 ‘오늘이 마지막이야’라고 머릿속으로 중얼거리며 치킨을 시켜먹었었다는 거. 누구라도 짐작하겠지만, 그게 마지막이 되는 일은 없었다.

이번 생이라고 해서 별다를 건 없었다. 아니, 이번 생은 내 몸무게에 대해 고민해볼 만한 시간이 그리 많지 않았다. 내가 살던 집은 가난해서 거울도 없었고, 내 몸매를 비교해볼 만한 친구라던가 하는 게 있는 것도 아니었으므로 나는 내 몸매가 어떤 상태인지조차 알지 못했다. 체중계? 있을 리가 없잖아.

하지만 확실히 날씬한 타입은 아니라고, 나. 아침 점심 저녁은 다 거르더라도 퇴근 후 야식만은 꼭 챙겨먹는 거, 그런 게 내 삶이었다만? 아, 또 갑자기 치킨 땡기네. 이곳에서는 치킨이라는 음식이 없으니까, 치킨 같은 건 손수 만들어 먹는 수밖에는 없다. 오늘 저녁엔 닭이나 한마리 사올까나.

그래, 이런 생각이나 하고 있는 내 주제에 마르기는 개뿔. 그럴 리가.

“내가 보기엔 보통인 것 같은데.”

“마르셨어요.”

중얼거리는 내 말에 아도라가 답해왔다.

나, 36년 동안 살면서 말랐다는 말 처음 들어본다. ‘통통하네’라던가 ‘살 좀 빼야겠다’는 말들은 무수히 들어봤어도, 말랐다는 말은 진짜 처음. 와, 이거 진짜 신세계네? 기분 째지는데!

“진짜요? 다시 말해줘요. 저 말랐어요? 확실해요?”

“네. 굉장히 마르셨습니다.”

아, 스톱. 너무 말랐다고 하니까 좀 부정적인 느낌이 들잖아. 굉장히 말랐다고? 왜지?

마를 만한 이유는 딱히 없었던 것 같은데, 왜 마른 몸매가 되어버린 걸까. 나도 그 이유를 모르겠어서, 눈만 말똥말똥 뜬 채로 내 옷을 정돈해주던 아도라의 얼굴을 빤히 응시하고 있었을까.

정면에서 빙글거리는 듯 얄미운 그의 목소리가 들려온다.

“너무 말라서 ‘나 천민이오’라고 이마에 써 붙여놓고 다니는 것 같아, 너.”

“말을 꼭 그렇게 해야 돼요? 표현 하곤.”

“진짜야. 깡말라서 툭 치면 쓰러질 것 같아.”

안경잡이가 말했다. 아, 잠깐. 그럼 아처는 내가 그런 이미지임에도 불구하고 발로 그리 세게 걷어찼다는 뜻이 되지 않은가?

뭐지. 내 머릿속이 정의 내렸던 것보다도 훨씬 더한 쓰레기인 걸, 아처?

“너무 못 먹고 살았던 거 아냐?”

“그런가. 흠.”

그의 물음에, 곰곰이 기억을 되짚어보았다. 그러고 보면, 삼시세끼 꼬박꼬박 챙겨먹었던 기억이 거의 없는 듯. 불과 8살이라는 나이 때부터 일을 시작한 나였으니까. 게다가 장사하는 사람들은 식사를 제시간에 하기가 힘들다. 내가 점심이나 저녁을 먹고 싶은 시간에도 손님은 찾아오곤 하니까.

그래서인가? 살이 안 찐 게. 전생의 내가 지금 꼴을 본다면 ‘내 살을 10kg정도 떼어줄게!’라고 외쳤을지도.

“그래서, 별로라는 거예요?”

내가 물었다. 안경잡이가 손으로 턱을 살짝 괴며, 나를 유심히 응시해온다. 저 안경 너머엔 어떤 눈동자가 들어있을까? 알고 보면 진짜 실눈 캐릭터라던가, 아니면 의외로 땡글이 눈동자?. 흠. 딱 이렇다 할 만한 이미지가 떠오르지는 않는데.

“안쓰러워.”

“예?”

“안쓰럽게 생겼어.”

좀 뜻밖인 대답이었다. ‘멸치 같아’라던가, ‘내 스타일은 아니야’등. 내 염장을 지르다 못해 아주 분노로 불타버리게 만들 짜증나는 대답들을 늘어놓을 거라 예상했는데. 의외로 무난하다 못해 나를 걱정해주는 게 아닌가 싶은 착각마저 들 정도의 그 대답에, 나는 잠시 가만히 안경잡이를 응시했다. 무슨 의도지? 저 속이 시커먼 자식이.

“그래서요?”

“이성을 유혹하기엔 별로야.”

그래, 내가 저럴 줄 알았어. 결국은 기-승-전-루이스잖아. 알고 보면 이 녀석, 루이스 팬 카페나 안티카페 소속 아니야? 만약 진짜 그런 게 존재한다면, 이 녀석 이름도 가입자 명단에 반드시 있을 듯.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는데요?”

“좀 찌우는 건 어때?”

“찌우려면 뭔가를 많이 먹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먹을 게 딱히 없는데요?”

마법 대학에도 요리사가 존재하긴 했다. 하지만 그들은 일반 요리를 하는 요리사들이 아니라, 정확히 표현하자면 디저트들을 만드는 파티시에에 가깝달까? 학생들이 뭘 만들어 달라고 부탁하거나 디저트를 요구하면 그들이 만들어준다. 당연한 거겠지만, 조수들은 누릴 수 없는 혜택이기도.

그러니 난 달달하고 칼로리 높은 음식을 쉽게 접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사먹자니 내가 피땀 흘려 벌어왔던 그 돈들이 아깝고. 만들어먹자니 번거로운 데다 굳이 그렇게까지 해가며 간식을 먹을 정도로 간절하진 않은 입장이다만. 살을 찌우라니, 대체 뭘 어떻게 해야?

“내가 갖다 줄게.”

“에, 예? 뭐라고요?”

이번에도 역시 예상치 못한 대답. 눈을 휘둥그레 뜬 내게, 안경잡이는 다시금 차분히 끊듯이 말해왔다.

“왜요? 왜 그렇게까지?”

갸우뚱. 안경잡이가 내게 그렇게까지 해줄 필요가 있나? 그의 친절한 대답이 차마 이해할 수 없어, 영문을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가만히 그의 불투명한 안경을 응시하자..

“그 몸매로는 가망이 없어보여서.”

그가 대답했다.

오, 주님. 오늘 이 자식 머리털 다 뽑아버리고 지옥 가겠습니다.

“남이사, 제 몸매에 뭔 상관이에요.”

아오, 재수 없어. 속으로 이가 빠득빠득 갈리는 것을 가까스로 참으며 내뱉듯이 말했다. 안경잡이가 또 피식, 하는 재수 없는 웃음을 흘린다. 아니, 그런 웃음은 루이스나 레오니드 같이 잘생긴 애들이 해야 어울린다고! 넌 아니야!

“이왕이면 성공률을 조금이라도 높이는 게 좋잖아?”

“참나.”

대체 이 안경잡이는 내게 왜 이러는 걸까? 무슨 이유로, 성공률이니 나발이니 하는 개소리를 늘어놓으면서 간식까지 갖다 주어 내 살을 찌우고, 적당한 몸매로 만들어서 루이스를 유혹하게끔 만들려는 걸까. 대체 왜?

이제 슬슬 의심스럽기 시작해. 혹시 말이다. 이 녀석, 진짜로.

.루이스의 스토커 같은 거 아니야! ‘내가 남자라서 가질 수 없다면, 대타라도 세워서 가져버리겠어!’ 같은.

“혹시 당신, 루이스 좋아해요?”

“미쳤어?”

안경잡이는 물론, 아도라마저 내 옷차림을 정돈해주다 말고 별 해괴한 소리를 다 들었다는 표정으로 나를 쳐다봐온다.

아, 이건 확실히 아닌 모양이다.

“나 어때요?”

다시금 머리부터 발끝까지 나 자신을 한번 체크해본다. 괜찮나? 진짜 괜찮은가? 거울을 보긴 했는데, 평소보다 깔끔하고 예뻐 보이긴 했다. 하지만 이 정도로 효과가 있을지는 잘 모르겠는 게, 나는 화장을 하지 않은 생얼이었기 때문.

메이크업이라고는 아도라가 입술만 살짝 색을 내는 정도로 칠해주는 게 전부였다. 루이스 주변의 수많은 영애들은 기본이 풀 메이크업이던데, 이 정도로 과연 괜찮을까?

“괜찮아, 괜찮아.”

“아니, 대충 대답하지 마시고요.”

“대충 아니야. 진짜 예뻐.”

“화장도 안 했는데?”

“안 해도 예뻐.”

뭐지, 또다시 들어오는 이 괴리감. 안경잡이의 입에서 이런 말들을 들으니까, 기분 되게 이상하다. 혹시 이 자식, 죽을 때가 된 건가? 사람이 안 하던 짓을 하면 죽을 때가 된 거라던데.

나는 슬그머니 까치발을 들어, 안경잡이의 머리 위에 손을 불쑥 갖다 댔. 아니, 갖다 대려 했다. 그런데 그런 나보다 이 자식이 훨씬 빨랐다. 어라? 뒤로 피했어?

“뭐 하는 거야?”

안경잡이가 조금 정색하며 묻기에, 나는 대답했다.

“혹시 열나나 싶어서요. 자꾸 안 하던 대답을 하시니까, 죽을 때가 되신 건가하고.”

“그런 거 아니니까, 걱정 마.”

“걱정 안 하는데요? 제가 왜.”

“..”

안경잡이는 내 대답에 잠시 말이 없다. 문득 그가 마음 속 깊은 곳에서 ‘확 죽여 버릴까?’하는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을까, 잠시 생각했다.

음, 왠지 안경잡이가 진짜로 실눈캐라면 그럴 수도 있을 듯. 어쨌거나 이 녀석도 실력 있는 마법사일 텐데, 지금이라도 좀 사려야 하나?

“농담이에요.”

나는 샐쭉 미소지어보이며 그에게 다시금 답했다. 좋아, 수습 완료!

그는 고개만 왼쪽으로 한번 슬쩍 갸우뚱하더니, 다른 말은 하지 않았다. 그게 끝. 그리고는 나와 그는 다시 본론으로 돌아갔다. 그래, 시선을 ‘그곳’으로 향한 것이다.

“이제 들어가야겠죠?”

“응.”

이곳은 루이스의 서재 앞. 내가 오늘 아침부터 분주하게 아도라의 도움을 받아 준비했던 것은, 모두 다 지금 이 순간을 위함이었다. 나는 내 옷차림을 다시금 정돈해본다.

결이 좋다던 나의 검은 긴 생머리는 아도라가 곱게 빗어주어 비단마냥 허리까지 죽- 늘어뜨려져 있었고, 조수 유니폼은 살짝 헐렁한지라 손끝으로 옷소매가 삐져나와있는 상태.어라? 이건 수습이 안 되는데. 아앗, 너무 길잖아! 젠장. 이래서야 무슨 조수 버전 처녀귀신이랑 다를 게 없어 보인다만.

“일단 오늘 일이 끝마치고 나면, 옷부터 빨리 줄여야겠어요.”

“그럴 필요가 있어 보이긴 하네. 네가 워낙 작아서.”

“저 별로 안 작은데?”

“작아. 엄청.”

진짜 그런가? 말랐다는 말에 이어, 나더러 작기까지 하단다. 결코 작다고 생각하며 살아왔던 적은 없었기에, 나는 다시금 삐져나온 옷소매를 내려다보았다. 내가 작은 거면, 마리는 뭔데? 난쟁이야?

“제 키 정도면 작은 편은 아니라고 보는데요.”

“키가 작다는 게 아니라, 체구가 작다고. 멍청아.”

“아, 그런가?”

음, 듣고 보니 그런 것 같기도. 분명 조수 유니폼은 S, M, L 이 세 가지 사이즈들로 나온다고 들었는데, 내가 입고 있는 유니폼은 자그마치 S였다. 그런데도 이렇게나 작다니, 확실히 내가 내 몸무게를 그동안 과대평가해오고 있었던 듯.

내 생애 이런 날이 다 올 줄이야. ‘말랐다’는 말에 이어, ‘체구가 작다’라는 말까지 들어보기는 난생 지금이 처음이랄까? ‘체구가 비대하다’라던가, ‘뚱뚱하다’라는 말은 수없이 들어본 것 같은데. 못 먹고 커서 날씬하다 못해 말랐다는 소리까지 듣는 지금의 상황을 기뻐해야 하는 건지, 말아야 하는 건지. 어우.

하여튼, 오늘 저녁엔 반드시 옷을 수선해야겠어. 지난 며칠 동안은 다른 일만 신경 쓰기에도 바빴던지라 대충 걷고 다니기만 했는데, 루이스를 본격적으로 유혹해야겠다 마음먹은 이상 이런 사소한 복장도 함부로 하고 다닐 순 없다. 철저하게, 또 누구보다도 예쁘게!. 는 조금 불가능한가? 어쨌거나.

“후아. 저, 그럼 들어가 볼게요.”

“응, 잘 유혹해봐.”

“유혹이라니. 그렇게 말하니까 뭔가 되게 불순하게 느껴지는데. 그냥 잘 하라고만 하시죠?”

“그래, 잘 해봐.”

안경잡이가 입꼬리를 끌어올려 미소 지으며 내게 손을 흔들어온다. 나도 머릿속으로 ‘루이스를 유혹하자!’라고 생각하고는 있다만, 막상 ‘유혹’이란 단어를 육성으로 듣자니 뭔가. 엄청 문란하게만 느껴진달까? 섹시하게 상의라도 탈의하며 꼬셔야 할 것만 같은 기분, 그런 느낌이라 괜히 튕기듯 대답했다.

그러자 안경잡이는 늘 그렇듯 얄미운 미소를 실실 흘리며 내게 잘해보라 했고, 나는 그 말을 마지막으로 몸을 돌렸다. 그리하여 루이스의 서재 문을 정면으로 마주보는 자세가 되었다. 자, 심호흡 한 번 하자. 쓰읍- 후우.

“그럼, 나중에 봅시다.”

“그래.”

안경잡이가 빙글빙글 웃더니 이내 팔을 들어올린다. 엄지와 검지로 딱! 하는 소리를 내는가 싶더니, 곧 안경잡이가 있던 자리에는 사람의 형상은커녕 허공을 둥실둥실 떠다니는 먼지밖에는 남지 않았다. 잠시 뒤로 고개를 돌린 채 그 허공을 멍하니 바라보던 나는, 긴장이 풀린 듯 한숨을 푹 내쉬었다. 긴장이 왜 풀렸는지는 모르겠다만, 하여튼 지금 들어온 느낌은 그런 느낌이었다.

망할 안경잡이, 또 순간이동으로 사라졌군. 이럴 때 보면, 마법사들이 은근히 부럽기도. 마법 대학 학생들의 지각률이 거의 0퍼센트에 달한다더니, 그 이유를 알 것도 같아.

똑똑-

“..”

긴장이 한층 풀렸다. 왜인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이곳에 찾아오는 게 두 번째이기 때문은 아닐까? 하고 조심스레 짐작해본다.

“누구십니까?”

내 노크에, 안에서부터 적당히 훈훈한 중저음의 목소리가 들려온다. 역시 루이스, 얼굴만큼이나 목소리까지도 잘생겼군. 인생 혼자 사는 욕심쟁이 같으니라고. 그의 듣는 이들로 하여금 절로 흐뭇한 미소를 짓게 만드는 그 목소리에, 나는 ‘크흠크흠!’하고 목을 한 번 풀어준 후, 목청 높여 대답했다.

“저예요, 아샤.”

이번엔 루이스가 과연 어떤 태도를 보여 올까? 기대 반, 실망할 준비 반. 여러모로 두근대는 심장을 마음속으로 꽉 부여잡은 채 10초 정도 기다리고 있었을까, 안에서 뭔가 쿵- 이라던가, 달그락- 하는 등의 자질구레한 소리가 나는가 싶더니, 5초쯤 지난 후 서재의 문이 열렸다.

그리고 나타났다.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숫자의 영애들을 한눈에 홀딱 반하게 만들고, 목숨까지 걸어가며 구애하게 만든다는 그 ‘마성의 얼굴’!

“안녕하세요.”

“..”

이라고 남들은 표현하던데. 내가 보기에도 잘생기긴 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외모 피지컬이 남들을 압도적으로 뛰어넘어버린 모습이긴 해. 그건 인정.

하지만 그렇게 잘난 인물이라고 해서, 나까지 막 그렇게 엄청난 구애 공세를 펼치고 싶지는 않다. 아무래도 너무 높은 자리에 위치한, 그림 속의 떡 같은 존재라서일까? 흠, 그것까지는 아직 나도 잘 모르겠는 걸.

무표정이던 루이스가 내 모습을 위아래로 훑어본다. 조수 유니폼을 차려입고 온 것이, 내가 조수 일을 포기하지 않았음을 온몸으로 나타내는 증표라는 걸 알아차린 모양.

결국 그가 ‘돌아가랬더니.’라고 짧게 중얼거리는가 싶더니, 인상을 살짝 찌푸렸다. 이 다음에 이어질 그의 반응은 뭘까? 또 나를 슬그머니 밀어내버리며 문을 쾅! 하고 닫아버리는 건 아닐까. 두 눈을 말똥말똥 뜬 채로 그를 올려다보고 있었을까, 이외로 그의 얼굴에선 뜻밖의 반응이 일어났다.

루이스 레플리카. 그는 표정을 풀며, 갑작스레 내게 졌다는 듯 슬며시 미소를 지어버리는데!

그런 식으로 그가 표정을 바꾸는 광경을 눈앞에서 목격한 나는, 그 자리에 돌 마냥 멈칫하고 굳어버릴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속으로 나직이 경악했다.

조각상이 움직인다! 조각이 움직인다고!

어, 어떻게 인상을 찌푸린 표정조차 저렇게 아름다울 수가 있지? ‘아름답다’라고? 보통은 여자들에게 더 잘 어울리는 단어 아닌가? 표현이 뭔가 이상하잖아. ‘잘생겼다’도 아니고. 그런데 이상하게도 어울려. 이 인간은 남자인데!

아, 안 돼! 정신 차리자, 아샤. 루이스가 잘생긴 거 원 데이 투 데이야? 새삼 아름답다는 것까지 깨닫는들 놀라울 것도 없다. 타국에까지 ‘레플리카 공작가의 외아들인 루이스는 외모로 세계의 모든 여자를 지배할 수도 있을 거다’라는 소문이 간간이 돈다던데. 그런 인간인 거 몰랐던 것도 아니고, 새삼스럽게 놀랄 이유 같은 게 어디 있어.

연예인이다, 연예인. 그림 속 떡 같은 존재일 뿐이다. 제발 자각하자, 아샤. 지금 내 눈앞엔 단지 나무 위에 포도송이가 달려 있는 거야. 그런 존재인 거야. 저 연예인은 실거야, 아니지. 저 포도는 분명 실거야. 실거라고! 저런 마구니 같은 외모에 넘어가서는 안 돼!

돌아가라고 안 해? 지금은 왠지 나, 심장 건강이 걱정돼서 돌아가 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오늘은 왜 돌아가라고 안 하세요?”

이건 무슨 심경의 변화일까? 강경한 태도로 내게 돌아가라고만 하던 루이스가, 오늘은 서재로 들어오란다. 아무리 봐도 나를 조수로 받아들이려는 이의 태도로밖에는 보이지 않아, 속을 조금 진정시킨 내가 되물었다.

그러자 루이스가 답해왔다.

“돌아가라 하면, 돌아갈 거야?”

“어..”

예리한 녀석이로군. 나는 그의 물음에 속으로 무릎을 탁 친다. 과연, 정곡을 찌를 줄 아는 녀석이야. 잘생긴 데다 똑똑하기까지 하다니, 모든 걸 다 가진 녀석 같으니라고.

“아뇨, 절대.”

“그럴 거잖아. 그러니까 들어와.”

“네? 아, 네.”

내 대답에 루이스가 상체를 앞으로 기울이며, 서재 문을 더욱 활짝 열어주었다. 그런데 마치 지금 상황이 여자친구에게 문을 열어주는 남자친구마냥 다정한 상황이기 짝이 없어서, 나는 얼굴이 순식간에 새빨개져버린다.

루이스한테 반했냐고? 아니, 아니야. 그런 건 아니다. 단지 지금 상황이 진짜로 엄-청나게 쑥스러운 상황인지라, 모태솔로인 내 심장은 면역력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버린 듯. 이런 안경잡이와는 다른 의미로 빌어먹을 루이스 같으니라고.

내게 문을 열어주며 나를 내려다보던 루이스.그리고 일순간 그를 올려다봐버린 나.

바로 이 순간, 나는 새삼 깨닫는다. 지금까지는 크게 와 닿지 않았는데, 지금이 되어서야 깨달을 수 있었던 것 한 가지. 이렇게 가까이에서 보게 된 그는. 또, 찡그리지 않은 표정의 그는 말이다.

너무 잘생겼다. 미치도록 잘생겼다. ‘잘생겼다’는 말 외의 어느 단어로 표현을 해보라 요구한다 해도, ‘잘생겼다’는 말 외에는 어찌 더 표현할 방법이 없다. 표현할 단어가 없는 게 아니라, 표현할 수 없게 만든다. 그런 단어를 떠올려내려면 뇌를 써야 하는데, 루이스는 그 뇌마저 마비시켜버리는 미친 외모였으니까.

내가 지금까지 봐온 루이스는 늘 불쾌한 표정밖에 짓고 있지 않았었기에 미처 몰랐는데, 이제야 좀 알 것 같았다. 왜 높디높은 신분의 영애들이 그토록 목을 매는지. 가지지 못해 안달인지를.

저번에는 얼핏 보았던 레오니드가 루이스보다 잘생겼다고 생각했었는데, 지금 와서 보니 순전히 그건 내 착각이었다. 비슷하거나 어쩌면 레오니드를 더 앞설 수도?

세상에. 찡그리지 않은 표정의 루이스가 이렇게나 조각조각 뜯어봐도 버릴 데 하나 없이 훌륭하게 생겨먹은 인간이었다니.

“안 들어가고 뭐해?”

‘자체발광’이 무엇인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살아 움직이는 인간 조각상인 그를 바라보며. 나는 인정했다. 아니,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그동안 나는 루이스를 어떠한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았던 게 아닐까, 하는 그런 속마음을.

그런 게 아니고서야,

“아, 네. 네.”

36년이나 살아온 정신연령 36세의 나마저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지금의 이 얼굴을, 이 남자가 지닌 잘생김의 가치를, 첫눈에 알아보지 못했을 리가 없으니까.

그래, 내 눈깔이 잠시 미쳤었던 거지. 인정한다. 미친 건 루이스의 외모가 아니라, 내 눈깔이야.

“유니폼이 많이 크네. 괜찮아?”

“괘, 괘, 괜찮아요.”

앗, 자꾸 말 더듬지 마! 이 멍청한 주둥이야. 나태한 줄은 알고 있었지만, 대체 내 뇌란 자식은 얼마나 일을 안 하길래 필터링도 안 거치고 말을 뱉는 거람?

드디어 제대로 된 조수 일을 맡게 생긴 마당에, 이 놈의 주둥이가 자꾸만 실수를 터뜨린다. 정신 차려라, 정신 차려. 이 망할 주둥이!

“많이 긴장한 것 같은데. 저번에 보여줬던 그 패기는 어디로 갔지?”

루이스가 서재 중앙의 테이블이 있는 곳으로 다가가, 소파에 앉았다. 그리고는 내게도 이리 오라는 듯 손짓하기에, 나는 쭈뼛쭈뼛 걸어가 그의 맞은편에 앉았다.

테이블 위에는 찻잔과 찻주전자가 놓여있었는데, 나는 그제야 서재 문이 열리기 전에 달그락거렸던 소리가 이 찻주전자와 찻잔을 세팅하느라 낸 소리임을 깨닫는다.

뭐야, 루이스. 생각보다 엄청 깜찍한데? 하긴, 나이로 치자면 이제 불과 20살을 앞둔 어리고 풋풋한 나이니까. 깜찍한 게 당연한 건가?

“좀 긴장해서 그래요. 그런데, 무슨 심경의 변화세요? 찔러도 바늘 하나 안 들어갈 것처럼 저를 거부하시더니.”

루이스가 비싸 보이고 고급스러운 디자인의 찻주전자를 들어올렸다. 응? 아니, 저건!

휘둥그레. 내 눈이 절로 크게 떠졌다. 엄밀히 말하자면 루이스가 찻주전자를 ‘손으로’ 들어 올린 게 아니라, ‘마법으로’ 들어 올린 것이었기 때문.

허공에 찻주전자가 떠있다. 우와. 공중부양이야, 공중부양! 앗, 공중부양하는 주전자가 차를 따른다. 내 찻잔에!

“마법사 처음 봐?”

“아, 여기 들어와서 처음 봤어요. 마법도 처음 보고요.”

루이스가 내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고 말을 돌렸지만, 나는 일단 공중에 떠있는 주전자가 더 신기했으므로 눈감아주었다. 그는 자신의 찻잔에도 차를 따르더니, 이내 찻잔을 슬그머니 들어올려 향을 맡는데.

하는 소리를 내는가 싶더니, 표정을 다시금 살짝 찡그린다. 아니, 잘생긴 얼굴을 자꾸 찡그리네? 그러다 그 완벽한 얼굴의 미간 사이에 1자가 생기는 충격적인 일이 벌어질지도 모른다고, 이 주인님아.

그런데 차 향을 맡고 저런 표정은 왜 짓는 걸까? 나는 궁금증이 일어, 냉큼 찻잔을 손으로 집어 들어올렸다. 루이스가 황급히 말리려는 듯 ‘아, 잠시만.’이라고 내게 말을 건네 오지만, 나는 재빨리 그 찻잔을 입가로 갖다 대어 들이켜 보는데.

그 짙고도 역한 맛을 견뎌내지 못하고, 결국 저질러버리고야 말았다.

내 입에서 뿜어져나간 찻물들이 허공에 흩뿌려지며, 화려한 분수쇼가 펼쳐졌다. 아름답게 대기 중을 장식하며 아래로 떨어져 내린 그 찻물의 비는, 그 한 방울방울들은.

벙찐 표정으로 나를 응시해오는 그, 루이스의 얼굴 위로. 정확히 안착했다.

“미안. 내가 차를 잘 못 우려서.”

머엉. 지금 내가 무슨 짓을 저지른 거지?.하는 생각에, 머릿속이 마비되어버려 입만 헤벌린 채 정면의 루이스를 응시하고 있었을까.

졸지에 침 섞인 물벼락을 맞은 건 내가 아니라 루이스인데, 오히려 나보다도 그가 먼저 내게 사과해왔다. 하지만 루이스가 그런 초연한 태도로 괜찮다 말해준들, 사고를 저질러버린 내 얼굴만 더욱 화끈하게 달아오르는 결과를 초래할 뿐이었다.

“제, 제가 죄송해요! 어떡해!”

“괜찮아. 별로 뜨겁지도 않았어.”

갸아악!! 쪽팔려! 이를 어째! 쥐구멍이라도 있다면 들어가서 영영 나오고 싶지 않을 정도로 민망해! 급 살기가 싫어지는 순간. 대체 왜 숨을 쉬고 살아가고 있는 거냐? 멍청한 나!

아니, 그리고. 하필이면 차에서 저런 맛이 날 건 뭐란 말인가. 뭘 어떻게 끓이면 차에서 걸레 빤 물 같은 맛―물론 걸레 빤 물을 먹어본 적이 있는 건 아니다―이 나는 거지? 대체 찻잎에 무슨 마법을 써야 가능하냐고. 이해할 수가 없다. 무슨 찻잎을 쓰면 저리 된단 말인가? 이건 진짜 혁명이야. 멀쩡한 찻잎으로 역겨운 물을 창조해내는 연금술인 게 틀림없다고!

아니야, 아니지. 차 맛은 둘째 치고, 그나마 차가 미지근해서 다행이었다. 만약 내가 뱉은 이 찻물이 뜨거운 물이었다면, 나는 이 날로 즉시 주인의 얼굴에 화상을 입힌 죄로 사형을 받아도 모자랐다. 진짜 모자라. 24배는 더 모자라다. 그나마 사형이 아닌 게 다행이었다. 정체불명의 살인마법사에게 살해당하는 것보다, 죄를 짓고 단두대에 목이 뎅겅 잘리는 결말은 더 비할 데 없이 최악이니까.

“지, 진짜로 죄송해요, 진짜!”

어쩔 줄 몰라 하며 쩔쩔매는 나를 앞에 둔 채로, 루이스는 묵묵히 자신의 학생 유니폼의 재킷 안으로 손을 집어넣는다. 이내 그 안에서 꺼내든 것은 손수건이었다. 그는 그 손수건으로 얼굴에 묻은 찻물을 닦기 시작하는데.

“제가 할게요!”

벌떡.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루이스의 옆으로 호다닥 뛰어갔다. 내가 저질러놓고, 자리에 가만히 앉아서 구경만 하고 있을 순 없는 노릇이잖아! 이럴 땐 저 폭신한 소파에 앉아있는 게 오히려 더 가시방석이란 말이다.

이내 나는 다급히 루이스의 옆에 털썩 앉아, 손수건을 달라는 눈깔 빔을 야무지게 쏴댔으니. 나의 눈빛을 알아차린 루이스가, 마치 ‘응?’하는 듯한 반응으로 내게 손수건을 건네주었다. 그, 그래! 바로 이거야, 루이스!

나는 손수건을 건네받고서, 잠시 그것을 손에 꼭 쥔 채로 긴장한 표정을 한 채 루이스를 향해 물음을 던진다. 지금 이 순간, 내가 가장 걱정되는 문제 한 가지를.

“진짜. 진짜 많이 죄송해요. 고의가 아니었어요. 그. 저 말이에요, 사형시키는 거 아니죠?”

“이런 일 정도로 사형이라니, 그게 무슨.”

루이스가 황당하다는 듯 내게 대답해온다. 나는 진짜로 걱정돼서 물은 거였는데, 마치 내가 말도 안 되는 농담이라도 한 것처럼 루이스가 나를 쳐다봐오고 있었으니. 아니 아니, 그건 너만 그런 거라고!

이 세계는 천민 노예가 주인에게 물을 뿜은 걸로도 얼마든지 사형을 시킬 수 있는 세계이자 나라였다. 태어날 때부터 모든 일상생활에서 그래왔듯, 그 사형이 나라고 예외일 수는 없지 않겠는가. 다른 주인이라면 나는 얼마든지 사형감이었다. 그러나.

“그럴 일 없어.”

다행히도 내 주인은 루이스였다. 이 자식,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친절하고 착하잖아! 뭐랄까, 첫 이미지랑 전혀 딴판인데.

더 까칠하고 까다로운 타입일 것 같았는데, 도리어 나쁘게 생각했던 점들이 무안해질 정도로 친절하지 않은가.

음, 내 머릿속에 고이 짱박혀있던 루이스에 대한 편견이 산산조각 나버리는 순간이야. 하긴, 서재 문을 열어줄 때부터 신사답게 멋지긴 했어. 어째서 이 인간이 그렇게나 인기가 많은지, 이제야 좀 완전히 알 것 같다.

인기가 없을 수가 없는 거다, 이건. 세상에 이렇게나 완벽한 루이스가 여자들에게 인기가 없다면, 이 세상 모든 남자들은 그 누구도 여자에게 인기가 없어야 한다. 그래야 이치에 맞아. 장담할 수 있다.

“휴, 그럼 다행이구요. 예전에 저희 부모님이 살아계실 적엔 노예들이 정말 시도 때도 없이 죽어나갔었거든요. 주인이 아끼는 찻잔을 깨버렸다는 이유만으로 손목이 잘리기도 하고요. 주인님은 공작가의 후계자시니까, 아무래도 저도 그렇게 될까 봐 순간 엄청 쫄렸어요.”

“그런 일이 존재한다고? 고작 그 정도 실수로?”

톡톡. 루이스의 얼굴에 묻은 찻물을 손수건으로 부드럽게 닦아주기 시작한 나. 그러면서 하는 내 말에, 루이스가 믿기 힘들다는 듯이 되물어온다. 그는 눈마저 조금 커다랗게 뜬 모습인데.

뭐야, 진짜 몰라서 묻는 건가? 나는 도리어 그에게 고개를 갸웃해 보였다. 이 인간은 태어났을 때부터 높디높은 귀족인 입장이었으니까, 가까이에서 보고 자랐을 테니 더 잘 아는 줄 알았는데.

“왜 모르세요? 지금은 덜하지만, 한 15년쯤 전에 천민들에게 주는 형벌로 사지절단이 유행한 적이 있었어요. 저희 아버지도 아침에 늦잠을 자서 일하러 늦게 나왔다는 이유로 발목이 잘릴 뻔 했었는걸요?”

다행히도 찻물은 대체로 옷에 많이 튀었지, 얼굴에는 많이 안 튀었구나. 그의 옷도 내가 빨아주어야겠구나 하고 생각하며, 나는 입으로 그가 심심하지 않게끔 계속 나불거렸다. 그래서 막 지어낸 얘기냐고? 아, 그건 아니야.

무슨 설국열차가 따로 없다. 마치 소설 속에서나 나올 법한 잔인한 얘기들이지만, 문제는 이 모든 썰들이 모두 사실이라는 점이다. 그 때 내 아버지께서 얼마나 울고 불며 주인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매달리셨었는지, 지금도 그 모습을 잊을 수가 없달까. 그런 덕분인지 발목은 무사히 지켜내셨다.

다만, 그러고 나서 집에 돌아와, 내게 술병을 집어던지고 화풀이를 하셨던 기억도 함께 떠오르는데. 음, 이런 지저분한 추억은 되도록 떠올려내지 말자. 서러워지잖아.

“그랬군. 지금껏 살면서 몰랐던 얘기들이야.”

“온실 속 화초라고 하려 했지?”

“아뇨, 잘못 들으셨어요.”

크흠크흠. 시치미를 똑 떼며, 나는 물기를 다 닦고서 손수건을 슬그머니 내 주머니에다 챙겼다. ‘이건 빨아서 다시 돌려드릴게요’라고 루이스에게 말하고서. 그가 고개를 끄덕인다.

뱉었던 물을 수습하고도 내가 잠시 멀뚱히 루이스의 옆에 앉아있었을까, 내가 자리를 옮기지 않고 멍하니 앉아서였는지는 몰라도 그가 고개를 옆으로 슬그머니 돌려왔다. 루이스의 푸른 눈동자가 나의 초록색 눈동자와 딱! 마주치는데.

역시 잘생겼군.

하지만 계속 가까이에서 보고 있다간 두 눈이 멀어버릴 것 같으니, 이만 떨어지자. 하하. 나는 루이스의 옆에서 일어나 맞은편 소파로 자리를 옮겼다. 결코 방금 같은 상황을 노렸던 건 아니다. 결코. 나는 결백해!

“다음에는 좀 더 괜찮은 차를 끓여주도록 하지.”

그런 결백한 내게, 주인님께서 말씀해오셨다. 응? 뭔가 역할이 바뀌었는데요. 주인님께서 제게 양말, 이 아니지. 차를 왜 끓여주신다는 거?

“저기, 차 우리는 건 저 같은 조수나 해야 하는 일이거든요? 주인님께서는 공부나 열심히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앞으로 사형시킬 일도 없으니까, 염려 놓고.”

“그건. 어, 음. 감사합니다.”

생각보다 루이스의 친절한 한 마디 한 마디에, 이제는 뭐랄까. 적응이 안 된다기보다는, 살짝 어색한 느낌이 든다. 이런 친절, 살면서 별로 받아본 적이 없어서인지도.

차를 끓여주는 것까지는 필요 없고, 사형 같은 극형을 내리지 않을 거라는 말만으로도 나는 뭐랄까, 굉장히 안도가 되었다. 괴팍한 주인을 만나면 노예의 인생이 얼마나 고달파지는지 잘 아는 바이므로, 되도록 그런 주인은 피하고 싶었던 것이다.

루이스가 그런 괴팍한 주인이 아니라서 다행이야. 아니, 오히려 너무 친절해서 탈인 주인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일순 들어온다. 좋아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그런 고민을 머릿속으로 잠깐 하다가, 이내 시선을 루이스의 눈동자에게로 맞춘 나. 그런데, 그의 눈동자에서 머뭇거림이 읽혔다.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것 같은데, 그 말이 목구멍에서 막힌 사람처럼 인상까지 살포시 찌푸리는 그.

흐음, 뭐지? 궁금하지만 왠지 그가 곧 그 말을 꺼내는 데에 성공할 것 같았기에, 나는 잠시 기다려보았다. 이내 그 생각은 맞아떨어졌다. 빙고.

“하지만, 사형 대신에.”

“다른 누군가가 너를 죽일 수도 있어. 이미 알고는 있겠지만.”

.아, 그거. 맞아, 이미 나도 알고 있는 부분인데.

루이스의 말에, 나는 확신했다. 이 남자, 생각보다 ‘그 일’을 굉장히 신경 쓰고 있구나! 하고.

하긴, 나 같아도 신경 쓰이겠다. 내 주변인들이 하나 둘씩 죽어나가는데, 신경이 쓰이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아마 그 사람이 냉혈한에 철면피인 거겠지. 양심이 있다면, 자기 주변 사람들에게 미안해질 테니까.

“알고 있어요. 그래도 하려는 거예요.”

“너는 예외일 거라고 생각해서?”

루이스의 물음에, 나는 고개를 살래살래 저으며 답했다.

일단 그런 건 아니란다. 내가 그렇게 순진무구하고 멍청한 인간이었더라면, 태어날 때부터 ‘내가 이런 어마무시한 흙수저로 태어날 리가 없어!’라고 생각하며 현실을 도피하다, 지금쯤 이미 다음 생을 살고 있었을지도 모른다고.

하지만 지금의 나를 보자면, 이 부조리한 세계에서 버젓이 살아가고 있다. 그것도 혼자인 몸으로 꽤 야무지게. 그렇다. 나는 현실파악과 주제파악이 굉장히 빠른 인물이었던 것이다.

아, 물론 그 파악 능력과 오지랖이 비례한다고는 안 했다. 나는 내 주제를 잘 알지만, 오지랖이 주체가 안 되는 인간이었으니.

이를 어쩌랴? 그런 태평양 같은 오지랖을 타고나버린 인간인 것을..

“주인님 곁에 딱 붙어 있으면, 죽지 않을 것 같아서요.”

루이스가 인상을 찌푸린다. 어라? 아까보다 더 격하게 찌푸리는데.

야! 나도 너랑 1년 365일 찰싹 달라붙어 지내고 싶지는 않다고! 아무리 니가 잘생긴 걸 본인 스스로도 안다 해도 그렇지, 그렇게나 당당히 싫은 기색을 겉으로 드러낼 필요가 있는 거야라고 외치고 싶었지만, 참았다. 그래, 내가 뭐라고. 이럴 때에 주제파악 패시브 스킬이 발동되는 거다.

“아니, 듣자하니 주인님께서도 조수가 필요하긴 하다면서요. 어차피 조수도 필요하고, 나도 조수를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면, 손을 잡는 수밖에는 없지 않겠어요?”

“난 조수 같은 거 딱히 안 필요해.”

“그래서 점심을 거르세요? 저녁은 대충 사 드신다던데. 사람이 하루에 한 끼만 먹고 어떻게 버텨요.”

그렇다. 루이스는 조수가 없는 관계로, 아침이나 저녁을 간단히 사먹는 걸로 매일의 끼니를 때웠던 것!

이 정보 또한 안경잡이에게서 입수했다. 다시금 드는 의문. 안경잡이 그 자식, 진짜로 루이스의 스토커가 아닐까? 이런 정보들은 대체 어떻게 아는 거지. 신기한데. 구린내가 난다. 킁킁.

“.그건 내가 알아서 해. 네가 신경 쓸 만한 일이 아니야.”

차도 혼자 못 끓이는 양반이, 뭘 알아서 한다는 것인지?

“이제는 제가 그쪽 조수니까, 신경 써야 하는 일 맞거든요. 그리고 어차피 전 이백만 베른이나 빚지고 노예가 된 몸이라, 이대로 돌아가도 험한 꼴밖에 못 겪을 거란 말이에요. 그놈이 그놈이에요.”

“이백만 베른? 어쩌다 그런 큰 빚을 지게 된 거지?”

“그러게나 말이에요. 제가 진 건 아닌데,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됐네요.”

“그러니까, 전 안 돌아갈 거예요. 아니, 못 돌아가요.”

루이스가 이해하기 힘들다는 듯 고개를 갸우뚱한다. 그런 사소한 제스쳐도 내가 하면 그저 그런데, 루이스가 하니 빚어놓은 구체관절인형마냥 잘생긴 데다 깜찍하기까지 한 걸? 이런 빌어먹을 빈익빈 부익부 세상 같으니라고.

어쨌거나 나는 물러설 의향이 없었다. 완고한 표정으로 입을 딱 앙다문 채 꽉 쥔 주먹을 무릎 위에 올린 채로 뻣뻣하게 앉아있었을까, 그런 나를 마주보던 루이스가 나직이 한숨을 내쉬었다. 엇, 찌푸렸던 인상이 좀 풀렸다! 다시 훨씬 잘생겨졌어. 물론 찡그렸을 때도 잘생겼지만, 표정을 풀면 두 배는 더 후광이 짙어지는 느낌이랄까.

“그럼, 어쩌면 너는 죽게 될 거야. 확신할 순 없지만, 그럴 확률이 높아.”

“그러니까, 제가 개죽음 안 당하게 서로 딱 붙어있자니까요?”

“옷 갈아입을 때라던가, 그런 경우에도 붙어있을 셈이야?”

“네? 음..”

옷 갈아입을 때에도 같이 있어야겠다 생각한 적은 딱히 없는데, 방금 그 말을 듣고 보니 뭔가 일리가 있군요. 끄덕.

아무래도 옷을 갈아입을 때에도 딱 달라붙어있어야겠다. 아, 결코 음험한 생각을 품고 있어서 이렇게 마음먹은 건 절대로 아니다. 루이스의 복부에 초콜릿모양의 그것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고 싶어서인 것은 절대 아니. 그래, 아닐 거다.

“옷 갈아입으실 때 고개 돌리고 있으면 되잖아요.”

“화장실에 갈 때는 어쩌자고.”

앗! 그러고 보니.

루이스는 남자고, 나는 여자였다. 성별이 같았다면 화장실에도 졸졸 따라다니며 내 안전을 도모할 수 있었겠지만, 듣고 보니 이건 좀 무리인 감이 있군.

그럼 딱 붙어 다니는 건 포기할까?.라고 잠깐 생각해봤지만, 역시 이것도 아닌 것 같아. 얼마만큼의 확률일지는 모르겠다만, 혹시 모르는 거잖아. 내가 루이스를 화장실에 보낸 그 잠깐사이에 살인마에게 목이 뎅겅 썰려버릴지.

그래, 얼마든지 그럴 가능성이 있음이다. 결코 1분 1초도 내 목숨을 무방비한 상태로 둘 수 없음이야.

루이스의 수치심보다 내 목숨이 더 소중하다. 어쩔 수 없잖아? 루이스는 루이스고, 나는 나인 걸.

“같이 가죠!”

“미쳤군. 에스테로 돌아가.”

루이스가 미간을 찌푸리며 소파에서 벌떡 일어섰다.

“농담이에요, 농담!”

뒤도 안 돌아보고 떠나버릴 것처럼 매몰차게 일어서 걸어가 버리는 루이스를 향해, 나는 다급히 소파에서 벌떡 일어서며 붙잡듯이 외쳤다.

내 말에, 루이스가 뒤를 돌아본다. 반응 너무 매정한 거 아니냐! 나에게는 생사여부가 달린 문제인데. 와, 세상에. 다리가 어찌나 긴지 그새 5m는 멀어진 듯. 완전 찰나였는데, 미친 거 아냐?

“별로 농담 같지 않았어.”

“지, 진짜예요! 믿어주세요.”

아니, 사실은 구라야. 네가 허락한다면 난 화장실에도 따라 들어갔을 거란 사실은 나만이 아는 비밀로 하자. 그래, 그게 좋겠어.

루이스는 그제야 안도한 듯 작은 한숨을 푹 내쉰다. 그리고 다시금 내가 있는 쪽으로 다가오며, 자신이 여태껏 앉아있었던 소파의 높다란 등받이에 팔꿈치를 올리며 몸을 기울이는데.

등받이 뒤에서 비스듬히 기대어 선, 그런 매혹적인 자세를 취한 루이스가, 멀뚱히 서있는 나를 정면으로 바라봐왔다. 자, 잘생겼어. 그런데 그 표정은 뭐니? 마치 불안에 떨었던 사람의 표정 같은데.

내가 화장실까지 따라 들어올까 봐 그렇게나 무서웠던 걸까? 하고 생각했다. 갑자기 자괴감이 밀려들어오는데?

이런 젠장. 이거 마치 내가 괴물이라도 된 것 같은 기분이잖아. 한강으로 가야 하나? 아, 여긴 한강이 없지. 주거지를 잃었구나, 나란 괴물.

“일단, 네 말은 잘 알겠어. 그 ‘딱 붙어있는 것’의 기준이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지만, 가능한 한 나도 최선을 다해 널 지켜주지.”

어맛, 심쿵. 루이스의 말에 나는 심장박동이 빨라져감을 느끼는 일 따위는 일어나지 않았다. 내게 그런 로맨스란 있을 수가 없어. 나는 단지 고개만 끄덕거렸다. 끄덕끄덕. 루이스가 아무리 잘생겼다지만, 나도 생각과 양심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저런 그림 속 떡을 바라보며 침을 질질 흘리는 바보짓은 하지 않는다.

그런 의미에서, 안경잡이의 계획이 얼마나 터무니없는지 다시금 실감이 확 나는데. 저런 꽃미남을 내가 무슨 수로 꼬셔? 잘생기고 잘난 애들은 그만큼 눈도 높을 게 분명한데. 절레절레. 절대로 불가능함이다. 그 녀석, 나보다도 생각머리가 없는 게 틀림없어. 나보다도 생각이 없다니, 대체 얼마나 없는 거지?

“되도록이면 너도 조심해. 대체로 살해당했던 조수들은 밤에, 그것도 혼자 있던 시간에 그렇게 된 거니까. 그런 상황이 없게끔 지내봐.”

루이스가 내게 말해준다. 흠? 가만. 한번 생각해보자. 혼자 있는 밤에 살해당했다면, 그 두 가지 조건 중 하나만 덜 충족해도 나는 죽지 않을 수 있다는 건가? 그럼 루이스의 말인즉슨, 이 세계에서 밤을 없애버리란 것.일리는 없고.

아! 혼자 있지 말라는 거구나. 퍼뜩 깨달은 내가, 루이스에게 되물었다.

“혼자 있지만 않으면 된다는 거죠?”

“아마도. 지금까지는 그래왔으니까, 혼자 있는 것보단 다른 누군가와 함께 있는 편이 안전할 거라고 생각해.”

“하지만, 그 살인마가 함께 있는 사람이랑 같이 죽여 버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럴 수도. 사실 그 점에 대해서는 나도 불분명해. 지금까지는 그러지 않았지만, 앞으로의 일은 모르는 거니까.”

흐음. 내가 같이 붙어 다닐 만한 사람이라면, 역시 아도라와 안경잡이, 마리 등등밖에는 떠오르지 않는다. 안경잡이는 사실 내가 밤까지도 함께 붙어 다니고 싶을 만큼 썩 달가운 녀석이 아닌지라 제외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으니, 일단은 패스. 남은 건 아도라와 마리.뿐인데.

마리와는 그 날 이후로도 잘 지내고 있었다. 오며가며 마주칠 때엔 가볍게 인사하고 지나가는 사이 정도가 되었달까? 내 신분에 크게 연연하지 않고 나를 대해주어, 꽤 괜찮은 여자아이라고 생각하고 있긴 해. 그렇지만, 어디까지나 ‘괜찮은’ 사람인 거지, ‘강한’ 사람인 건 아니잖아? 아도라나 마리나, 둘 다 마법사가 아닌 걸. 함께 있는다고 해서 내 안전이 보장될 만한 이들이 아니다. 아니, 오히려 나로 인해 그들마저 위험해질지도.

만약 그들과 함께 있는 밤에, 살인마법사의 습격을 받기라도 하면. 으으!

“끔찍해.”

“뭐가?”

“아, 상상해버려서요. 저와 제 친구들이 모가지가 뎅겅 잘려 죽어가는 모습을.”

나는 마치 모 추리만화의 주인공처럼 턱을 쓰다듬으며 대답했다. 그런 나를 정면에서 마주 바라봐오던 루이스가, 상체를 숙이며 무릎에 팔꿈치를 대더니, 나를 유심히 응시하는 듯한 자세로 바꿔온다. 응? 왜.

“둘 다 죽을지 아닐지에 대해서는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목이 잘려 죽었던 적은 없었어.”

그가 짐짓 진지한 표정으로 내게 말해온다. 아, 진지한 주제라서 그런 거였냐.

“그럼요?”

“사인은 모두 심장마비야.”

루이스가 메마른 목소리로 딱 잘라 대답했다. 아니, 그가 그렇게 말하려고 했다기보단 내 귀에는 그렇게 들렸다.

심장마비? 어떻게, 무슨 수로 심장마비로 사람을 죽인단 말인가? 그런 마법도 있나? 먼 옛날부터 마법 쪽으로 틈틈이 공부를 해왔었지만, 살인 마법이 따로 존재한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는데.

살인이 가능한 독약 제조법 같은 건 대충 봤던 기억이 있다만,

“그래서 위험한 거야.”

“네?”

“그 살인 마법, 마법 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거거든. 그 마법의 마법서는 황실 비밀 장서고에만 유일하게 존재하는데, 마법 대학에 다니는 학생들조차도 황실 장서고의 마법진은 열람할 수 없게 되어 있어. 한마디로, 배우고 싶어도 못 배우는 마법이야. 나도 잘 모르고.”

“그럼, 그 살인마는 어떻게 쓰는 건데요? 어디서 배웠길래?”

“그걸 알면, 범인을 잡는 데에 아주 큰 도움이 되었겠지? 모르니까 못 잡아서 쩔쩔매는 거고.”

루이스가 테이블 위에 올려져있는, 아까 전에 차를 따랐던―그러나 마법으로 한 것인지, 어느 틈엔가 찻잔은 비어 있었다― 고급스러운 찻잔의 끄트머리를 손가락으로 살짝 매만진다. 그러면서 내게 마저 말을 이어오길,

“어쨌거나 그 살인범이 위험한 존재라는 건 분명해. 그러니까, 사실 네가 어느 누구랑 같이 다니든 그다지 안전할 거라고 생각되지 않아. 나는 네가 되도록 내 주변에서 얼쩡거리지 않았으면 좋겠어.”

“..”

꼭 그렇게 ‘얼쩡거리다’는 표현을 써야만 했니? 그렇게 표현하면, 마치 내가 꼭 귀찮은 파리 같은 존재가 되어버린 것만 같잖아. 물론 썩 틀린 표현도 아니긴 하다만.

나는 어깨를 으쓱해보였다.

“어차피 저 같은 천민이야, 날파리만도 못한 목숨인 걸요. 에스테로 돌아가나 이곳에 있으나 둘 다 위험하긴 마찬가지라, 저도 이곳에 남는 걸 택한 거예요. 그러니 그 얘긴 이제 그만하는 걸로 하죠. 같은 얘기 자꾸 반복해서 뭐하겠어요?”

“네가 죽어도 난 책임지지 않아.”

“죽은 인간한테 책임져줄 사람이 뭐가 필요해요? 저도 알거든요.”

“그래도.”

“제 목숨이에요. 사나 죽으나 제 선택이니까, 주인님께는 아무런 책임 같은 거 없다고요. 왜 그렇게 신경 쓰세요?”

나는 살짝 이해할 수 없다는 감정을 실어 루이스에게 물었다. 내가 돌아갈 의사가 없다는 것쯤은 이미 그에게 수십 번은 더 어필했던 것 같은데, 아직도 이 남자는 내가 돌아가길 바란다는 말을 하고 있지 않은가.

내심 답답해서 물은 그 질문에, 루이스의 표정이 살짝 어두워졌다. 열아홉 살의 남자, 소년과 청년 사이의 느낌을 물씬 풍기는 그는 눈을 아래로 살짝 내리깔며 자신의 손가락을 매만진다.

죽은 후에 루이스에게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나도 그 정도 패널티는 이미 감수하고 있다. 그 뜻을 부리부리하게 부릅뜬 눈빛으로 전달해보이자, 루이스가 결국 내 고집에 졌다는 듯이 한숨을 푹 내쉰다. 그리고는 나지막이 중얼거리듯 내뱉은 한마디.

“더 이상 내 주변인이 죽는 모습은 보고 싶지 않으니까.”

나는 머릿속으로 ‘아차, 실수!’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고 보니 루이스도 사람인데, 왜 자기 주변 사람이 죽어나가는 거에 아무렇지도 않을 거라고 은연중에 생각하고 있었던 걸까? 정말이지 나란 둔탱이, 답도 없군. 어쩌면 나, ‘귀족들은 아랫사람이 죽어나가는 거에 대해 아무런 감정도 안 들 거야’라는 편견을 가지고 있었던 건 아닐지.

또 문득 드는 생각. 어쩌면 그 살인마법사는 이런 걸 바라고 살인을 저질렀던 게 아닐까? 루이스가 보다 견디기 힘들어하고, 신경 쓰고, 꺼려하는 상황을 연출하는 것. 루이스에게 악한 마음을 품은 인물인 건 분명할 테니까, 아마 그 인간은 루이스를 정신적으로 괴롭히는 게 목표일 듯.

그리고 그 방법은 매우 효과적. 한층 침울하고 어두워져버린 표정을 한 루이스는 허리를 쭉 펴며 몸을 곧게 일으키더니, 이내 소파에서 일어섰다.

“죄송해요! 주인님 마음은 미처 신경을 못 써서.”

“괜찮아. 그나저나, 그 ‘주인님’이라는 호칭은 왜 자꾸 쓰는 거지? 저번엔 멀쩡하게 도련님이라고 부르더니.”

응? 도련님이라고 부르면 멀쩡한 거고, 주인님이라고 부르면 멀쩡하지 않은 건가?

도련님과 주인님이라는 호칭의 차이는 간단하다. 도련님은 평민 신분의 하인들이 쓰는 호칭이고, 주인님은 천민 신분의 노예들이 쓰는 호칭이라는 점? 그런데, 나는 후자에 더 가깝지 않나? 천민인데. 애초에 그래서 바꾼 거였다만.

“저는 주인님이라고 하는 게 맞는데요? 지금까지 노예로 지냈던 적은 없다 보니, 처음에 도련님이라고 불렀던 건 헷갈려서 그랬던 건데.”

“너, 노예야?”

“네, 아마도?”

“그냥 다른 사람들처럼 불러. 지금 네가 부르는 그 호칭은 듣기에 거북하니까.”

루이스가 영 싫다는 듯 손사래를 홰홰 치며 내게 말해온다.

주인님이 뭐가 거북하지? ‘주인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아가씨’라고 불렀다는 이유로 호되게 채찍을 맞는 노예는 본 적이 있었다. 그런데 그 반대라니. 흐음, 하여튼 특이한 녀석이라니까.

“그럼, 도련님?”

“그게 나아.”

“싫어요. 그냥 주인님이라고 할래.”

왜 주인님이라고 부르려 하냐고? 음, 그거야. 그냥! 지금 이 순간, 왠지 루이스를 놀려주지 않으면 죽기 전 침대위에 누워서 ‘아, 그 때 루이스를 한번 골탕먹여주는 건데!’하고 후회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서였다. 응, 물론 핑계야.

도리질을 치며 건넨 내 대답에, 루이스가 ‘하?’하는 소리를 내뱉는다. 그리고 이내 ‘너 엄청 짜증난다’하는 표정을 지어온다.

“네 마음대로 해.”

하핫, 저 질색한 얼굴좀 봐. 안경잡이야. 아무래도 네 계획이 이루어질 일은 없겠는 걸? 내가 이렇게나 짓궂게 되먹은 성격의 청개구리파라서 말이지.

황당한 대답을 대답이랍시고 내놓은 나를 어이없다는 듯 쳐다보며, 루이스가 한숨을 푹 내쉰다. 아무래도 우리 주인님, 앞으로 한숨 쉴 일이 많아지겠는데? 힘내라 우리 주인님.

“너, 이름이 아샤라고 했지? 정말 제대로 할 마음이라면, 오늘부터 정식으로 내 조수가 되어 봐. 내 서재에서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는 지금부터 차근차근 가르쳐줄 테니.”

그가 흘러내리는 금발의 앞머리를 뒤로 쓸어 넘기며 말해왔다. 이제 본격적으로 조수 업무를 내게 맡기려는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야 마땅했지만, 지금의 나는 빌어먹을 눈이라는 신체부위로 인해 다른 생각에 빠져들어야만 했다.

목숨이고 나발이고, 지금 이 순간 그런 건 뒷전이었다. ‘뇌쇄적’이라는 표현이 어떤 때에 쓰이는 것인지 지금에서야 깨달았다. 그런 단어는, 루이스 같은 인간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확신할 수 있어.

그나저나, 내게 차근차근 가르쳐준다고? 일대일 과외 같은 걸까? 내가 너처럼 완벽한 미남에게 뭔가를 교육받는 상황이 온 거? 그런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순간이 온 것이야?

두근두근. 살다 살다 내가 이렇게나 잘생긴 남정네에게서 뭔가를 가르침 받는 날이 오게 될 줄은 몰랐는데. 기대되는군! 역시 세상은 오래 살고 봐야 할 일이야.

루이스에게서 내가 앞으로 그의 서재에서 처리해야 할 일들을 배웠다. 기존에 내가 알고 있었던 지식들과 그리 큰 차이가 있었던 건 아니지만, 예를 들어 루이스의 책장 정리법이라던가, 그의 유니폼은 세탁 후 어디에 걸어놓아야 하는지 등등. 앞으로 내가 해야 할 그런 간단한 것들만 배우고 끝났다.

30분도 안 걸린 듯. 아직은 좀 낯선 내 주인님과 조금 더 오붓한 시간을 보내보고 싶었는데, 욕심이었던 거냐. 쳇. 그런 철벽남에게 기대했던 내가 멍청했어.

루이스의 서재를 나올 적에 입술을 붕어마냥 삐쭉 내밀고 있었더니, 그 눈치 없는 자식이 내게 말해왔었다. ‘가르쳐준 게 많이 어렵나? 표정이 안 좋은데.’라고. 그것 때문에 안 좋았던 거겠냐! 나보다도 눈치 없는 자식 같으니라고.

그 눈치 없는 이의 눈치 없는 수업이 끝난 후, 지금의 나는 심부름을 가고 있는 길이었다. 오늘은 오전에는 스케줄이 없고, 2시 이후부터 연금학개론 수업이 있다는데. 내가 맡은 임무는 그 수업에서 쓰이게 될 재료들을 미리 준비해두는 거였다. 아, 그리고 점심시간 전에는 도시락도 싸야 한다. 지금 시각은 오전 10시 반. 널널한데?

그나저나 시간은 둘째 치고, 오늘은 우리 주인님 도시락에 어떤 반찬을 싸 넣어야 하나. 안경잡이와 아도라에게서 특훈을 받은 바가 있긴 하다만, 그 열 몇 가지 메뉴들을 매일 반복해서 루이스에게 먹일 수는 없을 것 같다. 전생에서 익혔던 요리 레시피나, 내가 자주 해먹었던 음식들도 은근슬쩍 끼워 넣어도 되지 않으려나?

그래, 그게 좋겠다. 맛은 내가 먹어도 꽤 괜찮은 편이니까, 서민 음식이라 해도 루이스의 입맛에 맞지 않을 이유는 딱히 없을 거야. 아마도.

“어, 아샤!”

일단 오늘은 소박하고 부담 없는 양송이 크림 스프를 메인으로 해서 차려보는 게 좋을 것 같다.

“마리?”

그렇다. 갈색 곱슬 머리카락을 허리께까지 늘어뜨린, 나보다 손가락 한 뼘은 작은 키를 지닌 그녀, 마리였다. 두둥. 오전에는 수업이 없다던데, 이 시간에 밖에는 왜?

“무슨 볼 일 있어?”

“으응. 오늘 점심 만들 재료가 부족해서 말이야. 잠깐 사러 나왔는데, 응? 아샤, 유니폼 줄였구나.”

내가 멀찍이서 마리에게 외치듯이 묻자, 마리는 내게로 쪼르르 달리듯 걸어 가까이 다가오더니 이내 말을 붙여왔다. 덕분에 나란히 걸어가며 수다를 떠는 꼴이 됐다. 또래의 여자아이랑 이런 오붓한 풍경을 연출해보는 게 대체 몇 년 만인지. 18년 만인가?

“맞아. 어때?”

“잘 어울리는 것 같아. 그런데 너는 밖에 왜 나와 있는 거야? 한동안 무슨 수업 듣는다고 코빼기도 안 보이더니. 웬 수업이래?”

마리가 고개를 갸웃거리며 물어오는 말에, 나는 손을 휘휘 내저었다. 말도 마시게, 내가 왜 코빼기도 못 비쳤는데.어후.

그게 다 망할 안경잡이 때문이었다. 자그마치 삼일 동안 조수로서 갖춰야 할 기본 상식―내가 판단하기에 그것들은 이미 기본 상식의 수준이 아니었지만―을 배워야 한답시고 날 꽁꽁 붙들어 매뒀었으니. 어쩌다 잠깐 바람을 쐬러 밖에 나갔을 때, 마리와 종종 마주치고는 했지만 얘기를 나눌 시간이 그리 길지가 않았다. 간단한 손 인사 정도만 주고받는 게 고작이었달까.

이 정도면 사실 코빼기 정도는 비췄다고 봐야 맞는 거겠지만, 마리 입장에서는 아닌 듯.

“말도 마. 루이. 주인님은 돌아가라고 성화라 가르쳐주는 것도 없지, 난 아무것도 모르지. 근데 누가 조수 일에 대해 알려준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한동안 좀 배웠어.”

“그랬어? 어쩐지. 난 네가 무슨 학생으로 이곳에 들어오기라도 한 줄 알았어.”

마리가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며 하는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다. ‘그러게나 말이다’라고. 난 왜 교수도 아닌 인간한테 수업을 받은 거지? 돌이켜 생각해보니 이상하군, 음.

아니지. 조수인 내가 교수한테 수업을 받는다면 그게 더 이상한 건가? 그래, 둘 다 이상한 걸로.

“그런데, 누구한테서 배웠는데?”

“아, 그건.”

마리가 물어왔다. 나는 그녀에게 무심코 ‘안경잡이’라고 툭 내뱉을 뻔했는데, 생각해보니 성이 ‘안’씨에 이름이 ‘경잡이’인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는가. 그의 이름은 안경잡이가 아니다. 단지 내가 붙인 호칭일 뿐이지. 그렇다면?

문득 떠오른다. 그러고 보니, 나 아직 그 인간의 이름도 모르고 있잖아?

“이름을 몰라?”

“응, 안 물어봤지 뭐야.”

“그래? 삼 일 동안이나 수업 받는 것 같더니. 학생이야, 조수야?”

“학생이랑 그 사람 조수.”

“그럼, 어떻게 생겼는지 한 번 설명해봐. 어지간한 사람들은 다 아니까.”

“아, 음. 하얀 얼굴에다, 동그란 안경을 쓰고.”

나는 주저리주저리 마리에게 그의 생김새를 설명해보려 했다. 이렇게 된 김에, 마리가 안경잡이에 대해 알고 있다면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물어볼 요량이었다.

왜 진작 본인에게 묻지 않았냐고? 그거야 관심이 없었으니까! 관심이 없었던 게 죄는 아니잖아요? 으흠.

하지만 일단은 알아두는 게 좋을 것 같으니까, 라고 생각하며 내 입은 계속 떠들었다.

“은발인데 살짝 민트빛깔이 돌고, 조수는 ‘아도라’라는 이름의.”

“응? 잠깐만. 아도라라고? 조수들 중에 아도라라는 이름은 하나밖에 없는. 헉, 너 설마!”

마리가 고개를 갸우뚱하며 내 말을 끊고서 놀란 음성으로 말하는가 싶더니, 이내 ‘혹시?’하는 표정을 잠시 지었다. 그러다가 곧바로 그녀의 얼굴이 경악으로 물들어 가는데.

“‘그 사람’에게 수업 받았다는 거야, 지금!”

응? 어째 반응이 좀.

아, 안경잡이 녀석은 좀 괴상한 캐릭터니까 이런 반응이 나오는 게 이상하지만도 않으려나?

“어? 으, 으응. 맞아, 그 사람. 아마 네가 지금 생각하고 있을 그 사람.”

당황해서 말을 더듬었다. 안경잡이 닮아가니? 나.

“아니, 그런..”

“왜?”

마리가 당혹스러운 듯 눈썹을 찌푸리며 나를 응시해오기에, 이번엔 내가 고개를 갸우뚱거렸다. 무슨 문제라도? 아, 물론 안경잡이에게 문제가 많다는 건 나도 잘 안다만은. 마리의 반응이 썩 석연치 않아, 나는 그녀에게 되물어보려 했다.

그런데, 그 때. 호랑이도 제 말하면 온다더니, 이 눈치만 더럽게 빠른 자식이.

앗, 저 능구렁이 자식을 하필 이런 때에!

나와 마리가 제 얘기를 하고 있음을 알기라도 한 사람처럼, 빌어먹을 안경잡이 자식이 옆에 아도라를 대동한 채 느긋한 걸음걸이로 이쪽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정면에서 말이다.

아니, 하필 마주쳐도 이런 순간에 마주쳐? 마리에게서 안경잡이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듣게 될지도 모르는, 바로 지금 같은 때에!

우리들에게로 다가오는 안경잡이를 목격한 마리의 표정이 굳었다. 뭐지? 이 반응, 대체 뭐냔 말이야. 궁금해 미치겠는데, 안경잡이와 아도라는 어느새 우리들의 코앞까지 걸어오고 있었다. 게다가 이 남자, 양 손에는 꽃도 한 송이씩 들고 있는 모습인데.

뭐니, 그 컨셉은? 꽃을 든 남자 컨셉이라도 되는 거니? 내가 봤을 땐, 너는 꽃을 들고 있을 게 아니라 귀 옆에 꽂아야 어울릴 것 같다만.

“여긴 왜 돌아다니고 있으세요?”

내가 먼저 물었다.

여기는 대학 내의 상가. 보통 조수들이 자주 왔다리갔다리 하는 곳이자, 안경잡이 같은 대학의 학생들은 뭔가를 사먹을 때가 아니면 잘 오지 않는 곳이라던데. 점심시간도 아닌 이런 때에 무슨 일로?

“아아, 꽃을 사려고.”

“대낮부터 무슨 꽃 타령이에요? 귀 옆에 꽂고 다니시게요?”

“말이 심한 걸. 나를 뭐로 보는 거야? 그런 우스꽝스러운 꼴을 하고 다니는 취미는 없다고.”

.그럼 지금 쓰고 있는 그 안경부터 벗지 않겠니? 라고 말하고 싶은 걸 꾹 눌러 참았다. 저 답답해 보이는 뺑글이 안경을 단 한 순간도 벗지 않고 고수하고 있는 걸 보면, 뭔가 사연이 있는 악세사리가 아닐까 싶어서. 하지만 일단 지금의 내게 중요한 건 안경잡이가 안경을 꼈느냐 고글을 꼈느냐하는 것 따위가 아니었으니.

나는 썩 좋지 않은 표정의 마리를 위해 지금의 상황을 한시라도 빨리 벗어나보려 했다.

“예, 그럼 수고하세요.”

이건 좀 성급했던 것 같다고? 그런가?

“뭐야? 뭐에 쫓기기라도 하는 사람처럼. 혹시, 옆에 있는 이 작은 꼬마 아가씨 때문에 그래? 맞아?”

갑작스레 마리에게 질문을 던지는 안경잡이로 인해, 마리가 허둥지둥 목구멍에서 끄집어올리는 듯한 느낌으로 인사를 내뱉었다. 안경잡이는 능청맞게 이름을 물으며 받아치는데.

마리가 이렇게까지 당황하는 모습은 처음 봐. 하다못해 그 레오니드라는 루이스 뺨치게 잘생긴 남정네를 정면에서 마주쳤을 때에도 지금 같지는 않았다. 혹시 안경잡이가 마리에게 해코지를 한 적이라도 있는 건가 싶어, 눈을 게슴츠레 뜨며 안경잡이를 노려보기 시작한 그 순간.

“그렇군.”

안경잡이가 고개를 한번 끄덕- 하는가 싶더니, 갑자기 내게 들고 있던 꽃 두 송이를 불쑥 내밀어왔다. 헉, 뭐야!

“뭐예요, 지금!”

놀란 음성으로 묻는 내 말에, 안경잡이가 입꼬리를 사악 끌어올린다. 몹시 사악해 보이는 미소로군. 그러고 보면 이 인간은 존재 자체가 꿍꿍이가 있는 것 같이 사악해보여. 그러니까 마리도 무서워서 당황하는 게 아닐지.

“둘 중에 뭐가 더 좋아?”

“뜬금없이 이 무슨?”

“골라봐.”

“..”

뭐하자는 거지? 황당한 그 질문에, 나는 아도라에게로 슬그머니 시선을 향해보았다. 나와 시선이 마주친 그녀였지만, 딱히 별다른 말없이 그저 내 눈동자를 묵묵히 바라봐올 뿐이었다.

뭐지? 뭐야. 이번엔 마리를 쳐다보았더니, 마리는 다소 긴장한 안색으로 나와 안경잡이를 번갈아 쳐다보고 있다. 지금 이게 무슨 상황? 왜 나한테 이런 걸 물어보는 것?

“이게 다 무슨 꽃들인데요? 이상한 꽃인 거죠? 그렇죠?”

혹시 이 꽃에 무슨 짓이라도 해놓은 건 아닐까 싶어 물어보았다. 혹시 모르잖아? 무슨 마법이라도 걸려있을지. 일단 눈앞의 이 녀석도 마법사는 마법사니까.

안경잡이가 고개를 저었다. 뭐? 아니라고? 내가 널 어떻게 믿어.

하지만 일단은 믿어본다.

“지금 프러포즈라도 하시는 건가요, 그럼?”

“이상한 말이나 하라고 물어보는 게 아닌데. 어떤 게 좋냐니까?”

아, 이상한 말이었니? 미안. 나름 진심으로 물은 거였는데, 프러포즈 같은 건 결코 아닌 모양이다. 안경잡이가 웃던 걸 멈추고 정색까지 하며 대답하는 걸 보면 말이야.

그럼 대체 무슨 의도란 말인가. 이해할 수는 없지만, 나는 이해할 수 없는 상태 그대로인 채로 그에게 물어보았다.

“이거 장미죠?”

“응.”

“이건. 뭐지?”

“모란.”

왜 하필 장미랑 모란? 빨간색과 하얀색의 꽃을 한 송이씩 손에 들고 있는 꼬락서니부터가 황당하지만, 왜 하필 이 두 송이인지도 의문스럽다. 고개를 연신 갸웃거리며 의아해하자니, 안경잡이가 재촉하듯 들고 있던 꽃송이를 살랑- 하듯 흔들었다.

아, 그래그래. 대답해줄게.

“전 모란이요.”

“왜?”

개인적으로 장미는 예쁘긴 하지만, 하얀 꽃들을 더 예쁘다고 생각하는 취향인지라. 내가 지닌 취향대로 솔직하게 건넨 그 대답을 들은 안경잡이는, 듣기가 무섭게 내게 내밀었던 꽃들을 거뒀다.

엥? 주는 거 아니었어? 서, 설레발 친 건가, 나.

“잘 알았어.”

“대답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저는 바쁜 몸이니까, 이만 가볼게요.”

안경잡이에게 대충 둘러대며, 나는 마리의 손을 붙잡았다. 마리가 살짝 움찔하는 것이 느껴지지만, 나는 이내 그녀를 잡아끌어 안경잡이의 옆을 지나쳤다. 안 붙잡네? 웬일로 쿨하게 보내주는 거지.

“가자, 마리.”

“응? 으응..”

마리가 내 손을 잡은 채 끌려가듯이 짧은 다리로 종종 뛰어오고, 나는 안경잡이와 좀 멀어졌을 때쯤 슬그머니 뒤를 돌아보았다. 안경잡이와 아도라는 여전히 나란히 선 채로 걸어가고 있었다. 진짜로 가네? 뭐야, 더 귀찮게 굴 줄 알았다만.

마리의 손을 잡은 채로 앞으로 걸어가면서, 나는 여전히 시선을 뒤로 향한 채였다. 다시 앞으로 돌려야겠다고 생각해 실천에 옮기려던 그 순간, 나는 안경잡이의 움직임을 봐버렸으니.

그가 한쪽 팔을 들어올렸다. 팔꿈치 부분이 직각이 될 정도로만 들어 올리더니, 이내 손바닥을 편 채 내게 보란 듯이 손을 흔들어 보이는 것이다.으응? 잘 가라고? 그래, 알겠어. 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그가 흔들던 손바닥을 검지와 엄지로 딱! 하는 소리를 낼 때의 제스쳐를 취하는 게 아닌가. 상당히 먼 거리였지만, 그 정도 포즈 정도는 확인할 수 있었다. 뭐냐, 저 똥폼은.

내가 어이없다는 듯 피식 웃으며 고개를 앞으로 돌렸는데, 옆에서 내 손에 붙잡힌 채 따라오던 마리가 비실비실하듯 힘없는 목소리로 내게 말을 건네왔다.

“아샤, 저 사람..”

“응?”

“‘란’이잖아.”

아직 시간은 열시 반. 나와 마리는 잠시 상가의 디저트 가게에서 수다를 떨기로 하고 들어와 자리에 앉아있는 참이었다. 궁금한 게 많다보니, 들어야할 얘기가 많아서 말이지. 케이크 값은 반반 내기로 했다.

8살 때부터 여태껏 내가 뼈 빠지게 모아두었던 돈을 이곳에서 편하게 쓸 수 있다는 것도 나름의 장점이었지만, 더 좋은 사실은 조수 일에도 월급이 주어진다는 점이었다. 월급이라니! 노예인 신분으로 호강하는군. 아, 일단 중요한 건 이게 아니지.

“농담이지? 이름이 란이면, 성은 계씨야?”

마리는 안경잡이와 마주친 뒤, 내게 그의 이름이 ‘란’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나는 그 말이 영 믿기가 힘들었던 것이, 방금 막 안경잡이에게서 ‘모란’과 ‘장미’ 한 송이 중에서 골라보라는 질문을 당했었기 때문이었다. 게다가 나는 모란을 골랐고.

그래서 마리가 ‘란’이라고 농담하는 건 아닐까? 만일 내가 장미를 골랐더라면, 안경잡이의 이름이 ‘로즈’가 됐을지도 모른다는 거? 아, 장미를 고를 걸 그랬나. 그 자식 이름이 로즈라니, 푸훗. 농담이라지만 생각만 해도 징그럽게 느껴지는 이름이야.

“아니, 진짜야. 이름은 란이 확실한데, 성은 잘 몰라. 본인은 없다고 주장하긴 하는데, 마법 대학은 성이 없는 천민이 학생으로 들어올 수 있는 곳이 아니거든. 다들 좀 낮은 신분의 가문이 아닐까, 하는 추측 정도만 하고 있어.”

“아, 그래?”

이름이 진짜 ‘란’이라고? 세상에. 진짜였구나. 나는 아까 전에 모란 어쩌구 하며 대화를 나눴던 것 때문에 마리가 무슨 영감이라도 얻은 건가 싶었는데.

하지만 가만 생각해보니, 마리가 내게 그런 농담을 할 만한 이유 따위는 개미가 뀐 방귀의 입자만큼도 없었다. 그럼 거짓말이 아니라는 뜻.이잖아. 헐? 이런 일이.

“뜻밖인 이름이네. 좀 더 촌스럽고 찌질한 느낌의 이름일 것 같았는데.”

생각보다 중성적이고 예쁜 이름이잖아. 다른 사람들의 생각은 어떤지 모르겠다만, 내 기준에서 ‘란’이라는 이름은 남녀노소에게 예쁜 이름으로 느껴질 만한 이름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인지는 몰라도, 좀 안 어울리는데.

“이름이 문제가 아니야, 아샤.”

“으응? 그럼?”

“그 사람, 소문이 좀 안 좋아.”

마리는 내게 말하면서도 표정이 영 좋아지지가 않는다. 마치 내게 그 사람과 어울리지 말라고 말하고 싶기라도 한 사람처럼, 그러나 그 말을 꾹 눌러 참느라 안색이 좋지 않은 사람 같은 모습이랄까.

소문이 안 좋다고? 이미 별 꼬라지를 다 봐와서, 새삼 놀랍지도 않은데.

그러나 그런 그녀의 그런 표정을 읽어버린 내가 바로 되물었다.

“어떤 소문인데 그래?”

“그냥. 사생아라는 소문도 있고, 뒤에서 이상한 짓을 하고 돌아다닌다는 소문도 있고. 그 사람이 워낙 꺼림칙하게 생겼잖아. 하는 짓도 이상한 데다, 높은 가문의 영랑들에게 자꾸만 시비를 걸어서, 자주 말썽을 일으키기도 해.”

마리의 말을 들으며, 나는 조용히 오렌지주스가 든 잔에 꽂힌 빨대에 입을 갖다 대어 쪽- 소리 나게 빨았다. 뭐랄까, 지금 굉장히 험담 아닌 험담을 듣고 있는 듯한 기분인데. 아니, 험담이라고 봐야 맞는 거겠지?

그 안경잡. 아니, 란이라는 인간이 꽤 이상한 인물이라는 건 나도 잘 알고 있긴 해. 요 며칠간 그의 꼬락서니나 행동거지를 살펴봤을 때, 내가 봐도 확실히 그가 정상인 같다는 생각은 들지 않아.

그렇지만, 과연 그가 마리가 이렇게까지 말해야 할 만큼 나쁜 사람인 걸까? 아니면, 마리가 내가 생각했던 것만큼 착하지만은 않은 인물인 걸까.

그 둘 다 아니라면, 혹시 마리가 무슨 오해라도 하고 있는 건 아닐까.

“그 아도라라는 조수도 다른 조수들이랑은 도통 어울리지 않고 거리를 두니까. 그 두 사람은 이곳 마법대학에서는 거의 소외대상이야. 나도 별로 가까이 다가가고 싶지 않고..”

.하지만, 일단 지금은 어느 쪽도 함부로 비판이나 비난을 하고 싶진 않은데. 으아, 모르겠다. 나는 이렇게 복잡한 생각을 오래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야.

어쨌거나 이런 험담을 곰곰이 듣고 있기만도 뭐해서, 나는 슬그머니 입을 열었다.

“그러니까, 마리는 그 안, 아니. 란이라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니까, 나한테도 어울리지 말라고 말하고 싶은 거지?”

“응. 그 편이 좋지 않을까, 아샤?”

마리가 솔직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조심스럽게 내게 말해왔다.

마리는 내가 그 사람과 어울리는 게 싫나보구나. 하긴, 지난 일주일 정도의 시간 동안 지켜봐온 바, 마리도 그다지 친구가 많은 부류는 아닌 듯했다. 아무래도 흔히들 무시당하는 부류인 ‘지방 남작가 출신 조수’라서 그런 영향도 없지 않아 있는 듯.

아, 물론 이 사실은 마리에게서 들은 얘기였다. 그러고 보면 마리는 뭔가 본인의 신분을 부끄러워하는 듯도 했는데.

그래서 비교적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신분이자, 낯을 안 가리는 성격인 나와 친해지고 싶어서 더더욱 이런 말을 건네 오는 게 아닐까 싶다만. 음, 하지만 말이야. 이런 건 마치,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하는 질문처럼 느껴진단 말이지.

저 질문에 대답하는 것보다, 차라리 세계 7대 불가사의를 하나도 남김없이 해결하는 게 더 쉽지 않을까?

“음, 마리. 난 마리의 의견을 존중해.”

“그럼!”

“아니, 하지만 말이야. 마리의 말도 이해했지만, 나는 일단 더 지켜보고 싶어.”

“응? 뭐를?”

마리가 이해하지 못했다는 듯 눈을 동그랗게 뜨기에, 나는 ‘그러니까’라고 말을 덧붙였다.

“마리는, 그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 시비를 거는 모습을 본 적이 있어?”

“아, 그건 아니야. 학생들의 수업 시간에 조수들은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어서..”

“그렇지? 마리도 소문으로 그런 얘기들을 접한 거 아니야?”

“내가 본 것도 조금은 있겠지만, 직접적으로는 별로..”

마리는 시인한다. 그렇겠지. 내가 봐도 안경잡이는 딱히 틀린 말을 하는 인물이 아니다. 짓궂은 헛소리라던가 되도 않는 농담을 종종 던져서 그렇지, 틀린 말을 하는 경우는 아직까지 본 적이 없어.

그런 모습을 내 앞에서만 보였을 거라고는 생각지 않는다. 그가 왜 마리처럼 소심하고 내향적인 사람에게까지 이런 한심한 이미지로 낙인찍혔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 바는 아니다만, 그래도 마리가 아는 안, 아니. 란의 모습이 완전한 그의 모습은 아닌 거잖아. 그렇잖아?

나도 아직 그를 잘 모르고. 그가 왜 찐따 코스프레를 하고 다니는지도 아직은 그 이유를 모르지만, 일단 내가 보기에 그는 영 나쁜 인물인 것만도 아니야. 비록 나한테 한심한 계획을 계획이랍시고 들이밀었던 인물이기는 하다만, 그래도 천민인 내게 구원의 손길을 뻗어준 몇 없는 사람 중 하나이니까.

그러니까 나는 일단은 믿어보기로 마음먹었다. 믿음이 너무 헤프지 않느냐고? 하지만, 어쩔 수 없잖아. 의심하며 밀어내기만 하다간 발전이 없다구, 나처럼 바닥인 인생은.

“마리. 내가 봐도 그 인간, 분명 이상한 사람인 건 맞아.”

나는 포크로 케이크를 살짝 떼어 입에 쏙 집어넣었다. 앗, 트레비앙! 당분이 체내에 사르르 퍼지며 내려가는 느낌! 내 혈관이 막히고 있는 이 감각!.을 음미하며, 나는 마리에게 계속해서 말했다.

“하지만, 딱히 틀린 소리를 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영랑들에게 시비를 걸고 다닌다고 생각하지만도 않아. 내가 봤을 때, 오히려 그는 맞는 말만 했는걸.”

그래, 맞는 말이자 처 맞는 말.

첫 만남 때에도 그랬다. 안경잡이가 아처 패거리에게 처 맞았던 상황의 기억을 떠올려보자면, 그 때에도 역시 그는 눈치 없이 옳은 말로 아처에게 팩트 폭력을 날렸다가 도로 구타를 당하게 된 것이었다.

그 때의 기억을 떠올리며 한 말에, 마리가 우물거리며 내게 물어왔다.

“아샤는. 그 사람이 좋은 거야?”

“응? 그거, 무슨 의미?”

케이크를 집어먹다 말고 포크를 떨어뜨렸다. 테이블 위에서 포크가 챙그랑!하는 소리를 내며 나뒹군다. 마치 지금의 내 정신세계를 표현하는 듯하군.

목구멍까지 ‘마리, 설마 그렇고 그런 의미는 아니겠지!’하는 질문이 차올랐다. 마리가 한동안 침묵을 지키는 바람에, 역시 그쪽인 의미인가 싶어 내 입이 당혹감으로 스르르 열리기 시작해야만 했는데.

이내 그녀가 말문을 열었을 때, 흘러나온 대답은.

“.보통은 다들 그 사람을 피하려 드는데. 아샤는 방금 전 얘기를 모두 듣고도 피하려 하지 않으니까. 문득 궁금해졌어. 아샤는 그 사람이 좋아?”

“그, 그러니까. 무슨 의미야, 그거? 설마 남자로서 좋아하냐는 건!”

“아, 아니아니! 사람 대 사람으로서 말이야.”

“아.”

다, 다, 다행이다. 남자로서 좋아하는 거냐고 물은 거였다면, 나는 모 드라마 속에서 나온 어떤 아저씨처럼 오렌지주스를 입에 머금은 채로 주르륵 흘리며 오렌지폭포를 창조했을지도 모른다.

어우, 상상만 해도 정말 끔찍해지는 오해인 걸?

그나저나 사람 대 사람으로 좋아하냐.라. 글쎄, 그건 잘 모르겠다. 머릿속으로는 ‘안경잡이 싫어! 해로움! 완전 해악! 꺼져버려!’라고 그에게 외쳐대고 있는데, 막상 지금 같은 상황이 되어버리니 마음이란 놈이 ‘그래도, 그 녀석 꽤. 괜찮지 않아?’라고 중얼거리며 코를 쓱 훔치고 있는 듯하달까.

뭐 어쩌란 거지? 내 머릿속이지만 정말이지 이해가 안 가는 놈들이야. 이런 결정 장애 세포들 같으니라고.

“어, 좋아한다곤 말 못하겠는데.”

“그럼?”

마리가 궁금한 듯 대답을 재촉해온다. 아, 음. 나는 목만 크흠거리며 다듬다가, 이내 그녀에게 조심스레 답했다.

“어쨌거나 나를 도와준 사람이니까.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싶진 않은 정도?”

“아, 그런 거구나.”

마리가 고개를 끄덕인다. 그리고는 내 대답에 잠시 무언가를 생각하듯 오렌지주스가 든 유리잔을 손가락으로 만지작거린다.

체구만큼이나 작고 얇은 그 손가락에 내가 새삼 놀라며 상대적으로 대조되는 내 손가락을 힐끔 쳐다보던 순간, 마리의 입이 다시금 열렸으니.

“나도 다른 사람들이랑 별반 다를 바가 없나봐.”

“손가. 아니, 응? 무슨 소리야, 마리?”

손가락이 여기서 왜 튀어나와? 이런 정신 빠진 주둥이 같으니라고.

“그냥, 방금 전 아샤의 대답을 듣고 나니까. 뭔가, 내가 되게 한심해졌어.”

“왜, 왜! 마리, 내가 마리를 한심하다고 생각하게 만들 만한 대답을 한 거야?”

그랬나! 마리가 갑자기 반성하듯 작은 목소리로 건네 오는 그 말에, 나는 쇼크에 빠지며 입을 헉! 하듯 틀어막았다.

드디어 사고친 거냐, 내 주둥이! 그런데, 대체 무슨 말이 원인이었던 거지? 아닛, 이걸 파악하지 못하는 내 머리가 문제인 건가!

“아니, 그게 아니라, 우리 가문, 생각보다 엄청 작은 가문이거든. 남작이라는 작위도 겨우 받은 거고, 사실은 장사로 돈을 번 집안이나 다름없어. 그런데 부모님이 가문의 재산을 탈탈 털다시피 해서 나를 대학의 조수로 들여보내주셨어. 일종의 낙하산으로.”

몰랐다. 이런 자세한 사연까지는. 마리가 조수로서의 지식이 살짝 얕아 보인다고는 느꼈었는데, 그래서인가?

“하지만 나는 가문의 희망 같은 셈인데도, 이곳에 들어와서는 정작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어. 게다가 다른 조수들은 나보다 너무 높은 곳에서 살아오던 사람들이라, 나를 같은 존재로 인정해주려 하지 않아. 늘 무시당하기만 하고, 나에 대한 오해가 뒤에서는 부풀려져서. 그 소문을 들은 다른 조수들은 나와 잘 어울리려 하지 않았거든. 그래서 많이 힘들었어.”

“아.”

“지금조차도 그런 경험을 겪고 있으면서, 지금 대체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걸까? 난.”

갑자기 문득 떠오르는 기억 하나. 일전에 루이스가 정원의 벤치에 앉아있었을 때, 세 명의 발칙한 영애들이 있지 않았던가. 그 영애들이 자기네들끼리 낄낄거리며 농담을 주고받을 적에, ‘돈을 밝히는 가문’으로 조지아를 꼽았었다.

이디아 조지아. 마리가 모시는 학생의 이름이 아니던가? 비로소 퍼즐이 딱 맞춰지는 듯한 느낌인데. 돈을 밝히는 조지아 가문, 그리고 조지아 가문에 돈을 주고 조수로 들어간 마리. 그래서였나? 영애들이 그렇게 떠들었던 게.

“그러면 안 되는 거야? 돈 주고 조수로 들어가는 거. 위법이야?”

혹시 조수가 되려면 무슨 시험이라도 쳐야 하는 건가? 아니면, 무슨 이력서라도 작성해야 하는 거? 난 안 했었다만.

의아하게 여겨 물어보자,

“아니, 그건 아니지만. 조수로서의 실력이 없는데 돈 주고 들어온 거니까, 싫어하고 욕먹어도 마땅하다고 생각해.”

위법이 아니면 된 거 아닌가? 어쨌거나 조수는 학생이 고용하는 고용인 같은 거니까, 실력이 있든 없든 고용한 사람이 아무 문제없다고 여기면 상관없는 거잖아. 그런데 무슨 낙하산?

무슨 국가고시로 선생님 뽑는데 돈 발라서 합격한 것도 아니고. 이런 일에 낙하산이라는 표현이 어울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내 기준에선 아닌데, 흠.

“그래도, 뒤에서 이디아 아가씨와 나에 대한 험담이 들려올 때면 마음이 아팠어. 나에 대한 소문을 부풀리는 사람들도 미웠어. 그런데, 방금 전의 내가 딱 그런 짓을 저지른 것 같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부끄러워. 아샤의 말대로, 난 란 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도 소문으로만 듣고 어울리지 말라 한 거니까. 난 왜 이 모양일까?”

마리가 자괴감이라도 든 듯, 살짝 일그러진 미소를 짓더니 자신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확 덮어버린다.

나는 당황하며 허둥지둥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 이럴 땐 위로! 위로해줘야 해! 그런데, 어떻게 위로해주더라? 또래 여자애가 울 때 위로해주던 상황 같은 건 약 18년 전에나 있었던 일인데. 너무 갑작스러워서 그 때 해봤던 위로 방법이 떠오르질 않아.

내가 다급히 후다닥거리며 마리를 토닥여주기 위해 옆자리로 옮기려는데, 마리가 고개를 다시 들었다. 어, 안 우네?

슬금슬금. 뻘쭘한 움직임으로 다시 내 자리로 돌아가 앉았다. 흠흠. 마리, 생각보다 튼튼한 멘탈의 소유자로군. 새삼 감탄.

“미안, 아샤. 쓸데없는 소릴 해서.”

“아, 아냐. 괜찮아, 마리?”

“응, 괜찮아.”

마리는 눈가가 살짝 붉어지긴 했지만, 눈물이 고인 기색은 보이지 않았다. 그게 마치 눈물을 참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듯한 증거 같아서, 나는 그런 마리를 도와주기로 했다.

바깥에서 우는 거, 생각보다 엄청 자괴감 들잖아. 나도 보는 눈이 많은 곳에서 종종 울어봐서 잘 안다. 우는 모습을 남에게 보인다는 건 엄청 부끄러운 일이야.

퉁퉁 부은 오뎅 같은 눈을 만천하에 드러내야만 하게 되니까. 후우.

“천민인 나도 조수로 들어왔는데, 마리가 뭐 어떻겠어. 자신을 너무 과소평가하지 마.”

나는 방긋 웃으며 그녀에게 농담조로 말했다. 그러자 마리가 내 말에 작게 웃으며 대답해왔다.

“그러네.”

음, 이것이 바로 자기비하를 통한 위로! 울기 직전인 듯했던 마리의 표정이 밝아지며, 잠시간 잃어버렸던 미소를 되찾는다.

이야, 내 위로가 잘 먹혀들어서 다행이야!

라고 생각하던 찰나, 그녀가 뒷말을 이었으니.

“하지만, 천민인 아샤나 백작 공작 신분의 조수들이나 다른 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해. 나도 그렇고.”

찌잉. 마치 와사비가 한 숟가락 들어간 초밥을 먹기라도 한 듯이 코끝이 찡해지는 기분. 나 같은 일개 천민의 입장도 헤아려주다니! 세상 세심한 여자아이였잖아?

그렇다. 역시 마리는 나쁜 아이가 아니었던 것이다. 착하고 세심한 성격의 소유자라, 안경잡이에 대한 험담을 할 때에도 표정이 좋지 않았던 거였어. 분명 그런 거야!

마리는 비로소 후련해졌다는 표정을 지었다. 나도 덩달아 해맑은 미소를 얼굴 한가득 띄워올렸다. 마치 지나가던 누군가가 본다면 머리 어딘가가 많이 아픈 아이가 아닐까 하고 여길 만큼 아주 방긋. 음음, 이런 훌륭한 학원물 같은 전개라니. 몹시 마음에 들어.

나는 흡족해하는 표정으로 오렌지주스를 쪼옥- 빨았다. 아까보다 좀 더 상쾌하게 느껴지는구만! 좋았어.

우리는 한층 밝아진 분위기로 포크를 들었다. 그리고 분주한 손놀림으로 조각케이크를 조금씩 잘라 집어먹기 시작했으니.

그렇게 우리들은 한동안 무거운 고민거리들은 잠시 내려놓고, 단 둘이 오붓하고 달콤한 디저트 타임을 즐겼다. 크, 이런 게 바로 동성 친구와 데이트하는 맛이라 할 수 있지. 로맨틱, 성공적. 음음.

이런저런 잡다한 얘깃거리들로 시간을 때우다가 문득 케이크를 다 먹어갈 때쯤이 되었을 때, 마리는 문득 내게 이런 질문을 던져왔다.

“아샤, 딱히 궁금한 건 없어? 나, 조수 일에 대해선 잘 못해도 이곳 사람들에 대해서는 잘 아는데. 궁금한 게 있다면 말해줄 수 있어.”

음? 궁금한 거.라. 궁금한 사람이 있냐고 물어보는 거겠지?

난 이곳에 들어온 지 일주일밖에 되지 않았으니, 확실히 이곳 사람들에 대해서는 모르는 게 많았다. 오히려 조수로서 해야 할 일에 대해서는 잘 알아도, 이곳 학생이나 조수들에 대해서는 거의 아는 게 없는 수준인데.

뭐 어떤 거에 대해서 물어봐야 하지? 흐음. 잠깐 고민하던 나는, 이내 전구에 불이 들어오듯 머릿속에 좋은 생각이 떠올랐다.

“있잖아, 마리. 대학에서 뭐랄까, 유의해야 할 사람 같은 거 있어?”

“유의해야 할 사람? 예를 들자면, 어떤?”

마리가 고개를 갸웃거린다. 음, 예를 들자면. 그래, 마주쳐서는 안 되는, 그런 내 인생에 하등 도움이 안 될 만한 존재들 말야.

아처라던가, 아처라던가, 아처 같은..

“그냥, 신분 깨나 높다고 자부할 수 있는 사람들?”

한마디로, 금수저로 태어나 콧대만 오질라게 높은 자식들.

“아샤가 모시고 있는 분도 해당되잖아, 그럼.”

“아, 맞네. 그럼 루이. 아니, 우리 주인님은 제외하고. 나머지들 중에는 누가 있을까?”

지난 경험을 떠올려보니, 아처도 내 기억상으로는 신분이 꽤나 높았다. 그 같은 경험으로 미루어봤을 때, 이곳 마법대학에서는 신분이 높을수록 싸가지가 없는 것 같아.

루이스는 무슨 이유에서인지는 몰라도 신분과 싸가지의 유무가 비례하지 않는다지만, 아처 같은 경우는 정확히 비례했다. 그 로사라는 계집애도, 비록 첫 만남이었지만 딱히 좋은 이미지는 아니었고.

그러니까, 일단 신분이 높은 인물들은 내 주위에서 걸러야 해. 가까워져봤자 좋을 게 없을 것 같으니까.

뭐? 천민인 주제에 높은 사람을 왜 멀리하냐고? 잘 보이면 좋은 거 아니냐고?

천만에 만만에. 신분이 높은 존재들일수록 아랫사람을 더욱 깔보고 사람으로 여기지 않는 경우가 이 세상에는 더 부지기수다.

신분이 높으면서 아랫사람도 잘 챙겨주는 윗사람? 그런건 동화 속에서나 나올 법한 인물이지. 나도 험한 꼴을 수없이 많이 겪어와봐서 잘 안다. 루이스 같은 경우가 동화 속에서 튀어나온 별난 부류에 속하는 거고, 보통은 다들 아처 같은 태도로 나를 대할 게 분명하다는 걸.

섣부른 판단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세계에선 그런 게 너무나도 당연한 일상이기 때문에 짐작이 가능한 거야.

물론 나라고 높은 가문의 후계자에게 잘 비벼서 출세하고 싶다는 생각이 없는 것만은 아니다. 하지만 이미 내게는 루이스라는 잘나신 주인님이 있는 데다, 고작 출세 같은 걸 위해 내 인생을 여기서 더 복잡하게 꼬아버리고 싶지는 않다는 마음이 더 컸으니.

이미 충분히 꽈배기도 울고 갈 만큼 꼬여버린 내 팔자잖아?

아, 이 구역의 미친년이 되어 내 팔자를 꽈배기보다 더한 밧줄로 만들어보이겠다는 야심차던 포부는 어디갔냐고? 그야, 아처한테 걷어차이던 순간 저 멀리 지구상에 있는 어느 축구장 골대까지 날아가버렸다. 슛, 골인! 지구에서 태어났더라면 아처는 아마 메시급의 축구 선수가 되었을 듯.

그렇게 떠나가버린 내 포부와 배짱은 다시 귀가할 생각이 없는 모양이다. 아니, 사실 나도 그 녀석이 안 돌아왔으면 좋겠어. 루이스의 존재만큼이나 내 인생에 하등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으니까.

오늘부터 나의 모토는 안전제일! 그래, 안전이 제일이다. 내 일신의 안전을 위해서라면 신분 높은 이들과는 되도록이면 부딪히는 일이 없는 편이 좋아. 이거 리얼, 반박 불가한 팩트!

“신분이 높은 사람이라. 아무래도 레오니드 님이 빠질 수 없지?”

마리가 첫 번째로 기존에 들어본 적 있던 이의 이름을 꼽아왔다.

아, 그 때 보았던 보라색 머리카락의 잘생겼던 남자애! 치명적인 소년미 뿜뿜 캐릭터였기는 했지만, ‘관심이 생겼다’며 내게 강력한 어필을 하고 사라졌던 이후로 한 번도 마주치질 못했던 그 인물이 아니신가.

정말 내게 관심이 있긴 한 거? 아, 물론 내 입장으로선 누가 됐든 내게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 편이 더 좋지만. 그래도 궁금한 건, 그가 대체 왜 내게 그런 말을 했었는가에 대해서였다.

‘관심’이란 단어의 뜻을 모르기라도 한 건지, 어쩐 건지. 일단 그 때 있었던 일을 겪은 후, 내 입장에 각인된 그에 대한 이미지란 딱 하나였으니.

헤픈 남자. 그것도 아무에게나 ‘관심이 생겼다’고 말하고 다니는 상당한 바람둥이로다가 말이다.

“그 사람은 어때?”

“좋은 분이셔. 부학생회장이기도 하고. 아, 참고로 학생회장은 루이스 님이야. 알고는 있지?”

미안, 몰랐어.

하지만 새삼 알았다고 해서 ‘띠용!’하듯 놀랄 일도 없는 듯. 이미 공작에다가 살인적인 꽃미남이라는 사실까지 모두 접한 이후인데, 고작 학생회장 정도에 놀랄쏘냐. 이웃집에 사는 잘생긴 남자가 알고보니 재벌집 후계자였다! 같은 스토리도 흔하고 널렸던 곳이 내 지난 삶이었던지라, 새삼 이 정도는 그리 반전스럽지도 않아.

그나저나 좋은 사람이라니. 그런 바람둥이 스타일이 대체 어딜 봐서? 이해가 가지 않지만, 그런 만큼 반짝거리는 눈동자로 마리를 쳐다보자, 그녀가 계속해서 말을 이었다.

“그분은 오스칼 공작가의 차남이셔. 그래서 오스칼 가문의 후계자는 아니지만, 레오니드 님의 어머니께서 세계적으로 큰손이라 불리는 대규모 마법 상단 ‘콘티아’를 꾸려나가고 있으시다 보니, 레오니드 님은 아마 그쪽 일을 물려받으실 확률이 높다고들 해.”

“아하.”

금수저로구나. 끄덕. 어쩐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부티가 줄줄 흐르더라니. 주변에 친구가 많은 것도 그런 바탕이 있어서 가능한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루이스 주인님은? 남자인 친구가 많았던가? 흠, 그건 잘 모르겠다. 귀찮게 따라다니는 벌들은 많았던 걸로 기억한다만.

“아, 참고로 레오니드 님과 루이스 님은 엄청 친한 친구 사이야.”

“그, 그랬어!”

와, 이것도 몰랐던 사실. 마리와 이런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가진 것이 신의 한 수였어. 우리 주인님은 동성 친구는 영 없을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뜻밖이. 자칫하면 나, 우리 주인님은 친구 하나 없는 잘생긴 왕따라고 오해할 뻔 했잖아!

잘난 것들이 아주 끼리끼리 노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다. 띠링- 새로운 정보를 습득했습니다!

아, 근데 말야. 혹시 우리 주인님, 레오니드에게서 바람둥이 성향을 옮아버리는 건 아니겠지? 아, 제발 그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는데.

“또, 또? 계속 말해줘.”

“음. 레오니드 님은 주변에 여자가 많아. 그렇다고 딱히 누군가와 교제를 하시는 건 아니지만, 어떤 여성에게나 친절하시다 보니 저절로 주변에 따라붙게 된달까? 사실, 나도 그분에게서 도움을 받은 적이 있고 말야. 개인적 소견이지만. 나는 굉장히 멋진 분이라고 생각해.”

“아항.”

그래서 마리가 레오니드를 마주쳤을 때 쑥스러워했던 것이로구나. 이제야 이해가 간다. 아무 여자에게나 집적거리며 헤프게 굴고 다니는 남자다, 이거지? 오케이, 접수 완료.

마리는 반대인 것 같다만, 나는 날바람둥이 타입은 영 질색이란 말이지. 앞으로 레오니드는 되도록 마주치지 말자. 뭐, 사실 루이스와 친한 친구 사이라지만, 나와 마주치게 될 일 같은 게 딱히 뭐가 있겠어? 그 사람은 학생이고, 나는 조수인데.

아무리 나도 도움을 받은 전적이 있다지만, 능글맞은 인물을 가까이하고픈 마음은 없었다. 게다가 이미 내게는 안경잡, 아니. 란이라는 인물이 있지 않은가. 능글이 타입은 떼려 해도 떼놓을 수 없는 사이―결코 원하지는 않았지만―가 되어버린 그 한 명으로도 족하다고.

하, 생각하다보니 또 빡치네. 그 웬수 같은 얼굴이 또 떠오르려고 하잖아? 그것도 사실 알고 보면 본체가 아닐까-하고 의심되는 뺑글이 안경부터 두둥실.

“다른 사람은 없어? 자세히 설명해주지 않아도 되니까, 이름만이라도 대충.”

침착해, 아샤. 마인드컨트롤.

일단 내 머릿속 안경잡이는 이제 좀 꺼져주시고! 이번엔 다른 사람으로! 나는 마리에게 잔뜩 기대한 목소리로 물었다. 두근두근. 이번엔 또 어떤 인물이 나올까? 이건 마치 포켓몬 빵에서 어떤 포켓몬 스티커가 나올지 설레어할 때의 그 느낌!

제발 피카.가 아니라, 아니, 지금은 포켓몬 빵을 먹고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 정신차려라, 얼빠진 나.

이미 알고 있는 인물에 대해서는 됐으니까, 앞으로를 위해 두 번 다시, 아니. 단 한 번조차도 마주쳐서는 안 될 인물들에 대해 정리해두는 것이 중요하다.

내가 재촉하듯 ‘누구? 누가 있을까?’라고 들뜬 듯이 묻자, 마리가 배시시 미소 짓더니 답해왔다.

“음, 로사?”

“로사? 아, 누군지 알아.”

앗, 아쉽게도 이미 한 번은 마주쳤었던 인물이로군. 로켓단의 그 로사는 아니지만, 그 로사보다도 악랄해보이고 상당한 싸가지의 소유자일 것 같았던 그 첫모습을 아직도 잊지 못한다.

마리는 간략함을 요구한 내 부탁에 따라 별다른 부가설명을 추가하지는 않았지만, 그런 설명이 없어도 나는 그녀가 어떤 타입인지 충분히 알 것 같았다. 쏘 배드. 아처 패거리들과 꽤 친분이 있어 보였는데, 이미 거기서부터 내게는 아웃 대상이란 말이지.

절대로 마주치지 말자. 스킵, 스킵. 내 인생에서 아주 그냥 확 스킵.

오렌지주스를 힘주어 쪼오옥- 하고 빨아먹었다. 드디어 바닥이 보인다. 맛있었는데, 살짝 아쉽구만. 이제 이 얘기를 마지막으로 디저트 타임은 끝을 내야 할 것 같다. 왜냐고? 그야,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버렸으니까!

시간 가는 줄 몰랐던 마리와의 데이트였지만, 그래도 조수된 입장으로서 내 본분을 잊고 놀아제끼기만 할 수는 없었다. 가게 벽면에 걸린 시계를 틈틈이 흘끔거렸었는데, 어느새부터인가 두 개의 시곗바늘은 12라는 숫자에서 만나기로 약속이라도 한 듯, 지각한 길쭉한 녀석이 분주히 달려가고 있는 모습이었으니.

그런 의미에서,

“또 누구?”

빨리빨리, 마저 알차게 알아보자! 매의 눈빛으로 자신을 응시하는 나를 마주 앉아 바라보던 마리가, 내 반응이 다채로운 것이 아주 재미있기라도 하다는 듯 ‘하하핫-’하고 웃다가, 곧바로 답해왔다.

“유이 님.까지밖에 없는 것 같아. 높은 신분이래서, 공작 가문 이상으로만 추리자면 이 네 명이야. 물론 후작이랑 백작가에도 무섭거나 어려운 분들이 꽤 계시지만, 일일이 말해주자면 너무 많아서.”

“그렇구나.”

많다니, 어우 끔찍해. 하지만 내게 있어 그 사실보다 더 끔찍한 건, 원자폭탄 급의 초초초- 높은 사람들이라 할 수 있었다.

지금의 날 좀 봐봐. 그 잘났다는 레플리카 공작 가문 후계자, 루이스랑 얽힌 것만으로도 인생이 얼마나 뒤죽박죽이 되어버렸는가? 목숨의 위협까지도 받게 생긴 마당이지 않나. 여기서 더 엉망이 되어버리면 더는 걷잡을 수 없을 것 같으니, 슬슬 내 막나가는 인생에 제동을 걸어주는 편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흠, 그럼 이로써 얽히는 것만으로도 내 인생을 끔찍하게 만들어버릴 인물들의 명단이 대충은 추려진 듯. 루이스, 레오니드, 로사, 유이! 유이는 여자겠지? 꽤 까다로운 인물들 되시겠구만.

그래, 이름도 알아냈겠다 앞으로 이 네 명에게는 앞으로 근처에 얼씬도 말자. 아, 잠깐. 그건 불가능한가? 루이스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럼 우리 주인님만 제외한 나머지들은 되도록 50m내에 접근하지 않는 걸로! 음, 좋아. 그게 좋겠다.

“그런데, 신분이 높은 분들에 대해서는 왜 궁금한 거야?”

마리가 궁금했던 듯, 조심스레 물어왔다. 나는 솔직하게 대답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를 고민하다가, 이내 솔직하게 털어놔도 딱히 문제가 일어날 일은 없을 것 같다는 판단을 내렸다.

게다가 마리는 입이 꽤 무거울 것 같으니까.

“피해다니려고.”

“에? 왜?”

내 대답에 마리는 의아한 듯 되물어왔다. 응? 왜 피하려 드냐고? 미안하지만 마리, 그거 나한테 있어서는 굉장히 바보 같이 느껴지는 질문인데.

그야, 혹시 몰라서가 아니겠는가. 잘못 엮였다가 아처 때와 마찬가지로 호된 꼴을 겪게 될지.

귀족들이 득시글거리는 이곳에서 천민 신분인 나는, 되도록이면 정반대 신분인 높은 이들과는 마주치지 않는 편이 좋았다. 확실히 그게 좋아. 아처와의 일 이후로 깊이 깨달았달까.

루이스를 따라다니는 영애들과의 대화를 통해서도 느낀 것이, 천민 조수 나부랭이는 함부로 나대지 않는 편이 앞으로를 위한 정신건강에 이로운 거였다. 괴롭힘 당하고 싶지 않다면 말이야. 뭐, 안타깝지만 그것이 바로 이곳에서의 현실인 걸 어쩌겠어?

이런 치사하고 더러운 신분제 사회 같으니라고.

“그냥, 좀 껄끄럽달까?”

“아하. 아샤는 특이하구나. 보통 다른 조수들은 학생들에게 어떻게든 잘 보이려고 노력하는데. 하지만 크게 마주칠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해. 다들 성적 관리하는 것만으로도 바쁜 입장들이니까.”

“음, 그렇구나.”

끄덕끄덕. 마리의 말에 고개를 연신 끄덕이며 대답했다. 나한텐 오히려 그게 낫지. 핵폭탄 급의 인물들만 마주치지 않으면 된다는 뜻이기도 하니까. 게다가 이미 아처라는 소형 트랩도 밟아보았던 내가 아니던가?

앞으로는 지뢰들을 잘 피해서 지나다니면 된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앞으로 잘 피해 다녀야겠다는 결심을 굳게 굳혔다. 좋았어! 나는 할 수 있다. 미꾸라지가 되는 거야, 아샤!

“내 대답이 도움이 됐어?”

으응? 지금 그걸 질문이라고?

마리가 고개를 한쪽으로 기울이며 내게 궁금하다는 듯 물어오기에, 나는 고개를 미친 듯이 위아래로 끄덕거렸다. 마치 턱으로 절구 속 떡이라도 찧는 사람처럼.

그런 내 꼬락서니를 보더니, 마리가 어지간히도 웃긴 듯 차분해보이는 생김새와는 어울리지 않게 빵 터져버리고야 말았다.

어라. 그렇게 우스꽝스러웠니? 그런 거니?

마리도 해야 할 일이 있고, 이래봬도 나도 정식으로 루이스에게 인정받아 조수가 된 몸인지라 계속 앉아있을 여유는 없다. 계산을 끝마치고 디저트 가게를 빠져나오는데, 마리가 물어왔다. 아하, 그 단어 때문에 웃은 거였구나.

그렇다. 나도 모르는 문제였던 것이다. 이렇게 어려운 문제는 내는 거 아니야, 마리.

“음, 그냥. ‘당연하지!’라는 대답을 내 식대로 표현해봤어.”

“아하핫, 아샤는 엄청 창의적이구나. 그런 단어, 살면서 처음 들어봤어.”

“아하, 그렇구나! 하, 하하.”

아무래도 그런 게 당연하잖냐. 이 세계에는 그런 세종대왕을 울리고도 남을 만한 괴상한 단어가 별로 존재하지 않는다. 아참, 세종대왕도 존재하지 않는 곳이었지? 여하튼 살면서 처음 들어보는 게 당연해. 이런 이상해빠진 단어, 전생에서 배워온 거니까.

마리에게 속마음을 털어놓지는 못하지만, 조용히 속으로 생각하며 나는 고개를 끄덕거렸다.

“아샤는 이제 재료들 사러 가는 거지?”

정처 없이 걷다 보니 양 갈래로 된 길이 나왔다. 왼쪽으로 가면 조수 기숙사가 나오고, 오른쪽으로 가면 마법 재료 상점이 나온다. 이제 헤어져야 할 타이밍인가?

“응, 점심도 만들어야 해.”

“그럼 시간이 별로 없겠네. 너무 오래 붙잡고 있어서 미안. 나도 이제 점심 도시락 싸러 가볼 테니까, 나중에 다시 보자!”

“아, 아니야. 미안할 필요 없어, 나도 즐거웠으니까. 그럼 마리, 잘 가!”

마리도 꽤 눈치가 있는 인물이로군. 그녀가 왼쪽 길로 들어서며 내게 손을 흔들어오기에, 나는 나중에 보자는 의미로 똑같이 손을 들어 흔들어보였다. 빠이빠이, 다음 이 시간에.

노가리 까는 시간도 끝났겠다, 이제 본격적으로 내게 주어진 일을 처리해야 하는 시간인가, 후우. 라고 생각해 ‘나는 조수다-’하는 느낌의 똥폼을 잡으며 오른쪽 길로 척척 들어서는데, 문득 길거리에 세워져있는 시계탑을 올려다보니,

“으아니!”

1.12시! 아니, 어쩌다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된 거야! 12시에 만나기로 했던 두 시곗바늘이 어느 틈엔가 징그러울 만큼 딱 달라붙어 있는 광경이 눈에 들어왔다. 미쳤군, 미쳤어!

오늘 루이스의 수업이 언제부터랬지? 아, 그래. 2시부터랬다. 아직 두 시간이나 남은 거 아니야? 라고 누군가는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아니다. 나한테는 2시간‘밖에’ 안 남은 거야!

그것도 그럴 게, 한 시간은 루이스가 점심 식사를 해야 하는 시간이지 않은가. 딱 잘라 말해, 앞으로 내가 마법 재료를 사고 점심 도시락을 싸는 시간까지는 총 1시간밖에는 남지 않았다는 소리다.

사실 정확히 말하자면 1시간도 아니야. 지금 시간은 12시 5분이었다. 끼약! 젠장할!

“흐아아, 내가 미쳤지!”

허둥지둥 달리기 시작하며, 나는 일전에 한번 아도라를 따라 눈도장을 찍어본 적 있었던 마법 재료 상점을 향해 뛰기 시작했다. 그런데 길이 헷갈린다!

여기였나? 앗, 아니잖아. 저쪽이었나? 앗, 여기도! 그럼 여긴. 응? 다 아니잖아?

뭐가 이렇게 넓어-! 아니, 뭔 놈의 대학이 이따위로 커가지고 안에 있는 상가마저 이토록 복잡하냔 말이야! 사실 여기, 알고 보면 해리포터 속인 거지? 그렇지? 나, 지금 마법으로 된 미로 속에 갇힌 것 같은데, 누구 나 좀 꺼내줄 사람? 거기 케드릭 없어요? 빅터 크룸은? 예?

“헉, 헉.”

점점 가빠지는 숨. 쓰읍, 하아. 쓰읍. 모 아이돌의 히트곡처럼 숨을 몰아쉬다가, 나는 익숙한 골목길에 들어섰다.

아앗? 바로 여기야! 여기가 바로 아도라와 와봤던 그곳이라고. 이런 정신 나간 상점 같으니라고. 정말 깊숙한 곳에도 위치해 있구만.

하지만 일단 그 정신 나간 상점을 계속해서 곱씹으며 욕하고 있을 시간적 여유 따위는 내겐 존재하지 않는다. 그 사실을 빠른 현실 파악 패시브 능력으로 깨달은 나는, 허둥지둥 골목 깊숙한 곳으로 달려 들어가기 시작했다.

하필이면 골목이 진짜로 미로 같다. 최상급 재료도 취급하는 상점이라 보안을 위해 깊숙한 곳에 위치해있다고는 들었는데, 이 정도인 건 너무하지 않아?

오, 천지신명님. 조수 일을 제대로 시작하게 된 첫날부터 ‘너 정말 일 못하는 구나?’ 하는 주인님의 타박을 듣고 싶지는 않다고요! 제발! 부디 제 시간에 일을 끝낼 수 있게 해주세!

퍽! 촤악!

“으아앗!”

루이스의 푸른 바다 수평선보다도 청명하면서 차가운 파란 눈동자가 나를 노려보며 ‘넌 해고야! 에스테로 썩 꺼져!’라고 말하는 상상이 머릿속에 뭉게뭉게 피어오를 때쯤, 골목길을 돌다 말고 누군가와 부딪히고야 말았다.

하필이면 뒤로 넘어지면 좋았을 것을, 내 몸은 잔뜩 붙어있던 가속을 이기지 못하고 앞으로 나자빠지고야 말았으니.

“응!”

허억!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나는 숨을 크게 들이쉬었다. 지금 내가 무슨 짓을 저지른 거지? 아, 아니. 잠깐만! 지금 나, 어떻게 해야 하는 거지? 뇌가 행동을 정지해버린 것 같다. 일해라 뇌! 제발 일 좀 하라고, 가뜩이나 게으르면서!

빠, 빨리 상황을 파악해보자. 골목을 돌자마자 누군가와 부딪힌 나는, 그 ‘누군가’의 위에 엎어져 있었다. 한마디로, 누군가를 내 밑에 깔아버렸다는 소리다. 잠깐. 이거 너무 위험한 자세!

라고 하기엔, 상대는 여자였다.

“뭐야, 너?”

내 밑에 깔린 여자가 인상을 확 찡그렸다. 나는 흠칫 놀라며, 상체를 벌떡 일으켜 내가 깔아뭉개버린 이의 얼굴을 잠시 멍하니 쳐다보는데.

예, 예뻐! 그것도 엄청! 예쁘다고 해야 할지, 잘생겼다고 해야 할지, 아니면 루이스 같은 부류들처럼 치명적으로 생겼다고 해야 할지 구분이 안 갈 만큼. 아니, 셋 다 해당된다고 해야 맞는 건가?

앞머리를 눈썹 살짝 아래까지 냈고, 뒷머리들은 단발 정도의 길이로 칼 같이 자른 검은 머리칼을 지닌 여성은 내 아래서 나를 노려보고 있었다.

검디검은 눈동자가 마치 블랙홀 같다. 헉, 빨려 들어갈 뻔. 카무이 쓸 줄 아세요? 그런 것 같은데. 혹시 가문 이름이 ‘우치하’인 건?

“저리 비켜.”

내가 상대를 아래에 깔아뭉개고 있다는 사실도 망각한 채 잠시 넋 놓고 외모 감상에 빠져버리려니까, 그런 내 현실감 잃은 정신 녀석을 일깨워준 것은 다름 아닌 허스키한 목소리로 내게 으르렁거리듯 말하는 눈앞의 여성이었다.

허스키한 수준을 뛰어넘은 듯한 중저음이긴 했는데, 어쨌거나 목소리도 상당히 사람을 압도하는 카리스마가 가득한 느낌 그 자체였다. 나는 속으로 감탄했으니.

이, 이 언니. 걸크러쉬 대박. 전생에 걸크러쉬, 걸크러쉬 하는 단어를 질리도록 들었었는데, 그 때엔 왜 쓰는지 이해가 가지 않았던 그 단어가 지금은 어느 때에 쓰이는 것인지, 누구에게 써야 하는 단어인지를 뼈저리게 깨닫는다.

진정한 ‘걸크러쉬’란, 지금 바로 내 눈앞에 있는 이런 상대에게나 써야 하는 것이다!

“죄, 죄송해요! 진짜로 죄송해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안절부절 못하며, 나는 바닥에 드러눕다시피 한 멋진 언니를 일으켜주기 위해 손을 뻗었다. 그런데 그런 내 손을 ‘탁!’하는 소리가 날 정도로 거세게 쳐내버리는 언니.

허공에 붕 떠버린 내 손만 황망해졌다. 결국 뻘쭘한 움직임으로 그 손을 다소곳이 가슴께로 끌어 모으며, 소심한 성격의 소유자마냥 엉거주춤 서있을 수밖에 없었는데.

스스로의 힘으로 자리에서 일어난 언니가 먼지가 묻은 옷을 탁탁! 하고 절도 있게 털었다. 복장은 조수 유니폼도 아니고, 학생 유니폼도 아니었다. 둘 중에 뭐지? 포스로만 봤을 땐 왠지 학생 쪽에 더 가까울 것 같긴 하다만.

그나저나 나, 제대로 밉보인 것 같지 않아? 손까지 이렇듯 세게 쳐내버리는 걸 보면 말이다.

“죄송합니다, 진심으로.”

.하지만 이번 일은 순수 100% 내 잘못이라, 이런 걸로 뭐라 따질 수는 당연히 없는 거. 이것 참, 면목이 없군.

문득 마법 대학에 들어온 이후로 ‘죄송해요’라는 말을 많이 하게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온다. 마법 상점에서 일할 적에도 지금 만큼 죄송하단 말을 입에 달고 살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하지만 어쩔 수 없어. 어쨌거나 내가 죄송해야 할 일을 벌인 건 사실이니까. 아, 나도 이런 내가 싫다. 아직은 이곳 생활이 서툴러서 이 모양 이 꼴이라고 생각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애초부터 내가 노답이라 자꾸만 실수를 저지르는 거라 생각해야 하는지. 이젠 좀 헷갈리려하는 걸?

“앞 좀 제대로 보고 다녀.”

.게다가 이런 멋진 언니에게 혼나고 있어. 미치도록 민망해. 부끄럽고 쪽팔려! 쥐구멍이 있다면 기어들어가서 출구를 자체 봉쇄시켜버리고 싶다. 이런 나 따위가 햇빛을 보고 살아서 뭐해! 흑흑.

“죄송해요, 앞으로 두 눈 똑바로 뜨고 다닐게요..”

나는 눈을 질끈 감으며, 고개를 푹 숙여 깊이 사죄했다. 이런 내 진심이 닿았을지 아닐지는 모르겠다만, 여성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몸을 아래로 숙였다. 뭔가를 주우려는 듯이.

실눈을 슬그머니 뜨며 그런 여성의 움직임을 살피던 나는, 이내 내가 한 가지 실수를 더 저질렀음을 깨달아버리고야 마는데!

“으아아아! 진짜로 죄송합니다! 면목 없어요!”

헉! 경악하듯 외마디 소리를 토해내며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다가, 나는 허리를 직각으로 꺾어 눈앞의 여성에게 미친 듯이 사과했다.

그렇다. 바닥에는 마법이나 연금에 쓰이는 고급 재료들이 한가득 널브러져있었던 것!

아무래도 나와 거세게 부딪혔던 그 순간에, 여성이 들고 있던 종이봉투가 날아가며 그 안의 내용물들이 사방으로 튀어버린 모양이었다. 골목길 주위 곳곳에 아난타족의 이빨이라던가, 고블린의 손톱이라던가, 유니콘의 뿔 조각 등등이 드래곤볼마냥 퍼져있는 끔찍한 광경이었으니.

아까 부딪히면서 퍽! 하는 소리가 날 적에 같이 났던 그 촤악! 하던 효과음이 바로 이거였던 모양. 마, 망했다.

고급 재료를 취급하는 상점에서 샀다면, 가격도 한두 푼이 아닐 거라는 건 바보가 아닌 다음에야 짐작할 수 있는 사실. 그러면 더더욱 내게는 치명적이잖아? 내가 저지른 실수니까 내 돈으로 물어줘야 할 텐데, 그렇게 되면 내 세 달치 월급은 고스란히 공중 분해되는 꼴이나 다름없다고!

안 된다, 안 돼. 피 같은 내 돈!

빠, 빨리 줍자. 빠르게 바닥을 스캔해보니, 그나마 떨어진 재료들은 낱개 포장이 되지 않은 비교적 막 다뤄도 잘못될 일이 없는 종류들뿐이었다. 천만다행이라는 생각으로 연신 가슴을 쓸어내리며, 나는 부랴부랴 떨어진 재료들을 분주히 주워댔는데.

“야.”

“네, 네?”

갑자기 여성이 나를 불러왔다. 저, 저 부르셨어요? 왜요? 제가 또 무슨 잘못이라도?

“누가 그렇게 막 다루래?”

“네? 아.”

눈앞의 여성에 비하면, 루이스가 인상을 찡그리는 것은 친절한 찡그림이었다. 장담할 수 있다. 정말 짜증나고 혐오스러운 상대를 눈앞에 둔 사람처럼, 여성은 나를 내려다봐오며 날선 목소리로 내게 물어왔다. 그녀가 키도 나보다 한 뼘 정도 커서 그런가, 나는 굉장히 위축되는 듯한 기분을 느껴야만 했는데.

지금 이 상황, 마치 아처 때와 비슷하지 않은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분명 그렇게 느낄 수도 있을 것이다. 레퍼토리가 비슷하니까. 하지만 막상 눈앞에서 이런 상대를 마주하고 있는 내 입장이 된다면, 아처와 이 사람은 전-혀 다른 부류라고 확신할 수 있을 거야.

아처가 금수저로 타고난 자기 인생을 보람차게 누리는 데에만 열중하기 위해서 남을 괴롭히는 그저 그런 엑스트라 급이었다면, 눈앞의 상대는 그와는 달랐다.

뭐랄까, 너-무 높은 곳에 있는 사람이라도 되는 것처럼, 그래서 마치 내가 하잘 것 없는 존재로 보이기라도 하는 사람처럼. 그런 눈빛으로 나를 내려다봐오고 있었으니. 그녀의 영향력 강한 눈빛 아래에서, 나는 한낱 천민 신분임을 자각하며 자존심이 한참은 쪼그라들어가는 것을 느껴야만 했다. ‘아, 이게 내 주제지.’하면서. 그런 위압감이 있는 상대랄까?

다만 여기서 문제는, 그렇다고 고분고분하기만 할 나는 아니었다는 것이다. 내가 어디 천민 신분으로만 태어나봤는가? 범죄자의 인권도 중요시해주던 나라에서 태어나본 적도 있는 게 바로 나, 아샤라고.

이런 게 바로 인!권!침!해!

이봐, 들어는 봤니? 지금처럼 나를 개무시하는 눈초리로 바라보면서 위협하는 게, 바로 대한민국 헌법에 어긋나는 행위라고! 물론 여기는 대한민국이 아니라지만, 뭐. 알 바야?

결국 내가 지닌 이 빌어먹을 주둥이는 오늘도 ‘아니야, 그거 아니야! 그래도 까불면 안 돼!’라고 뜯어말리는 어느 뇌 일부분이 외치는 조종에서 벗어나, 자유분방하게 사고를 쳐버리고야 말았다.

“막 다루는 거 아니에요. 이 정도는 만져도 괜찮거든요.”

여성이 핀셋 같은 집게로 하나하나 재료들을 줍던 것을 이미 앞서 보았기에, 나는 조금은 떨리는 목소리로 친절하게, 그러나 상대에게는 건방진 말대꾸 정도로 느껴질 목소리로 대답했다. 여기서 한 가지 경험담을 보태자면, 그렇다. 내 말에는 틀린 게 없지만, 상대가 그런 내 말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는 그 진실 여부와는 관계가 없다.

“네가 뭘 안다고 떠드는 거야?”

“아, 저, 그게.”

예, 예쁘고 잘생긴 언니가 인상을 확 찌푸려버린다. 진절머리 난다는 듯 나를 내려다보는 그 시선에서 뚜렷한 혐오감을 느낄 수 있었기에, 나는 살짝 당황했다. 내가 무슨 바퀴벌레라도 되니? 예쁘게 생겨가지고, 성격은 대체 왜 그 모양?

분명 내가 실수를 저지른 입장이라 큰소리 칠 수 없다는 건 잘 아는데, 이쯤 되면 나도 묻어뒀던 성깔이라는 놈이 스멀스멀 기어 올라와 ‘이제 내가 나설 차례지? 맞지?’ 하고 내 뇌에 물어올 만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응, 맞아. 좀 나서도 될 것 같아. 내 허락이 떨어지자, 제일 먼저 머릿속에 떠오른 생각은 바로 이거였다.

아니, 8살 때부터 지금까지 내가 보고 배운 지식들로 알고 떠드는 건데, 네가 왜! 뭐!

“잘 알아서 떠드는 건데, 요..”

하지만 대답은 소심소심. 말대꾸는 말대꾸였지만, 아처에게 대들 때보다도 이번이 훨씬 더 기어들어가는 목소리였다. 머릿속으로는 누구보다 당당하게 팔짱까지 따악! 끼며 반박하는 상상을 하고 있지만, 현실은 이 꼬라지였으니, 으윽. 비참.

하지만 어쩌겠어? 또다시 갈비뼈가 나가는 경험 같은 건 겪고 싶지 않은걸.

내 버르장머리 없는 대답에, 눈앞의 싸가지가 초박중박대박인 여성이 ‘하?’하고 비웃더니, 입을 열어왔다.

“네까짓 게 잘 안다고? 어이가 없군. 이젠 하다하다 이딴 우연을 가장한 방식에다 거짓말로까지 관심을 끌려들다니, 아주 토악질이 나와.”

그녀는 내게 혐오감 서린 발언을 씹듯이 뱉어왔는데. 어라? 나는 듣자마자 당황했다. 이게 무슨 오해지?

저, 저기요? 관심을 끌려 한다고요? 누가요? 설마, 제가요!

와, 이거 진심인가. 나는 곰곰이 눈앞의 상대를 빤히 올려다보았다. 무슨 생각으로 방금 같은 소릴 한 것인지, 도무지 내 머리로는 이해가 안 가서 말이지. 혹시 머리가 많이 아픈 사람인가? 이상하다, 얼굴은 멀쩡하다 못해 엄청나게 잘만 생겼는데.

이게 얼마나 웃기는 소리냐고, 대체. 여자인 내가 여자를 왜 좋아해? 네가 아무리 예쁘고 걸크러쉬 쩐다지만, 아무리 그래도 같은 여자까지도 꺅꺅거리며 달려들 거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 뭐. 네 얼굴만 보자면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일단 그거, 난 아니란 말이지. 그러니까 그런 오해는 다메. 넣어둬, 넣어둬.

“저기, 우연을 가장한 게 아니라 진짜로 우연 맞고요. 그리고 제가 마법 재료들을 좀 다뤄봐서 알거든요. 그러니까 저한테 그렇게 화내실 필요는.”

“변명은 집어 치워. 정말 하나같이 다 똑같은 패턴이라니까.”

이쯤 되면 진짜 이 인간의 머릿속에 무슨 생각과 경험이 들어있기에, 지금 같은 오해를 하고 있는 건가 궁금해질 정도다. 여성이 신경질적으로 대꾸한 뒤 몸을 숙여 재료를 줍기에, 나도 일단은 싸지른 똥은 다 치워야겠다는 마음에서 슬그머니 바닥에 쪼그려 앉아 떨어진 재료에 손을 뻗었는데.

“그냥 꺼지라고, 제발 좀.”

허리를 반쯤 숙이던 여성이 움직임을 뚝하고 멈추며 보다 낮은 눈높이에 위치한 나를 노려봐오는가 싶더니, 이내 붉고 고운 예쁜 입술로 으르듯이 말해왔다. 또 꺼지라고? 아처나 너나, 내 얼굴을 보면 꼴도 보기 싫어서 꺼지란 말이 절로 나오는 거니? 그런 거야?

아니! 대체 내가 뭘 어쨌다고 자꾸 이런 반응인 건데! 다른 것도 아니고, 도와주겠다는데!

이제는 너무 억울해서 견딜 수가 없다. 아처에게 얻어맞았을 적에도 꾹 눌러 참았던 눈물이, 지금은 하도 억울하고 기가 막혀서 터져 나오려고 그래. 와, 씨. 지금 내가 무슨 상황에 처해있는 건지 감도 안 잡히는데, 이거.

그냥 꺼질까? 나는 천민 나부랭이니까. 아처 때와 마찬가지로 이쯤에서 퇴각해야 할지에 대해 잠시 고민했다. 하지만 뭔가 찝찝하다. 대체 이 인간이 어떤 오해를 하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고, 내가 왜 초면인 사람에게 이딴 대우를 받아야 하는 건지도 모르겠어서.

나는 화가 돋친 김에, 그냥 확 저질러버리기로 작정했다.

운명의 농간도 이 정도면 고소감이라고

“저기요. 이 고블린 손톱, 오늘 사신 거죠?”

나는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뜬금없는 질문이라고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안타깝게도 지금의 내가 나보다 높은 신분을 지녔을 게 분명한 상대방에게 한 방 먹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는 이런 것밖에는 없었으니.

하지만 뭐, 괜찮아. 이런 방법도 큰 효과를 볼 때가 종종 있으니까.

서당 개 3년이면 풍월을 읊는다고, 자그마치 마법 상점 알바 인생만 10년이었다. 매의 눈은 피해가도, 그런 나의 눈은 피해갈 수 없는 것이 있었는데.

그렇다. 바닥에 널브러져있는 고블린의 손톱들이, 바로 나의 레이더망에 포착된 ‘한 방’ 거리였다!

야심차게 저질러버릴 것처럼 굴더니, 왜 고작 이런 한 방이냐고? 어이, 이봐. 네 목숨 아니라고 너무 함부로 생각하는 거 아니야? 뺨싸다구라도 한 대 시원하게 올려붙였다간, 그 날로 내 모가지가 밧줄에 걸려 교수대 위에 올라가는 수가 있단 말야. 그러니까 일단은 릴렉스, 릴렉스.

나는 최대한 침착하게, ‘점순이식 태클’을 걸어보기로 했다.

그게 뭐냐면, ‘얘, 늬 집엔 이거 없지?’ 식으로, ‘얘, 넌 이것도 몰랐지?’ 하는 내용의 대화를 통해 상대방의 자존심에 살짝, 아주 사알-짝 스크래치를 내주는 방법이라고 보면 된다.

물론 ‘점순이식 태클’이라는 이름은 내가 지었다. 점순이라는 이름, 왠지 입에 착 달라붙지 않아? 응? 아니라고? 아니면 말고.

“이거, 아무래도 하급 같거든요. 오늘은 연금술 수업이 있다고 들었는데, 연금술에는 하급 재료가 쓰이지 않잖아요. 상점에서 속아서 사신 거 아녜요?”

눈앞의 신경질적으로 눈썹을 찡그리고 있는 여성에게, 이번에도 부작용을 일으킬까 싶어 최대한 친절한 목소리를 내어 넌지시 물어보는 나.

직접 상점 일을 해봐서 아는데, 보통 마법 상점들은 유통기한이 조금 지난 것을 속여서 파는 경우가 잦다. 보통 평범한 마법 재료들은 상급, 중급, 하급으로 나뉘는데, 재료를 채취한 시점부터 기간이 지날 때마다 품질이 서서히 떨어지기 시작하다 보니, 시간이 지날수록 기존의 재고들이 하급 재료로 전락해버리기 때문.

그리고 그런 걸 속여서 파는 게, 바로 마법 상점들의 상술이었다. 물론 나도 가끔 그렇게 팔 때가 있기는 했다. 진상 손님들에게 말이지. 그리고 눈앞의 재료도 아무래도 그런 케이스인 듯했다. 중급 재료에서는 보이지 않아야 할 아주 작은 결함들이 존재했으니까.

나는 돌아올 대답을 기다렸다.

사실 말이 한 방이지, 알고 보면 나는 꽤 좋은 의도에서 지금 같은 말을 꺼낸 것이었다. 아는 척도 쬐끔 해줄 겸, 오후에 있을 연금술 수업에 하급 재료를 썼다간 연금술에 실패할 게 뻔하니까, 이상한 소리만 하는 상대라지만 아는 걸 모르는 체하고 지나칠 순 없으니 도움을 주려던 의도가 있었던 것이다.

나는 예상했다. 돌아올 대답이 ‘어딜 봐서 하급이라는 거지?’라던가, ‘아는 척은 적당히 해라’라던가, 아니면 정말 상황이 좋은 쪽으로 흘러서, ‘정말이야? 이런, 속은 건가.’하며 나를 인정해주는 내용이라던가.

솔직히 그게 맥락상 맞는 거라고 생각했다. 그렇잖아? 내가 무슨 나쁜 의도로 여기서 이러고 있는 것도 아니고, 이래봬도 조수 된 입장으로서 우리 주인님 챙기는 일만 해도 바빠 죽겠는 몸인데. 가뜩이나 2시까지 남은 시간도 별로 없고 말이야.

.하지만, 상대는 이런 나에 대해 알 리가 만무했다. 씁쓸하게도, 현실은 반전 중의 반전이었으니.

“마지막으로 말하지. 내 눈앞에서 꺼져.”

비참한 대우를 받은 나는 입을 쩍 벌렸다. 내 몸의 신체부위 중에서 턱이라는 놈만 중력에게 반해, ‘지금 만나러 갑니다!’를 외치고 아래로 달려가고 있는 듯했다. 그렇게 아래로 도망가 버린 내 턱은 제자리로 돌아오지를 못했다. 중력과 아주 제대로 눈이 맞은 듯.

지, 지금 나. 제대로 된 대답을 들은 게 맞는 걸까? 아니, 이쯤 되면 내 귀에 이상한 필터가 꽂혀있는 건 아닌지를 의심해봐야 한다. 사실 알고 보면 ‘아, 정말? 알려줘서 고마워.’ 같은 대답인데, 내 귀가 사춘기가 와서 일부러 삐딱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던가. 그래, 그런 거.

“구질구질하게. 나한테 들러붙으면 무슨 부귀영화라도 누릴 수 있을 것 같아?”

후비적. 여성이 방금 내게 물어온 그 한마디가 정녕 실화인가 싶어, 그녀가 보는 눈앞에서 귀를 파보았다. 필터 같은 게 들어있진 않은 것 같은데. 그런 감촉 따윈 느껴지지 않으니까.

그럼 이거, 내가 제대로 들은 거 맞지? 그렇지? 말을 듣고 해석하는 내 머릿속 뇌의 어느 기관이 고장 났다던가 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내게 ‘구질구질하다’라고 한 게.

“저, 저기요.”

나는 내심 좋은 의도로 말해주려던 건데, 대체 왜 이런 반응이 돌아와?

당황한 목소리가 내 입술 새로 흘러나왔다. 아까는 핀셋으로 하나하나 줍더니, 갑자기 무슨 심경의 변화인지 여성은 마법을 사용해 바닥에 흩뿌려진 재료들을 모조리 종이봉투 속으로 빨아들였다. 역시 조수가 아니라 학생인 모양인데.

근데, 학생씩이나 되는 애가 나한테 왜 이러는 거? 으응? 나,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데. 나만 안 가는 거 아니지? 그렇지? 다들 안 가는 거 맞죠? 그게 정상인 거잖아. 이런 상황, 어떻게 봐도, 어떤 식으로 해석해 봐도 그런 거잖아.

“무슨 오해라도 하신 거면, 천천히 얘기를.”

나는 이 와중에도 대화를 통해 해결해보려 했다. 대화로 해결하지 않으면 무엇으로 해결하겠는가. 나는 힘도 없고, 능력도 쥐뿔만큼 없는 입장인데. 분명 무슨 오해가 있는 것 같기에, 이걸 풀지 않고 이대로 흐지부지 상황을 끝맺었다간 두고두고 밤에 잠이 안 올 것 같았다. 그래서 꺼내본 내 힘겨운 목소리는, 안타깝게도 끝을 맺지 못했다.

여성이 이 골목을 빠져나가려는 듯 앞으로 발을 디뎠으니까. 마법을 사용해 주변을 빠르게 정리한 것이, 한시 빨리 지금의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그랬던 것인 모양.

나는 당혹스러워하는 표정을 지으며, 나를 무시한 채로 옆을 스치듯 지나쳐가는 여성의 팔을 붙잡았다.

“저기요-!”

라고 부르며.

.그리고,

“이거 놔. 감히 누구 몸에 손을 대?”

“!”

나는 그런 나를 돌아보며, 마치 한 마리의 짐승처럼 으르렁거리는 여성의 두 이글거리는 눈빛을 마주해야만 했다. 검디검은 그 두 눈동자는, 어지간히 간 큰 사람이 아니고서야 마주 바라보기 힘들만한, 그런 강력한 카리스마 비슷한 무언가가 있었다. 이제야 나는 머릿속 전두엽을 망치로 두들겨 맞은 듯, 어떠한 사실을 깨달을 수 있었다.

‘고분고분한 대화를 통해 지금의 상황을 해결할 수는 없어!’ 라는 걸.

“짜증나게 진짜.”

탁! 여성이 내 손을 뿌리쳤다. 그리고 저렇게 중얼거리며, 이내 나보다 훨씬 길어 보이는 길쭉한 다리를 앞으로 뻗어가며 골목을 빠져나가기 시작하는데.

광경을 지켜보며, 나는 악이 턱 끝까지 받쳐 오르는 것을 느꼈다. 이렇게까지 억울하고, 분통하고, 화가 나기는 정말 오랜만이다.

내 팔자가 천민에서 노예로 전락해 팔리듯이 이곳의 조수로 들어오게 됐을 때보다도, 지금 이 순간에 나는 더 분노했다.

그야, 지난 18년의 세월 동안 이리 구르고 저리 구르며 동그란 모양에서 네모난 모양이 되어버린 내 자존심이, 이제는 이유 모를 상처까지 받아버렸으니까. 신분 같은 걸로 무시당한 게 아니라, 나, ‘아샤’라는 존재 자체가 ‘구질구질하다’는 평을 받아버린 순간이니까.

지금 내 눈앞에, 너 말이야.

감히, 내, 소중한, 자존심을.

“야!”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거라곤 아무것도 없었다. 귀족? 마법 대학 학생? 사형? 그딴 게 다 뭐지? 알 게 뭐란 말인가. 무서운 것 따위도 없었다. 트럭에 치어 죽는 것보다, 교수형이나 단두대에 목이 뎅겅 잘려서 죽는 것 정도면 오히려 호상이잖아? 니들이 트럭에 치여 봤어? 엉? 내 눈앞에 바로 너, 차에 치여서 죽어 봤냐고. 아니지? 그런 경험 없지? 그런 네가, 나보다 뭘 더 얼마나 겪어봤다고 으스대는 거야?

나는 주먹을 꽉 쥐었다. 내가 대체 왜 이런 수모를 겪어야 한단 말인가? 천민이라고 개무시 당하는 거면 모르겠는데, 내 신분이 천민이란 사실도 모르는 상대방에게 나라는 인격체 자체가 이런 부당한 대우를 겪게 되다니. 그래, 이런 건 절대로 견딜 수 없음이다.

너만 자존심 있는 인간인 줄 알아? 나도 똑같은 인간이라고, 인간!

그러니까, 나도 이제 더는 못 참아!!

견딜 수 없다던 나의 입에서 튀어나온 한마디는 가히 충격적이었다. 나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한심할 정도였다. 이봐, 미친 아샤야. 이런 순간에도 그따위 개드립이 나오니?

어이가 없다. 저 여자보다도 내가 더 미친 인간인 게 틀림없어.

“뭐?”

하지만 그런 나보다도 어이가 없어진 듯, 여성이 골목을 빠져나가다 말고 뒤를 돌아봐왔다. 그리고 ‘저건 무슨 신종 어그로지?’하는 표정으로 나를 쳐다봐오는데, 어라? 잘됐군. 용케 먹혀들었어. 허접한 개소리였지만 떠나가던 이의 발길을 붙잡기엔 충분했던 모양. 나 보기가 역겨워 떠나려거든 내 개드립을 즈려밟고 가라.

나는 그녀에게 당당하게 걸어 다가갔다. 골목 내에 내가 입은 유니폼과 세트로 지급되었던 갈색 구두의 굽이 바닥에 부딪치는 소리가 울려 퍼진다. 또각또각. 그렇다. 이것은 이제부터 내가 여성에게 방금 전까지 겪었던 수모를 고스란히 돌려주기까지의 시간을 재는 스톱워치였던 것이다.

또각, 또각, 또각. 그리고 마침내 0. 나는 여성의 바로 코앞까지 다가왔다. 그리고 나보다 한 뼘은 더 높은 곳에 위치한 그녀의 면상.아니, 얼굴을 올려다보았다. 씩씩하게.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다. 그건 바로, 여성에게 걸어가는 그 잠깐 동안에 내 두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고이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행동거지는 씩씩했는데, 내 얼굴은 그렇지가 못했다.

그렇다. 나는 억울하면 우는 습성이 있었다. 이런 빌어먹을 습성!

아, 한 가지 더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드릴까?

그렇다.

“너, 너, 너가 얼마나 잘났는지는, 모, 모르겠지만!”

나는 울기 시작하면, 말을 더듬는 습성까지도 보유하고 있었다.

이 정도면 나, 이번 인생도 빨리 끝내버리고 다음 생을 기약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진짜로.

아니지. 다음 생이라고 해서 고쳐지는 습관인 게 아니잖아. 그냥 다음 생이고 나발이고 아예 소멸해버리는 게 나을 것 같단 생각이 들어오는 걸? 그치? 그게 낫겠지?

“그, 그렇게 말 막 함부로, 하, 하고! 어! 구질구질하니 어쩌니 하고! 어? 부귀영화는 무슨 부귀영화! 네가 영화를 본 적은 있냐고! 훌쩍.”

앗, 코막혔어. 나는 쿨쩍거리며 여성이 보는 눈앞에서 코까지 먹었다. 쿨쩍쿨쩍. 아, 계속 코가 나오잖아, 젠장!

만약 내가 이번 일로 사형당하지 않는다 해도, 죽어서 땅 속에 묻힐 때까지 오늘 이 순간만큼의 흑역사를 또다시 생성하는 일은 없을 듯하다. 그러하다. 지금 이 순간, 내 생애 최악의 흑역사가 생성되고 있는 순간이라고 보아도 무방했으니.

내 터진 주둥이는 ‘자제? 그게 뭐야?’하는 느낌으로, 계속해서 눈앞의 여성을 쏘아붙였다.

“나는 내, 내가 머, 먼저 부딪혀서. 사과하고, 주, 주워주려고 그런 거였는데. 꺼지라고나 하, 하고. 토 나온다 그러고, 과, 관심 끌려한다 그러고. 누가 네 관심 필요하대? 세상에 너만 잘났어 아주!”

빼액! 아, 마지막 대목은 더듬지 않고 용케 내뱉었다.

어우, 짜증나. 안 더듬으면서 말하고 싶은데, 이미 제대로 훌쩍거리며 울기 시작한 내 목소리는 제대로 나올 생각이 없는 모양. 너 미쳤니? 뇌더러 명령 좀 제대로 내리라고 해봐, 이렇게 웅얼거리면서 다다다 쏘아붙이기도 쪽팔리니까.

아참. 잊고 있었다. 내 뇌는 일을 안 하지?

그럼 뭐, 일 안하는 대로라도 대충 써먹자.

“너, 너 지금 뭐하는.”

여성이 크게 당황하며 내게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오기 시작한다. 그래, 반응을 보이고 있어! 내 목숨이 사형까지 아주 빠른 속도로 다가가고 있는 순간이라고!

이 때다!

받아랏, 나의 헥토파스칼-

“고, 고블린 손톱도! 중급에서, 하, 하급으로 품질이 떨어질 때면, 끄트머리에 아, 아주 작게 균열이 생기기 시작하니까. 그, 그거 보고 내가 알려주려던 건데. 좋은 취지로 말을 해줘도, 지, 지.”

운명의 농간도 이 정도면 고소감이라고

와, 지렸다. 이 정도면 날아라 슛돌이도 울고 갈만한 킥이었어.

흑흑. 이로써 내 인생은 아주 제대로 망했다. 울분을 토해내는 나를, 여성은 종이봉투를 한쪽 팔의 품에 끌어안은 채 멍한 표정으로 응시해오고 있었다. 혹시 이미 머릿속에서 내 사형 날짜라도 잡고 있는 걸까?

그래, 뭐 그러라지. 이미 다 포기했다고, 나. 어흐흑..

“지, 지가 이쁜 건 알아가지고. 이상한 도, 도끼병이나 걸려서는. 너 제정신 아니지?”

“제정신.뭐?”

내가 하는 말들을 두 귀로 듣고도 믿기 힘들다는 듯, 여성의 눈동자가 점점 커져간다. 내가 살아있는 시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비록 천민이었지만, 뭐, 그래. 썩 나쁘지만은 않은 인생이었다! 아디오스!

“이 이상한 기지배야!”

그리고, 대망의 클라이맥스.

“내가 아무리 쥐뿔도 없는 인간이라지만, 같은 여자를 좋아할 정도로 정에 굶주리지는 않았거든!”

“!”

마음 속 깊숙한 곳에서 끌어올려서 토해내듯, 나는 눈앞의 여성에게 고래고래 소리 질렀다.

아, 시원하다. 제일 먼저 든 생각은 바로 이거였다. 상쾌, 통쾌, 마치 10년 묵은 변비를 쾌변하기라도 한 듯한 느낌, 그런 기분.

후폭풍 같은 건 이제 나도 모르겠다. 이렇게 죽나 저렇게 죽나, 어차피 인생은 한 번으로 끝이 나는 게 아니니까. 천민일지 그보다 더한 애벌레로 태어날지 모를 다음 생이나 기약하며 마무리하면 되는 거다.

이미 한 번 죽어봤던 나인 데다가, 이번 생은 미련을 가질 만한 이유도, 이 세상에 홀로 덩그러니 남을 가족 같은 것도 존재하지 않는 입장이기에 이대로 죽어버린다 해도 나는 내 팔자가 여기까지였나 보다-하고 기꺼이 받아들여줄 수 있었다.

해야 할 말도 못하고 끙끙 앓으며 부지하는 목숨보다는, 차라리 화끈하게 사고 쳐버리고 일찍 세상을 뜨는 게 내 기준에서는 더 나았다. 화병으로 죽나, 사형으로 죽나 그놈이 그놈이라고 생각하니까.

이제 쇼는 끝났어. 내 인생은 덤으로 끝났고.

“사, 사형시킬 거면 마음대로 하세요!”

야자모드에서, 다시 존대모드로 돌아왔다. 사형까지 남은 시간동안 유서나 써놔야지.

제기랄! 미련은 없다지만 역시 좀 열 받긴 하네. 어쩌다 내 두 번째 인생도 이렇게 막을 내리게 된 건지.

“날짜 잡히면 연락 주시고요!”

나는 마지막으로 꽥! 하듯 울먹이는 목소리로 소리쳤다. 그리고는 뒤로 돌아, 마법 상점을 향해 성큼성큼 걸어가기 시작했으니.

미안하다, 루이스. 너의 네 번째 조수는 살인마법사의 손이 아니라, 단두대나 교수대를 통해 목숨을 잃을 예정이야. 내 본분을 다하지 못하고 이리 떠나게 되어 저승에서라도 너를 면목이 없다. 크흑.

그리고 안경잡이야, 너는. 이상한 내기 제안 같은 건 집어치우고 영양가 있게 좀 살렴.

나는 속으로 루이스와 안경잡이에게 유언을 남기며, 팔을 들어 올려 옷소매로 눈물을 훔쳐 닦았다. 어차피 유언 같은 거 남길 가족 같은 건 이 세상에 남아있지도 않으니까, 대신 그나마 가까운 인물에게라도 마음속으로 마지막 한마디를 남겨보고 싶었다. 흡, 마지막이라니. 세상 슬픈데?

간만에 이렇게 질질 짜본 듯. 그리고 이게 마지막으로 짠 경험이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며, 앞으로 터덜터덜 걸었다. 마리와 헤어질 적만 해도 내 인생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전개로 나아가게 될 줄은 꿈에도 예상 못했는데. 어쩌다 그 잠깐 새에 내 운명이 이렇게까지 나락으로 곤두박질쳐버린 건지.

이 정도면 막장 스토리를 좋아하는 아침 드라마 감독들도 ‘이런 스토리는 너무 개막장이에요. 저는 캐스팅하지 않겠습니다.’라고 고개를 저을 것 같다.

내 팔자는 어쩜 이렇게 파란만장한 걸까? 대체 왜 이 모양인 걸까. 역시 내가 문제인 걸까? 역시 전생이 좋았는데. 다정했던 가족, 부족한 것 없었던 나날. 모든 게 완벽했는데. 대체 왜 이런 세계에 새로 태어나서는. 차라리 다시 안 태어나는 게 좋았을지도 모르는데, 바보 같이.

내 존재를 부정하게 만드는 씁쓸한 생각들이 들어와, 마음 속 한구석이 텅 비어버린 듯한 느낌으로 축 늘어져 걸어가던 나.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상황은 이상하게 돌아가기 시작했다.

“칸, 진. 붙잡아와.”

“네.”

.잠깐만, 이 골목에 나랑 저 여자 말고 다른 사람이 또 있었나? 아닌데. 뭐야, 그럼? 뒤에서 무슨 이상한 대화소리가 나는.

“데.어억!”

“가시죠.”

자, 잠깐! 이거 뭐야? 뭐하자는 플레이? 나 지금 연행당하냐? 여러분들, 혹시 경찰이세요?

나는 양 팔을 어느 갑툭튀한 두 남성에게 붙잡혀있었다. 빠, 빠르게 복장을 살펴보자. 경찰 제복인 것.일리는 당연히 없고. 자, 잠깐만. 이건 또 뭐야? 학생도 조수도 아닌 것 같은데. 무슨 기사인가? 기사복 같다. 마법 기사인가? 어디서 나타난 거지? 혹시, 은신 마법으로 숨어있었던 거? 그런 거야! 보통 수준의 마법이 아닌데, 그거!

아니, 근데 나는 왜 붙잡은 거지? 혹시 지금 나, 체포당한 거니?

“서, 서, 설마, 즉결처형이에요!”

여태껏 나오던 눈물도 쏙 들어갔다. 눈앞의 인물이 얼마나 대단한 여자인지는 모르겠지만, 방금 전의 나는 사형당해도 마땅할 중죄를 저질렀으므로, 어쩌면 즉결처형이 가능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기에 외치듯 물은 그 말에,

“..”

가, 갑자기 여성이 내게로 다가오기 시작했다. 더불어, 나를 붙잡은 칸과 진이라는 이름의 두 남자들도 그런 나를 데리고 앞으로 걸어가기 시작하는 것이다. 안 돼! 끌려간다! 처형 당해버려어어엇!

“사, 살살 좀!”

끌려가면서 한마디 던졌다. 아이고, 유서 쓸 시간도 없는 거였구나. 매정하기도 하셔라.

나는 눈도 질끈 감아버렸다. 오, 제발 순식간에 끝내주세요. 최대한 덜 아프게요.

“..”

그러나 목에 차가운 날붙이나 서늘하고 날카로운 바람 마법 등이 날아드는 느낌은 들지 않았다. 거의 20초는 눈 감고 있었는데, 죽을 기미가 보이지 않아 슬그머니 눈을 떠보았더니.

헉! 여성의 얼굴이, 바로 내 눈앞에 있다! 언제 이렇게나 가까이!

“왜, 왜, 왜.요?”

뭘 이렇게 빤히 쳐다보는 거지? 그것도 이렇게나 코앞에서. 나는 당황했다. 아까 전까지만 해도 찢어 죽일 듯이 혐오스러워하는 시선으로 노려보더니, 이제는 흥미롭다는 듯 나를 호감 섞인 눈빛으로 쳐다봐오고 있는 게 아닌가.

혹시 이제 곧 죽을 인물이라고 마지막 예의를 보여주시는 거? 어, 음. 이게 무슨 식의 예의인지는 모르겠다만, 진즉에 이런 평화롭고 평범한 태도로 나를 대해줬더라면 내가 버르장머리 없는 짓을 범할 일도 없었을 텐데. 아까 같은 상황에서나 지금 같은 눈빛으로 대해주지 그랬니. 하는 말을 하고 싶었지만, 해서 뭐해. 어차피 엎어진 물인 거.

나는 코나 한 번 더 먹었다. 훌쩍. 그리고 여성의 이어질 말을 기다려보는데.

“미안해.”

“네?”

아침 드라마 감독들이 박수갈채를 보내며 ‘그래, 바로 이거야-!’라고 환호성 섞인 감탄사를 터뜨리는 장면이 머릿속에 그려지는 순간.

내가 잘못 들은 건가 싶어 고개를 갸우뚱거리는데, 여성이 들고 있던 종이봉투 안의 내용물을 하나 꺼냈다.

고블린의 손톱이었다.

“이게 하급 상품이라는 거야?”

왜 묻지? 아까는 듣는 체도 안하고 개무시하더니.

갑자기 왜 이러는 건가 싶어 나는 당황한 눈빛으로 여성을 올려다보았다. 여전히 나는 양팔이 경찰에게 붙잡힌 범죄자마냥 양쪽으로 붙들린 채였다. 아우, 이거 좀 민망한 포즈인데.

“그랬구나.”

싱긋- 하고 미소를 지어왔다! “왜, 왜 이러세요?”

나는 달달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앞선 충동적인 사고로 인해 내 미래는 사형이 분명할 것 같은데, 눈앞의 인물은 갑자기 태도를 바꿔 내게 이상한 말들을 건네어오기 시작한 지금의 상황이 도무지 적응되지도, 이해되지도 않아.

무슨 의도로 이러는 거지? 이해가 안 가는데. 아니, 이 기지배는 어떻게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이해가 안 가는 짓들만 골라서 하는 거지? 새삼 신기할 정도잖냐.

“있잖아. 그럼, 네가 정말 일부러 골목길에서 나와 부딪히려 했던 게 아니라는 거야?”

“.그렇다니까요.”

내가 계속 해명했는데, 너 임마. 들은 체도 안 했었잖아!.라는 말까지 덧붙이고 싶었지만, 이번에도 참았다. 무슨 인내심 테스트라도 하는 듯한 기분인 걸.

“그럼, 네 머리카락 색은 왜 이런 거지?”

“?”

이번엔 이게 웬 해괴한 질문? 도대체가 무슨 생각머리로 내게 이런 심문을 하고 있는 건가 싶어, 전생에서 형사들이 범죄자를 심문하는 내용이 나오던 드라마나 영화 속 장면을 떠올려보다가, 이내 나는 답했다.

부모님 중 한 분이 옛날에 멸망한 어느 서양 나라 민족의 피를 물려받아서 이런 건데요.

“그런 쓸데없는 건 왜 물어보세요?”

응?

자, 잠깐만. 생각이랑 대사가 반대로 나갔어!

헉, 하듯 나는 숨을 들이켰다. 살다 살다 이런 실수를 범하다니, 그것도 이런 중요한 순간에! 나는 잠시 어버버거리다가, 말실수를 바로잡기 위해 허둥지둥 다시 입을 열었다.

“그, 아니. 그러니까. 예전에, 그, 나라에, 서양에 위치한, 그러니까. 그 멸망한 곳에서 물려받은 색이에요. 아, 돌아가신 어머니한테서.”

나 지금 뭐라 떠드니? 순간적으로 당황해서 그런 건지는 몰라도, 머릿속에 떠오른 대답이 순서가 뒤죽박죽이 되어 입 밖으로 튀어나갔다. 이봐, 뇌 친구야. 너 시스템 오류 났어.

하지만 용케도,

“아, 예전에 서대륙에 환이라는 나라가 있었지. 맞아. 그곳 사람들 머리카락도 검은색이었다고 들었어. 모친께 그곳 출신의 피가 흘렀다는 거지? 그러고 보니, 환족 얼굴이 꽤 남아있네.”

“..”

그걸 알아들은 여성. 끄덕끄덕. 너 꽤 똑똑하다? 그걸 해석하다니.

내 대답을 들은 그녀는 이내 알았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아니, 잠깐만. 뭘 알았는데? 죽일 때 죽이더라도, 내 머리카락에 대한 사연은 알고 죽여야겠다던가, 뭐 그런 거야? 진짜로 그런 거?

가늘게 뜬 눈으로 여성의 얼굴을 응시하며 의도를 파악해보려는데, 그런 나를 유심히 내려다보던 그녀가 이내 재미있다는 듯 피식 하며 웃었다.

뭐니? 그 허세 가득한 웃음은. 그런데 왜 네가 하면 간지나 보이는 거지? 어째서? 역시 패션 뿐만이 아니라, 허세의 완성도 얼굴이었던 건가. 이런 허완얼 같으니라고.

그런 생각을 하며 멀뚱히 여성을 올려다보고 있으려니까, 갑자기 그녀가 내게 손을 뻗어왔다. 아앗, 설마 드디어 사형 집행! 내 괘씸한 머릿속을 읽기라도 한 건가? 이렇게나 갑작스럽게!

이번에야말로 끝인가 보다. 다시금 눈을 질끈 감으며 나의 마지막을 기꺼이 맞이하려는데.

오, 오히려 생뚱맞은 부위에서 생뚱맞은 감촉이 느껴져 왔다. 이것은?

“예민하게 굴어서 미안해. 요즘 내 뒤를 졸졸 따라다니며 미행하는 여자애들이 좀 많아져서 말이야. 더군다나 머리카락을 검은색으로 염색하면서까지 관심을 끌려 하는 여자들도 있었거든. 너도 그런 부류인 줄 섣불리 오해했어. 상처받았다면 정말 미안하다. 이렇게 진심으로 사과할게.”

목을 뎅겅 베기는커녕, 어루만지듯 내 머리를 쓰담쓰담해오던 여성이 사과까지 해왔다. 농담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몹시도 진지한 말투였으니.

그 목소리를 듣기가 무섭게 나는 두 눈을 번쩍 떴다. 어라? 여성은 정말로 미안했던 건지 어쩐 건지, 고개까지 숙이며 내게 사과해보이고 있는 광경이 눈에 들어오는데. 이거, 실화?

어리둥절. 상황이 왜 이렇게 되어버린 걸까? 나는 숙였던 스르르 고개를 들어 올리는 그녀를 마주 올려다보았다.

뭐니, 이거? 내가 네 애완견이 되기라도 한 거니? ‘쓰담쓰담’하는 걸로도 모자라서, 갑자기 왜 이렇게 다정한 척 구는 거야? 쥐약이라도 먹었어?

게다가, 여자애들이 너를 왜 미행해? 뭐, 혹시 질투라던가 그런 거? 아니면, 너무 예뻐서 시기심에 해코지하려고 따라다닌다, 이거야? 와, 그런 건 드라마 속에서나 나올 법한 얘기인 줄 알았는데. 진짜면 놀랍다, 야.

“여자들이 질투라도 해요?”

나를 향해 생긋생긋 웃어 보이는 그녀를 향해, 나는 이해하기 어렵다는 듯 고개를 한쪽으로 기울여보이며 물었다. 뭐랄까, 내가 느끼기에 이 사람은 ‘질투’라는 감정만으로는 함부로 미행해볼만한 상대라고 결코 느껴지지 않는데.

그도 그럴 게, 웃고 있는 낯임에도 마주 바라보고 있는 것만으로도 카리스마에 압도되어 어깨가 절로 축 처지고, 몸에는 들어갔던 힘이 빠지고, 목소리는 안마기에 앉은 채로 말하는 사람처럼 떨려서 나오게 만들어버리는 포스를 지닌 인물이었으니. 아무리 같은 여자라 해도, 이렇게나 무서운 사람을 어떻게 졸졸 따라다닐 수가 있지?

이해가 가지 않았기에 물어본 나의 그 말에, 여성은 두 눈을 동그랗게 떴다. 커다란 검은색의 두 눈동자 속에 내 모습이 고스란히 비쳤다. 이런 걸 ‘눈부처’라고 하던가? 눈동자가 흑진주마냥 커다랗고 예쁜 데다, 그 안에 내 모습까지 거울인 양 또렷하게 비치기에 순간적으로 신기하다고 여긴 나.

귀족으로 태어난 주제에, 눈까지 이렇게 예쁘면 대체 어쩌자는 거지? 얘도 루이스와 마찬가지로 세상 혼자 사는 부류인가?.라고 생각하며, 나는 잠시 넋 놓은 채 그녀의 눈동자만을 뚫어져라 응시했는데,

“저기 말야, 네 눈엔 내가 여자로 보이니?”

라고, 여성이 말했다. 응? 잠깐만, 눈 쳐다보느라 못 들었어. 뭐라고?

“네? 뭐라고요?”

“..”

다시 물어보았더니, 이번엔 여성이 그저 생긋 웃기만 했다. 어라, 뭐지. 방금 뭔가 중요한 키포인트가 될 만한 얘기가 지나갔던 것 같은데, 못 들어서 모르겠어.

그런 덕분에 뭐라고 반응해야 할지 모르겠어서 마냥 눈만 깜빡이고 있으려니까, 여성이 허리를 숙여왔다. 점점, 더 깊숙이.

내 얼굴 가까이로.

“자세히 봐봐.”

“?”

너, 너무 가까운데요. 뭘 자세히 보라는 말씀인지. 당신 두 눈동자에 비친 제 모습을 자세히 봐보라는 말씀이신가요? 아, 그렇다면야 기꺼이.

는 무슨. 대체 얘 왜 이러는 거지? 나는 입술이 스르르 벌어지며, 머릿속에 당황이라는 감정이 뭉게뭉게 피어올라오고 있음을 느껴야만 했다. 어떻게 반응해야 해? 자세히 뭘 보라는 거야? 그나저나, 얼굴 너무 가깝지 않아?

앞으로 살짝만 더 기울이면, 이건 뭐 뽀뽀라도 가능하겠는데. 혹시 그런 걸 원하는 건?

“?”

“..”

어, 잠깐만.

뭔가 이상하다. 지금의 나는 눈앞의 여성과 눈동자만 마주 바라보고 있을 뿐인데, 심장 박동 수가 점점 빨라져가고 있음을 느꼈다. 골목길 안이 너무 조용하고 적막해서, 내 심장이 서서히 빠르게 쿵쾅거리며 뛰기 시작한 걸 나뿐만이 아니라 주변 이들도 모두 들을 수 있을 것만 같아.

왜 이러지? 얘도 뇌랑 같이 고장 났나? 심장은 고장 나면 좀 큰일인데. 사인이 사형이 아니라 심근경색이 될지도 모른다는 거잖아. 병으로 죽는 건 역시 좀 그렇다만.

하지만 일단은 인정한다. 찌푸린 표정이 아니라, 살짝 미소를 짓고 있는 여성의 표정은 지나치게 심장에 무리를 줄만큼 치명적이었다. 그래, 너무 매혹적이라는 것이다. 새하얀 피부에다, 턱 부근을 살짝 감쌀 만큼 내려오는 칠흑 같은 검은 칼단발이며, 그 색을 쏙 빼닮은 눈동자와, 오밀조밀 루이스 뺨치게 빚은 듯 붙어있는 이목구비까지.

이제는 이해가 좀 되네. 음, 그래. 이 정도씩이나 생겨먹은 여자라면, 같은 성별인 여자들조차 졸졸 따라다니며 미행을 할만도 해.

“류이 황자님!”

라고 생각하던 순간, 누군가의 부름이 들려왔다. 뒤를 홱 하고 돌아보니, 골목 끝 쪽에서 이쪽으로 달려오고 있는 어느 기사 복장의 남자가 눈에 들어온다. 아무래도 칸과 진이라고 불렸던 내 양옆의 남자들과 같은 소속인 듯해보인다만.

류이 황자님? 그게 누구? 고개를 두리번거리며 그렇게 불릴 만한 인물을 찾아보았다. 없는데? 게다가 황자라니, 그런 어마무시한 인물이 이런 곳에 왜 있어? 아무래도 번지수 잘못 찾아오신 것 같은.

“왜?”

어? 잠깐만.

언니가 왜 대답해요?

자, 잘못 들은 거지? 그렇지? 이번에야말로 진짜 내 귀가 미쳐버려서, 눈앞의 여성이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는데, 멋대로 대답한 거라고 판단해버린 거지? 그치? 빨리 그렇다고 대답해 주!

“무슨 일이야?

“황자님. 방에 이런 게 와있던데요.”

“뭐야, 그건.”

“황자님 앞으로 온 초대장들이랍니다.”

“또?”

나는 까무러칠 듯한 기분이 들어왔다. 지금 내가 꿈을 꾸고 있는 건 아닐까? 알고 보면 지금 내가 서있는 이곳은 꿈속의 어느 한 공간인 것이다. 그런 거야. 그래, 그렇고말고.

그런 게 아니고서야, 이런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겠는가? 뇌의 부위들이 단체로 훼까닥 돌아버려서 똥과 된장을 구별할 능력까지도 잃어버린 인간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이런 개막장스러운 스토리가 정녕 현실이라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고. 불가능, 절대로 불가능!

물론 나도 마법 대학 내에 타국의 황족이 다니고 있다는 소문을 들어본 적이 있긴 해. 근데 그건 딱 한 명뿐이랬다. 유일하게 한 명 있는 존재라고. 게다가 별로 사교적이지 못한 타입이라, 전설 속 포켓몬 같은 이미지가 강한 인물이라고 아도라에게 들었었다.응? 아도라도 포켓몬을 봤냐고? 아니, 이건 그냥 내 비유야.

그런데 그 유일한 존재가, 하필이면 그 많고 많은 학생이나 조수들 중에서 나와 이런 식으로, 그것도 한적한 골목길에서 딱 마주쳐버린다는 건 좀 말이 안 되는 거잖아. 확률로 따져 봐도 그렇잖아? 환생을 열댓 번은 넘게 한대도 일어날 가능성이 개미 오줌만큼도 없을 법한 일이란 말이다.

어떻게 이딴 골목길에서 우연스럽게 황자를 마주칠 수가 있는 건데? 그것도 어째서, 하필이면 내가! 현실성이 있긴 해? 없잖아. 누가 봐도 없잖아. 현실성 이 녀석, 어디로 도망 가버린 건데? 미국 갔어? 갔냐고!

꿈속에서 이런 상황이 벌어지더라도 ‘무슨 이런 개꿈이 다 있지?’라고 생각하며 벌떡 일어나게 되어버릴 것 같은 스토리다. 하물며 이게 현실이라니. 그럴 수는 없는 거다. 일반적인 상식대로라면 말이다.

그런데, 우습게도 상황은 일반적이지가 않았다. 아주 단단히 미쳐버린 듯, 제멋대로 날뛰는 내 운명이라는 자식은 오늘도 나를 당황케 만들어왔으니.

나는 조용히 중얼중얼.

이제는 뭐가 뭔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는데, 거기에 보태어 ‘황자’라는 단어가 튀어나온 그 순간부터 내 머릿속은 이미 제정신이 아니었다. 이젠 하다하다 공작이니 백작이니 떠드는 걸 넘어서, 황족까지 튀어나오는 거냐! 라고 생각하며, 그와 동시에 아연실색한 내 뇌는 부랴부랴 일하기 시작했는데.

그런 뇌 녀석이 가장 먼저 내게 내린 명령은, 다름 아닌 ‘도망쳐, 아샤!’였다.

그, 그래! 도망치자. 이건 진짜 아니야. 이런 전개는 진짜로 말이 안 된다고. 이대로 갔다간 사형보다 더한 꼴을 겪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왔다. 물론 죽음보다 더한 상황이 어떤 것일지는 나도 모르겠는데, 여하튼 그렇게 될 것만 같다. 이 사람들, 무서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 다행히도 나는 칸과 진이라는 남자들의 손에서 자유로워진 상태였다. 그래, 바로 지금이야! 잠시 다른 용건으로 인해 이 사람들의 정신이 다른 곳에 팔려있는 틈인 이 때, 도망쳐보는 거야! 부디 어그로를 부탁해, 초대장들!

슬금슬금 게걸음질을 치며 골목 벽에 딱 붙은 채, 이들의 시선을 피해 골목을 빠져나가보려 했던 나.

“고국에서 온 건 없지?”

“네.”

“그럼 필요 없. 아, 잠깐만.”

!

결국 나는 다시금 꼼짝없이 붙잡혀 제자리로 돌아왔다.

아니, 왜 붙잡는 거야! 아직도 용건이 남은 건가, 설마? 사형 날짜 때문에 그래? 그런 거면 사형 날짜는 나중에 알려줘도 되잖아! 아니면 역시 즉결처형? 꼭 이 자리에서 내 숨을 거둬버리고 싶은 거예요? 응? 진짜 그래!

“왜 가져온 거야? 어차피 안 갈 건데.”

“그냥 소각하려다가, 혹시라도 중요한 초대장이 섞여 있을까 봐 일단은 들고 왔습니다. 혹시 모르니 제가 열어볼까요?”

“아니, 괜찮아. 줘봐.”

아니, 붙잡았으면 왜 잡은 건지 말이라도 바로 해주던가. 붙잡힌 입장인 나는 온몸의 피가 바짝바짝 마르는 기분을 매 순간 1분 1초마다 느끼고 있는 지금이었는데, 칼단발 언, 이 아니라. 황자라 불리었던 이는 느긋한 목소리로 대답하며, 마찬가지인 움직임으로 기사로 추정되는 어느 남자에게서 초대장으로 보이는 뭉치들을 받아들고 있었다.

척 보기에도 고급스럽게 생긴 씰링으로 봉해져있는 봉투들. 초대장이라고 했었나? 뭐, 파티 초대장이나 다과회 초대 같은 거지? 어라. 그럼, 저것들이 다 초대장이라는 거? 뭐가 저렇게 많아. 얼핏 보기에도 열댓 개는 족히 될 것 같다만.

근데 그것들을 꼭 지금 열어봐야 하니? 나 좀 보내주고 확인하면 안 되는 걸까? 하..

“..”

툭.

나의 긴박한 속마음 따위 1퍼센트도 알아줄 리 만무한 예쁜 언.니가 아닌 오빠가, 초대장 뭉치들을 바닥에 던졌다. 손에는 분홍색 봉투의 초대장 하나만 남겨둔 채. 이내 그가 느릿한 움직임으로 조심스럽게 씰링을 뜯었다. 어맛, 손가락 길고 고운 거 보소.

내가 도발했던 대상이 황자라는 신분을 지녔음을 알게 된 순간부터 방망이질 치던 내 심장도, 잠시 그 심박 수가 줄어들며 조용해지기 시작했다. 그래, 망할 호기심이라는 녀석이 ‘어라? 저게 다 뭐야? 무슨 초대장인데?’하며 고개를 빼꼼 들어 올리고 있었기 때문.

초대장이 왜 열 개나 왔다는 걸까? 대체 어디서 저렇게 많이 온 건데? 누가 보낸 거?

살짝 궁금해져버린 나머지, 나는 초대장을 개봉해 내용물을 꺼내는 순간에 슬그머니 고개를 칼단발 오빠의 곁으로 스윽. 들이밀어 보았다.

나는 이 때, 그래서는 안 됐다.

앞으로 죽을 때까지, 나를 두고두고 후회하게 만들어줄 선택이었으니까.

“콜록, 콜록!”

“황자님!”

씰링을 뜯고 봉투를 열어 그 안에 든 내용물인 핑크색 초대장을 꺼내기가 무섭게, 갑자기 그 초대장에서 펑! 하는 소리와 함께 웬 분홍색 연기가 터져 나왔다. 나는 순간적으로 헉! 하며 숨을 들이켰다가, 그만 연기를 듬뿍 마셔버리고야 말았는데. 덕분에 반사적으로 기침이 튀어나왔지만, 그 외에 별다른 반응은 일어나지 않았다.

뭐지, 이거? 혹시 서프라이즈? 누군지는 몰라도 인생 참 화끈하고 재치 있게 사네. 아주 재미있어.

“역시, 한 번이라도 멀쩡하게 보내는 날이 없군.”

“죄송합니다! 그냥 불태워버렸어야 하는 건데.”

아, 재미있다고 평가해야 할 만한 게 아니었던 거? 나는 눈앞의 이들이 보이고 있는 반응에 의아해했다. 뭐지? 아무런 문제도 없는데, 왜 다들 이리 호들갑이란 말인가.

흐음? 알쏭달쏭.

“다음부턴 그냥 가져오지 마. 아니, 받지도 마.”

“하지만 그랬다간 좋지 않은 소문이 날 텐데요. 황자님 신상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수도 있습니다.”

“그럼 받기만 하고 몰래 태워 없애버리던가.”

“아.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황자라는 호칭을 꼬박꼬박 듣고 있는 눈앞의 언니처럼 생긴 오빠는 신경질적으로 인상을 찌푸렸다. 그리고는 이내 들고 있던 초대장을 바닥에 던져두었던 초대장더미 위로 던지더니, 검지와 엄지로 손가락을 딱! 하듯 부딪쳐 마법을 시전하는데.

화르륵- 앗, 불이 붙었다! 그래, 초대장들에 말이다.

백주대낮에 캠프파이어 하는 거야?

“보여?”

“네, 네? 뭐가요?”

갑자기 내게 물어왔다. 뭐가 보이냐고 묻는 것 같은데. 헉, 이건 설마?

방금 한 말, 아무래도 ‘눈앞에 타고 있는 이 초대장들이 보이니? 이게 바로 네 미래야.’라는 말을 돌려서 하고 있는 게 틀림없다. 분명 그런 거지? 그렇지!

“색 있는 연기가 피어오르잖아. 이러면 물건에 마법이 걸려있다는 뜻이야.”

아, 아니었구나. 돌아온 대답은 황자라는 이의 친절한 설명이었다.

그러고 보니, 불타고 있는 초대장들에게서 보라색 연기나, 주황색 연기, 빨간색 연기 등등이 마구잡이로 피어오르고 있는 모습이었는데. 우와! 무지개다! 가 아니고.

이 많은 초대장들에 하나 같이 마법이 걸려있다는 건가? 엄청 신기하다. 이런 광경은 처음 봐.

그럼 저 초대장들을 보낸 사람들은 모두 마법사라는 뜻일까? 정말 그런 거라면, 어지간히도 할 일 없는 마법사들이 보낸 건가 보다- 라고 생각하려던 순간,

“어라, 이건 청혼서 같은데요?”

칸이라는 이름을 지닌 한 기사가 발로 타고 있는 초대장 더미를 살짝 헤집으며 하는 말에, 나는 ‘응!’하는 눈빛을 아래로 던졌다.

지, 진짜잖아! 청혼서를 넣어 보낼 때에만 쓸 수 있는 봉투가 초대장 속에 섞여 있었다. 헐, 청혼서라니. 저런 거 막 태워도 돼?

“그, 그럼 꺼내야죠!”

당황하며 내가 외치듯 말하자, 류이라는 인간은 고개를 저었다. 왜? 중요한 거 아니야?

청혼서로 추정되는 봉투가 점점 까맣게 타들어가고 있는 모습이었는데, 주변에 서있는 이들 중 그 누구도 그것을 빼내려 달려들지 않았다. 뭐지?

“제대로 미쳤군. 청혼서라니, 이게 대체 몇 번째야?”

“정확히 일곱 번째입니다. 프란치아에 오고 나서부터 느끼는 거지만, 이곳의 숙녀 분들께서는 참 당돌한 것 같단 말이에요. 이렇게 된 김에, 황자님. 청혼을 받아주시는 건 어떨까요?”

“네가 대신 장가가면 되겠다, 진.”

이런 게 이들만의 농담인 것인가. 눈앞에서 활활 불타고 있는 청혼서를 내려다보며, 그들은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대화했다. 나는 그런 모습이 살짝 이해가 가지 않았는데, 다시금 고개를 내려 보았을 때 이내 깨달을 수 있었다.

청혼서에도 노란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어. 대체 어떤 여자가 청혼서에도 마법을 건 거야? 이건 좀 굉장하다 못해 무서울 정도다만.

“무섭지?”

“네. 이 정도면 무섭긴 하겠네요.”

응? 나도 모르게 대답했다. 류이라는 이름의 황자가 물어온 질문에, 넋을 놓고 캠프파이어 현장을 내려다보던 나는 중얼거리듯 반사적으로 맞장구를 쳐버린 것.

내가 대답해놓고도 문득 ‘어라?’하는 생각이 들어 고개를 번쩍 쳐들어보니, 내 옆에 서있던 황자라는 놈이 나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고마워, 그렇게 말해줘서.”

나는 별 생각 없이 내뱉은 말이었는데, 이 인간은 꽤 진심으로 내게 고마워하는 듯한 표정과 목소리로 말해오고 있었다. 나는 시선을 회피하려다 말고, 그렇게 말해오는 상대방에게 꼼짝없이 시선을 사로잡히고야 말았다. 여기서 시선을 회피해버렸다간, 예의 없는 인간이 되어버리는 거니까.

이, 이제 여기서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다. 아니, 애초에 상황이 이런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 자체가 내게는 전-혀 계산 밖이란 말이야. 대체 나한테 왜 이런 고난과 시련이? 어째서 내 인생 그래프는 파도마냥 위아래로 요동을 치는 것? 정말이지, 이해가 안 가잖아.

신이 있다면 멱살이라도 잡아주고 싶다. 그리고 소리질러주고 싶다. ‘막장 스토리가 그렇게 좋으면, 내 인생 갖고 장난칠 게 아니라 아침 드라마 각본이라도 써, 임마-!’ 하고.

“전 한 게 없는데요. 고맙다니, 좀..”

“아니, 네 덕이야. 요즘 스트레스 받을 일이 많아서 머리가 어지러웠었는데, 덕분에 정신이 번쩍 들었어. 여러모로 고맙다.”

류이 황자라고 불린 남자는 나를 향해 저리 말하며 미소지어왔다. 계속 볼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이 사람의 얼굴은 정말이지. 마주 바라보는 이로 하여금 팬티를 갈아입게 만들 법한, 그런 소름 끼치게 잘생기고 아름다운 얼굴이었다. 루이스는 그래도 남자다운 면이 있어서 덜한데, 눈앞의 남자는 너무나도, 몹시, 자극적이라 해도 될 만큼 아름다웠다. 여자보다도 더.

남자치고 흔치 않은 단발머리도 미치게 잘 어울린다. 그냥 머리부터 발끝까지 치명적으로 생겨먹지 않은 부위가 없어. 길쭉한 다리에, 적당한 어깨넓이, 작디작은 머리통.

이러니까 인기가 많지. 내가 걸크러쉬 쩌는 보이쉬한 여자로 오해한 것도 이상한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솔직히 이 인간, 나 같은 둔탱이들은 충분히 여자라고 오해하고도 남을 만큼 예쁘게 생긴 얼굴이니까.

만약 여자로 오해받은 게 억울하다면, 눈앞의 이 남자가 탓해야 할 것은 바로 자신의 얼굴이었다. 오해한 남을 탓할 게 아니라, 여자보다도 예쁜 본인의 얼굴을 탓해야 맞는 거라고.

갑자기 화가 치밀어 오른다. 이런 빌어먹을 자식들. 이 학교에는 왜 이렇게 세상 혼자 사는 부류들이 많은 거지? 너무 이기적이잖아! 루이스, 레오니드, 이젠 하다하다 황자라는 놈까지도 이렇게나 잘생겨서야. 이런 현실이야말로, 빈익빈 부익부라는 단어의 실천을 한 치의 빠짐도 없이 행하고 있는 꼬락서니들이 아니겠는가. 부들부들!

속으로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으려니까, 여성.인 줄 알았던 남자는 갑자기 몸을 옆으로 돌렸다. 그리고는 허리를 살짝 숙이며, 나와 눈높이를 맞추더니 이내 내 얼굴을 관찰이라도 하듯 빤히 응시해오기 시작했다. 나도 덩달아 그의 얼굴을 뚫어져라 응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는데.

헉. 이 자식! 이미 앞서 길게 서술하긴 했다만, 다시 봐도 진짜 잘생겼네. 지금 이거, 나 숨 멎어버리라고 일부러 그러는 거지? 그치?

새카만 눈동자에 또 한가득 나를 담아내고 있는 그였기에, 이번에야말로 부담스러웠던 나는 슬금슬금 시선을 회피했다. 더는 마주하고 있을 자신이 없어져버렸거든. 그런 치명적인 외모는 부디 다른 여성들에게 써먹어주길 바라며, 나는 그의 어장 속에 빠져들고 싶은 생각 따윈 추호도 없는 입장으로서 시선을 돌리며 조금씩 뒷걸음질을 쳤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그가 두어 발짝을 앞으로 내딛으며, 내게로 가까이 다가왔다.

그리고는 마치 숙녀를 에스코트하려는 듯, 손을 내밀어오는데. 그래, 마치 잡으라는 듯이. 뒷걸음질 치던 내 발걸음이 그대로 자리에 굳어버렸다.

나는 남자를 쳐다보았다. 내가 당황하며 그저 자신을 멀뚱히 올려다보기만 하자, 그는 내게 말해오는데.

“잠시만 나와 같이 가줄래?”

조수가 어떻게 학생의 손을, 그, 그것도 황자라는 인간의 몸에 손을 댈 수가 있겠니, 이 멍청아!라고 말할 수는 없으니, 나는 더듬어가면서 그에게 주절거렸다. 그러자 이번에는,

“내가 괜찮으니까, 상관없어.”

라고 그는 말하며, 내게 잡으라는 듯 다시금 눈짓을 보내왔다. 아니, 미친. 조수 나부랭이가 학생의 손을 붙잡고 돌아다니는 꼴을 다른 이들이 보기라도 하면, 내 입장이 어떻게 되는지 알기는 하니?

게다가 너, 신분으로 보나 얼굴로 보나, 인기가 아주 작살날 것 같은데. 어째서 내 인생까지 작살내버리려고 드는 거야? 그렇게나 나를 파괴하고 싶어? 그게 너의 파괴본능이야? 응? 닥치는 대로 부숴버리고 싶고, 막 그래? 너의 팬덤들에게 내가 작살나버릴 그 미래가, 네게는 정녕 보이지 않는 거야!

“네..”

.하지만 나는 무능했다. 까라면 까고, 잡으라면 잡아야지 뭐 어째. 눈앞의 상대도 앞선 대화를 통해 파악해본 바, 자존심이나 고집이 만만찮을 것 같다. 이런 상대에게는 계속 거절해봤자 자존심만 더 건드는 꼴이라, 그냥 오케이해버리는 게 나아.

게다가, 불행 중 다행으로 지금 이곳은 한적한 골목길이었다. 어차피 사람은 코빼기도 보이지 않는 데다, 눈앞의 이 남자가 정말로 황자씩이나 되는 인물이라면 나 같은 조수와 한가롭게 손 잡고 쎄쎄쎄나 하며 시간을 보낼 이유 따위가 어디 있겠는가? 무슨 용건이 있어서 이러는 거라면, 아마 금방 끝나겠지.

나는 이렇게 생각했다. 그래. 오늘의 지금 이 순간, 지금 이 시간이 마지막일 거야. 내 팔자에 황족이 웬 말이냐. 루이스만 해도 벅찬데, 황족이라니. 가도 너무 멀리 갔잖아? 그냥 호기심으로 이러는 걸 거다. 그러니까 잠깐만, 아주 잠깐 동안만 해달라는 대로 해주자.라고.

그런데, 손은 왜 내밀어보란 거지? 설마, 잡고 다닐 요량인 걸까? 진짜로?

의아하지만 일단 내 손을 그의 손에 올려보았다. 그리고 그런 내 손을 남자가 부드럽게 쥐듯이 잡아왔을 때. 헉! 이번에야말로 제대로 놀랐다.

그냥 길쭉하고 고와보이는 손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은근히 손바닥이 딱딱해. 이것이 바로 남자의 손인가! 라고만 생각하기엔, 좀 더 딱딱한 감이 있었으니.

혹시 칼잡이인가? 무인 같은 거 아니야? 아, 잠깐만. 그러고 보니까 떠올랐다. 마법 대학에 유일하게 재학 중인 황족은 ‘류’라는 나라에서 건너온 류 황실의 사람이라고. 그리고 그 류라는 나라의 민족들은, 신체적으로 마법력보다 무력이 월등히 뛰어난 타입이었다. 책에서 읽은 적 있어. 혹시 손이 이렇게나 딱딱한 건 그런 이유에서인가? 무기를 많이 잡아서.라던가.

음, 아무래도 이 추측이 맞는 것 같아. 이름이 ‘류이’인 것도, 류국 황실의 사람이라 그런 것인 모양. 류국 언어를 쓰는 것처럼 들리지 않는 건, 언어 마법을 써놓은 상태라서 그런 것 같은데.

아, 그런데 말이야. 마리가 말해주길, 공작 가문 이상의 위험한 인물들은 총 네 명이랬지 않았나?

루이스, 레오니드, 로사, 그리고 유. 어라?

유이? 류이? 헉. 아니지, 이거!

자, 잠깐만. 그러고 보니, 한동안 잊고 지냈었는데. 이곳 프란치아 사람들 말이야.

.‘류’ 발음이 안 된다.

제대로 돌았군. 이거 현실 아니지? 제발 누가 그렇다고 좀 해줘!

“저기, 그런데요..”

와, 씨. 어떻게 이런 경우가 다 있지? 그럼 나, 마리에게서 이름을 듣기가 무섭게 딱 마주쳐버렸다는 거잖아. 게다가 지금의 나는 이런 해괴한 상황에 처해버리기까지. 이 정도면 운명의 농간이라고 봐도 되는 부분? 아리랑 고개로 신이 날아들어 ‘이런 게 바로 네 운명이란다, 아샤!’라고 지저귀는 부분? 인정? 어, 인정.

은 일단 좀 닥쳐보렴, 뇌야. 지금 상황에서 중요한 건 네 개소리 따위가 아니라,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느냐니까.

“어디로 가는 건가요?”

나는 남자에게 손을 붙잡힌 채, 어디론가 함께 걸어가고 있었다. 행선지가 궁금해 넌지시 물어보면서 고개를 뒤로 돌려보았더니. 음. 아무것도 없다. 칸이나 진이라고 불리었던 남자들은 코빼기도 보이지 않았다. 다시 은신마법으로 숨은 모양.

날 어디로 데려가려는 걸까? 아니, 근데 꼭 이렇게 손을 잡을 필요가 있는 거? 그것도 이렇게나 다정한 듯이 부드럽게 잡는 건 또 뭐야, 설레게. 혹시 네 어장 속에 나를 넣으려는 심산인 거니? 난 물고기가 되는 건 싫은데. 천민인 걸로도 모자라서 물고기로까지 만들어버리는 건 좀 너무하잖아. 가뜩이나 몸이 고달픈 인생인데, 마음까지 고달파서야 되겠어?

“여기.”

“?”

나름 심각한 표정으로 어장 속 물고기의 삶에 대한 상념에 잠겨보려니까, 남자가 내 말에 단 두 글자로 대답하며 어느 가게 앞에 멈춰 섰다. 나는 빠르게 간판을 올려다본다. 마법 재료 상점이잖아? 아, 나도 왔어야 했는데, 잘 됐. 이 아니잖아! 지금 대체 몇 시지? 나, 엄청 늦어버린 것 같은데!

시계탑을 봤을 때가 12시 5분이었으니까, 체감 상 아마 지금쯤 12시 반을 넘기고도 남았을 것이다. 폭망이잖아, 이거!

문득 머릿속에 루이스가 ‘첫날부터 이 모양이라니. 역시 너는. 해고야!’라며, 집게사장에 빙의해 나를 갈구는 모습이 주마등인 양 스쳐지나가고. 아아, 그래. 나는 비로소 깨닫는다. 나는 스폰지밥이었던 것이다!.가 아니라.

망했다. X됐어. 지금 당장 이 남자의 손을 뿌리치고 달려가 점심 준비를 시작한대도, 제시간에 맞춰 끝낼 순 없을 거다. 고든 램지가 내게 빙의한다 해도 불가능하다. 그렇다. 난 이미 틀린 것이다.

난 틀렸어. 먼저가!

아, 물론 저승으로 말이야. 이런 내가 살아서 뭐하겠어. 따흐흑!

딸랑-!

끝없는 자괴감의 나락으로 빨려 들어가는 순간, 내 몸뚱아리는 황자를 따라 마법 재료 상점으로 들어서고 있었다. 뭐,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도망쳐버릴 수도 없지 않겠는가.

게다가 나도 재료 상점에 용건이 있는 입장이니, 일단은 잠자코 따라 들어가보자. 상점 문에 달린 종소리가 딸랑딸랑, 하며 종소리의 여운을 남겼다.

“어서오세. 어, 다시 오셨네요? 무슨 일이세요?”

상점 안에는 웬 어려 보이는 남자애가 앉아 있었는데, 우리가 들어오기 무섭게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는 모습. 그리고는 아무것도 모르는 듯한 순진무구한 표정으로 류이를 응시하는데. 아, 쟤가 재료를 판 사람인가?

이곳에 들어온 순간부터 류이는 내 손을 놓았다. 그리고는 다른 쪽 손으로 들고 있었던 종이봉투를 열어서 내용물을 슬쩍 확인하는 시늉을 하는가 싶더니―내가 보고 판단하기엔 분명 시늉이었다―, 이내 말했다.

“재료에 하자가 있는 것 같아서. 바꿔주면 좋겠는데.”

아, 재료를 교환하러 온 거? 근데 나는 왜 데리고 와. 아, 물론 나도 네가 산 것들과 똑같은 재료들을 사야 하긴 한다만, 지금 시간이?

슬쩍 상점의 벽면에 걸린 시계를 바라보았다. 으악! 12시 40분이야.

미안합니다, 주인님. 오늘 점심은 간단하게 햄 샌드위치로 대신하자구요.라는 생각을 하며, 나는 재료만이라도 빨리 사가자고 생각했다. 그리고 한숨을 푹 내쉬다가, 문득 종업원 아이의 얼굴을 뚫어져라 바라보았다. 아니, 정확히는 어쩌다 보니 그와 눈이 마주쳐버려 그리 하게 된 것이었는데.

그는 끽해봐야 내 또래이거나, 나보다 한두 살 정도 어릴 것 같은 앳된 외모였다. 그래서일까?

“네? 하자라뇨. 중급 재료들로 사 가셨던 거 아니세요?”

라고, 종업원 아이가 눈치 없이 시치미를 똑 떼며 저리 말해오는 것이다. 나는 순간적으로 고민해본다. 저건 과연 시치미일까, 아니면 종업원 아이도 진짜 몰라서 저리 말하는 것일까?

결론은 금방 나왔다. 세상에 어떤 마법 재료 상점에서 품질 관리를 허술하게 한단 말인가? 그것도 마법 대학 상가 내에 위치한 상점에서. 분명 상술이야, 이거. 지금 저러는 것도 모르쇠로 잡아떼는 거라고.

“..”

류이가 나를 슬쩍 바라봐왔다. 뭐지? 왜 쳐다봐오는 것이지?

“..”

나도 마찬가지로 그를 빤히 올려다보다가, 이내 무슨 의도로 그가 나를 내려다보는 것인지를 깨달았다.

아, 저거? 거짓말이야. 도리도리! 도리도리!

류이는 고개를 다시 앞으로 돌렸다.

“못쓰겠군.”

.이라고, 중얼거리듯 말하며.

어? 뭘 못쓰는.데? 재료 말하는 건가? 그런 거라면 못쓸만한 게 맞긴 한, 어? 자, 잠시만! 지금 뭐 하려는. 응? 야!

“사기를 쳐도 사람을 가려가면서 쳐야지.”

류이가 곱디고운 손가락으로 자신의 셔츠 소매를 접으며 걷어올렸다. 옆에서 지켜보던 나는 천천히 입을 벌렸다. 뜨아니!

타, 타임. 아니, 너 왜 그런 사악한 미소를 짓고 그래. 씨익- 하면서 웃지 말란 말이야! 그렇게 소름끼치는 표정으로 웃지 말란 말이다. 대체 무슨 짓을 벌이려고!

“..”

너네는 왜 은신 마법을 풀고 그래. 어허이, 돌아가. 다시 은신해! 사라지란 말이야! 제발 사라져! 저리 꺼져!

“소, 손님?”

종업원 아이의 눈동자가 땡그랗게 떠졌다. 지금 이게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상황인지를 빠르게 판단해보려 눈동자를 데굴데굴 굴리고 있는 것도 나의 시야에 포착됐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나는 점점 내 심장 박동이 빨라져가고 있음을 느꼈다. 더불어, 온몸의 열기가 얼굴로 쏠리고 있는 것 같기도 했는데.

헉? 진이 입을 열어 꺼내오는 말에, 그의 말을 앞부분만 듣고도 내 뇌는 순간적으로 비명을 질렀다. ‘끼야악! 처리하긴 뭘 처리해!!’ 하면서.

그리고 이 순간, 갑작스럽게 내 얼굴이 아주 빠른 속도로 뜨거워지고 있음이 느껴졌다. 왜지? 마치 모든 혈관 피가 얼굴로 쏠리고 있기라도 한 것 같은 기분이!

뭐, 뭐야? 이거!

“야!”

몸 속 깊은 곳에서부터 올라오고 있는 듯한 열기를 이기지 못하고, 나는 대뜸 비명 같은 고함을 내질렀다. 이상해. 지금 내 몸, 엄청 이상하다고.

경각심이 번개처럼 떠오른 순간, 머릿속 깊숙한 곳에서는 뇌가 통보해왔다.

‘삐익- 행동을 정지합니다.’ 라고.

“응?”

류이가 화들짝 놀라며 나를 다시 내려다봐오는데, 나는 다급히 종업원 아이를 ‘처리’하기 위해 앞으로 나서려는 진의 다리에 태클을 걸어버렸다. 샤샥!

진이 내 다리에 걸린 후 크게 휘청하는데, 가까스로 넘어지지만은 않은 그가 이내 허리를 엉거주춤 숙인 자세로 나를 올려다봐왔다. 갈색 눈동자에서 황당함이 있는 그대로 묻어나오고 있어.

진의 맞은편, 즉 류이의 왼쪽에 서있던 칸도 당황하다는 눈빛으로 나를 쳐다보고 있는데. 그런 와중에, 나는 실실 웃었다.

나는 외치듯 알바 소년에게 말하며, 류이에게서 재빠른 손놀림으로 재료가 든 종이봉투를 낚아챘다. 그리고는 그것을 든 채, 성큼성큼 카운터로 다가가 그것을 보란 듯이 탁! 올려놓으며 쏘아붙였다.

“이따위 상품을 어떻게 중급이라고 속여서 팔수가 있어? 미친 거니?”

“그, 그게 무슨. 분명 중급 상품들이에요. 뭔가 착오가 있으신 듯한데.”

“착오? 착오는 머리에 피도 안 마른 네가 거스름돈 셀 때나 하는 거고. 어이, 꼬맹이. 지금 내 앞에서 밑장 빼는 거냐? 엉? 너 이 자식, 지금 누굴 속이려고!”

이유는 모르겠지만, 아까부터 아주 갑작스럽게 뱃속에서 무언가가 부글부글 끓는 듯한 느낌이 들어왔다. 그래서인지는 몰라도, 나는 저지르고 있는 지금의 행동들을 더욱 주체할 수가 없었는데.

나는 주섬주섬 봉투 안에 손을 집어넣고, 고블린의 손톱을 꺼내기 위해 뒤적였다. 음? 찾았다!

“이걸 보고도 그런 소리가 나와아!”

촤악! 나는 고블린의 손톱을 흩뿌렸다. 하늘에서 손톱이 빗발친다!

“소, 손님-!”

“너도 눈이 있으면 좀 봐. 이게 어딜 봐서 중급이지? 넌 여기에 이 작은 균열이 보이지 않는 거야? 응? 그래? 눈이 많이 안 좋나보구나. 가루다족 눈알이라도 하나 사주랴!”

“죄, 죄송해요, 손님! 제가 잘못했어요! 그러니 일단 진정하시고!”

“진정은 개뿔이!”

나는 들고 있던 종이봉투를 휙 집어던졌다. 그 안에 들어있던 재료들이 상점 바닥에 나뒹굴고, 더불어 어린 종업원의 안색도 그 꼴을 바라보며 점점 새파래져가고 있었다. 마치 나를 루이스의 조수로 만들어버렸던 그 문제의 용비늘이 지녔던 색처럼.

지금 나, 너무한 거 아니냐고? 맞아. 좀, 아니. 많이 너무한 거 같아.

사실은 나도 그만하고 싶었다. 정말로 간절하게, 그만 멈추고 싶었단 말이다. 그런데 몸이 주체가 안 돼.

뭐지? 지금 나, 대체 왜 이러고 있는 거지? 몸이 뜨거워. 머리가 터질 듯 흥분되고, 점점 어지러워지기 시작하는 게.

머리가 터져버릴 것 같다. 더는 아무런 생각도 하고 싶지가 않아졌어. 나는 눈의 초점이 풀리기 시작하며, 시야가 차츰 어지러워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머릿속에는 어느 한 가지 생각만이 모든 사고를 지배해나가고 있었으니.

나 있잖아, 이 세상 모든 걸 다 내 것으로 만들고 싶어.

그래도 돼?

“무, 무슨 일. 응? 유, 유이 황자님 아니십니까!”

상점 내부의 문이 열리더니, 이내 그곳에서 주인으로 추정되는 중년의 뚱보 아저씨가 튀어나왔다. 그는 류이를 알아본 듯, 등장하기가 무섭게 그에게 인사를 올리는데.

사실 이때쯤, 이미 나는 거의 제정신이 아니었다. 반쯤은 풀린 눈으로, 타국의 황자가 이곳에 와있는 이유를 알지 못해 당황하고 있는 그 주인아저씨에게 취객마냥 씨부려댔으니.

“아이고, 사장님. 지금 이 알바생이 말입니다. 하급을 중급이라고 속여서 팔았거든요? 그것도 누구한테? 바로 황!족!한테. 와아, 정말 대단해! 어떻게 황족한테 사기를 칠 수 있지?”

“딸꾹!”

“배짱도 좋으셔. 아주 죽고 싶은 거지? 너어- 이렇게 된 김에, 내 손에 죽어볼래? 내가 아주 그냥, 화끈하게 죽여줄 수 있는데에-헤헷.”

“저, 정말이니, 헨리? 황자님께. 그러니까, 유이 님께 ‘그 수법’으로 재료를 판 거야?”

“죄, 죄송해요. 딸꾹! 흐어엉! 저는 그게, 딸꾹! 황족씩이나 되시는 분인 줄 모르고!”

상황은 그야말로 파국 그 자체. 술병만 들고 있지 않을 뿐이지, 양 볼에 마치 홍시 두 개를 갖다 붙이기라도 한 듯이 얼굴에 홍조가 가득한 나와, 딸꾹질을 하며 펑펑 울기 시작한 재료 상점 알바생, 그리고 쩔쩔매며 어쩔 줄 몰라 하는 주인아저씨까지.

내가 만들어낸 상황은 그야말로 굉장했다. 그래, 굉장한 개판이었다.

나는 음흉하게 실쭉 미소 지으며, 조수 유니폼의 넥타이라 할 수 있는 리본을 풀었다. 그리고 그 리본을 손가락으로 집어 든 채, 빙글빙글 돌리면서 소년에게로 가까이 다가갔다. 소년과 상점 주인의 표정은 가히 공포에 질린 수준이었다.

후훗- 내 마음에 쏙 드는 걸? 나를 위한 표정이야, 그거.

“난방비 절약을 위해, 내가 단단히 혼내 줘야겠.”

“실례했습니다. 이번 재료 건은 없었던 일로 하죠.”

“응?”

마음에 드는 그 표정을 더욱 괴롭혀주고 싶다는 생각에 그것을 향해 걸어가던 중, 지금까지 계속 들어서 조금은 익숙해진 누군가의 목소리가 귀에 꽂혀오는가 싶더니, 갑작스럽게 내 몸이 공중에 붕 떴다.

어? 뭐야! 이제 막 재미 보려고 한 참인데!

누구인가 싶어 고개를 옆으로 돌리며 나를 안아든 이의 얼굴을 확인해보니, ‘그’였다.

류이 황자였던 것이다.

“이거 놔!”

“진, 문 열어.”

“네!”

버둥버둥. 공주님 안기를 당한 채로 팔다리를 마구 휘저어 몸부림을 쳐보지만, 날 안아든 이는 꼼짝도 하지 않는다. 뭐냐,이거! 왜 방해해! 망할 자식.

“놔! 놓으라고! 포돌이한테 신고할 거야! 콩밥이 무슨 맛인지 모르지? 안 먹어봤지? 먹어보게 되는 수가 있어, 너! 이거 빨리 놔아아!”

“그 연기를 마셔버린 줄은 몰랐는데. 이번 건 약효가 좀 센 것 같군. 단단히 작정하고 보낸 모양인데?”

“그러게나 말이에요.”

무슨 대화들을 하는 거야. 하아, 정말 짜증나. 더워. 몸에서 땀이 나는 것 같다.

나는 이리 버둥 저리 버둥대다가, 날 안아든 이가 꼼짝도 하지 않으니 포기한 채로 축 늘어져버렸다. 그래, 뭐 안고 가보라지. 네가 가봤자 어딜 가겠어?

근데, 넌 누구니?

“하아. 더워.”

짜증나. 더워. 짜증나. 더워!

똑같은 생각만을 반복하고 있으려니까, 날 안은 남자가 웬 건물로 진입했다. 여긴 어디? 너는 누구? 날 어디로 데려가는 거야? 나한테 관심 있는 거야?

그나저나 너무 더워.

단추를 풀었다. 몇 번째 단추지? 아, 이젠 모르겠어.

“열어.”

“네!”

나를 안아든 채로 남자가 어느 방에 들어왔다. 그리고 나를 침대에 다급히 내려놓았다. 으응? 웬 침대. 아아, 여긴 어디인지 이젠 생각하고 싶지 조차 않아. 모든 게 귀찮다구. 무료해.

단추를 또 풀었다. 여기도 덥네? 난방비 아낄 줄 모르는 거야, 이곳 사람들? 정말이지..

“너희들은 주문 해제약을 구해와. 일단 난 해제 마법을 시도해볼 테니까.”

“알겠습니다!”

단추를 하나 더 풀었다. 왜 더운 느낌이 가시지 않는 거지? 더 풀어보려 아래를 더듬거려보니, 단추가 잡히지 않는다. 아, 어쩌라는 거야. 더워 죽겠는데. 답답해. 미쳐버릴 것 같아.

“조금만 참아. 곧 풀어줄,”

“찾았다.”

“!”

나는 눈앞에 보인 것의 옷깃을 끌어당겼다.

문득 아래를 슬쩍 보니 내 윗옷은 다 풀어헤쳐진 속옷의 상태였지만, 지금 같은 상황에서 중요한 건 그런 게 아니었다. 지금 이 공간에 있는 건 무엇? 나, 그리고.

“너, 좀 예쁘다.”

그래, 바로 너.

나는 방긋- 미소 지었다.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이 사람, 마음에 들어. 나보다도 예쁘잖아?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무척 마음에 들었어.

그러니까,

“내 걸로 만들어도 돼?”

“아, 아니. 옷은 대체 언제.”

“으응? 된다고? 알겠어.”

“뭐?”

나는 입꼬리를 끌어올렸다. 그리고 눈앞에 보인 예쁜 것을 향해 두 손을 뻗어 붙잡아, 그것의 목덜미를 한아름 끌어안으며 내게로 당겨왔다.

“아!”

그가 짤막한 소리를 내며 내 품에 들어왔다.

뚜두둑! 하는 소리와 함께, 어느 작고 가녀린 물체들은 힘없이 떨어져나갔다. 남성이 입고 있는 조끼에 붙어있어야 할 그것들은, 어느 한 여성으로 인해 본래 있어야 할 자리를 잃고 바닥으로 직행했으니. 투두둑, 하는 소리와 함께 ‘단추’들은 바닥을 나뒹굴었다.

단추의 주인, 조끼를 입고 있었던 남자.

류국 황제와 황후 사이에서 태어나, 류의 제 3황자로서 살아온 ‘그’.

류이였다.

“윽. 아니, 덩치도 쬐끄만 게 무슨 힘이!”

남자의 잇새로 신음 같은 한마디가 새어나왔다. 삐쩍 마른 여자라 생각했는데, 자신을 향해 가해오는 그 힘이 생각했던 것 이상이었다. 어떻게 이리 작은 체구의 여자에게서 이런 힘이 나올 수 있단 말인가? 무력이 특기라는 류국 출신인 그에게도 가히 충격적일 정도였다.

단정하게 다린 하얀 셔츠, 그와 대조되는 검은 정장 바지, 셔츠 위에는 흰색의 세로무늬가 있는 회색의 정장 조끼. 남성치고는 흔치 않은 헤어인 검은 단발을 하고 있는 그의 현재 차림이었다.

깔끔하면서도 지독한 완벽함. 보는 여성들로 하여금 섹시하다는 감상이 들게 하는, 더불어 머릿속으로는 ‘저 하얀 셔츠를 한 번만이라도 벗겨보고 싶어!’ 라던가, ‘저 완벽함을 내 손으로 산산조각 내버리고 싶어!’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그는 그런 패션의 소유자였고, 이 공간에 들어올 적에만 해도 분명 그런 차림이었다.

하지만 이제 그의 그런 패션은 눈 씻고도 찾아볼 수 없었다. 그에게는 과거의 차림이었다고 표현해야 옳을 듯. 네 개의 단추들이 바닥을 굴러다니고 있는 지금, 이전의 깔끔하고 모자란 곳 하나 없이 완벽하기만 해보였던 류국 3황자의 모습은 현재의 공간에서 더는 찾아볼 수가 없었다.

지금 이 순간, 그는 오로지 먹잇감이었다. 이내 그의 회색 정장 조끼는 여성의 손에 의해 벗겨져, 바닥에 무참히 내팽개쳐진다.

“나랑 놀아요! 내가 화끈하게 해줄게. 하아, 좋다. 당신도 덥죠? 그쵸?”

“이봐. 난 안 더워. 그러니까 이 손 좀 놓고..”

류이는 대답을 하다말고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이곳 양호실의 호화스러운 침대에 누워, 자신이 입고 있는 셔츠의 멱살을 잡은 채, 풀려버린 초록색 눈동자로 자신을 올려다봐오며 끊임없이 유혹하고 있는 어느 한 여성을.

손을 놓아보라 하는 말 따위, 그녀에게는 들리는 것 같지도, 이해하고 있는 것 같지도 않다. 결국 하던 말을 끊어버린 류이는 그런 상대 위에 차마 엎어질 순 없으니, 필사적으로 팔을 침대 위에 짚은 채 저항하고 있었다.

그렇다. 침대 위에 한쪽 무릎만 엉거주춤 올린 채, 그는 애매한 자세로 그녀에게 속박당해 버린 듯한 광경이 되어버린 것이다.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이렇게 되어버린 상황이 어이가 없어 헛웃음이 나왔다.

저항하는 와중에도, 눈앞의 여성이 왠지 자신보단 어려 보인다고 류이는 생각했다. 나이도 이름도 누구의 조수인지도 모르는 눈앞의 여자아이를, 그는 어떻게 감당해야 하는지에 대해 감이 서지 않았다.

그는 태어날 적부터 황자였으며, 주변에는 그를 챙겨주는 사람만이 가득했지, 그가 누군가를 신경 쓰고 챙겨야 할 일이나 경우 같은 건 결코 없었다. 그저 그는 고고하고 완벽하게 자라주기만 하면 됐다. 그리 살아온 입장이었기에 더욱이 그에게는 지금의 상황이 난처했다.

하지만, 아무리 난처해도 지금의 상황을 해결해야 한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그는 해야 할 일은 반드시 처리하고야 마는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

류이는 최대한 침착하게, 정신을 집중하며 해제 마법을 시전했다. 마법으로 인한 중독 증상이 일어났을 때, 가장 확실한 효과를 볼 수 있는 최상급 해제 마법이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 마법에 효력은 없었다. 그가 반사적으로 이전에 열어보았던 그 초대장에 효과가 아주 강한 시약류를 섞은 마법이 걸려있었을 거란 판단을 내렸을 때, 침대에 드러누워 있는 여성의 머릿속에는 다른 판단이 내려지고 있었다.

이 예쁜 걸 가져버리자! 라는.

“나, 가질래. 당신.”

“자, 잠깐. 멈추!”

자신을 끌어안으려 드는 여성으로 인해, 류이의 말은 끝을 맺지 못했다. 초대장에 흥분제―소위 발정제라고도 표현하는―를 섞거나, 흥분 마법을 걸어 보내는 경우는 한두 번이 아니었으니. 그런 마법에 이미 당해본 전적이 있는 그는 자신에게 견고한 방어 마법을 걸어두었었다.

하지만 그런 함정을 자신이 아닌 타인이 당해버리는 오늘 같은 상황은 예상치도 못한 돌발적인 것이었던지라, 설상가상으로 해제 마법까지 통하지 않는 지금의 사태로 인해 그의 머릿속은 점점 하얘져가고 있었다.

어떻게 해야 하지? 기절시킬까? 이제는 자신의 셔츠까지 잡아 뜯으려하는 여성에게 무참히 휘둘리며, 류이는 그리 생각했다. 그래, 기절시키자.

“나, 너무 덥다구. 그러니까 좀 식혀달란 말이야.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어?”

“너 같으면 듣겠냐. 잠시만 자고 있어.”

그는 미간을 살짝 찌푸리며 정신을 집중했다. 이번에는 기절 마법을 시전한 것이었지만.

이게 웬걸? 먹히지 않았다. 류이가 초대장에 기절 저항 마법까지 걸었다는 것을 알아차리던 그 때, 여성의 막무가내인 손길은 그의 셔츠를 거세게 끌어당기고 있었으니.

투둑! 하는 소리와 함께 셔츠 단추까지도 떨어져나가던 그 순간, 류이의 머릿속에는 자신 앞으로 퇴학 서류가 떨어져 내리는 상상이 스쳐지나갔다. 그런 일은 류 황실의 망신이다!

그는 반 경악하며 자신의 옷깃을 풀어헤치려 드는 여성의 두 손목을 다급히 붙잡아 그녀의 머리맡으로 제압했다. 다행히 류국의 사람인 그에게 있어, 비록 흥분제를 먹었을지라도 그런 여성 하나의 몸을 제압하는 데에는 그리 큰 무리가 없었다.

하지만 이제부터가 문제였다. 뭘 더 어찌해야 하지? 해제 마법도 기절 마법도 안 통한다면, 해제약을 먹이거나 약효가 사라질 때까지 놔두는 수밖에는 없다. 전자는 아직 자신의 수하들이 돌아오지 않았으니, 일단 택할 수 있는 방법은 후자였다.

류이가 속박 마법을 시전하려 여성의 두 손목을 잡고 있던 팔에 힘을 풀면서, 정신집중을 위해 미간을 살짝 찌푸리던 그 때.

자신의 손아귀로부터 여성의 손목이 쏙 빠져나갔다. 그리고는 말릴 틈도 없이,

“너무해, 너.”

“!”

그녀가 대뜸 중얼거리듯 말하며, 그의 목덜미를 홱! 하듯 낚아채어 자신의 얼굴께로 확 끌어당기는 것이 아니겠는가. 류이가 아연한 표정으로 자신 아래의 여성이 샐쭉 웃고 있는 표정을 내려다보는데, 이어서 여성이 상체를 살짝 일으키며 그의 귓가에 속삭였다.

그녀의 뜨거운 숨결이 와 닿았다.

“혼자만 이렇게 예쁘고. 치사하게..”

그 나른한 목소리에, 류이는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다.

마침 바깥에서 우당탕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무엇에 홀리기라도 한 사람처럼 멍한 표정으로 그가 자신 아래에 깔린 듯 누워있는 몽롱한 눈빛의 여성을 내려다보고 있었을 때, 양호실의 문이 박차듯 열리며 익숙한 얼굴의 두 명이 허둥지둥 들어왔다. 이내,

“황자님! 해제약 갖고 왔, 엄마야!”

“헉.”

눈앞에 펼쳐진 에로스러운 광경에 장난스런 타입인 진의 입에서는 괴상스런 비명이, 비교적 과묵한 칸의 입에서는 다급히 숨을 들이키는 소리가 튀어나왔으니.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황자님!”

진의 외침에, 가뜩이나 하얀 류이의 얼굴이 더더욱 하얘졌다. 그제야 지금의 광경이 남들의 눈에 어떻게 보일지를 깨달은 그는 자신을 붙잡은 여성의 손길을 빠르게 떼어내며, 재빨리 침대로부터 두어 발짝 멀어졌다. 다행히도 여성은 침대에 널브러진 채 일어날 생각이 없어보였다.

류이는 자신의 두 수하들을 향해 몸을 돌리며 말했다.

“그런 거 아니야.”

“화, 황제 폐하와 황후 폐하께서 지금 일을 아신다면 분명 큰일이!”

“내가 한 게 아니라니까?”

“아이고, 내가 이런 꼴이나 보려고 황자님 호위 기사직에 지원한 게 아닌데! 옷이나 좀 정리하고 그런 말씀을 하세요!”

“..”

타인이 없는 자리에서는 수다스러워지는 진이 떠들어대는 말 한마디 한마디를 들으며, 류이는 단추를 잃어 엉망이 된 자신의 셔츠자락을 정리하다 말고 일순간 느꼈다. 자신의 심장이 언제부터인가 미친 듯이 쿵쾅거리며 뛰고 있었음을.

진의 저 깐족거리는 말마디에 화가 난 건가? 아, 그건 아닌 것 같다. 다른 이유인 듯하다. 아무래도 저 여자아이가 보인 돌발적인 행동 때문인 걸까? 아마도 그런 것이겠지.

지금 같은 상황에서 안 놀라는 사람이 이상하다. 그는 그리 생각했다. 그랬는데.

뒤에서 들려오는 나른하고 도발적인 목소리에, 류이는 무심코 뒤를 돌아보았다. 검은 머리카락을 침대 위에 마구 흩트린 채, 더운 듯 벗을 게 더 없는지 자신의 몸을 더듬는 여성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아차, 하고 생각하며 그는 그녀에게 가까이 다가가 재빨리 이불을 덮어주었는데.

그 직후, 그는 자신이 무언가 이상함을 깨달았다.

“어? 황자님, 얼굴이 빨개지셨는데요?”

“..”

“여, 역시! 그렇고 그런 거죠? 무슨 이상한 짓이라도 하려고 하신 거죠?”

“..”

“이 파렴치한!”

평소대로였다면 저렇듯 눈치 없이 까불거리는 진의 주둥이를 어떤 방식으로 틀어막아줄지를 궁리했겠지만, 지금 이 순간 류이에게는 그 어떤 생각도 들어오지 않았다.

류이는 다급히 그녀에게서 시선을 거뒀다. 자신의 몸이 보이고 있는 지금의 반응이 자신조차도 이해가 가지 않아, 그는 손바닥으로 이마를 짚었다. 머릿속이 아득해져오고 있었다.

이상하다. 내가 이럴 리 없다. 지난 20년 간 단 한 번도 보인 적 없던 반응이, 왜 지금 이 순간에, 그것도 하필이면 저런. 뭔가 잘못된 게 틀림없다. 그런 거야. 분명히. 그런 걸 거야.

이 순간, 류이의 머릿속에 마지막으로 든 생각이었다.

날이 좋아서, 날이 좋지 않아서, 날이 적당해서..

그 어떤 좋거나 궂은 날에도, 그는 한결 같이 책을 읽었다. 비가 오는 날에는 실내의 도서관에서, 비가 오지 않는 날에는 실외의 대학 정원에서.

분수대로부터 들려오는 물이 쏟아지는 소리를 감상하며, 오늘도 ‘그’는 벤치에 앉아 독서를 하고 있었다. 그런 그에 대해, 이곳 마법 대학을 다니는 학생들의 개중에는 ‘매일 책만 읽는 것 같은데, 어째서 성적이 좋은 거지?’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있었다. 그는 전교 1등을 놓친 적이 없었기에.

그러나 그들의 의문에 ‘그’는 답해줄 의향이 없었다. 이유라고는 없으니까. 그저 그는 남들보다 뛰어날 뿐이었다. 그리고 그는 몰랐다. 자신이 남들보다 뛰어난지를. 그의 관심사라고는 오로지 독서와 마법 실력의 정진이었다. 가문을 위해, 또 자신을 위해.

그런 ‘그’의 이름은, 루이스 레플리카였다.

“저기 말야- 루이스. 저번에 파티에 초대했었는데, 안 왔더라? 조금 섭섭했는데..”

“..”

“다음번에는 와줄 거지? 공작부인께서는 와주셨단 말이야. 으응? 다음에 초대할 땐 꼭 와주는 거다? 약속이야.”

“..”

“치잇, 루이스! 대답 좀 해줘.”

오늘도 그는 어김없이 주변에 꼬여드는 영애들을 병풍 취급하며 독서에 매진하고 있었다. 영애들이 하나 둘씩 근처에 더 다가오거나 말거나, 지나가다 말고 그 광경을 본 남학생들이 ‘루이스 저 자식 저러고 있는 거, 진짜 꼴 보기 싫단 말이야.’라고 떠들거나 말거나. 그 모든 것들은 그저 그의 관심사 밖이었다.

루이스의 시선은 오로지 책이라고 불리는 종이 더미 위의 문자들로만 향해 있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영애들 중 하나가, 책의 제목을 슬쩍 확인해보고서는 그에게 물었다.

“루이스, 그 새로 왔다던 조수랑은 어때? 괜찮나 봐?”

“..”

그는 시선을 슬쩍 그 영애 쪽으로 던졌다. 그리고 생각했다. 내 조수에 대해서는 왜 묻지?

그는 조수라는 주제에 대해 민감했다. 조수를 잃은 경험이 자그마치 세 번이나 되다 보니, 네 번째 조수가 된 그녀에 대해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에게는 다소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고 보니, 그 조수가 또 안 보인다. 재료를 사러 가라고 보냈더니, 몇 시간째 감감무소식이었다. 혹시 신변에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걸까? 아니면 단지 조금 늦는 것뿐인 걸까.

자그마치 한 시간 동안을 독서만 하던 루이스가 비로소 시선을 돌려오자, 그 시선을 받은 영애의 볼이 순식간에 달아올랐다. 다른 영애들은 그런 그녀를 부러움의 눈길로 쳐다봤다.

그리고 이 순간, 그녀들의 머릿속에는 ‘조수 얘기를 꺼내야겠구나!’하는 생각만이 가득해져오고 있었으니.

“루이스, 이번에 온 네 조수는 신분이 천민이라면서? 가문에서 그런 조수를 일부러 붙여주신 거야?”

“맞아, 천민이라던데. 루이스한테 천민 조수가 가당키나 한 얘기야? 그렇지, 루이스?”

“공작 각하도 차암. 아무리 위험한 조수직이라지만, 천민은 좀 너무했다. 그치, 그치?”

“그러니까 말이야. 어차피 죽을 자리라 해도, 적어도 평민은 돼야지.”

신분이 천민이건 귀족이건, 어차피 똑같은 사람인 것을 뭐가 그리 다르다고. 저들끼리 대화하고 대답하는 목소리를 들으니, 루이스는 절로 환멸감이 들어오는 것을 느꼈다.

그러나 그 감정도 잠시, 그는 다시금 시선을 아래로 내렸다. 그리고 생각해보았다. 내 조수는 왜 돌아오지 않는 걸까? 걱정해보아야 하는 부분인 걸까? 루이스는 고민했다.

그러나 자신의 조수는 생각보다 야무진 성격인 듯했으니, 벌써부터 어떠한 위험에 빠졌을 것 같지는 않다. 그리고 앞선 경험들로 미루어봤을 때, 벌써부터 자신의 조수에게 죽음의 위협이 닥쳤으리란 생각은 들지 않았다. 아카데미 시절부터 목숨을 잃었던 그 조수들은 하나 같이 자신과 몇 개월은 함께 지낸 후에 목숨을 잃었으니까.

그 아이가 이곳에 온 날로부터 이제 고작 2주도 지나지 않았다. 그러니 벌써부터 위험할 일은 없어. 그리 판단하여 다시금 관심이 문자로 향해버린 루이스로 인해, 그의 관심을 사로잡을 만한 키워드를 알아냈다 생각한 영애들은 삽시간에 실망감에 빠져버리는데.

그 순간, 다른 방향이 시끄러워졌다. 루이스를 제외한 영애들은 다들 그 소리가 난 방향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 그 소란스러움은 점점 루이스가 위치한 정원 중앙으로 가까워져오고 있었다 .

“뭐지? 왜 저렇게 시끄럽. 어? 유이 님 아냐!”

“헉, 진짜? 이런 시간에 정원에는 웬 일로 나오셨대!”

“와, 이렇게 보는 거 엄청 오랜만이야. 진짜, 저분 비율 좀 봐. 미친 거 아니야?”

영애들의 관심사가 자신이 아닌 다른 이에게로 이동했지만, 루이스에게는 그 또한 중요한 게 아니었다. 자신에게 중요한 것은 오로지 지식과 독서, 그리고 가족이었다. 그 외의 모든 것은 그에겐 그저 무의미했다. 누군가에게는 이기적으로 보일 수 있겠지만, 그에게 있어 ‘중요한 것’이란 그런 의미였다.

그것은 조수라는 직책에 있었던 이들도 예외는 아니었다. 그들은 ‘지켜야 할 사람’이 될 수는 있어도, ‘소중한 사람’까지는 될 수 없는 것이다. 그는 예전에도 그러했고, 지금조차도 그랬다.

“유이 님! 대체 어떤 학생한테서 그런 몹쓸 짓을 당하신 거예요? 네?”

“아니, 어떤 미친 기집애가 유이 님을 건든 거야! 말씀만 해주세요. 제가 가서 아주 단단히 혼쭐을 내드릴 테니.”

“유이 님! 어느 미친 여자가 옷을 벗기려 했다는 게 정말 사실이에요?”

“사실이래, 그거. 저기, 혹시 그 여자 이름이 뭔지 아세요? 어느 가문인지는? 유이 님? 유이 님!”

냉철하고 확실한 성격만큼이나 다른 이들보다 몇 배로 뛰어난 집중력을 지닌 루이스였으나, 주변이 몹시 소란스러워지기 시작하자 더는 독서에 집중을 할 수가 없었다. 그는 조용히 책을 덮으며, 독서할 장소를 옮기려 했다.

그리고 그는 벤치에서 일어났을 때, 비로소 깨달았다. 어째서 주변이 그토록 시끄러웠고, 곁에서 영애들이 대놓고 말을 붙여도 흔들림 없이 책에 집중할 수 있었던 자신이 어째서 지금만큼은 그럴 수 없었던 것인지를.

류국의 3황자, 유이. 그가 바로 자신의 앞에 와 있었다.

그는 말을 걸어왔다.

“네가 루이스 레플리카지? 학생회장이라던.”

“..”

루이스는 생각했다. 이 사람이 내게 말을 걸 만한 이유가 있나?

천재라 불리는 그답게 두뇌회전이 빠른 만큼, 찰나의 순간 동안 루이스의 머릿속에는 수십 수백 가지의 경우의 수가 떠올랐다. 타국 황족인 그와 자신의 접점에 대해 알아보려 한 것이다.

그러나 없었다. 유이와 자신은 이곳 마법 대학에 입학한 뒤로, 대화를 나눠본 적조차 단 한 번도 없는 사이였으니까. 그 어떤 수도 떠오르지 않았다. 무슨 용건인 거지?

“네.”

루이스는 대답했다. 아주 짧고 간결한 한 문장, 아니, 한 글자였다.

“너, 오후에 있을 수업은 못 들을 것 같아.”

자신과 마주보고 있는 유이 황자가 말해왔다. 키는 한 170 중반쯤 될까. 자신보다는 조금 작았지만, 얼굴이 굉장히 작아 누구보다 신체적인 비율이 뛰어나다는 평을 받고 있는 그의 얼굴을 루이스는 잠시 응시해보았다. 여자보다 예쁜 남자라는 소문이 있던데. 헛소리만은 아니구나, 라고도 생각하며.

그리고 이내 물었다.

“왜죠?”

루이스의 물음에, 유이는 지체할 시간이 없다는 듯 빠르게 답해왔다.

“네 조수, 내가 데리고 있거든. 지금 상태가 좀 많이 안 좋아.”

루이스는 놀랐다. 상당히 크게 놀라서, 들고 있던 책까지도 떨어뜨렸다. 그의 머릿속에는 이내 한 가지 생각만이 가득해지기 시작했다. 매우 빠른 속도로, 그의 냉정한 이성에 몹시 큰 영향력을 끼치며.

상태가 안 좋다고? 이곳에 들어온 지 고작 일주일 지난 이런 때에, 벌써부터 위험한 일이 일어났단 말인가? 미처 예상하지 못했는데. 아직 제대로 된 일처리 솜씨도 보지 못했고, 좀 더 제대로 된 얘기도 나눠보지 못했는데. 크게 다쳐버렸다는 것인가? 내가 안일하게 생각해서, 그 아이가 다쳐버렸다는 건가?

루이스의 안색이 하얘졌다. 그 모습을 지켜본 유이가 다소 미묘한 표정을 짓는가 싶더니, 이내 갑작스럽게 루이스의 손목을 낚아채듯 잡았다. 그리고 그를 잡아끌었다.

“따라와.”

유이가 말했다. 마음이 불안해진 루이스는 그가 이끄는 대로, 그저 순순히 따라갔다.

“유이 님은 조수가 없잖아. 아마 그런 거 아닐까? 왜 있잖아. 루이스의 조수라면, 저번에 아처랑 싸웠다던 걔 말하는 건데.”

“뭐야, 그럼. 고작 천민 신변에 문제가 생긴 걸로 저 두 분이 저렇게 달려가신다고? 그럴 리가 있어? 혹시 천민이 아니라 무슨 공작가의 여식이라던가, 그런 거 아니야?”

“에이, 설마. 그런 거일 리가. 공작씩이나 되는 가문의 여식이 조수로 들어 올 리는 없잖아.”

“그것도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면, 어째서 유이 님까지 저리.”

루이스 레플리카를 귀찮게 하는 것이 취미인 어느 두 영애들의 곁을, ‘그’는 스쳐지나갔다. 신분이 높고 낮음을 가려가며 어느 누군가가 지닌 생명의 가치를 저울질하고 있는 그 모습이, 그 말들 하나하나가 거슬린다. 역겨워. 니들 같은 게 뭐라고.

‘그’는 입꼬리를 끌어올리며 비틀린 미소를 지었다.

교내에서도 기피 대상 1위로 낙인이 찍힌 자신임을 잘 알고 있기에, 그는 복도를 가로질러 정원으로 빠져나오는 동안 누구에게도 붙잡히지 않았다. 누구도 그에게 아는 척을 하려 들지 않았다.

‘그’는 오히려 그게 편했다. 이 모든 환경은 일부러 만들어낸 자신의 결과물이었다.

“아!”

고의는 아니었으나, 정원 입구에 들어서던 중 빠져나오던 어느 남학생 두 명의 무리와 어깨가 부딪혔다. 곧바로 신경질적인 표정을 지으며 자신을 바라봐오는 상대를 향해, ‘그’는 더듬거리며 사과했다.

“미, 미안해..”

“앞 좀 제대로 보고 다녀!”

“으, 으응.”

“진짜, 멍청하게 생겨가지고는.”

두 명의 남학생들이 툴툴거리며 멀어지는 동안, ‘그’는 정원에 들어서며 생각했다.

질겅질겅 씹다 뱉은 나가족 눈알 같이 생긴 것들이, 지금 누가 누구 외모를 지적하고 있단 말인가? 실소가 절로 나왔다. 역시, 그의 판단은 옳았다.

마법을 걸어놓은 두껍고 불투명한 안경을 쓰고 다니는 것이 다행이었다. 이것이 아니었더라면, 자신은 이 학교에서 조용히 살아갈 수 없었을 것이다. 확신할 수 있었다.

“지긋지긋한 곳이야, 정말.”

아무도 들을 수 없을 만큼 나직한 목소리로 중얼거리며, 그는 매일 같이 루이스 레플리카가 앉아서 책을 읽는 한 벤치로 다가갔다. 아래에는 책이 떨어져있었다.

그, 안경잡이는 그것을 주워들었다. 그리고 책의 앞면에 쓰여 있는 제목을 읽었다.

[하인에게 좋은 주인이 되기 위해 지켜야 할 것들, 저자- 요한 헴스워드.]

“따라오지 마세요!”

나는 소리쳤다.

컴컴한 골목길 안에서, 나는 달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런 나의 뒤를 쫓아오는 누군가가 있었다. 그 누군가의 신발이 바닥에 닿을 때마다 들려오는 둔탁한 발소리가, 나로 하여금 건장한 체격의 남성임을 짐작케 했다.

나는 뛰었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 뛰었다. 지름길이라 생각했던 골목길이 지금 이 순간만큼은 저승길이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엄마 말을 듣는 건데. 으슥한 골목길이 아니라, 큰길로 다니라던 그 말을 듣는 거였는데.

그러나 이미 상황은 벌어진 후였다. 나는 정체불명의 남자에게 쫓기고 있었고, 내 이름을 외쳐 부르지 않는 것을 보아하니 그는 내게 건전한 의도로 접근해오고 있음이 아닌 게 분명했다.

나는 달렸다. 미친 듯이 달렸다. 나를 쫓아오던 누군가도 달렸다. 나를 잡기 위해 달려왔다.

마침내 내 앞에 골목길의 끝이 보이기 시작하고, 하늘에서 내려온 구명줄을 발견하기라도 한 사람처럼 환희에 찬 표정을 지으며 큰길로 빠져나오던 그 순간.

“아샤!”

누군가 이상한 이름을 불렀다. 아샤? 그게 누구 이름이지?.라고 생각할 틈이 없었다. 야간자율학습이 끝난 이후라 밤 10시가 족히 넘은 시각이었는데, 주변이 너무나도 밝았다.

그랬다. 어느새 나의 코앞까지 라이트를 켠 대형 덤프트럭이 다가와 있었던 것이다. 왜 덤프트럭이 이런 시간에 돌아다니고 있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하여튼 덤프트럭이었다.

나는 멍하니 나를 향해 달려오고 있는 트럭을 응시했다. 그 안의 운전석에는. 동그란 안경을 쓰고 있는 누군가가 존재했다. 저런 대형 덤프트럭 운전수라기엔 좀 젊어 보이는데. 일단은 그게 문제가 아니었다.

그런 이가 운전하고 있는 트럭의 속도는 줄지 않는다. 아, 이대로 나는 죽겠구나.

눈을 질끈 감아버리려던 그 때,

“야!”

“!”

이번에도 누가 나를 불렀다. 이름이 아니라 ‘야’라고만 한 것이었지만, 나를 향해 부르는 것임을 알아차릴 수 있었다. 이유는 알 수 없었다. 그저 그냥, 그 목소리가 어디선가 들어본 적이 있었던 것만 같았기에 나를 향해 외친 것이라 확신했다.

하지만 어디에서 나를 부르고 있는 건지는 모르겠다. 애초에 내 시선은 트럭만을 향해 있었다.

트럭이 불과 내 몸에 닿기까지 2m정도를 남겨둔 그 짧은 찰나, 누구의 것인지 모를 그 두 명의 목소리가 그저 캄캄하기만 하던 사방을 크게 울렸다.

“죽지마-!”

그들은 그리 외쳤다.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은 말을 동시에 한 것이다.

“응?”

눈을 뜬 나의 첫마디였다. 죽기 직전이었는데, 눈을 감는 게 아니라 떠버렸네? 뭐지, 나. 트럭에 치였던 걸까? 아무래도 그랬겠지? 피하기에는 너무 가까운 거리였으니까.

눈동자를 데굴데굴 굴려보았다. 잠시 흐릿하던 시야가 곧 또렷해지며, 정면의 풍경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다. 여긴 어디, 나는 누구?

이내 우아한 금테로 아리송한 무늬가 그려져 있는, 아주 비싸 보이는 천장이 제일 먼저 보였다. 어라? 뭐야, 저거. 요즘 병원 천장은 저렇게 화려한가? 아니, 그럴 리가. 병원은 아닌 것 같고. 집인가? 아니, 그것도 아니야. 우리 집 천장에는 저런 거 없는.

“정신이 들어?”

“!”

응! 이건 누구야. 나는 두 눈을 말똥말똥 뜬 채로, 목소리가 들려온 방향, 즉 침대에 누워있는 내게 말을 건네어오는 누군가가 있는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웬 남성인 것 같은데. 그 남성은 방금 전까지 책을 읽고 있었던 듯, 그것을 덮어 한 손으로 들더니 이쪽을 향해 걸어오기 시작했다. 이내 나는 가까워진 그 남자의 얼굴을 확인하기가 무섭게, 두 눈이 휘둥그레졌다.

헐, 대박 잘생겼어! 연예인인가? 아니, 연예인이라기엔 너무 혼혈처럼 생겼는데. 혹시 모델? 아, 아니지. 혼혈 연예인일 수도 있잖아. 응? 잠깐, 그것도 이상한데? 혼혈 연예인이 지금 나와 같이 있을 이유가 없잖아! 아니, 이것도 아니지. 저 사람이 누구냐를 따지기 이전에, 여긴 어딘데? 난 왜 여기 있는 거고?

지금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인 거지?

“몸은 좀 괜찮나, 아샤?”

“에? 저, 저요?”

나더러 물어오는 듯했다. 아샤라니, 날 왜 그렇게 불러? 내가 언제부터 김아샤가 된 건데. 아, 일단 이름은 둘째 치고.

그의 물음에, 이제야 나는 내 몸이 땀에 의해 흥건히 젖어있는 상태임을 알아차렸다. 뭔가 온몸이 엄청 축축한 느낌인데, 이게 물이 아니라 내 몸으로부터 나온 땀임을 알아차리는 건 그리 어렵지 않았다. 본능적인 감이었다. 조금 끈적거리고 있었으니까.

근데, 나 왜 푹 젖어있는 거? 더워서 그랬던 것이라고 생각하기엔, 그것도 이상하다. 분명 지금 날씨는 겨울일 텐데?

“누구세요?”

나는 눈앞의 남성에게 물었다. 다시 봐도 잘생겼어. 그런데, 웬걸? 이렇게나 잘생겼는데 왠지 별로 놀랍지가 않다.

분명 평소의 나 같았으면, ‘미, 미친! 대박! 여, 연예인이세요! 이름이 어떻게 돼요? 어디 소속사세요? 데뷔는 언제? 나이는? 성별은? 국적은!?’하면서 미친 듯이 날뛰었을 게 분명한데, 지금은 이상하리만치 차분했다. 그래서 더 의아해. 내가 이런 굉장한 미남을 눈앞에 두고서, 이런 차분한 반응을 보일 수 있을 리가 없는데. 왜지? 어째서?

그러고 보니, 뭐랄까. 이 남자, 어디선가 봤던 것 같은 얼굴이었다. 아주 얼굴이 한 땀 한 땀 수놓은 것 같은 게, 원빈도 울고 가겠다 싶을 만큼 반반하게 생겨먹은 저 이목구비는 둘째 치고. 선명한 황금색 머리카락에 푸른색 눈동자라니.

무슨 판타지 소설에서 종이를 스크롤마냥 찢고 튀어나온 인물처럼 생겨먹었는데, 이상하게도 너무 익숙했다.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던 평범하디평범한 18살짜리 여고생에게, 이런 이국적이고 낯설게 생겨먹은 인물이 왜 이리 익숙하게 느껴진단 말인가? 하물며 TV속에서도 본 적 없는 얼굴이.

뭔가 엄청 이상해. 혹시 지금 이것도 꿈인가?

찰그랑-

“.어?”

꿈인가 싶어 내 볼을 꼬집어보기 위해 팔을 얼굴께로 가져오려 했다만, 무언가로 인해 저지되었다. 그제야 나는 고개를 슬그머니 머리맡으로 올려보았으니.

.그 위에 보인 것은, 내 양 손목을 구속하고 있는 묵직한 쇠고랑이었다. 어억! 뭐야, 이거-!

“끼야아악! 살려주세요!”

나는 고래고래 소리 질렀다. 미쳤어, 미쳤다고! 지금 상황, 이게 뭐냐고! 역시 범죄의 현장인 거지? 그런 거지? 혹시 나, 골목길을 달려서 도망치다가, 결국 트럭에 치어버린 후에 납치된 걸까? 그래, 그런 게 틀림없어!

그런 게 아니고서야 내가 이런 이상한 장소에, 게다가 이런 괴상한 꼬락서니로 묶여있을 만한 이유가 없잖아! 그렇잖.

아!

끼익-

공포에 질려 엉엉 울어버릴 듯한 기세로 몸을 이리저리 마구 뒤틀어대던 나. 그렇게 어부에게 갓 잡힌 물고기마냥 퍼덕대고 있으려니까, 지금 이 장소의 입구로 추정되는 커다란 문이 열려왔다.

그리고 누군가가 들어오는데.

“왜 이렇게 소란스럽지? 깨어났나?”

웬 단발머리에 정장을 깔쌈하게 차려입은, 언.니가 아니라 오빠인가? 아, 남자인 것 같은데. 여하튼 상당히 쌔끈하게 생겨먹은 웬 남자가 묻듯이 말하며 이곳으로 들어왔다. 저 사람도 납치범인가? 납치범이라기엔 좀. 머리통도 연예인마냥 쬐끄만 게, 몹시 잘생긴 것 같은데.

요즘은 저런 얼굴을 한 사람들도 납치를 하나? 연예인이나 할 것이지, 왜 사람을 납치하고 자빠졌대? 그래서 무슨 이득을 얻는다고. 헉, 잠깐만. 이거 혹시, 인신 매매 같은 거 아냐?

머릿속으로 별별 범죄에 대해 다 떠올려보고 있으려니까, 남자는 나와 금발 남자가 있는 이곳까지 성큼성큼 걸어왔다. 키는 그리 크지 않은 것 같은데, 걸음이 엄청 빠르네? 신기하게.

나는 눈을 동그랗게 떴다. 대체 누구일까? 이 사람들. 역시 납치범인가?

“누구세요? 다들?”

흥분이 가라앉았다. 아니, 오히려 두 번째 인물이 들어오던 그 순간부터 잔뜩 흥분했던 심장이 싸늘해져버렸다 해도 될 만큼 빠르게 식어, 다행인지 불행인지 나는 차분해질 수 있었다.

자, 생각해보자. 지금 나는 여기서 왜 이러고 있지? 저들은 대체 누구인 거고, 또 여긴 어디인 거? 너무 이상한 상황이잖아, 지금. 엄청 말이 안 된다고.

왜 학교 마치고 집에 돌아가던 길에 이상한 사람에게 쫓기다가, 트럭에 치인 후에 깨어나 보니 이런 풍경이 눈앞에 펼쳐져있단 말인가? 이게 말이 되는 상황인 건가? 난 전혀 아니라고 보는데. 용의 눈으로 봐도, 3D로 본대도 이런 상황은 좀 아니다 싶다만.

하지만 쇠사슬로 속박되어있는 지금의 내 상태를 보아하니, 아무래도 범죄 쪽으로밖에 생각이 닿질 않는다. 그럼, 역시 납치인 건가?

하지만, 이들 둘 다 납치범이라고 생각하기에도 좀 그런 게.

.어떻게 같은 숫자의 눈, 코, 입이 달린 사람이라는 종족인데, 저들만 마치 사람이라는 자신의 존재를 부정하기라도 하듯 저렇게나 잘생겼을 수가 있는 거지? 야, 이건 진짜 미쳤잖아. 말이 안 돼. 지금 이거, 알고 보면 납치된 게 아니라 트럭에 치어 천국에 온 것일지도 모른다.

그래, 이 사람들은 천국의 천사인 거고. 뭐, 천사처럼 보이진 않았다지만 얼굴이 엄청 잘생겼으니까. 어? 잠깐만. 가만 생각해보니, 납치보다 왠지 이게 더 신빙성 있는 듯한데.

진짜 나, 천국에 온 건가? 천국에 올 만큼 착한 일을 하고 살진 않았다고 생각했는데. 아, 하긴 지옥에 가기엔 그만큼 나쁜 짓을 저지르지도 않았으니까 천국에 오는 게 당연한 건가? 그래, 그런 것일지도.

엄마, 아빠, 그리고 언니랑 오빠들. 미안해, 나 먼저 천국에 오게 돼서.

하지만 여긴 엄청 좋은 곳인 것 같아. 적어도 내 눈한테는..

“.얘,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표정이 좀 이상한데.”

“저도 모르겠군요.”

두 천사들이 대화한다. 우와, 신기. 잘생긴 천사들도 말을 해요! 천국에서 편지는 못 쓰나? 엄마한테 보내주고 싶은데. ‘엄마, 천국에는 엄청 잘생긴 천사님들이 내 병간호를 해줘. 쇠고랑을 채우긴 하지만.’

“아샤, 지금 상태가 좀 어때? 머리는 괜찮아?”

.응? 아샤가 천국에서의 내 이름인 건가? 천사 중 정장 차림을 한 단발머리의 천사가 내게 물어왔다. 졸지에 아샤가 돼버린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고말고요.

이번에는 내가 그들을 향해 물어보기로 했다. 아무래도 저런 얼굴들을 하고서 범죄자일리는 없다는 확신이 들었다. 범죄자도 아니고 이곳이 대한민국의 어느 한 공간인 것 같지도 않으니, 역시 내가 내릴 수 있는 답은 단 하나.

여기는 천국이다!

“댁들은 천사님이신 거죠?”

나는 해맑게 빵긋 웃어 보이며 물었다.

그러자, 두 천사님들 중 이번에는 금발의 천사가 ‘하.’하는 한숨을 대뜸 내쉬어오는 것이 아니겠는가. 어라? 왜 한숨을 쉬는 거지?

의아하단 표정으로 둘을 번갈아 보고 있으려니까, 단발 천사님이 금발 천사님에게 말했다.

“.당분간 해독약 꾸준히 먹여야겠다, 너.”

해독약? 먹여? 무슨 소리들이지, 저게. 나한테 해독약을 먹인다는 건가? 내가 지금 무슨 독에 중독돼있는 상태라는 거야? 아, 그래서 땀을 이렇게나 많이 흘린 건가.

나는 무거운 쇠사슬로 머리맡에 손목을 묶인 상태인지라 몸을 일으키기 다소 힘든 자세였기에, 누운 채로 둘의 모습을 번갈아 보았다. 두리번두리번. 히야, 진짜 아래서 보는 이런 각도로도 턱살 하나 흠잡을 데가 없네.

천사님들은 턱마저 슬림하고 깎은 듯 우아하시구나, 라고 생각하던 그 때.

“흥분 마법과는 상성이 안 좋은 체질인가 봐. 이런 기억 상실 부작용까지 오는 케이스는 흔치 않은데.”

.라고, 단발 천사님이 말했다. 응? 기억 상실이라니, 그건 무슨 소리세요? 천사님아.

눈을 크게 뜨며 고개를 갸웃거리자니, 금발머리 천사가 이상한 표정을 지었다. 마치, 뭔가 한심한 존재를 바라보기라도 하는. 그런 듯한. 뭐냐, 그 눈빛?

“손이 많이 가는 조수로군요.”

조수는 또 뭔데. 그나저나, 너 지금 나 무시하는 거? 이런 건방진 천사님이 다 있나!

어쩌면 내가 천국 최초로 천사의 멱살을 잡은 영혼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던 순간.

“?”

단발머리 천사가 내게로 가까이 다가왔다. 그리고는 상체를 슬그머니 90도 정도로 숙이며, 내게 가까이 고개를 들이밀어 오는 것이 아니겠는가!

헉, 심장이 두근두근. 쿵쾅쿵쾅! 이미 죽은 거라면 또 죽을 일은 없겠지만, 나는 천사님의 얼굴이 심장에 몹시 해롭다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그 해로움으로 인해 내가 천국에서조차 비명횡사해버리는 건 아닐까하고 생각했는데. 천국에서 죽으면 어디로 가게 되는 거지?

“나, 기억 안 나?”

“.넹?”

천사님이 물었다. 기억이 안 나냐니, 제가 댁처럼 잘생김 뿜뿜하는 천사님과 무슨 해프닝이라도 있었던 건가요? 저는 지금 이 순간이 그쪽과의 첫 만남인데?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라서 어버버거리자니, 단발 천사님이 말을 이었다.

“갖고 싶다며.”

“.뭐, 뭘요?”

“나.”

단발 천사님이 싱긋, 하고 미소 지었다.

나는 입을 헤벌렸다. 제가 언제요? 제가 그런 말을 했던 적이 있나요! 그런 기억 따윈 없는데!

아, 물론 이런 예쁜 천사님을 가질 수 있다면 한 트럭을 갖다 준대도 대환영이었다. 하나도 빠짐없이 챙겨, 죽는 날 내 관 속에까지 가지고 들어갈. 아, 난 이미 죽었구나. 그래, 하여튼 나로서는 이런 미남이라면 일단은 대환영이긴 하다만.

기억이 안 나냐니? 이 물음은 좀 이상하다. 요즘은 천사들에게도 치매가 걸리는 시대인 건가? 기억이 날 게 뭐가 있어. 난 당신을 오늘 처음 만났는데.

하지만, 일단 대답은 해야겠지. 나는 되물었다.

“기억은 안 나는데, 갖고 싶다고 하면 주나요?”

천사를 갖게 되면, 어떤 점이 좋은 거지? 머릿속으로 그런 생각을 해보기 시작하던 순간.

단발 천사가 ‘헉’ 하는 표정을 지었다. 그런 단발 천사의 옆에서, 금발 천사가 슬며시 입을 열어 말하길.

“흥분 마법이 덜 풀린 것 같군요.”

이번에도 저게 무슨 소리인지 이해할 수 없어, 나는 인상을 확 찌푸렸다. 그리고 생각했다.

이곳의 천사님들은 왜 이렇게 개소리를 잘해? 하나도 알아들을 수가 없잖아, 정말.